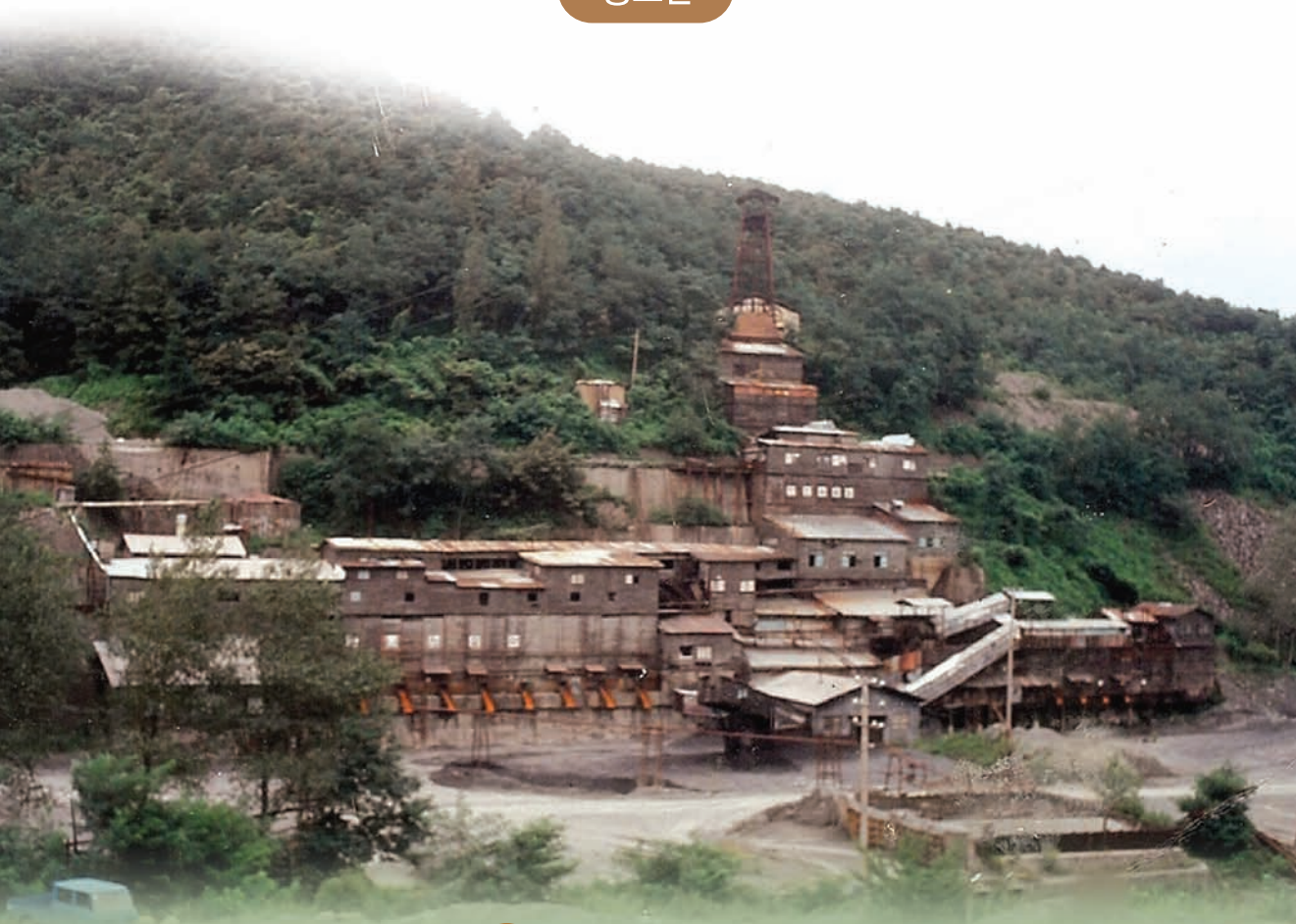




# 양양철광산의 문화사

증보판



양양문화원



사진으로 보는  
양양광업소의 어제와 오늘  
1954~2023년



양양광업소 사택 전경 (백기석 제공 1984. 9)



##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박 상 민

양양문화원은 1971년도에 설립된 이래 향토사의 발굴 및 조사와 보존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때 양양의 경제를 이끌었고, 조국의 근대화와 대한민국이 철강산업의 강국이 되는데 초석을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한시대를 풍미했던 양양 철광산이 값이 싼 외국산 철광석이 들어오게 되자 채산성을 이유로 1995년 폐광이 되었습니다.

폐광이 되자 광부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모두 떠나게 되고 주인을 잃은 광부들의 사택과 그 즐비했던 상가, 극장, 목욕탕 등은 유명 건물이 되자 광산시설물들과 함께 모두 철거가 되어 양양 철광산의 문화자체가 소멸되어 갈 무렵인 2012년도에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 각종 자료의 수집과 생존해 계시는 광부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의 광산촌의 생활과 문화를 정리한 “양양 철광산의 문화사”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후 10여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초판본의 책자가 모두 소진 되고 2016년부터 양양의 향토기업인 맥산그룹이 기존 광업권에 대한 일체를 인수하여 연간 40만톤의 철광석을 채굴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양양 철광산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양양문화원에서는 생존해 계시는 광부들에 대한 증언의 보충과 초판본의 오탈자 등의 수정을 거쳐 증보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본 “양양 철광산의 문화사”가 초판본처럼 잊혀져 가는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 역사의 보존과 전승에 많이 활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증보판의 발간을 위해 애써 오신 양양문화원 부설 양양학 연구소 연구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1970년대 장승리 마을전경 (이규삼 제공)



장승리 아랫마을 침전지 전경 (이규삼 제공)



1958년 이전 통근버스 (상공부직할 양양철산)



1968년 버스 승차권 (선광과 이상역)



1958년 이전 사무실 모습



1960년대 봉급을 수령하는 모습



폐광 후 쌀 창고 (2009. 2. 7)



폐광 후 분석실, 노조사무실, 서류창고 (2010. 6. 10)





광산 극장은 1964년개관하여 운영 중  
1969. 12. 22 화재로 전소되었음 (백광현 제공)



전소된 극장 터로 좌측은 유아원이고 우측은 목욕탕 건물 (2011. 9. 10)



폐광 후 사택 모습 1 (2009. 2. 8)



폐광 후 사택 모습 2 (2010. 5. 12)



폐광 후 광부들의 사택 (2010. 10. 29)



1973년 원낙희 군수 방문 (이정인 제공)



1989년 정명시 군수 방문 (이선권 제공)



제2회 철문화축제장 전시물들 (김봉기 제공 2012. 6. 30)



장승1리 마을전경 (2012. 12. 25)



장승2리 마을전경 (2012. 12. 16)



박봉균 제공 (2009. 2)



장승3리 마을전경





탐동 서선사 터 답사  
(단국대 박물관장 정영호 박사, 고경재 전 문화원장, 양동창 문화원장) 2012. 11. 22



박정희 대통령이 선광장을 사찰하는 모습 (1961년)



선광장으로 진입하는 디젤카 1950년대 (리수실 제공)



1970년대 선광장 (장정룡 교수 제공)



1962년 선광장 (리수실 제공)



1962년 수선작업 (리수실 제공)



1958년 이전 탐동 근로자



1958년 이전 탐동 부인 근로자

1958년 이전 도목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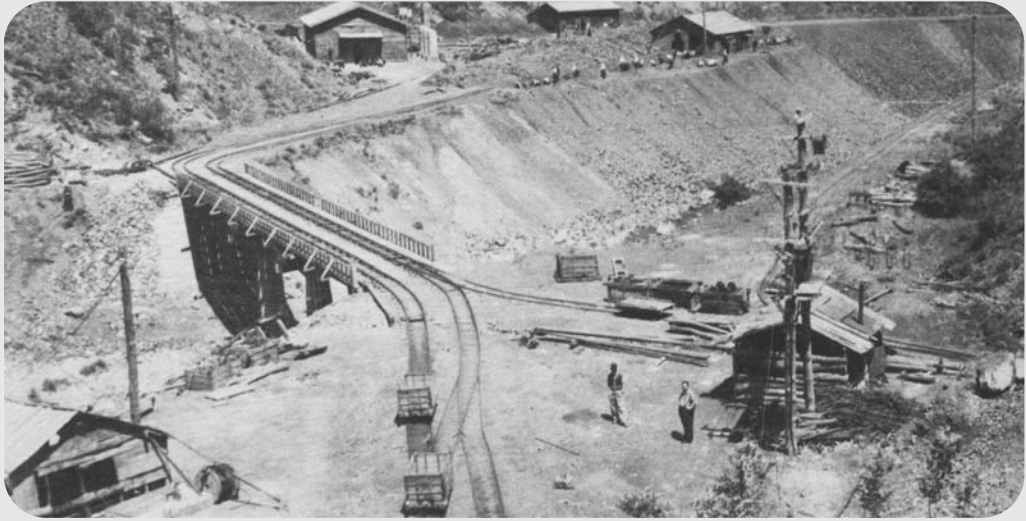
1958년 이전 수로 공사



1958년 이전 도목갱 근로자

현재 도목갱 (2012. 11. 26)





1958년 이전 논화, 양양갱-선광장 연결교



현재 논화갱



현재 양양갱 매몰지 (2012. 11. 18)



1958년 이전 사갱교



1958년 이전 사갱 근로자



사갱댐 배수구 (2012. 1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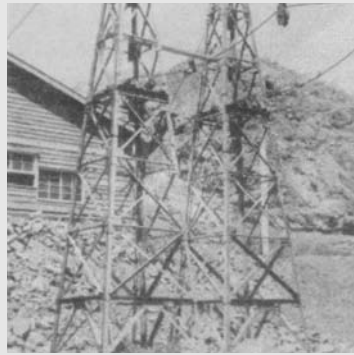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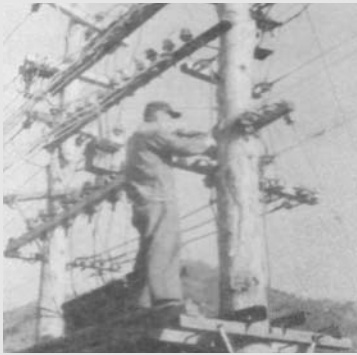
강내 착암



조사과 측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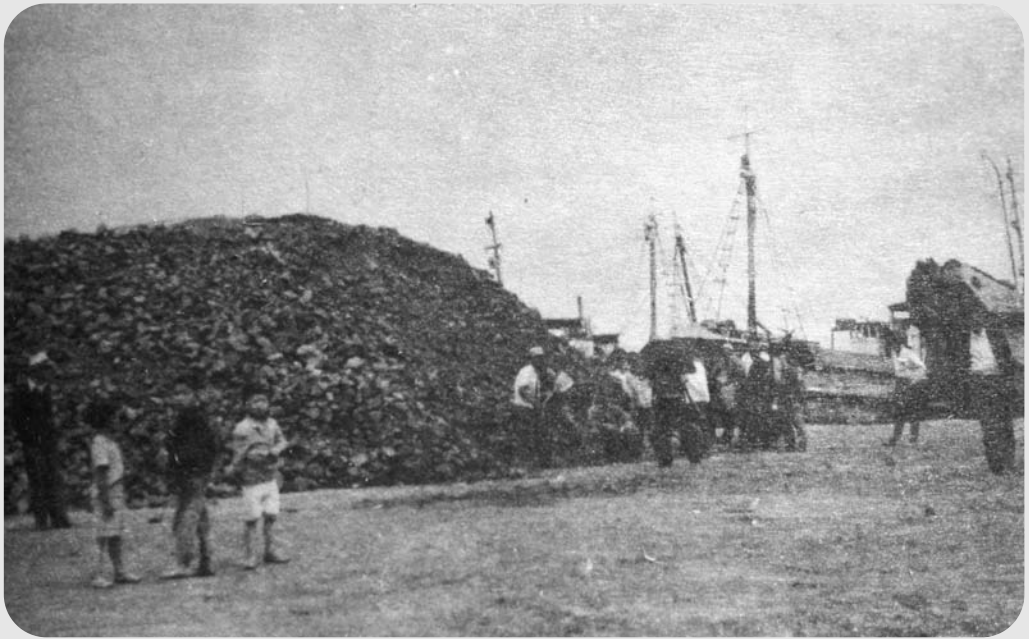
1958년 이전 건물(좌)공작실, 건물(중앙) 목욕탕, 우측 건물이 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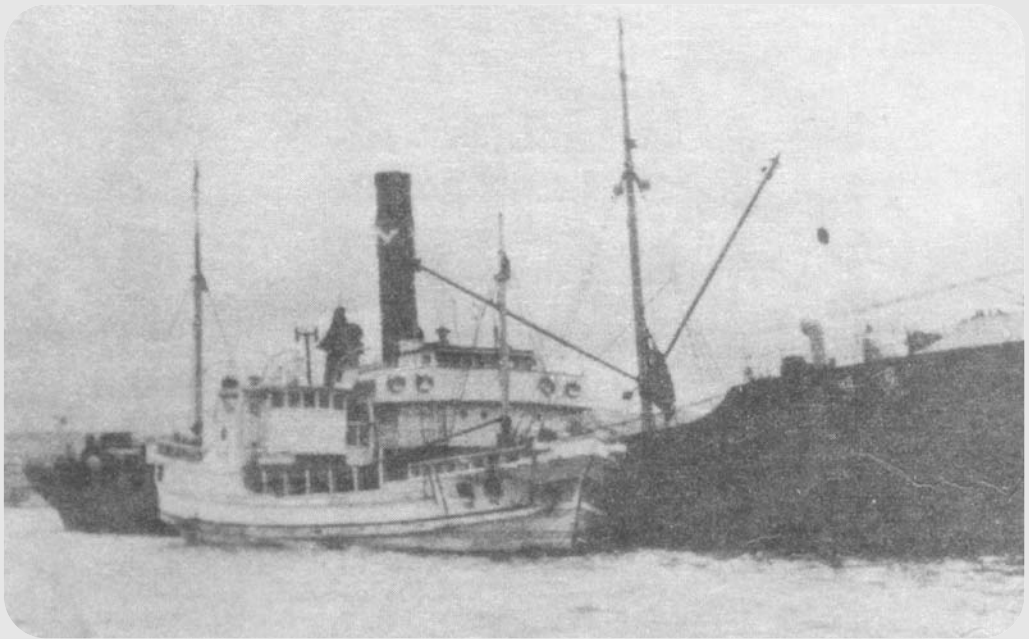
1958년 이전 송전 철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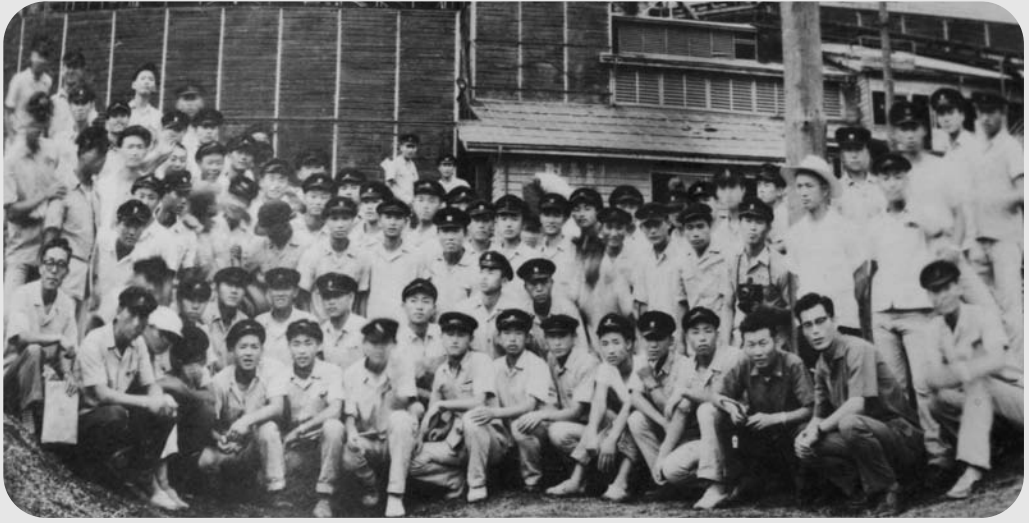
폐광 후 발전소 건물 전경 (2009. 2. 7)



1958년 이전 속초항 부두 하역장



1958년 이전 본선으로 철광석을 수송하는 소형선박



양양고등학교 2학년 학생 견학 (196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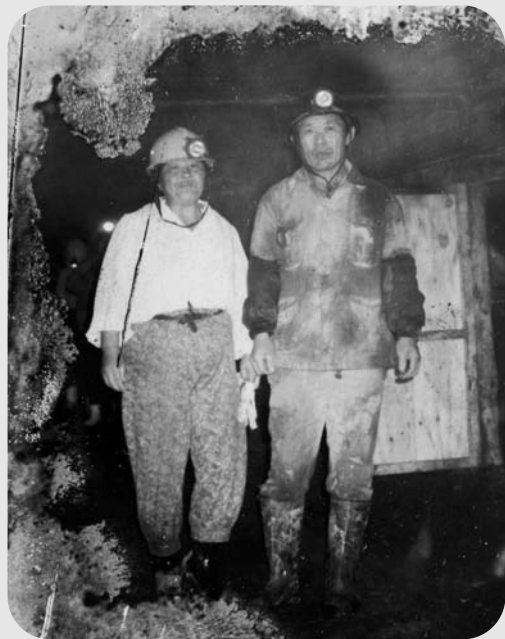
광차 이동 견학 (1960년대)



도목갱 견학 (1960년대)



동탑산업훈장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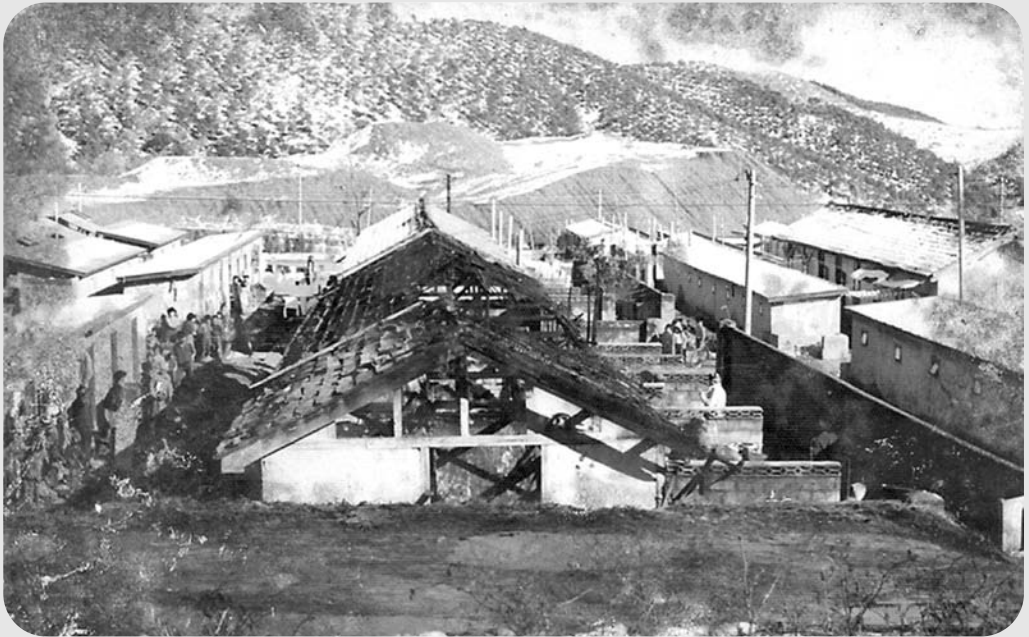
조덕용씨 가족 갱내체험



박정희 대통령이 수여하는 동탑산업훈장을 최규하 국무총리로부터 수여받고 있는 조덕용씨



좌측은 근로자 사택, 우측은 주임사택 (백기석 제공 197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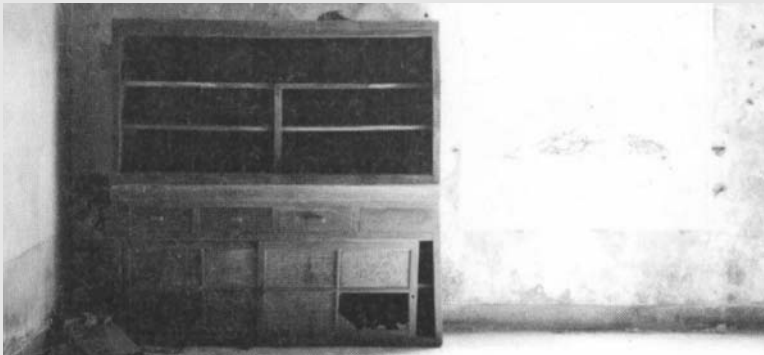
근로자 사택 화재 (1970년경)



폐광 후 목욕탕 (2009. 2. 8)



장승리 노인회장 (2009. 2)



목욕탕 내부 신발장 (2009. 2)



제1화약고



제2화약고 (2012. 11. 25)





부속의원 직원들 모습 (사진 백기석 1976)



폐광 후 부속의원 모습 (사진 백기석 2008)



1958년 이전 최초 노동조합 간부 (리수실 제공)



폐광직전 노동조합간부 (이선권 제공)

# 81년도 근로자의날



1981년도

# 84년도제39회근로자의날기념대회



1984년도

# 도 제40회 근로자의날



1972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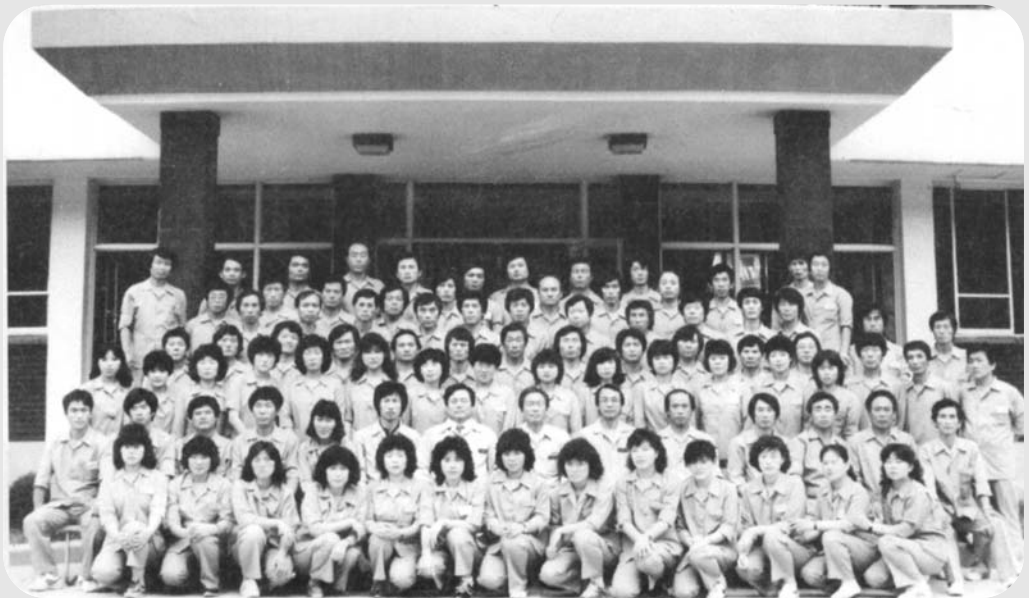


1989년도

근로자의 날 행사 (이선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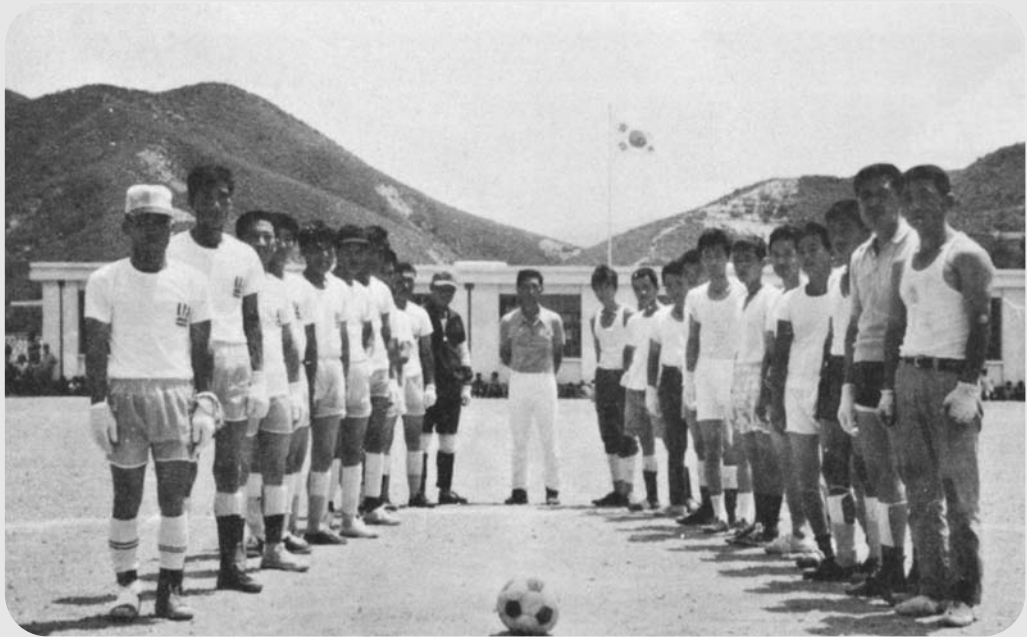
도목항 새마을 총회 (1975. 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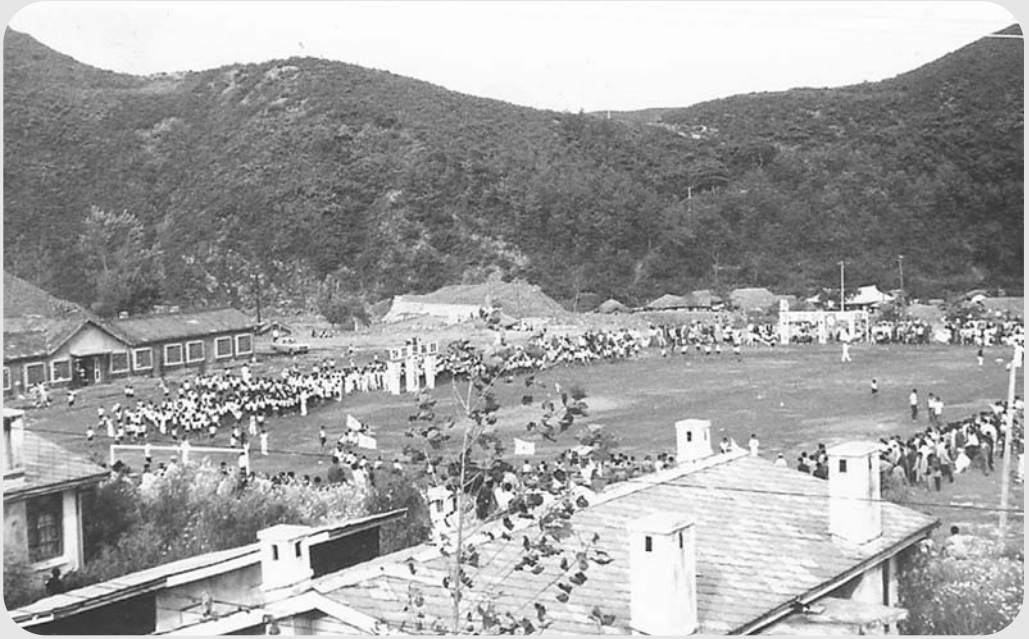
노총 제124기 노동새마을교육과정 교육생 (1984. 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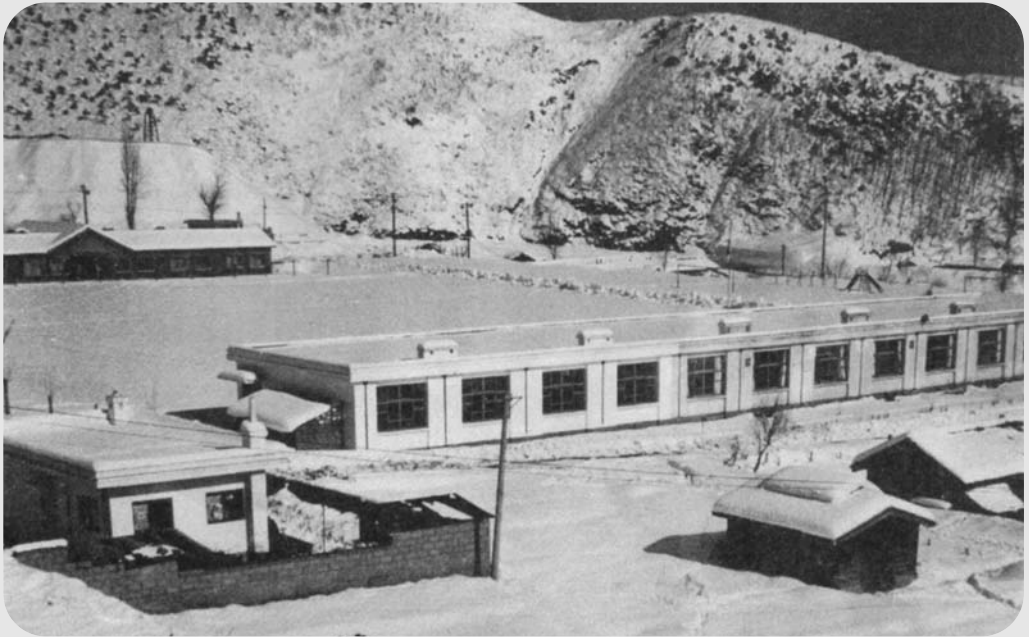
직장대항 광업소 배구선수 (1970년경 양양초등학교)



육송부 운전기사팀 대 선광출하부 운전기사 친선 축구 경기 (1972. 6 장승분교)



장승분교 가을운동회 (사진 백기석 제공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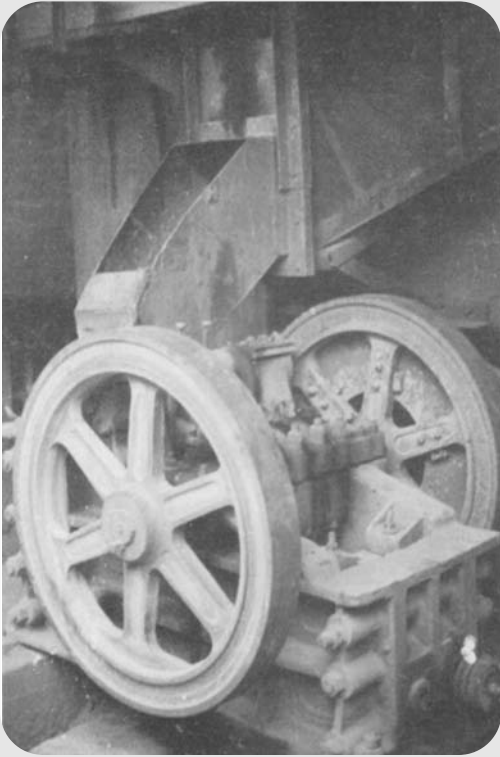
장승분교 전경 (상평초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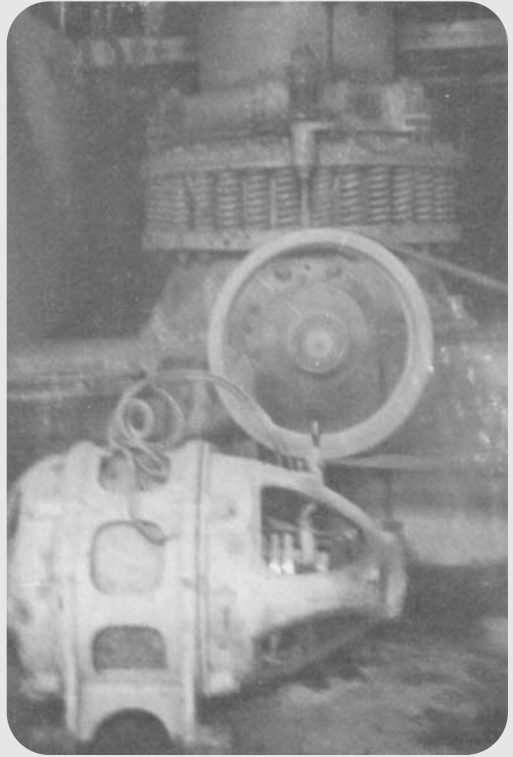
장승분교학생 선광장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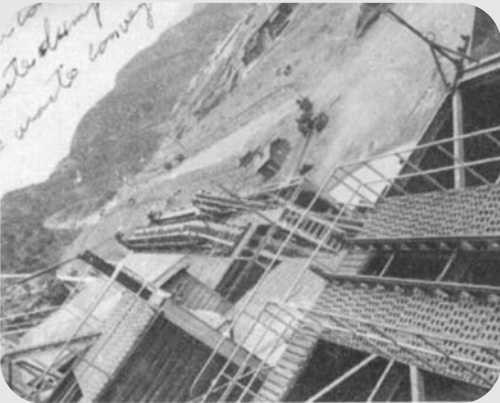
70년대 3학년 학생들 모습



조크러셔



콘크러셔



폐석컨베이어



자선장 (천양회사)

광업소 시설장비 (리수실 제공)





서선리 안경다리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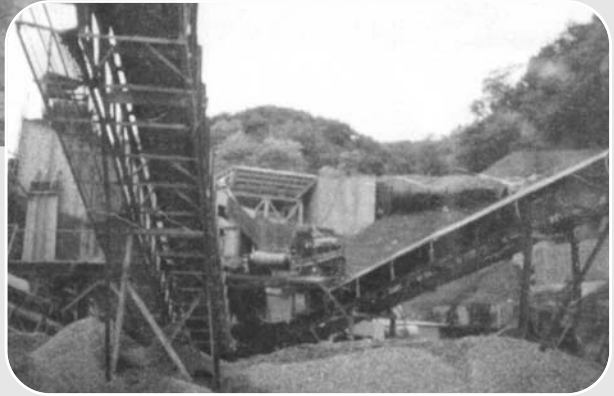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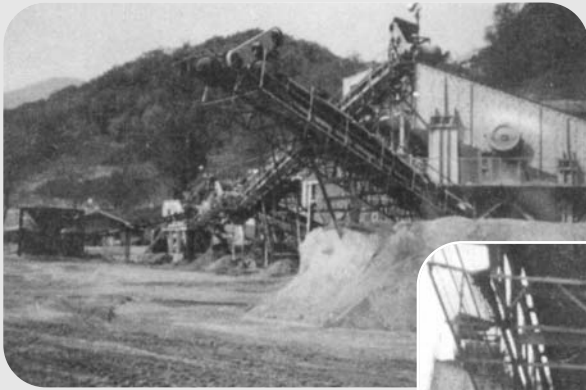
아리랑 고개 터널 2010년



반공호 2011년



거마리 터널 2012년



일양레미콘에서 광산 폐석 처리 작업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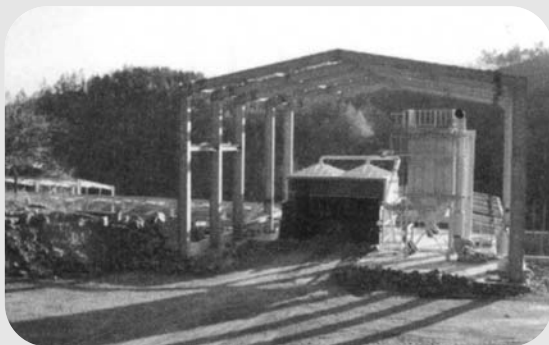
공사 중인 양양댐 (2011년)



수갱 타워와 권양실 (2011년)



대한광물 야적장 (2011년)



선광 하치장 (2011년)



대한광물 선광장 (2023년)



양양갱 입구 (2023년)



제를 지내고 있는 갈천 엄익환씨 (2011. 11. 24)



당시 사무실



당시 광석을 운반하던 삭도  
갈천 구룡 광산



제1갱



제2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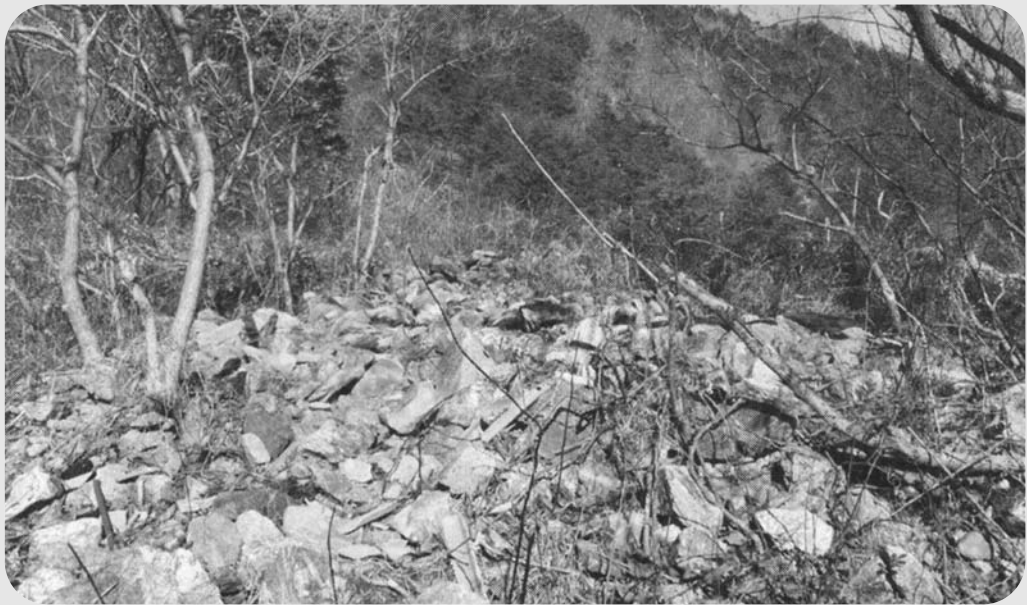


제3갱

일제강점기 논화리 가제골갱 (2012. 11.25)



1960년대 함박골 대장간 터 1 (황이리 이춘우 2012. 11. 16)



당시 배동지골 이덕호씨 대장간 터 2  
황이리 야철지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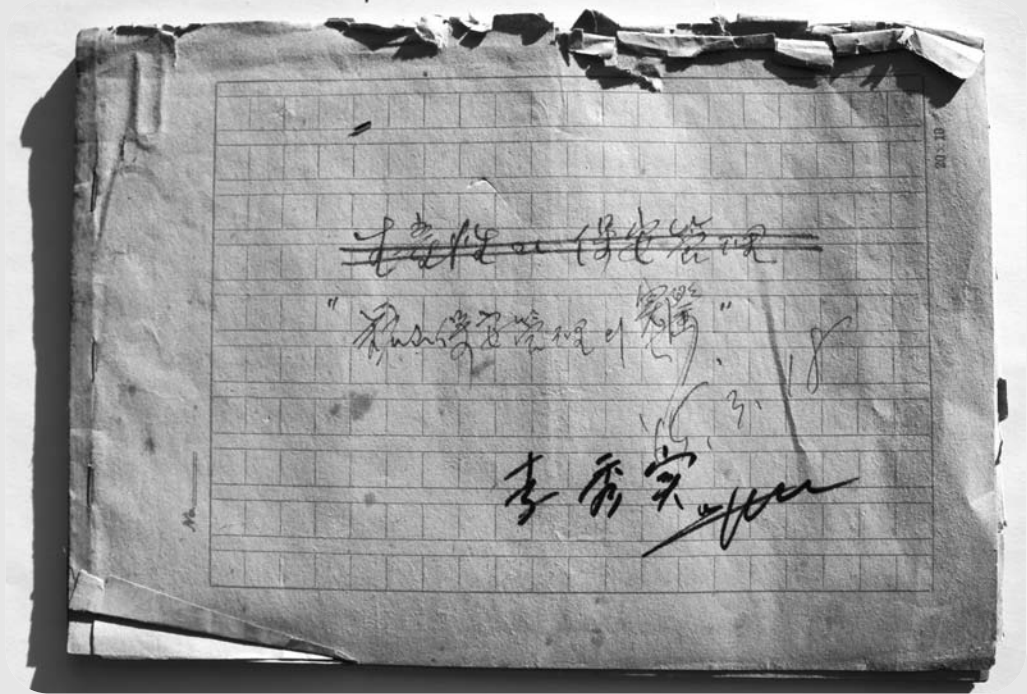


현장



편집  
광산자료수집 (2012)





당시 광업소 보전자료 (리수실씨 제공)



## 책 머리에

양양광산은 남한에서 생산하는 철의 95% 이상을 생산하였다. 1965년 양양 철광의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를 차지하는 등 1960년대에는 주요 외화획득 원이었다.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다 1973년 포항제철소가 건설되어 조업을 시작하면서 이곳으로 납품하였다.

철광석 생산량은 1980년대 중반까지 30만톤을 꾸준히 유지하였으나 값싼 외국산 광물의 수입 증가와 인력 부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1987년부터 생산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결국 1995년에는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한때는 양양군청의 직원보다 많은 고용인원과 현금을 유통하던 기업이 사라지자 광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양양경제는 어려워졌다. 광업소와 그 주변은 짐계 변해 버렸고 광부가 떠난 사막은 무너지고 잡초만 무성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산개발(주)이 구(舊)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양양사업소 작업권 내 210ha에 대해 채광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금산개발(주)은 자금 확보를 위해 2010년 대한광물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을 투자로 2012년 첫 채광으로 광업소를 운영하던 중 철광석 단가 하락으로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인 회생을 신청하였다.

2016년 향토 기업인 맥산그룹이 대한광물주식회사를 인수하였다. 연간 6만톤의 정광(精鑛 : 철 함량 63%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폐석을 골재로 자원화하여 채산성이 매우 밝은 편이라 한다.

양양광산 폐광을 지켜본 양양문화원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양양향토사연구원들과 2012년에 『양양철광산의문화사』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책이 모두 소진되고 보강이 필요하여 2023년에 증보판(增補版)을 발행하게 되었다.

원문을 존중하여 제1부 기본 사항은 오탃자와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만 교정하고 내용 변경 없이 재배열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자로 표기한 문장(글)은 모두 한글로 표기하여 독자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제2부는 광업소 재직자의 증언으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초판의 취지를 존중하여 교정 없이 그대로 실었다.

2012년 책 발간 이후의 내용은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으나 돌아보니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이 책이 발간된 이후라도 새로운 증언이나 소중한 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분은 어느 때라도 양양문화원 양양학연구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양양광산에 종사하시다 작고하신 영령들께 애도(哀悼)를 표하며 이 책을 발간하는데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 목차

<b>1부</b>	<b>기본사항</b>	<b>55</b>
	I. 개설 -----	57
	II. 철광산의 개요 -----	59
	1. 연혁 -----	59
	2. 위치 및 교통 -----	60
	3. 일제강점기 -----	60
	4. 정부수립 이후 -----	61
	III. 철광산의 부존실태 -----	63
	1. 지질개요 -----	63
	2. 광상개요 -----	63
	3. 광업권의 표시 -----	66
	4. 매장량 및 품위 -----	67
	5. 매장량확보계획 -----	68
	IV. 철광산의 운영현황 -----	69
	1. 기구 및 인원현황 -----	69
	2. 부서별 업무현황 및 운영실태 -----	70
	3. 연도별 철광석 생산실적 및 종업원 현황 -----	116
	4. 천양회사 및 덕대 운영실태 -----	118
	5. 노사협의회 현황 -----	121
	V. 고정자산현황 -----	132
	1. 건물현황 -----	132
	2. 차량 및 운반구 현황 -----	134
	3. 기계장치 및 기구 현황 -----	136

VI. 철광산의 생활문화	138
1. 광부의 일과	138
2. 광산촌의 생활상	141
3. 후생복지시설	156
4. 폐광이후 삶의 모습	162
5. 광산촌 철광문화축제	167
VII. 구룡광산	173
1. 개요	173
2. 경과	173
VIII. 철광산의 재개발	176
1. 양양광산의 재개발 현황	176

<b>2부</b>	<b>광부들의 이야기</b>	<b>185</b>
-----------	-----------------	------------

1. 채광부	187
2. 선광부	213
3. 운반부	224
4. 분석실	235
5. 공작실 및 선광수리실	238
6. 전기수리실 및 압기실	242
7. 디젤카 운행	253
8. 권양기 운전	257
9. 조사 시추	262
10. 토건실 증장비 운행	265
11. 궤도설치	270
12. 태평실 및 선광검양	274
13. 속초 출하부두 광석운송	276
14. 창고 자재관리	279
15. 경비실 업무	282
16. 서문리 광부들의 이야기	284
17. 덕대 및 천양회사	295
18. 노동조합	301
19. 삭도(슬개미차) 및 기차	302
20. 갈천 구룡광업소	310



# 제 1 부

# 기본 사항

선광장을 바라보는 백기석씨 가족(1970.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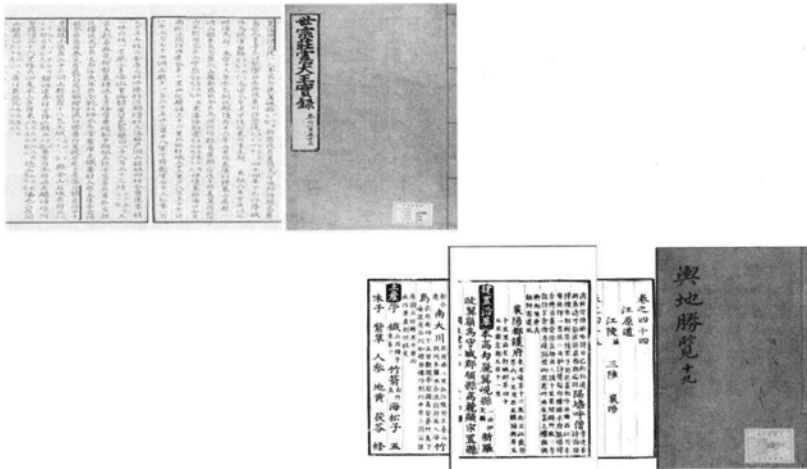
백기석씨  
1970.10.24





# I. 개 설

양양철광은 1980년대까지 국내 최대 철광산업지로 알려져 있었다. 철광산업은 매우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서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제153권 강원도 양양(도호부)의 특산물편에 “쇠돌이 부(府)의 서쪽으로 10리 떨어진 철굴산에서 난다(石鐵産府西十里鐵掘山)”라고 하였고, 신동국여지승람 제44권 강원도 양양(도호부)의 토산편에도 “철(鐵)이 서선사(西禪寺) 동쪽 봉우리 밑에서 난다.(鐵出西禪寺東峰下)”라고 기록하였다. 또 장승리(鐵山村) 사항골 골짜기에서는 예전에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냈던 철의 잔해 [(殘骸)똥] 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철을 생산하여 이용되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점으로 미루어 오래전에 철광석을 캐내어 인간이 필요로 한 농기기를 만들어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사진 1-1〉 세종실록지리지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쑤 패랭이’란 지명은 장승리(광산촌)의 탑동에 있는 골짜기로, 조선시대(연대 미상)에 50여 명의 광부들이 철을 캐러 향내로 들어갔다가 굴이 무너졌는데 구 조각업을 할 수 없어 모두 사망하였다고 한다. 사망자의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쓰고 다니던 패랭이(모자)를 벗어놓고 들어갔는데 그 수가 50여 개가 넘게 남아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광업소가 전성기일 때 50인총으로 관리하여 철광석을 채광 하였다.

양양광산이 본격적으로 채광을 시작하면서 근로자들이 모여들어 집터가 부족하게 되자 골짜기 마다 가옥을 신축하는 등 조용하였던 마을에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당시 골짜기 마다 있던 자연부락 명은 사항골, 흑간리, 들떨골, 미나밋골, 복상나무쟁이, 쑤패랭이, 양짓말, 아리랑고개, 탑골 등이다.

철광은 서면 장승리와 서면 갈천리에 각각 위치한 양양광산과 구룡광산 두 곳에서 일제강점기에 채광에 착수 생산되었다. 8.15광복 이후에는 남북분단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한국전쟁이후 국유화되어 1956년부터 다시 가동되었다. 생산량이나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의 자철광산이었다. 지질은 광구 주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편마암류와 변성퇴적암류를 주로 하여 이를 후기에 관입한 성장암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체(鑛體)는 변성퇴적암류 내에 좁게 발달하고 있으며 지표면에 가까운 상부 광체는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1967년에 삼미광업개발주식회사가 인수하면서 민영화되었고 1987년에는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의 양양사업소로 이관되었다. 그 후 값싼 외국산 광물의 수입 증가와 인력 부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자 생산량이 현저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자 1995년에는 완전히 중단되어 폐광되었다.

양양군은 2011년 1월 양양군과 대한광물(주)간 철광산업의 ‘국내부존 자원개발을 위한 철광석 광산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잊혀져 가고 있는 양양철산이 채광이후 폐광되기까지 숨겨진 애환과 풍속을 재조명하고 이를 집대성하여 향토사로 보전코자 함.

## II. 철광산의 개요

### 1. 연혁

#### 양양철광의 연혁

- 1933.           일본 석정(石井)광업소에서 개발 착수
- 1937. 8.       일인에 의해 광업권 설정등록
- 1938. 7.       일본 종연(種淵)공업주식회사에서 매수(2,000만원)채굴
- 1939. 3.       일본 종윤 실업(주) 이전등록
- 1945. 8.       해방 후 북한에서 채굴
- 1948.           한미협정에 의한 권리귀속
- 1953.           국유편입
- 1955. 8.       수복 후 제1군사령부 공병부에서 개발
- 1955. 12.      양양철광공사로 발족(정부와 보광계약)
- 1956. 7.       삼화철광(주)와 합병(6천만원) 대한철광 양양광업소로 개칭
- 1961. 8.       자력 선광장 준공(처리 용량 1,000t/일)
- 1963. 11.      대한철광개발(주) 이전등록
- 1964. 12.      대한철광 개발주식회사로 발족(자본금 473,202,000원)
- 1965. 2.       한전 수전시설 준공(수전용량 2,400KVA)
- 1966. 6.       기술연구소 개소
- 1966. 7.       수로변경 터널 및 댐 공사 준공
- 1967. 2.       국영에서 민영화 (삼미광업개발주식회사)
- 1968. 6.       선광장 쇄광 및 마광시설 확충보완(처리용량 1,500T/일) 채광  
시설 기계화(쇼벨로더, 장공착암기 도입)

- 1971. 9. 심부 광채 개발 착수
- 1973. 6. 제 1수갱(인원 자재 운반용)준공. 포항제철에 납품시작
- 1974. 10. 제 2수갱(광석 운반용)준공
- 1976. 10. 수항 심부 개발착수
- 1977. 4. 수항 심부 개발준공
- 1982. 6. 삼미광업개발(주) 명칭변경
- 1985. 1. 주(삼미) 양양광업소로 명칭변경
- 1987. 2.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로 창립
- 1994. 생산량 급 감소(32,324톤)
- 1995. 생산 중단으로 폐광

## 2. 위치 및 교통

양양광산은 북위 38°05′ 동경 128°33′ 으로 행정구역상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에 소재하며 양양읍에서 약 5.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철도는 일제강점기에 개설되었는데 동해북부선(안변~흡곡)은 1929년 9월 11일, 양양역은 1937년 12월 1일, 양양(송암리에 위치)역에서 광업소까지는 1942~1943년경에 각각 개설 철광석을 운반하였는데 해방과 동시에 중단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광석운반은 광산~속초항 간 26km 국도를 이용 자동차로 운반하였으며 속초항에서 포항까지 147해리(海里)를 해송운반(海送運搬) 하였다.

## 3. 일제강점기

양양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이다. 일제는 1933년

부터 시험 채광을 하여 오던 중에 이곳에 자철 함유량이 50~80%인 양질의 철광석이 다량으로 매장되었음을 발견하고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1941년부터 전쟁 무기의 조달을 위해 본격적인 채광에 착수하여, 매일 평균 210톤 규모의 철광을 속초항을 통해 일본 야하타(八幡)제철소로 반출하였다.(강원문물편찬실, 『강원문물(江原文物)』, 대경출판사, 1973, 142쪽)

#### 4. 정부수립 이후

8.15광복과 더불어 남북분단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한국전쟁 이후 행정수복이 되자 국유화되어 1955년부터 다시 가동되었다. 그 후 1955년 말에 설립된 양양철광공사가 경영하다가 1964년에 대한철광회사에 합병되었으나 1967년에 삼미광업개발주식회사가 인수하면서 민영화되었고 1987년에는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의 양양사업소로 이관되었다. 1961년에 자력 선광장이 준공되고 1962년에는 대형의 발전기 및 컴프레서가 도입되는 등, 기계설비가 크게 확충되자 생산량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철광 생산량은 광복 후 처음으로 생산이 시작된 1956년에는 8,914톤, 그 다음해인 1957년에는 74,842톤에 불과하였으나 1963년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19,060톤 이었다.(강원도기획관리실편, 『강원총람(江原總覽)』, 1975, 572쪽)

양양광산에서 생산된 철광은 1973년에 포항제철에 납품하기 전까지는 모두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1965년에 양양군의 철광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를 점하는 등, 1960년대에는 주요 외화획득 원이었다.(권혁재, 『한국지리지방편(韓國地理 地方編)』, 범문사, 1995, 136쪽)

철광생산은 1963년 이후에도 1차 국제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1973년을 제외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 30만 톤 대 전후의 실적을 꾸준히 유지하여 왔다. 특히 1982년에는 362,000톤을 생산하여 피크를 이루었다. 그러나 값싼 외국산 광

물의 수입증가와 인력 부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자 생산량이 1987년부터 현저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었으며 1990년 188,267톤, 1993년 96,572톤, 1994년 32,324톤으로 급감하고, 결국 1995년에는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 III. 철광산의 부존실태

#### 1. 지질개요

광산부근의 지질은 편마암류(片麻巖類), 변성추적암류(變成推積巖流), 섬장암(閃長巖) 및 후기의 관입암류(貫入巖類)로 구성되었다. 편마암류는 광산의 외곽에 넓게 분포하며 편마암, 호상(縞狀) 편마암(片麻巖), 반상변정질(斑狀變晶質) 편마암(片麻巖), 화강암질(花崗巖質) 편마암(片麻巖) 등으로 분류되나 부분적으로 변성추적암(變成推積巖)에 천이(遷移)되기도 한다.

변성추적암류는 각섬석암(角閃石巖), 각섬석(角閃石) · 흑운모편암(黑雲母片巖), 석영장석편암(石英長石片巖) 이질암(泥質巖) 등으로 구성되며 남북방향으로 대상 분포(帶狀分布)를 이루고 있고, 연장은 약 3km가 추적(追跡)되나 단층에 의해 절단, 이동 혹은 섬장암(閃長巖)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포획(捕獲)된다.

각섬석암중 편암의 양상(樣狀)을 띠는 부분 또는 섬장암과의 혼성대(混成帶)에는 소량이나마 자철석이 잉태되어 저품위의 광체를 형성한다. 섬장암은 변성추적암의 외곽에 남북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형 분포를 보여주며 반상섬장암으로 구별되고 편마암류와 변성추적암류를 관입(貫入)하고 후기 관입암류에 의하여 관입당하고 있다. 본 암은 관입이나 단층에 의하여 광체 상하반에 분포하고 암맥상으로 광체를 단절하고 있다. 기타 관입암류로는 흑운모화강암, 반화강암, 우백질 화강암, 페그마타이트 및 염기성 암맥 등이 있다.

#### 2. 광상개요

광상은 변성퇴적암의 층리에 평행하게 배태(胚胎)되거나 편마암류와 변성퇴적

암의 접촉대 부근에 발달하는 자철석광상으로 광석광물은 자철석이 주이며 황철석, 자류철석, 티탄鐵石 (ILMENITE:철흑색의 무겁고 금속광택을 띠며, 티탄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티탄산철(FeTiO<sub>3</sub>)로 구성된 산화광물) 및 황동석이 소량 수반된다. 철광상은 대체로 동일층준(同一層準)에 부존하는데 심도(深度)는 약 300m 정도이며 렌즈상 혹은 판상이나 부분적으로 괴상(塊狀)인 것도 있다. 본 광상(鑛床:유용한 광물이 땅속에 많이 묻혀 있는 부분)의 광체(鑛體:유용 광상에서 채굴 대상이 되는 광석의 집합체)는 크게 5개 광체로 대별되며 이들 광체의 광황(鑛況)은 다음과 같다.

### 1) 논화갱 광체

렌즈상(狀)의 주 광체(鑛體)와 괴상(塊狀)의 논화북향광체(論化北向鑛體)가 있다. 주 광체는 주향(走向:북쪽을 기준으로 측정한 방위각)과 경사를 지니며 연장 180m 맥폭 10-20m 심도 약 70m가 확인된다. 북향광체는 연장 150m 맥폭 20-30m 심도 23m가 확인되며 수평갱 상부에서 층상광체(層狀鑛體)의 양상을 보이거나 하부에서는 괴상(塊狀:덩어리로 된 모양)을 이루며 비교적 고품위이나 거의 채굴되었다.

### 2) 양양갱 광체

본 광산의 최대 규모의 광체(鑛體)인 주 광체와 칠구광체(七區鑛體)가 발달하는데 주 광체는 연장 300m, 맥폭(脈幅) 20-40m, 심도(深度)140m가 확인되며 칠구광체(七區鑛體)는 연장 100m, 맥폭(脈幅) 10-20m, 심도(深度) 100m의 규모이다.





〈도면 3-1〉 각 갱별 시설 배치도(1958년경)

### 3) 도목갱 광체

상부로부터 장경(長徑:타원에서, 긴지름을 이르는 말)100m, 단경 50m, 심도 70m의 괴상광체(塊狀鑛體)인 서2갱광체(西二坑鑛體), 장경 130m, 단경 70m, 심도 65m의 괴상광체인 탑동광체(塔洞鑛體), 장경 100m, 단경 30m, 심도300m의 북향광체, 소규모의 괴상광체들로 이루어진 도목사갱광체(桃木斜坑鑛體), 장경 110m, 단경 30m, 심도 35m의 도목5호광체(桃木五號鑛體), 연장 50-80m, 맥폭 25m 내외 심도 150m의 괴상광체인 도목심부광체(桃木深部鑛體) 및 장경 40m, 단경 10m, 심도 40m의 50인 총광광체(塚鑛鑛體)등 7개 광체(鑛體)가 있다.

### 4) 수갱 광체

양양광체의 하부에 연장하여 발달하는 렌즈 상(狀) 광체로 연장 180m, 맥폭 40m, 심도 200m의 남향광체, 연장 100m, 맥폭 35m, 심도 100m의 북향광체로 대별된다.

### 5) 양논 광체

양양광체와 논화광체사이에 위치하며 수갱광체의 남단 약 150m 상거(相距:서로 떨어져 있음)하여 같은 수준인 -100ML에서 -300ML 사이에 발달하는 광체이다. 본 광체는 현재 탐광중(探鑛中)인 광체로 4개 광체가 인접해서 확인되며 3개 광체를 관통하는 갱도가 -240ML에서 개설되어 있고 1호 광체는 -240ML에서 2개의 운반갱도(運搬坑道) 외에 3개의 중단갱도(中段坑道:수평 갱도 아래에 좁은 간격을 두고 굴착한 중간 수평 갱도)가 개설되어 채굴하였다.

## 3. 광업권의 표시

### 1) 양양군 서면 강현면 일대의 광구 (1979년 기준)

(1) 광업권자는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2층 대한철광개발(주)

〈표 3-1〉 광업권의 표시 광구면적

(1979년도)

소재지	구분	등록번호	광구번호	광업권 존속기간	면적(평)
양양 서면	자유광구	제 22772호	117	'79.11.17~'99.10.31	766,000
"	"	제 22773호	116	"	64,000
"	"	제 14562호	107	"	844,000
"	단위광구	제 26124호	126	'81.07.05~'01.06.30	278,000
"	"	제 26125호	106	"	804,600
"	"	제 50721호	116	'77.09.09~'02.09.08	196,625
양양 강현면	"	제 47783호	104	'69.09.17~'94.09.16	817,850
합계		7개 광구			3,771,125

〈출처 : 1979년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양양광업소 현황 자료〉

- (2) 종합대상 광구 18개 광구중 77년도 말 현재 116호, 104호, 106호, 126호의 4개 광구를 종합하였다.
- (3) 광구는 장승리 뿐만 아니라 가라피, 물갑리, 석교리, 둔전리, 관모산, 영혈사 근처까지 광맥이 뻗어 있으며 광업권 표시 및 광구 면적은 <표 3-1> 과 같다.

#### 4. 매장량 및 품위

양양광산의 총 매장량은 7,487천 톤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광량(수갱광채·도목갱광채·양양갱광채·논화갱광채) 중 매장광량 6,427천 톤, 가채광량 5,784천 톤, 기채광량 3,566천 톤, 가채잔광량 2,218천 톤이다. 추정광량(4개 광채)중 매장광량 1,060천 톤 가채광량 742천 톤, 기채광량 61천 톤, 가채잔광량 681천 톤이며, 철분함유량은 평균 45.6%로서 제철주원료로서의 정광 환산량은 203만 톤이다. 매장광량의 세부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 3-2> 양양광산 매장광량 (1982년4월30일 현재)

(단위:1000M/T)

구분	광채별	매장광량	가채광량	기채광량	가채잔광량	품 위
확정 광량	수갱 광채	2,944	2,650	1,659	991	Fe 45%
	도목갱 광채	2,571	2,314	1,587	727	Fe 47%
	양양갱 광채	286	257	253	4	Fe 50%
	논화갱 광채	626	563	67	496	Fe 45%
	계	6,427	5,784	3,566	2,218	Fe 45.6%
추정 광량	수갱 광채	494	346	61	285	Fe 45%
	도목갱 광채	124	87	-	87	Fe 47%
	양양갱 광채	197	138	-	138	Fe 50%
	논화갱 광채	245	171	-	171	Fe 45%
	계	1,060	742	61	681	Fe 45.6%
합 계		7,487	6,526	3,627	2,899	Fe 45.6%

<출처 : 1982년 삼미광업개발주식회사 양양철산개발계획서>

## 5. 매장량 확보계획

대한광업진흥공사 조사부에서 1982년4월30일 현재 조사 확인한 양양광산 기  
확인광체의 가채잔광량은 2,899천 톤으로서 1987년 말에는 채굴되는 광량이므  
로 탐광을 거쳐 1988년 말까지 년 간 100만 톤 합계 600만 톤의 신규광량 우  
선 제1단계 매장량 확보계획으로 하였고 세부내용은 <표 3-3>과 같다.

〈표 3- 3〉 양양광산매장량확보계획

(단위:1000M/T)

구분 \ 년도말	'82	'83	'84	'85	'86	'87	'88	계	품위	비고
	기확인광체 가채잔광량	2,562	2,047	1,532	1,017	502	0			Fe 45.6%
신규광량 확보계획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000	Fe 45.6%	정광환산 4,198천톤
연간채굴량	337	515	572	572	643	715	715			
신규광량확보후 가채잔광량	2,562	3,047	3,475	3,903	4,260	4,545	4,830			

※ '82.4.30 현재 가채잔광량 2,899,000 M/T  
(출처 : 1985년 광업진흥공사 조사부)

## IV. 철광산의 운영현황

### 1. 기구 및 인원현황

양양철광에는 관리직으로 이사급 소장과 사원 62명, 준사원 53명, 사무원 11명, 촉탁 1명, 보조간호사 1명 등 총 129명이 이사급 1명, 부소장 3명(기술부소장, 사무부 소장, 속초사무소장), 차장급 5명(예산관리실장, 기술차장, 보안감독실장, 사무차장, 병원장) 6개 부서의 과장(채광과, 조사과, 선광과, 공무과, 총무과, 비상계획실)을 두고 운영하였다. 생산직(갱내·갱외)은 701명이 근무하였다. 당시 각 부서별로 배치인원과 기구는 <표 4-1>과 <표 4-2>와 같다.(1981.4.1.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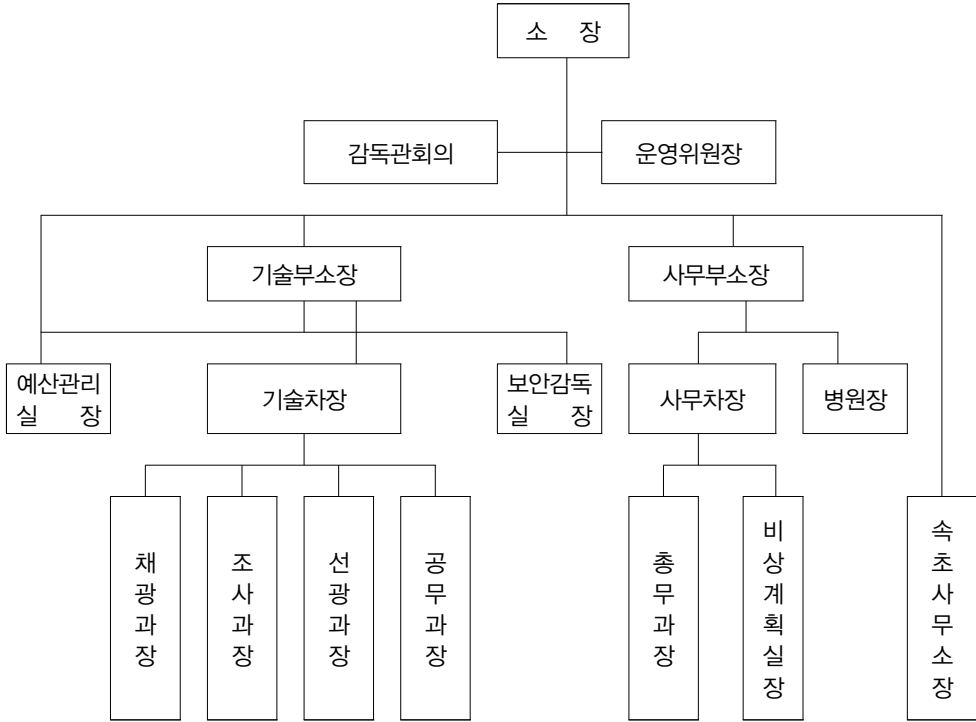
〈표 4-1〉 양양광산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남	여	계
관리직	임 원	1		1
	사무직	53	9	62
	기술직	64	2	66
	소 계	118	11	129
생산직	갱 내	494		494
	갱 외	203	4	207
	소 계	697	4	701
합 계		815	15	830

〈출처 : 1982년 양양광업소 자체자료〉

〈표 4-2〉 양양광산 기구표



## 2. 부서별 업무현황 및 운영실태

### 1) 보안관리실

#### (1) 업무현황

- ① 사업확장(시설물 확장, 철광석 증산체제) 등으로 인하여, 광산재해사  
고(안전사고) 등이 다발, 반복 발생하므로, 정부에서 사업체에 별도  
기구의 안전업무를 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두도록 함.
- ② 초창기에는 보안감독실로 출발함.
- ③ 초대보안감독실장은 광업소 소장과 동급이었음.

- ④ 보안관리실장은 차장급기술사원에 보직됨.
- ⑤ 보안관리실장이 보안감독자 역할을 담당하고, 보안관리자는 현장직과 계장의 소임임.
- ⑥ 보안감독자와 보안관리자는 상급(上級) 보안 자격증 소지자라야 함.
- ⑦ 초창기 보안감독실 출범 시엔 실장과 갱내 보안 분야와 갱외 보안 분야로 업무 분장되었으나, 보안 관리의 중요도에 따라, 후일에는 전담 분야별(갱내, 향외, 기계, 전기등 보안관리 자격자) 담당직원까지 보직, 업무 강화함(주임, 감독급)
- ⑧ 대내외 제반 보안 행정업무 수행

## (2) 운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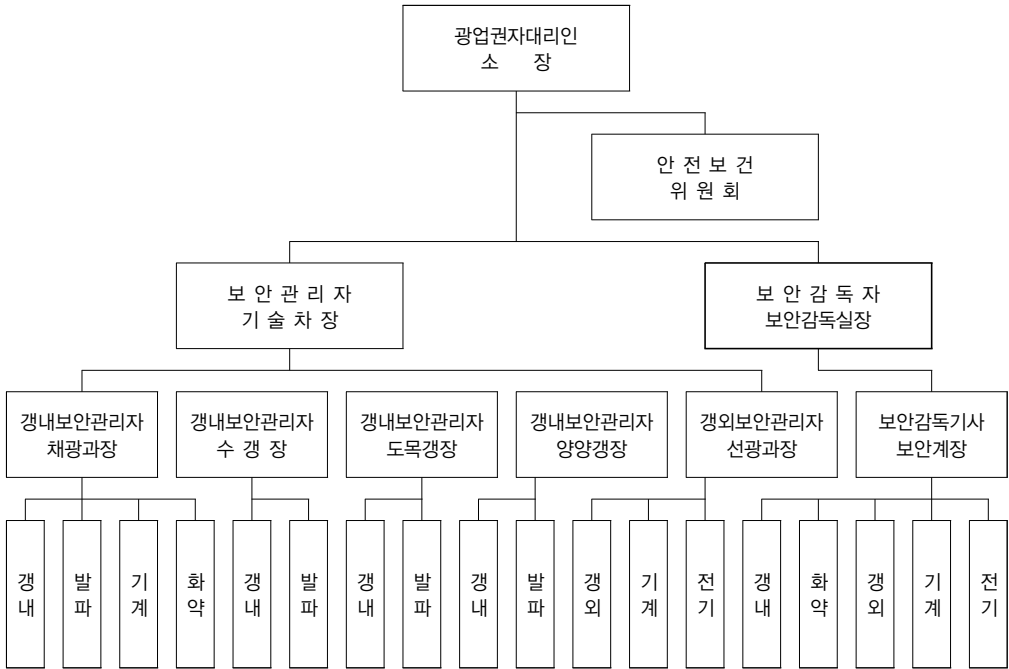
### ① 안전관리체계

양양광업소의 안전관리 총책임자는 광업권자 대리인인 광업소장과 그 직속으로 안전보건위원회가 있고 보안관리자는 보안감독실장과 기술차장을 위시하여 채광과장, 수갱장, 도목갱장, 양양갱장이 향내 보안관리 업무를 선광과장은 향외 보안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안전관리체계는 기구표는 <표 4-3>과 같다.

### ② 안전 교육

보안감독실 에서는 종업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체종업원을 비롯하여 신규 채용자와 그밖에 정기보안교육 외 총 13개 종목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였는데 교육 분야는 <표 4-4>와 같다.

〈표 4-3〉 안전관리 체계도



〈표 4-4〉 안전교육 분야

순번	교 육 명	기 간
1	정기 보안 교육	월2회
2	작업전 10분전 교육	매 일
3	신규 채용자 교육	신규자
4	재해자 면담교육	치료 종결시
5	규정 위반자 교육	수시
6	정기 보안교육 미비교육부서 보충교육	재해 발생시
7	기계 운전공 교육	분기 1회
8	채광공 교육	분기 1회
9	정기 보안교육 불참자호출교육	수시
10	전체종업원교육	반기
11	감독교육	분기
12	구호대 교육	반기
13	대외교육	수시

〈출처 : 보안감독실 자체자료〉



③ 재해 예방

○ 종업원 신상파악

가. 퇴근 후 면밀한 생활조사

나. 가정과 직장과의 유대관계 도모

다. 개인별 신상카드 작성

라. 개인적인 고민을 조사한 후 색출하여 고민이 많은 사람을 적소에 배치 작업을 시킨다.

마. 재해 예방 파급에 효과가 큼

○ 보안 첩관부착

가. 쇼벨로더에 부착

나. 종업원 하반신 보호

다. 전석 사고 예방 효과에 좋은 반응을 보임.



〈사진 4-1〉 보안활동 발표회(1980년경)

#### ④ 재해발생현황

1975년~1987년까지의 정도별 재해발생현황 <표 4-5>과, 1977년~1978년 까지 부서별 재해발생현황은 <표 4-6>와 같다.

〈표 4-5〉 정도별 재해발생 내역

구분 년도	재해발생 건 수	사망	중상	경상	손실일수	비고
75	145	5	10	130	41,304	
76	91	2	39	50	18,107	
77	110	2	61	47	19941	
78	139	1	53	85	15918	
계	485	10	163	312	94,270	

〈출처 : 1979년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양양광업소 현황자료〉

〈표 4-6〉 부서별 재해발생 내역

구분 부서별	채 광 과					선광	공무	조사	합계	실적	증감
	양양	도목	수갱	논화	시설						
발생건수	18	44	44	16	1	8	3	5	139	110	△29
사 망		1							1	2	1
중 상	11	13	12	7	1	4	2	2	63	61	8
경 상	7	30	32	7	1	4	1	3	85	47	△38

〈출처 : 1978년 예산관리실 자체심사분석보고서 자료〉

## 2) 예산관리실

### (1) 업무현황

- ① 광업소 전반적인 운영비용(예산편성)을 미리 책정하며, 생산원가대비, 심사분석관리 및 제안제도 운용함.

- ② 예산집행승인 부서로서 해당부서의 예산집행을 통제, 조정함.
  - ③ 현장부서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공구류 등을 입,출고함.
  - ④ 관리계는 예산관리실 업무의 실질적인 수행부서.
  - ⑤ 창고계는 창고에 입,출고 되는 기자재 공구류 등을 보관, 불출함.
  - ⑥ 어떤 때는 선광과 분석계도 소관됨.
  - ⑦ 실장과 원가계장은 기술직 과장, 계장급이 보직됨.
- ※ 원가계도 있었음.

## (2) 운영실태

### ① 업무 및 인원현황

예산관리계에서는 예산비용을 기획편성하며 철광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원가대비심사분석, 예산집행 등을 통제 조정하고 모든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자재 및 공구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계가 있으며 인원은 1982년도를 기준 차장급 1명, 사원 급이 7명 사무원 및 검양원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양양광산 생산원가(月)

1984년 12월 20일 부터 1985년 3월까지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산지도부와 광상조사부에서 월(月)을 기준하여 양양광산에서 철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생산원가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동력비 68,094,000원 채광비 238,391,000원 선광비 33,861,000원 일반관리비 및 경비가 129,387,000원 판매비 56,207,000원 생산원가 525,940,000원 총 생산원가는 539,089,000원으로 조사 집계되었는데 상세 내역은 <표 4-7>과 같다.

〈표 4-7〉 광산생산원가 내역

월조광석:57,750톤 월정광석:29,000톤 실수율:87.4%

항 목	비 목	톤당 단가	금 액	적 요
동력비		1,179.12	68,094,000	
	노 입		3,306,000	전 공 7명×267,000 = 1,869,000 발전공 3명×224,000 = 672,000 기 타 5명×153,000 = 765,000
	유류대 및전력		64,788,000	경 유 4,369,000 기계유 2,823,000 기 타 3,086,000 전력대 (895,000KWH) 54,510,000
채광비		4,127.98	238,391,000	
	노 입		131,774,000	감 독 21명×358,000 = 7,518,000 착암부 68명×278,000 = 18,904,000 착암조수 45명×244,000 = 10,980,000 운반부 272명×239,000 = 65,008,000 지주부 9명×263,000 = 2,367,000 지주조수 9명×202,000 = 1,818,000 화약수 8명×207,000 = 1,656,000 측량공 3명×214,000 = 642,000 권양부 13명×228,000 = 2,964,000 압기부 3명×215,000 = 645,000 공작부 15명×236,000 = 3,540,000 배수부 12명×195,000 = 2,340,000 전차공 18명×259,000 = 4,662,000 기 타 45명×194,000 = 8,730,000
	화약부		29,647,000	폭 약 12.15 kg/발파 68발파/일×25일/월×1,098 = 22,680,000 뇌 관 18개/발파 68발파/일×25일/월×66 = 2,020,000 도화선 27m/발파 68발파/일×25일/월×77/m = 3,535,000 기 타 2 8,235,000×25% = 1,412,000
	목 재		16,517,000	1.1재/톤×57,750톤×260/재 = 16,517,000
채광비	철 재		11,101,000	빗 트 83개/월×47,000원/개 = 3,901,000

항 목	비 목	톤당 단가	금 액	적 요
				착암부속 1,200,000 퀘도부속 1,000,000 배관부속 1,000,000 공 구 대 1,000,000 기타소모 3,000,000
	탐광 및 표토		38,000,000	400M×95,000 = 38,000,000
	기 타		11,352,000	227,039,000×5% = 11,352,000
		586.33	33,861,000	
선광비	노 임		13,190,000	감 독 6명×311,000 = 1,866,000 마광공 14명×214,000 = 2,996,000 수선공 4명×117,000 = 1,638,000 파쇄공 4명×217,000 = 3,038,000 양수공 4명×209,000 = 836,000 분선공 3명×172,000 = 516,000 공작공 5명×236,000 = 1,180,000 기 타 7명×160,000 = 1,120,000
	자재소 모품비		19,058,000	철 재 시 약 57,750톤×330 = 19,058,000
	기 타		1,613,000	32,248,000×5% = 1,613,000
		2,240		129,387,000
일반 관리비 및 경비	현 장 인건비		41,213,000	소 장 814,000 부 장 707,000 기술차장 4명×604,000 = 2,416,000 사무차장 604,000 기술과장 3명×582,000 = 1,746,000 사무과장 2명×521,000 = 1,042,000 기술사원 39명×373,000 = 14,547,000 사무원 33명×269,000 = 8,877,000 운전공 9명×279,000 = 2,511,000 토건공 8명×267,000 = 2,136,000 경비원 15명×227,000 = 3,405,000 기 타 14명×172,000 = 2,408,000
	복 리 후생비		18,949,000	189,483,000원×10% = 18,949,000

항 목	비 목	톤당 단가	금 액	적 요
	소 모 품 비		1,000,000	
	제 세 공과금		6,072,000	판매가격 607,200,000원×1% = 6,072,000
	여비및 교통비		1,150,000	
	수 선 유지비		4,000,000	
	보험료		12,696,000	189,483,000원×6.7% = 12,696,000
	본사비		26,000,000	
	기 부 접대비		12,144,000	판매가격 607,200,000원×2% = 12,144,000
	기 타		6,163,000	123,224,000원×5% = 6,163,000
		973.28	56,207,000	
판매비	운송비		47,891,000	속 초 17,000톤×1,530원/톤 = 26,010,000 자동차수송 용차 7,000톤×800원/톤 = 5,600,000 쌍 용 5,000톤×2,800원/톤 = 14,000,000 기 타 45,610,000×5% = 2,281,000
	해 상 운 입		8,316,000	선적비 24,000톤×330원/톤 = 7,920,000 기 타 7,920,000×5% = 396,000
생 산 원 가		9,107.18	525,149,000	
	운전자 금이자	227.69	13,149,000	525,940,000×10%×3/12 = 13,149,000
총 생 산 원 가		9,334.87	539,089,000	

〈출처 : 1985년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산평가조사〉

### 3) 총무과

#### (1) 업무현황

- ① 광업소 운영을 위한 대내외 행정, 섭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 ② 광업소 자산 관리, 자금회계 운용, 인사관리 등
- ③ 종업원 복지후생 업무(객실, 사택, 출퇴근버스, 공급소, 목욕탕, 수  
신료 등)
- ④ 경비실 운용
- ⑤ 채광현장사용 화약류 입고 및 불출
- ⑥ 종업원 급여, 노임 지급 및 퇴직금 지불 등
- ⑦ 종업원 채용 및 해임
- ⑧ 총무계, 노무계, 경리계, 화약계가 있음.



(구)양양관광 사무실 및 사택 전경

〈사진 4-2〉 양양광업소 사무실 전경(1956년경)

## (2) 운영실태

### ① 광업용지 및 건물면적현황

○ 광업용지 : 159,480평

○ 사무실 및 건물 : 3,516평

### ② 기구 및 인원현황

총무과는 대내외의 행정, 자산관리, 인사, 노무(급여), 복지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인 부서이며 총무, 노무, 경리, 화약계가 있으며 소장 이하 사원급이 34명, 사무원과 경비원 등을 포함해서 45명, 합계 79명으로 총무과 인원현황은 <표 4-8>와 같다.

<표 4-8> 인원현황

직종별	구분	인원				현재인원
		총무	노무	경리	화약	
사 준 사 원	소장	1				1
	부장	2				2
	과장	1				1
	계장	1	1	1	1	4
	사원	2	5	3	2	12
	준사원	8	3	2	1	14
	소계	15	9	6	4	34
고 원	사무원	1	4			5
	기계공		1			1
	토건공		2			2
	경비원	18				18
	교환수	3				3
	운전수	1				1
	잡부	1	5		8	14
	급사	1				1
	소계	25	12		8	45
합계	40	21	6	12	79	

< 출처 : 1982년 광업소 자체 업무현황자료 >



### ③ 근로자 및 기술자 보유현황

1982년 4월말 현재 일용부를 제외한 광업소 종업원 수는 울산광업소를 포함 1,116명이며 이 가운데 기술자는 556명으로 전체인원의 50%를 점하고 있다.

대학이상 출신으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 간부직원은 총 12명에 달하며 당사가 철광산을 신규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의 확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급별, 간부별, 학력별, 연령별 및 기술 간부 현황은 <표 4-9~13>과 같으며 직종별 전 종업원 현황은 <표 4-17~23>와 같다.

<표 4-9> 종업원현황(1982년 4월말 현재)

(단위:명)

부서	직급							계
		이사	사원	준사원	고원	촉탁	임시 고원	
본 사		4	4	4	2	2	-	16
양양광업소		1	70	56	714	1	25	867
울산광업소		-	23	18	189	-	5	233
계		6	97	78	903	3	3	1,116

<표 4-10> 기술자 보유현황

부서	직급			계
		기술자	기능공	
본 사		7	4	11
양양광업소		75	348	423
울산광업소		21	101	122
계		103	453	556

<표 4-11> 부문별 현황

부문별	채광	선광	기계	전기	토건	계
인원수	322	112	70	43	9	556

〈표 4-12〉 연령별 현황

연령별	18세 미만	18~30	31~40	41~50	50세 이상	계
인원수	-	166	194	165	31	556

〈표 4-13〉 학력별 현황

학력별	국졸	중졸	고졸	전졸	대졸	계
인원수	234	191	97	8	26	556

〈출처 : 1982년 삼미광업개발주식회사 양양철산 개발계획서 자료〉

〈표 4-14〉 직종별 노력계획표 (1)

과실별 직종	예산 관리 실	비상 계획 실	보안 감독 실	병 원	총 무 과				공 무 과			채 광 과							
					총 무 계	노 무 계	경 리 계	화 약 계	계	공 무 계	전 기 계	계	관 리	양 양 갱	도 목 갱	수 갱	계		
소장					1				1										
부장					2				2										
차장	1		1																
과장		1			1				1	1		1	1					1	
계장	1	1	1		1	1	1	1	4	1		1	1	1	1	1	1	4	
사원	3	1	2	1	2	5	3	2	12	4	2	6	2		2	1	5		
준사원	3		3	2	8	3	2	1	14	5	2	7	3	3	7	8	21		
촉탁				1															
계	8	3	7	4	15	9	6	4	34	11	4	15	7	4	10	10	31		
사무원	2	1	1		1	4													
채광공														24	60	55	139		
운반공														56	115	96	267		
운전공														2	8	8	18		
수리공														2	6	8	16		
측량공																			
탐사공																			
파쇄공																			
기운공													3	9	9	19	40		
선광공																			
검양공	2																		
전공											14	14							
기계공						1			1	28		28	13					13	
토건공						2			2	3		3							
분석공																			
시료공																			
경비원					18				18										
교환수					3				3										
운전수					1				1										
간호원				1															
잡부				1	1	5		8	14				4					4	
급사					1				1	1		1	1					1	
일용부																			
계	4	1	1	2	25	12		8	45	32	14	46	21	93	198	186	498		
합계	12	4	8	6	40	21	6	12	79	43	18	61	28	97	208	196	529		

〈출처 : 1982년도 광업소자체 자료〉

〈표 4-15〉 직종별 노력계획표 (2)

과실별 직종	조사과			선광과			합 계	육 송 계	속 초 사 무 소	합 계	비 고
	조 사 계	측 량 계	계	선 광 계	분 석 계	계					
소장							1			1	
부장							2		1	3	
차장							2			2	
과장	1		1	1		1	6			6	
계장		1	1	1		1	14	1	2	17	
사원	3	1	4	2		2	36	1		37	
준사원	3	1	4	3	1	4	58	1	2	61	
촉탁							1			1	
계	7	3	10	7	1	8	120	3	5	128	
사무원	1						10		1	11	
채광공							139			139	
운반공				14		14	281			281	
운전공							18	1		19	
수리공				1		1	17			17	
측량공		1	1				1			1	
탐광공	19		19				19			19	
파쇄공				8		8	8			8	
기운공				36		36	76			76	
선광공				4		4	4			4	
검양공							2			2	
전공							14			14	
기계공							42			42	
토건공				2		2	7			7	
분석공					1	1	1			1	
시료공					6	6	6			6	
경비원							18			18	
교환수							3			3	
운전수				7		7	8	17	1	26	
간호원							1			1	
잡부	1	1	2				21		2	23	
급사				1		1	4			4	
일용부											
계	21	2	23	73	7	80	700	17	5	722	
합계	28	5	33	80	8	88	820	30	10	850	

〈출처 : 1982년도 광업소자체 자료〉

④ 재정현황

1981년 12월 31일과 1982년 4월말 현재 양양광업소의 재정 상태는 1981년 12월 31일 5,615,130,382원이 4개월이 지난 후 1982년 4월말 현재 7,049,491,249 원으로 <표 4-24>과 같이 본지점계정이 추가되면서 1,434,360,867원의 재정이 증가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4-16> 1981년도 대차대조표

(1981.12.31. 현재)

(-) 자 산	5,615,130,382
당 좌 자 산	1,866,633,170
재 고 자 산	819,421,177
기 타 유동자산	12,932,519
(1) 유 동 자 산	2,698,986,866
(2) 투자와기타자산	1,099,520,567
투 자 자 산	1,057,491,037
기 타 자 산	42,029,530
(3) 고 정 자 산	1,816,622,949
(二) 부 채	3,852,735,682
(1) 유 동 부 채	1,415,880,274
(2) 고 정 부 채	2,436,855,408
(三) 자 본	1,762,394,700
(1) 자 본 금	1,000,000,000
(2) 자 본 잉 여 금	42,201,156
(3) 이 익 잉 여 금	720,193,544
(四) 부채 와 자본총계	5,615,130,382

1982년도 4월말 대차대조표

1982.4월 말 현재

(-) 자 산	7,049,491,249
(1) 유 동 자 산	2,560,596,695
당 좌 자 산	1,601,811,978
재 고 자 산	846,660,735
기 타 유동자산	112,123,982
(2) 투자와기타자산	1,375,841,892
투 자 자 산	1,282,812,362
기 타 자 산	93,029,530
(3) 고 정 자 산	1,721,071,753
(4) 본 지 점 계 정	1,391,980,904
(二) 부 채	5,040,601,463
(1) 유 동 부 채	1,026,236,061
(2) 고 정 부 채	2,662,809,711
(3) 본 지 점 계 정	1,351,555,786
(三) 자 본	2,008,889,786
(1) 자 본 금	1,000,000,000
(2) 자 본 잉 여 금	42,201,156
(3) 이 익 잉 여 금	966,688,630
(四) 부채 와 자본총계	7,049,491,249

<출처 : 1982년 삼미광업개발주식회사 양양철산 개발계획서 자료>

⑤ 매출현황

1981년 1월 1일~1981년 12월 31일과 1982년 4월말 현재로 양양광업소의 매출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1981년도 매출액은 8,839,207,188원이며 매출 총이익은 1,575,020,775원으로 나타났고 1982년도 4월말 현재 매출액 2,995,352,014원에서 매출 총이익금은 682,224,541원으로 <표 4-17>와 같이 집계되었다.

〈표 4-17〉 1981년도 손익계산서

(1981.1.1.~1981.12.31)

1 매출액	8,839,207,188
2 매출원가	7,264,186,413
3 매출총이익	1,575,020,775
4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848,530,917
5 영업이익	726,489,858
6 영업외수익	215,107,588
7 영업외비용	197,566,310
8 경상이익	744,031,136
9 특별이익	1,488,272
10 특별손실	232,612,963
11 법인세공제전이익	512,906,445
12 법인세	276,832,019
13 당기총이익	236,074,426

1982년도 손익계산서

(1981년 4월 30일 현재)

1 매출액	2,995,352,014
2 매출원가	2,313,127,473
3 매출총이익	682,224,541
4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359,025,754
5 영업이익	323,198,787
6 영업외수익	152,672,711
7 영업외비용	48,310,526
8 경상이익	427,360,972
9 특별이익	91,098
10 특별손실	956,984
11 법인세공제전이익	426,495,086
12 법인세 (43%)	183,392,886
13 당기총이익	243,102,200

〈출처 : 1982년 삼미광업개발주식회사 양양철산 개발계획서 자료〉

## ⑥ 역대 소장현황

1대 김형삼	4대 이은대	7대 김진구	10대 정시중
2대 박선재	5대 안창수	8대 홍용균	11대 최재섭
3대 김재민	6대 홍용균	9대 정수영	12대 이갑수

### 4) 채광과

#### (1) 업무현황

- ① 매장 광량을 채굴하여, 선광장(오아뽕=저광사)까지 운광, 조광(粗鑛) 생산하는 부서.
- ② 4개갱(수항, 양양갱, 도목갱, 논화갱)이 있고, 채광작업 및 운광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를 보수, 유지하는 시설계가 있음.
- ③ 증산과 안전유지를 위한 최상의 업무를 수행함.
- ④ 항상 재해위험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부서로서 관리 감독직은 과장, 갱장(계장급), 주임, 감독직으로 조직됨.

#### ● 시설계

- ① 일명 광차 수리실이라고도 칭함.
- ② 채광과 소관 제반장비를 보수하고 유지함.

#### ● 양양갱

- ① 양양광업소 개광이래 도목갱과 같이 그 역사를 이루고 있음.
- ② 1일 3교대 채광 작업함. 각 교내에 주임사원이 보직되어 있고, 작업장(막장)수에 따라 감독직 책임자가 있음.
- ③ 수갱이 생기기전까지는 광업소 생산(조광)의 반 이상을 채굴함.
- ④ 논화갱과 이웃하고 있음.





〈사진 4-3〉 사갱 입구 1957년경

● 도목갱

- ① 도목갱 광채(일부 탐동광채 포함)를 주로 채굴함.
- ② 1일 3교대 작업함.
- ③ 수갱개발이전에는 양양갱과 같이 중요 생산 장 임.
- ④ 수갱과 이웃하고 있음.

● 수갱

- ① 매장광체의 부존상태가 지하 깊숙이 부존(賦存)하므로 수직갱(수갱) 개발의 당위성이 이루어짐.
- ② 엘리베이터에 광석을 퍼 싣고 나와서, 선광장에 보내는 것으로 보편 됨.
- ③ 기존의 양양갱, 도목갱의 광채가 채진됨에 따라 광산의 수명단축을 연장시킴.
- ④ 수갱의 갱도 안은 항상 낙수로서 비오는 상황임.

● 논화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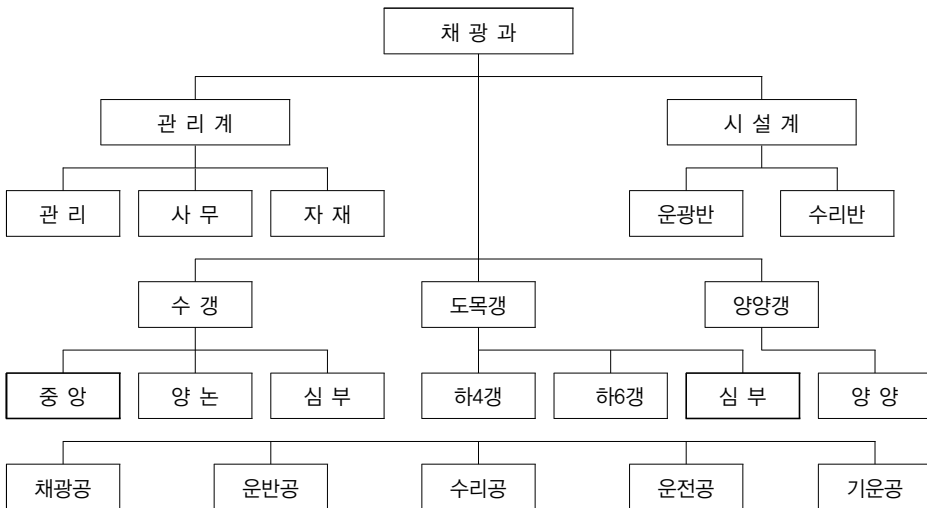
- ① 양양갱과 더불어 광산개발 초기부터 채굴 생산한바, 철광석 함유 성분 중에 철품위(% Fe)이외의 불순 성분(유황 %S)과 광석의 질이 너무 치밀한 중광(中鑛)석이 혼재되어 제반 생산된 바 임.
- ② 기계 선광장(약칭 기선장)에 불밀공장(제2공장)이 보강 증설 되므로 휴화광(유황성분 많은)과 중광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계속 채광함.
- ③ 생산 작업체제는 소위 덕대업자가 회사와 계약체결 함.

(2) 업무현황

① 기구 및 인원현황

1982년도 채광과에 소속된 종업원 수는 채광과장을 비롯한 사원 급이 32명이 고 채광공을 비롯한 고원은 496명으로 양양광업소에서 가장 많은 총 528명의 광부들이 철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구표 및 인원현황은 <표 4-18>과 <표 4-19>과 같다.

<표 4-18> 기구표



< 출처 : 1982년 채광과 자체 업무현황자료 >

〈표 4-19〉 인원현황

직종별	구분	인 원					T/O 인원	현재 인원
		관리	시설	수갱	도목갱	양양갱		
사 준 사 원	과 장	1					1	1
	계 장		1	1	1	1	4	2
	사 원	2		1	2		5	8
	준사원	3	2	8	7	3	21	21
	소 계	4	3	10	10	4	31	32
고 원	채광공			55	60	24	139	136
	운반공			96	115	56	267	271
	운전공			8	8	2	18	16
	기운공		3	19	9	9	40	40
	수리공			8	6	2	16	15
	기계공		13				13	13
	잡 공	4						4
	급 사	1						1
	소 계	5	16	186	198	93	498	496
합 계	9	19	196	208	97	529	528	

※ KOMEP 담당굴진 : 1,390 m ⇒ 필요인원 20명 : 1일

〈출처 : 1982년 채광과 자체 업무현황자료〉

## ② 업무추진계획 및 주요업무

### ● 업무추진 계획

#### ▶ 안전조업

- 보안규정 준수 및 재해 예방책 강구.
- 보안 시설 점검 및 보수.
- 작업장 순찰 철저.
- 충분한 휴식.

- ▶ 능률향상
  - 장공기 채굴.
  - 기능 인력의 효율적 운용.
- ▶ 채광 실수율 향상
  - 생산 및 조광품위 향상.
- ▶ 생산 원가 절감
  - 자재절감(폐자재 활용)
  - 누기 및 압력 강하 방지(압축공기)
  - 표준 발파로 화약 사용량 억제

● 주요업무

채광과 주요업무내용은 <표 4-20>와 같다.

<표 4-20> 주요업무내용

순위	업 무 내 용	부 서
1	각항 소요자재 수불	관 리
2	권양 시설 점검 및 수리	시설계
3	각종 기관차 점검 및 수리	"
4	각종 광차 제작 및 수리	"
5	착암기 및 로더 점검 및 수리	"
6	필요 부품 제작	"
7	보안업무 시달 및 생산량 확인	갱 장
8	굴진 및 채굴계획 수립	"
9	작업 전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감 독
10	인원관리 및 작업지시	"
11	화약관리(간이 취급소 운영)	"
12	채굴 공동 보안유지 및 폐석충진	"
13	출광, 배수통기 확인 및 점검	"
14	장비 및 항내 시설물 확인 및 점검	"
15	재해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

<출처 : 1982년 채광과 자체 업무현황자료>

③ 광체별 광석생산량 및 화약사용량

1982년도를 기준하여 년 328일 조광(粗鑛)한 생산량은 779,000M/T이고 광체별 1일 생산량은 <표 4-21>와 같으며 80년부터 81년까지 2년간 조광에 필요한 화약 사용량은 <표 4-22>과 같다.

<표 4-21> 광체별 생산량(1일)

※ 년 간 328일간 생산량 779,000M/T (30%Fe) ⇒ 350,000 (58.2%Fe)

광체별	구분	81년도 말 잔 광량			82년도 1일 생산량		비 고
		광량 (M/T)	Fe(%)	S(%)	생산량 (M/T)	Fe(%)	
수 갱	중앙및남향	322,000	45,000	0.045	410	30,000	잔주 20,000M/T포함
	북향	508,000	45,000	0.04			80m 봉락 작업 중지
	심부	1,044,000	45,000	0.11	120	30,000	
	양논	1,051,000	45,000	0.32	365	30,000	현재 굴진중
도 목	5호및북향	700,000	45,000	0.368	480	30,000	
	심부	1,057,000	50,000	1.721	660	30,000	"S"품위로 제한생산
양 양 광 체		64,000	45,000	0.455	340	30,000	
합 계		4,746,000	45,000	0.575	2,375	30,000	82년도계획 265M/T

<출처 : 1982년 채광과 자체 업무현황자료>

<표 4-22> 화약사용량(조광M/T당)

1980 년도			1981 년도		
1~6 月	7~12 月	계	1~6 月	7~12 月	계
270(g)	370(g)	320(g)	370(g)	360(g)	365(g)

<출처 : 1982년 채광과 자체 업무현황자료>

④ 권양시설 및 기계시설 현황

1982년도를 기준 각 향에서 권양기가 1일간 출광(出鑛)하는 량은<표 4-23>과 같으며 갱내에서 조업에 사용되는 기계시설 현황은 <표 4-24>과 같다.

〈표 4-23〉 권양시설 현황

권양기별	구 분	HP	일 출광량(m/T)	비 고
제 1 수갱		150		인차(人車)
제 2 수갱		333	1,680	
제 3 사갱		150	170	중 계
도목갱 상단		100	300	
도목갱 하단		30	160	중 계
양양갱 상단		100	300	
양양갱 하단		75	70	중 계
50 人총		30	100	
합 계		968 HP	2,380 m/T	

〈 출처 : 1982년 채광과 자체 업무현황자료 〉

〈표 4-24〉 기계시설 현황

구 분	규 격	대 수	합 계	비 고
착 압 기	TY-24	63	63대	
로 - 다	LM-56	6	8대	
	LM-36	2		
광 차	그랜비	48	263대	2 m <sup>3</sup>
	대 형	55		1,3 m <sup>3</sup>
	소 형	160		0,7 m <sup>3</sup>
기 관 차	디 젤	5	11대	6 M/T
	бат테리	3		3,5 M/T
	트로리	3		8 M/T
공기압축기	100 MP	4	1,425 HP	
	175 MP	1		
	350 MP	1		
	500 MP	1		

구 분	규 격	대 수	합 계	비 고
배수펌프	75 MP	1	1,822.5 HP	도목 하 4갱
	15 MP	1		도목 하 2갱
	30 MP	10		수량300ML1 350ML1 400ML1 도목 4 양양 3
	50 MP	3		수항 400ML1 도목 2
	75 MP	2		도목 1 양양 1
	100 MP	1		도목 1
	125 MP	4		수량 300ML2 양양 1 400ML2
	150 MP	4		180ML2 양양 2

〈 출처 : 1982년 채광과 자체 업무현황자료 〉

### ⑤ 갱내 운영실태

#### ● 광석운반

드로우포인트(Draw Point : 떨어뜨리는 곳)로 낙하(落下)된 광석은 1M/T 철제광차에 수적(手積)이나 광산로더로 적재한 후 3M/T 배터리 축전차에 의해 중단(中段)슈트로 적하(積下)된다. 적하된 광석은 주 운반 갱도(규격 2.5m×4m)인 -300ML에서 2.6M/T 그 랜비 광차에 적재한 후 8M/T 트로리 기관차로 연결 2수갱 슈트로 운광한다. 2수갱슈트에 적하된 광석은 -320ML에 설치된 36"×24" 125HP 조크라샤로 100mm의 입도(粒度)로 파쇄 하여 -340ML에 설치되어있는 48"×12"×2<sup>3</sup>/<sub>4</sub>" 30HP Apron feeder를 거쳐 3M/T 스깊에 적재되어 갱외 저광사(貯鑛舍)로 출광된다. 수갱설비의 현황은 <표 4-25>과 같다.

#### ● 통기개요

갱내통기의 목적은 갱내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갱내종업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 지층에서 발생하는 폭발가스와 유독성가스를 희석(稀釋)시켜 위험성을 회피하는데 있다. 통기법(通氣法)은 자연통기법(自然通氣法)을 채택하고 있다. 입기갱도는 1수갱이 되며, 2수갱으로 배기되고 있다. 통기(通氣 : ventilation)는

〈표 4-25〉 수갱설비현황

구 분	제 1 수갱	제 2 수갱
심도	320M	350M
권양마력	150HP 복동	333HP 복동
처리량	380T/日	1,860T/日
용도	자재 및 인원승강	광석운반용
규격	2.5m×4.6m방형	2m×4.3m방형
wire rope	28∅mm 6×19	27∅mm Locked Coil
권양속도	2.3m/sec	6m/sec
운반극	10인승 캐지1단	3ton 스킵

〈 출처 : 이경상 양양철산의 현황 〉

양호한 편이나 통기가 불량한 막장에서는 7.5HP 국부(局部)선풍기와 동력선풍기를 사용하여 통기불량개소를 해소하고 있다. 특히 수갱의 갱도 심부광체는 갱도가 복잡하게 개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굴공동(採掘空洞)이 있으므로 주작업장인 양논광체(襄論鑛體)까지 입기를 유도하려고 약 20개소의 풍문을 설치하여 통기회로를 일원화하여 240ML를 양양·논화 갱도로 기류를 유도하여 입도와 슈트를 통해 -300ML 갱도로 배기시켰다.

### ● 배수개요

수갱지구의 배수는 그 수갱 -300ML에 주 센프장(갱저의 물 웅덩이)을 설치하여 수갱 출수량 전량과 배수갱 출수량 중 하6갱(下六坑) 하부의 출수량을 집수시켜 그 수갱 -180ML에 있는 중계 센프(sump)장까지 양수시키고 중계센프로 갱외로 배수시킨다.

### ⑥ 개발 현황

#### ● 갱내채광

본 광산의 주요 개발지구는 양양수갱지구 및 도목, 논화, 지구로 구분 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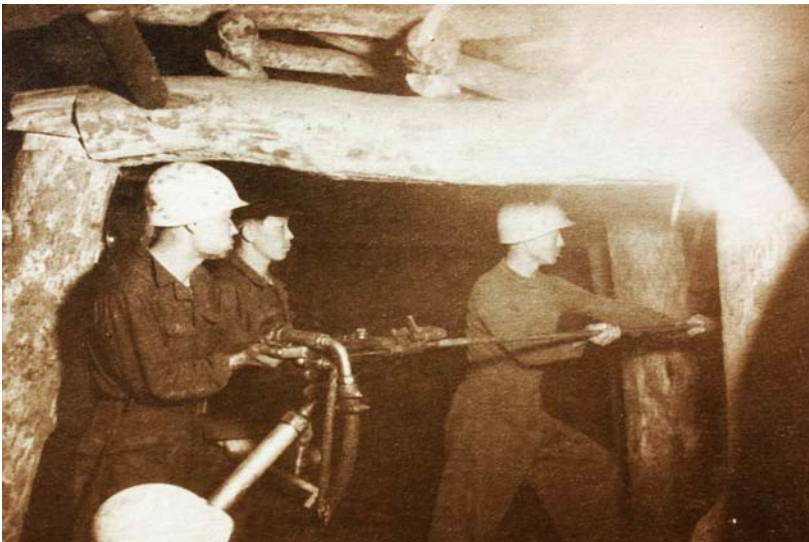
현재 각 갱별 1일 생산량은 수갱지구 1700M/T, 양양지구 300M/T, 도목지구 400M/T이며 논화갱 지역은 0ML(제로미터레벨) 상부는 채진 완료 되었고 심부 양논 광체를 개발하고 있다.

채광법은 중단채광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광체는 슈린 케이지 채광법을 병행하고 있다.

원가절감 방안으로 장공 착암으로 1인 2대의 착암기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운반계통은 0ML(제로미터레벨)을 기준하여 상·하부운반을 구분 담당하고 있으며 상부 운반은 양양 및 도목갱 광체의 사갱운반이며 하부 운반은 심부 수갱광체에 대한 운반으로 수갱 권양기 400HP을 사용하고 있으며 운반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갱내 통기는 1수갱을 입기, 2수갱을 배기로 한 자연통기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배수는 수갱 배수준 - 180ML에 125HP 양수기 2대로 집수하여 갱내로 배출하고 있다.

각 지구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진 4-4〉 갱내 착암작업 중인 모습(1957년경)

### ● 양양수갱지구

본 광산의 중심부를 이루는 광체로서 0ML(제로미터레벨) 상부는 양양광체 하부는 수갱 광체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다.

상부 수갱광체는 현재 일부가 채진 되었고 기 확보된 잔량을 채광 하고 있으며 1일 300톤을 생산하고 있다.

하부 수갱 광체는 현재 300L 상부를 주 채광 수준으로 하고 있으며 1일 60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

본 지구에서는 장공 착암기를 사용 채광하고 로다를 이용한 막장 운반하고 있다. 또한 심도 400M의 제1수갱과 심도 350M의 제2수갱이 약 600M 거리를 두고 개설되어 있으며 제2수갱은 스킵 타입 400HP 제1수갱은 케이지 타입 150HP으로 2수갱에서 광석을 운반하고 1수갱에서 인원 및 자재를 운반하고 있다.

### ● 도목갱지구

양양수갱 북서쪽 1KM 지점에 위치하며 배수준 - 50ML 상부의 광체는 도목사갱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심부 광체는 도목 사갱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심부 광체는 수갱 300L에서 개발하고 있다.

상부는 1일 4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300L에서 장공발파에 의한 기계화 채광으로 1일 400톤을 생산하여 2수갱으로 운반 반출하고 있다.

### ● 논화지구

본 지구 0ML(제로미터레벨) 상부는 채진 완료 되었고 심부의 양논 광체를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300L에서 장공발파에 의한 기계화 채광으로 일 400톤을 생산하여 2수갱으로 운반하고 있다.

## 5) 선광과

### (1) 업무현황

- ① 채광과 각 항에서 채굴한 조광을 수광(受鑛)하여 기계 선별하여 제철소에 보낼 최종산물인 정광(精鑛)을 생산하고
- ② 최종 선별되어 폐기하는 폐석은 골재로 출하하기도 하는 부서
- ③ 개광초기와 기계선광장 가동이전에는 수선(핸드픽킹)으로 선별하여 괴광기준품위(56% Fe 이상)의 괴 정광을 생산 육송 출하함.



〈사진 4-5〉 선광장 모습

- ④ 버려진 중광과 폐석을 재 선별하는 기선장외, 장외선별장도 있었음(장외 담당주임이 관리감독)
- ⑤ 최종산물 괴정광 56%Fe 이상, 분정광은 60%Fe 이상으로 생산하여 속초사무소까지 육송 출하함.
- ⑥ 육송은 트럭으로 하며, 한때에는 태평실에서 계근을 하였음.
- ⑦ 선광장 전 공정의 생산 및 폐기물에 대하여 시료(샘플) 채취하여 분석실(분석계)에서 성분을 분석 함.

⑧ 당일 생산량(정광)은 선광관리주임이 실수율 계산에 의하여 산출함.

● 선광계

① 선광과(選鑛課) 주무계이며 조광석(粗鑛石)을 선광장(選鑛場)에서 1일 3교대로 선별 처리하여 최종산물인 정광(精鑛)을 생산함. 생산 관리 공정별 교대 주임과 작업단별 감독, 기계 운전공 및 파쇄공 등으로 조직됨.

② 선광 기계와 장비의 유지 보수는 선광수리실(공무과 소속일 때도 있음)에서 함. 선광수리실에는 주임 1명, 감독 2명과 기계공으로 조직됨.

③ 광석을 잘게 부수는 마광기(摩鑛機)인 볼밀(Ball Mill)을 설치 후에는 기존의 기계 선광장은 1공장, 볼밀 설치 공장을 2공장이라 칭하기도 함.

④ 선광 후 폐석은 도로포장 및 토건 골재로 판매람.

⑤ 폐석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는 지역사회에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음.

⑥ 폐석은 전방 지역 군용 벙커와 강릉비행장 격납고 건설 당시 골재로 사용되었음.

※ 강릉비행장 격납고 건설시 고문관(미군 대령)이 골재 규격의 합격 여부(ASTM 미국공업규격)를 확인코자 직접 선광장을 방문하였음.

⑦ 큰 폐석인 대괴(大塊)는 새마을 축대용으로 반출되었음.

⑧ 장승4리 미나미골〔南村〕에 권양기(捲揚機)를 이용해 야적하였음.

폐광 무렵에는 골재 생산 현장으로 변모함.



〈사진 4-6〉 선광과 사무실(1960년경)

● 분석계

- ① 선광장 각공정에서 필요한 시료[시료공이 채취]를 채취하여 분쇄, 마광하여 분석실에 보냄
- ② 분석실엔 각종 시약(화학약품)이 비치됨
- ③ 시료에 대한 각종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그 성분과 품위 철분 함양 비율을 확정함.
- ④ 계장, 주임들은 대학의 화학과 출신이었음.

● 출하계/육송계

- ① 선별 생산된 철광석을 트럭으로 속초사무소(저광장)까지 육송함.
- ② 육송차량(추력)은 직영차량과 차입차량(용차라 칭함)으로 운행함.
- ③ 차입차량 차주들은 속초, 양양지역에서 트럭 소유자들이었음.
- ④ 가끔 육송직영차량기사들과 용차기사들과의 친목축구시합이 있었음.
- ⑤ 육송차량은 비공식적인 출퇴근용으로 이용됨.

## (2) 운영실태

### ① 기구 및 인원현황

1982년도 선광과는 선광, 분석, 육송부서에 소속된 종업원 수는 선광과장을 비롯한 사원 급이 8명이고 기운공 36명을 비롯한 고원은 80명으로 양양광업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총 88명의 종업원들이 선광공정 및 선광방법에 의하여 고품질의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인원현황은 <표 4-26>과 같다.

<표 4-26> 인원현황

직종별	구 분	인 원			현재 인원
		선 광	분 석	육 송	
사 준 사 원	과 장	1			1
	계 장	1			1
	사 원	2			2
	준 사 원	3	1		4
	소 계	7	1		8
고 원	운 반 공	14			14
	수 리 공	1			1
	파 쇄 공	8			8
	기 운 공	36			36
	선 광 부	4			4
	토 건 공	2			2
	분 석 공		1		1
	시 료 공		6		6
	운 전 공			7	7
	잡 공	1			1
	소 계	66	7	7	80
합 계	73	8	7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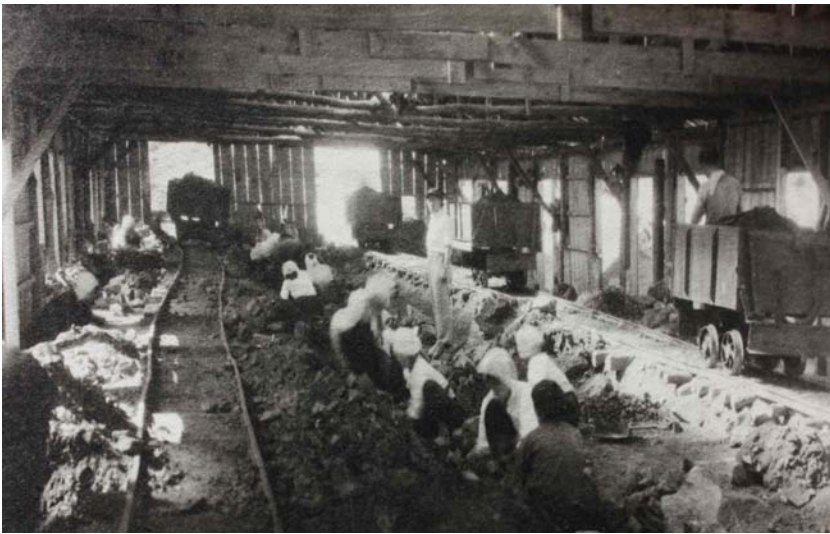
<출처 : 1982년 광업소 자체 업무현황자료>

## ② 선광시설의 변천과정

양양광산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광석 생산광산이었다.

철광석은 도목갱, 논화갱, 양양갱, 수갱 등의 갱도에서 채굴한 모든 철광석은 선광장으로 운반되어 모든 공정(工程)을 거친 후에 정광(精鑛)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선광장에서는 개광 이래 '61년 8월까지의 노천(露天)에서 광부들이 수선 방법(手選方法)에 의한 선광조업을 하여 왔으나 당시만 하더라도 원광[조광(粗鑛)]의 품질은 철 함량이 평균 45% 이상으로서 선별 상 문제점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저품위(低品位) 광석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면에서 선별(選別)을 못하고 방치되어 중요한 지하자원의 손실을 가져왔었다.



〈사진 4-7〉 선광 수선작업장(1960년경)

따라서 선광장의 기존시설, 선광공정(選鑛工程) 및 선광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조업결과와 문제의 저 품위 광석의 시험연구결과 자료들을 종합 분석하여 방치되어 있는 저 품위 광석을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광시설, 공정 및 방법을 모색하여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하여 차후 향상된 선광장 시설로 고 품위

철광석을 생산하여 보다 발전하는 양양광업소의 면모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였다.

이에 양양광업소 차체기술로 연구개발한 성과[논문(論文)]물이 인정되고 때마침 국가에서 제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第二次經濟開發計劃)의 일환(一環)으로 포항종합제철소가 건설이 되고 연구개발진의 기계화시설 개발에 편승(便乘)하여 볼밀(Boll Mill)기계가 도입되며 양양광업소의 저 품위 철광석 선광장이 건설되어 1일 1,500 M/T 의 원광(原鑛)을 처리하여 800여 M/T의 자철광을 생산하였다. 선광장에서 생산되는 철광은 수출하여 국가의 외자획득(外資獲得)면에서 큰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제철소의 원료공급원(原料供給源)으로서도 중요시되었다. 양양광업소로 인하여 장승리 광산촌은 물론 양양 읍내와 속초까지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큰 번영을 누리기도 하였다.

### ③ 선광장의 운영

양양광산의 광석광물은 자철석이 주이며 황철석, 자류철석(磁硫鐵石), 티탄철석 및 황동석이 소량 수반되고 각섬석(角閃石), 흑운모, 인회석, 석영, 녹니석(綠泥石), 스피넬 등이 같이 포획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자력선별에 의해 선광을 하고 있다.

선광계통은 갱내에서 1차 파쇄되어 출광되는 100mm크기의 수갱 조광과 양양갱에서 출광되는 300mm 크기의 조광과 구분하여 저장한 뒤, 양양갱에서 출광된 조광은 36"×24" 125HP 조크러셔에서 100mm로 1차 파쇄한 후 수갱 조광과 혼합하여 급광(給鑛)콘베어로써 운반하여 50mm BAR GRIZZLY를 통과한다. 50mm over size는 48"×12" 75HP 조크러셔에서 50mm로 파쇄한 후 200HP 콘크러셔를 거친 중쇄광석(中碎鑛石 : 캐넌광석을 두 번째로 잘게 부수는 일)은 Vibrating Screen에 의해 -10mm 분중광(粉中鑛)과 +10mm /-30mm의 괴중광(塊中鑛)으로 구분되며 괴중광은 건식 자선기로 2단계를 거쳐 중광과 괴정광(Fe 50%)으로 구분되어 괴정광으로 생산된다.



단체분리(單體分離) : 작업을 할 때에, 광석에서 광물을 가려내어 작은 입자(粒子)로 만드는 일이 어려운 중광(Fe 30~40%)은 200HP Ball Mill에서 마광(磨鑢)된 후 분광처리(粉鑢處理)된다. 10mm Undersize 분중광은 습식(濕式) 자선기로 4단계(段階)를 거쳐 분광처리된다. 이는 습식처리시 선광이 건식보다 깨끗이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양양광산의 처리규모는 2,400M/T/일이며 선광시설 현황은 <표 4-27>에 나타나 있다.

<표 4-27> 선광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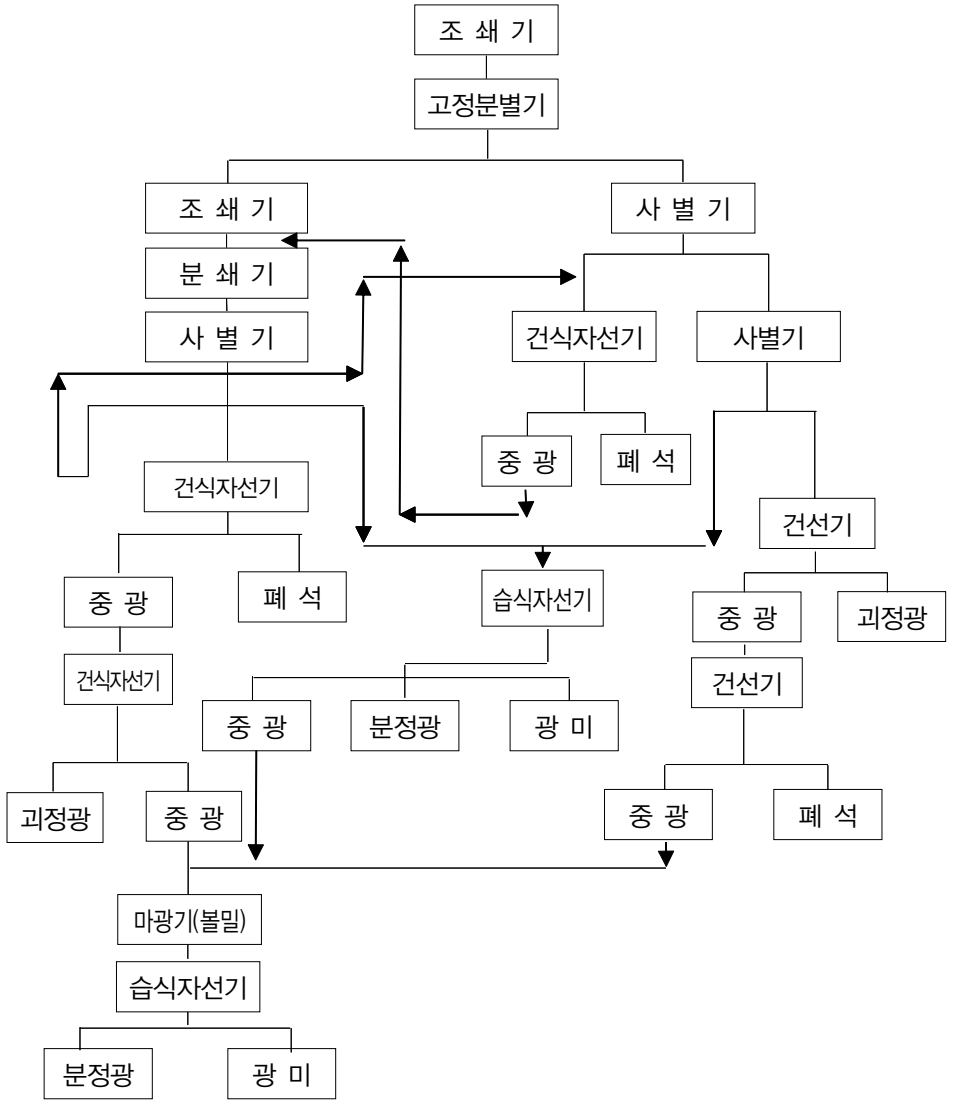
시설명	수량	용량	비고
조크러셔	4대	300HP	
볼 밀	1대	200HP	
콘크러셔	4대	425HP	
D. M. S.	11대	41HP	
W. M. S.	11대	18HP	
스크린	6대	70HP	
각종콘베이어	31대	190HP	
양수기	3대	225HP	
샌드펌프	8대	220HP	
침전지	1식	52,150m <sup>2</sup>	

<출처 : 1982년 광업소 자체 업무현황자료>

● 선광처리공정

선광장의 급광 품위는 Fe 30% 내외이며 습식 및 건식 자력 선광에 의하여 Fe 56%의 괴광과 Fe 60%의 기준의 분광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광처리 공정에 따른 선광계통도는 <표 4-28>과 같다

〈표 4-28〉 선광계통도



[보기]  
 조쇄기 → 조크러셔  
 분쇄기 → 콘크러셔  
 사별기 → 스크린(체)

〈출처 : 1985년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산평가자료〉

## 6) 공무과

### (1) 업무현황

- ① 광업소 전반, 시설, 장비를 보수 유지하는 부서
- ② 공무계, 전기계 외에 한때 토건계도 있었음
- ③ 생산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종사자들은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함

#### ▶ 공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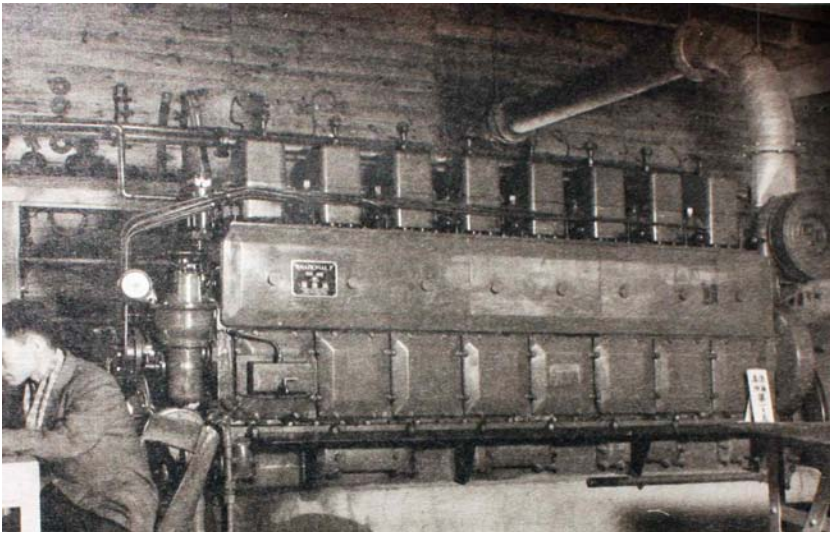
- ① 전반적으로 기계, 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여 유지, 보수하는 부서
- ② 공작실, 토건실, 설계실, 선광수리실(어느 시기에는)을 관리감독운영
- ③ 관리자(과, 계장, 주임)들은 대학기계공학과, 토목·건축공학과 출신들이 보직됨.
- ④ 토건실에는 불도저와 그레이더가 있어서 도로보수, 제설작업 등을 함.
- ⑤ 토건실은 제재소 시설도 갖추.



〈사진 4-8〉 공무과 작업 전경(1958년경)

## ▶ 전기계

- ① 자가발전시설을 보유함, 한전전기를 전적으로 공급 받기 전에는 자가 발전을 운용함.
- ② 발전실, 배전실(선광과)엔 전문적인 전기기능보유자가 보직됨
- ③ 자체에서 대용량 전기기기나 모터 등도 수리도 함.
- ④ 한전의 초창기 전기수급 땀 한전에 기술지원도 하였음.
- ⑤ 관리자(계장, 주임)는 대학 전기학과 출신들임.
- ⑥ 오래 숙련된 기술자가 인정을 받아 관리자로 보직되기도 함.



〈사진 4-9〉 공무과 발전실(1956년경)

## (2) 운영실태

### ① 기구 및 인원현황

1982년도 공무과는 공무계와 전기계로 구분되며 소속된 종업원 수는 공무과 장을 비롯한 사원 급이 15명이고 기계공 28명을 비롯한 고원은 46명, 모두 61명이 양양광업소의 갹(坑) 내(內)와 광업소 전 구역에 설치되어있는 기계 및 시설장비 등 모든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지원부서이며 공작실,

전기수리실, 선광수리실, 설계실, 토건설, 재제소등을 운영하며 인원현황은 <표 4-29>과 같다.

<표 4-29> 인원현황

직종별	구분	인원		현재인원
		공무계	전기계	
사 준 사 원	과장	1		1
	계장	1		1
	사원	4	2	6
	준사원	5	2	7
	소계	11	4	15
고 원	기계공	28		28
	전공		14	14
	토건공	3		3
	급사	1		1
	소계	32	14	46
합계		43	18	61

< 출처 : 1982년 광업소 자체 업무현황자료 >

## ② 동력시설 및 중장비 보유현황

공무과 업무소관인 동력시설은 유사시 한국전력에서 공급되는 수전전력(受電電力)이 중단되면 이를 보완하기위하여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여 조업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시설이다. 전력시설현황 <표 4-30>과 각종 운반 및 기타 중장비 보유현황 자료는 <표 4-31>와 같다.

〈표 4-30〉 전력시설 및 공작시설 현황

시 설 명	수 량	용 량
디젤발전기	6 대	2,317KW
한전수전시설	1 식	3,000KW (22,900V)
공작기계시설	13 대	76HP

〈출처 : 1982년 삼미광업개발주식회사 양양광산 계발계획서〉

〈표 4-31〉 중장비 보유현황

순 번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대)
1	불도저 (Bulldozer)	D - 7	1
2	그레이더 (Grader)	D - 6	1
3	페이로더 (Pay-Loader)	645 B	2
4	”	FL 170	1
5	”	FL 140	1
6	”	D 941	1
7	크레인 (Crane)	20 M/T	2
8	”	10 M/T	1
9	덤프트럭 (Dump Truck)	8 M/T	19
10	콘크리트믹서 (Concrete Mixer)	8 切	1

〈출처 : 삼미광업개발주식회사 양양광산 계발계획서〉

## 7) 조사과

### (1) 업무현황

- ① 새로운 광체를 발견하여 매장량을 확보하고, 광산수명을 연장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 ② 시추[보링(Boring)]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짐
- ③ 광산의 광상(鑛床)과 지질을 조사함
- ④ 탐광종사자들은 대학의 지질학과 출신들임.

⑤ 광구를 측량하고 도면 화하는 측량계가 있음(1급 측량사)

▶ 조사계

- ① 탐광, 시추업무
- ② 지질, 광상조사

▶ 측량계

- ① 광구경계 측량 등

(2) 운영실태

① 기구 및 인원현황

1982년도 조사과는 조사계와 측량계로 직원 수는 조사과장을 비롯한 사원 급이 10명이며 탐광공 19명을 비롯한 고원은 23명, 총 33명이 지질조사 및 탐광조사로 새로운 광맥을 찾아(발견)내 양양광산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직원현황은 <표 4-32>과 같다.

<표 4-32> 인원현황

직종별	구분	인원		현재인원
		조사계	측량계	
사 준 사 원	과장	1		1
	계장		1	1
	사원	3	1	4
	준사원	3	1	4
	소계	7	3	10
고 원	사무원	1		1
	측량공		1	1
	탐광공	19		19
	잡부	1	1	2
	소계	21	2	23
합계		28	5	33

<출처 : 1982년 광업소 자체 업무현황자료>

## ② 장기 탐사계획 현황

미개발 구역인 가라피리 지역 및 신규통합광구 일대 정밀 지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전탐 및 자탐을 병행하여 이상대를 확인하고 특히 논화리 및 심부수준의 광체부 존재여부를 집중 탐사 하고 탐광굴진으로 매장량을 확보코자 하는데 년도 별 탐광계획은 <표 4-33>과 같다.

<표 4-33> 년도별 탐광 계획

구분 \ 년도	'82	'83	'84	'85	'86	'87	'88	계
답 사 (천M2)	1,000	2,000						3,000
물리탐사 (천M2)	1,000	3,000	3,000	3,000				10,000
시 추 (M)	4,200	4,100	3,600	4,100	4,200	4,500	4,500	29,200
굴 진 (M)	1,3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370

<출처 : 삼미광업개발주식회사 양양철산개발계획서>

## ③ 조사업무 계획 및 실적 현황

광맥 확보를 위하여 조사과에서 1980년도와 1981년도에 시행되는 시험탐광, 장공탐광, 탐광갱도굴진, 물리탐광, 야외측량 계획 및 실적은 <표 4-34>, <표 4-35>과 같다.

<표 4-34> 1980년도 탐광계획 및 실적 현황

### ○ 시험탐광

구 분	계획(M)	실적(M)	대비(%)	착맥(M)	비 고
자 체	2,000	2,005.40	100.3	4개공/93.00	
광 맥	7,400	7,400.00	100	1개공/14.70	
계	9,400	9,405.40	100.3	5개공/107.70	



○ 장공탐광

구 분	계획(M)	실적(M)	대비(%)	착맥(M)	비 고
도목갱		2,914.50/2,893		15개공/247.65	
양양갱		633.30/		10개공/98.40	
수 갱		1,711.20/4,328		13개공/77.90	
합	13,000	5,259.00/7,221	96.00	38개공/423.95	

○ 탐광갱도 굴진

구 분	계획(M)	실적(M)	대비(%)	착맥(M)	비 고
도목갱	360	360		1개공/9.00	
수 갱	640	640		5개공/158.00	
논화갱	50	50			
합	1,050	1,050	100	6개공/167.00	광량확보154,450M/T

○ 물리탐광 (R.P 전담)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착 맥	비 고
논화리	900,000 M2	613,500 M2	68.20%		

○ 야외측량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착 맥	비 고
논화리	1,537,500 M2	1,199,250 M2	78.0 %		

〈출처 : '80~'81 조사과 자체 계획 및 실적 자료〉

〈표 4-35〉 1981년도 탐광계획 및 실적 현황

○ 시험탐광

구 분	계획(M)	실적(M)	대비(%)	착맥(M)	비 고
자 체	2,000	1,790		2개공/29.10	
광 맥	4,000	4,000		2개공/8.73	
계	6,000	5,790	96.50	4개공/37.83	

○ 장공탐광

구 분	계획(M)	실적(M)	대비(%)	착맥(M)	비 고
도목갱		3,681.60/9,578.10		32개공/457.80	
양양갱		3,091.00/523.20		35개공/488.30	
수 갱		982.00/1,595.70		10개공/203.70	
계	13,000	7,754.60/11,697.00	149.6	77개공/1,149.80	

○ 탐광갱도 굴진

구 분	계획(M)	실적(M)	대비(%)	착맥(M)	비 고
도목갱	505	505		2개공/51.50	
양양갱	145	145		1개공/10.00	
수 갱	850	850		3개공/98.50	
계	1,500	1,500	100	6개공/160.00	광량확보 약400,000M/T 추계

○ 물리탐광 (R.P 전담)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착 맥	비 고
탐 동	800,000 M2	735,000 M2	91.90%		

○ 야외측량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착 맥	비 고
논화리	338,250 M2	338,250 M2	100 %		

〈출처 : '80~'81 조사과 자체 계획 및 실적 자료〉

## 8) 속초사업소



〈사진 4-10〉 광석 출하 및 하역작업(1956년경)

- ① 광산에서 육송되는 철광석을 과·분광구분하여 저장하였다가 소형선박에 옮겨 실어 제철소로 가는 대형선박에 선적작업을 하는 부서.
- ② 소장은 광업소 부소장급이었으며, 한때는 이사급 소장도 있었음.
- ③ 대내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총무계와, 저장장관리와 선적작업 관리를 하는 하역계가 있었음
- ④ 대외업무는 항만청 항만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입출항 업무임.

## 9) 비상계획실

- ①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인적동원과 방호업무 수행부서
- ② 실장은 육군 소령출신이었음.

### 3. 연도별 철광석 생산실적 및 종업원 현황

#### 1) 연도별 철광석 생산실적

연도 별 철 생산실적을 1962년도부터 1995년 폐광까지의 실적으로 1990년대 부터 철 생산량이 <표 4-36>과 같이 감소하였다.

<표 4-36> 연도별 철 생산실적 현황

생산년도	생산량 M/T	생산년도	생산량 M/T
1962	315,200	1979	342,400
1963	319,060	1980	347,910
1964	285,700	1981	359,340
1965	285,700	1982	362,000
1966	291,947	1983	351,000
1967	347,700	1984	361,276
1968	327,640	1985	323,795
1969	323,750	1986	316,942
1970	320,943	1987	277,171
1971	316,842	1988	269,596
1972	280,100	1989	231,400
1973	148,964	1990	188,267
1974	270,000	1991	122,338
1975	291,300	1992	155,477
1976	320,100	1993	96,572
1977	330,100	1994	32,324
1978	340,210	1995	폐 광

<출처 : 양양군연감 및 양양군통계자료>

## 2) 년도별 종업원 현황

1962년부터 1995년 폐광까지의 양양광업소 종업원 수를 조사하였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많은 종업원 수가 재직했으며, 1968년도부터 감소 및 증가를 반복하다가 <표 4-37>와 같이 1980년도 하반기부터 급속하게 감소되기 시작했다.

<표 4-37> 년도별 종업원 현황

구분 년도	총 계			사무 및 기술직			생산 노무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62	1,239	1,084	155	220	205	15	1,019	879	140
1963	1,198	1,077	121	226	209	17	972	868	104
1964	1,268	1,115	153	315	294	21	953	821	132
1967	1,168	916	252	122	119	3	1,032	783	249
1968	987	900	87	120	117	3	867	783	84
1969	972	888	84	115	113	2	857	775	82
1970	971	888	83	115	113	2	856	775	81
1971	918	881	77	112	111	-	846	770	76
1972	660	619	41	97	95	2	564	525	39
1973	633	608	25	87	85	2	545	523	22
1974	785	760	25	101	99	2	661	653	8
1975	796	770	26	126	118	8	670	652	18
1976	810	787	23	122	116	6	688	671	17
1977	837	812	25	129	121	8	698	691	7
1978	891	866	25	104	102	2	659	636	23
1979	847	821	26	108	105	3	739	716	23
1980	840	816	24	135	117	18	705	699	6
1981	894	830	64	125	118	7	769	712	57
1982	943	879	64	137	134	3	806	745	61

구분 년도	총 계			사무 및 기술직			생산 노무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83	807	778	29	104	102	2	703	676	27
1984	778	755	23	90	88	2	683	667	16
1985	723	696	27	99	97	2	624	599	25
1986	736	716	20	110	108	2	626	608	18
1987	596	581	15	80	79	1	516	502	14
1988	506	494	12	77	76	1	429	418	11
1989	443	430	13	72	71	1	371	359	12
1990	332	331	1	58	57	1	274	274	-
1991	290	276	14	49	47	2	241	228	13
1992	208	193	15	49	47	2	159	146	13
1993	179	161	18	46	45	1	133	116	17
1994	108	96	12	32	31	1	76	65	11
1995	36	29	7	11	7	4	25	22	3

〈출처 : 양양군연감 및 양양군통계자료〉

## 4. 천양회사 및 덕대 운영실태

### 1) 천양회사

#### (1) 개요

- ① 양양광업소와는 별도의 회사로 양양갱 골짜기와 탐동 골짜기의 하천 주변에 산적(散積) 산재(散在)되어 있는 노천에서 선별을 함.
- ② 작업은 철관[속칭:일본 말로 덧방], 팽이[속칭:홉빠], 삼태기[속칭:어레이, 방언;삼태미], 질통 등으로 수(手)작업을 하며 선별, 운반, 계량[나무상자 속칭:일본 말로 학고띠기] 하여 1일 작업량을 책정함.

- ③ 노천에서 이동식 벨트인 콘베이어를 설치하기도 함(기계선광장 가동 이전의 양양광업소 노천 채굴모습도 동일 하였음)
- ④ 경영진이나 관리직 보다 유감독이라는 분이 작업장을 성실하게 관리감독 하였다.

## (2) 업무현장 내용

천양회사에서는 철광석을 캐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사항골에서부터 장승리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철광석이나 폐석더미에 가루가 하천으로 흘러 내려온 모래와 흙을 채로 쳐서 철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회사로 1960년 초부터 1970년초까지 큰 현장은 수상리 들떡거리에서 부터 탐동 전체에 걸쳐 있었는데 채금한 것을 모아 놓으면 질통으로 저서 채우는 학구 띠기로 일을 하였다. 하루에 목표량을 채우고 더 일을 하면 그 만큼 임금을 받았다. 학구는 2톤씩 들어갔으며 4~5명이 조를 편성하여 10학고를 하면 1일 목표량이었다. 그러므로 힘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힘이 달리는 사람은 버티지 못하였다.

작업 방법은 철광석을 자성 있는 선별기를 통해서 광석은 선별되고 나머지는 흘러 보내는 방식이다.

광석이 학구에 가득 차게 되면, 다른 통에 넣고 다 찬 통은 차에다 싣고 속초로 반출을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질 좋은 철광석을 생산할 수 있었다.

사장 밑에 과장이 4~5명이 있었고 현장 감독은 5명이었다. 탐동 현장에는 그 골짜기가 꼭 찰 정도로 약 200여명 정도가 일을 했고 들떡골에도 인부가 많았는데 양양사람들은 거의 다 일을 할 정도였다. 전국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교대 없이 주간에만 일을 했다.

철광석은 8톤 트럭 10대에 실려 속초로 운반되어 배편으로 팔려 나갔다.

당시 감독의 보수는 70~80만원이었고 광부는 30~40만원 정도여서 일은 힘들지만 보수는 높았다.

## 2) 덕대

- ① 덕대(德大)란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채광하는 사람을 덕대라 한다. 광주는 계약된 광구 내의 광물채굴권을 덕대에게 부여하고, 덕대는 광주에게 보증금 및 분철(分鐵 : 광물권의 일부를 배당)을 납부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중 덕대 자신의 재산으로 광업을 경영하는 방식이다
- ② 직영체제에서 작업하는 곳 보다 다소 열악한 작업환경(광량 또는 품질)이거나 직영에서 손이 모자랄 때 넘겨주는 생산 작업체제이었다.
- ③ 주(主)로 논화항에서 생산을 한 작업 체제였다.
- ④ 윤성혁[흔히尹덕대로 불렸음]씨가 맡아서 했다.
- ⑤ 직영부분은 채광(採鑛), 선광(選鑛)의 관리감독자가 작업량 또는 광석(鑛石)의 등급 측정에서 투서(投書)나 오해(誤解)를 받기도 하였음.<1978년 광업소 간부회의 자료에서 발췌>



〈사진 4-11〉 덕대 논화 출하항(2012년 12월 현재 모습)



## 5. 노사협의회 현황

###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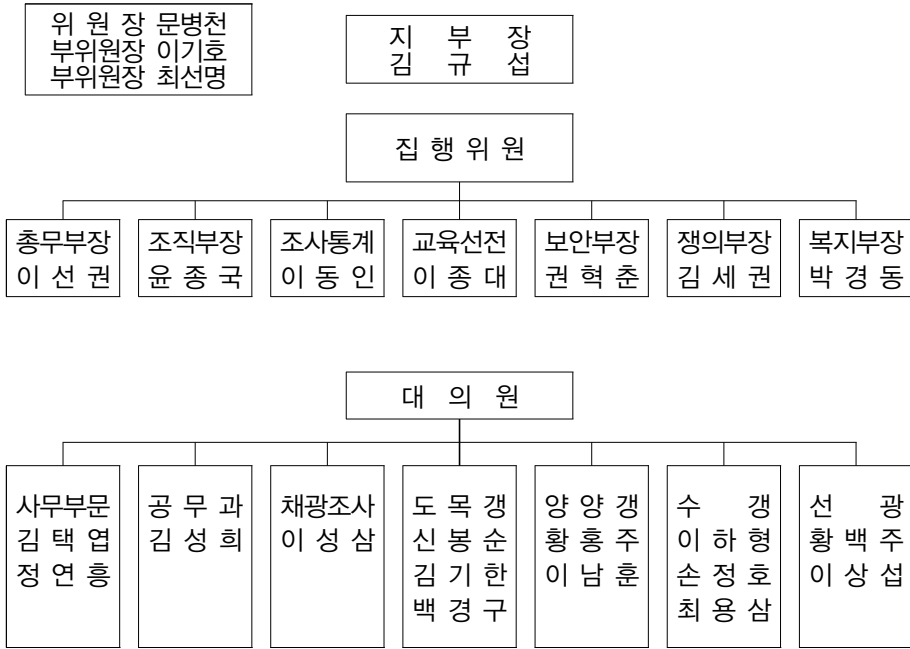
- (1) 근로자[노무자]와 사용자[고용주]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체이다.
- (2) 노사(勞使)양측 대표의 명칭은 노(勞)측으로는 노동조합위원장 또는 지부장으로 불리며 사(使)측은 회사 사장 또는 경영진이 된다.
- (3) 단체협약 체결로 임금인상 조정, 작업환경개선, 근로자복지후생 등 주요 사항을 협의하며 쌍방의 협의 점을 도출(導出)하였다.
- (4) 회사 측의 경영진과 주요간부회의에서 노조 측은 대의원 회의에서 결의하여 협의회에 임한다.
- (5) 노조위원장이나 지부장 자리는 때에 따라서는 막강한 힘을 지닌 자리로서 노조내부의 불화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 (6) 노조 대표는 회사 경영진과 대등한 입장의 형태를 하고 있다.

### 2) 노사협의회 구성

#### (1) 노사협의회 구성

노사협의회는 지부장이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그리고 각 분과에 집행위원인 부장 7명과 대의원이 15명 합계 26명으로 구성되었고 도표는 <표 4-38>과 같다

〈표 4-38〉 노동조합 구성도



〈출처 : 양양광업소 노사협의회 자체자료〉

## (2) 노동조합 협의사항

양양광업소 노사협의회에 대한 자료가 미비(未備)하여 1982년도 노사협의회 의 회의안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당시 정시종 소장, 사무차장 김현천, 기술차장 최재섭, 예산관리실장 이갑수, 양양항장 김규열이 노사협의회를 주제(主題)한 자료를 소개한다.

노사협의회 위원명단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비고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위원장	문병천	사장	유삼석	
지부장	김규섭	전무	이경상	
울산지부장	황규상	소장	정시종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비고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울산감독	박경동	울산소장	이재학	
기운공	손정호	총무부장	이원해	
채광공	함춘식	사무차장	김현천	
기운공	황백주	예산관리실장	이갑수	
채광공	문형성	기술차장	최재섭	
기계공	이종찬	양양갱장	김규열	
간사	이선권	간사	박영규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 노사협의회법

#### 제 20 조 ( 협의사항 )

1. 생산성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한사항
2. 근로자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3.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사항
4. 근로자 고충처리에 관한사항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사항

#### 제 21 조 ( 보고사항 )

1. 경영 방침 및 실적에 관한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사항  
(계획 : 정광 178,200톤      실적 : 정광 186,029톤)
3. 인력 계획에 관한사항 (TO : 869명)  
TO : 861명    2/4분기 중 채용 22명 퇴직 31명

## 노 사 협 의 회 안 건

### 의 안 1

: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작업도구 (양양갱장 김규열)

내 용 : 홉 바 : 3개월에서 2개월 지급

합 마 : 운반조별 지급

1) 홉바 : 900원/개

81년도 실적	82년도 상반기실적	비 고
1,065 (논화 20개 제외)	$904 \div 1,628 \text{명} \times 6 \text{월} = 3.3 \text{개}$ ※ 2개월 1개이상 지급 (논화 : 74개 제외)	조치 :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지급하겠음.

2) 쇠팅치(12L/b) : 2,400원/개

81년도 실적	82년도 상반기	2인1조 신규지급시 소요예산	비 고
79개	37개	$110 \text{조} \times 2,400 \text{원}$ = 264,000원	$271 \text{명} - 50 \text{명} = 220 \div 2$ (총) (간접) (지급대상조)

조 치 :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지급하겠음

### 의 안 2

: 보안상 필요한 보안경 (예산관리실장 이갑수)

내 용 : 개인지급, 품질개선

보안경 지급실적

구분	81년도 실적					82년도 실적			
	공무	채광	조사	선광	계	공무	채광	선광	계
용접	49	38			87	5	6		11
파쇄	4	8	1	20	33		4	5	9
계	53	46	1	20	120	5	10	5	20

지 급 품 : 1,500원      용 접 공 : 34명

조 치 : 현 지급품 보다 좋은 품질을 발주하겠음.

### 의 안 3

: 선광과 붕락지구간 분진(먼지) 대책 (기술차장 최재섭)

내 용 : 1) 장기적인 방안

가. 붕락지구 ~ 선광장간 아스팔트 화 검토

2) 단기적인 방안

가. 낙분이 되지 않도록 적재량 조정

나. 수시 그레이더와 페이로더 준설

다. 살수차 이용하여 살수계획

조 치 : 단기적인 방안

### 의 안 4

: 수갱 갱내 크랏샤단 분진제거 (양양갱장 김규열)

내 용 : 현재 죠크라사실에서 분진이 다소 발생하여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사용하고있으며 앞으로 죠크라사 옆에 분진 집진관을 만들어 인도(人道) 사다리쪽으로 유도 모터(5HP)를 설치

제2수갱(배기갱)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7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임.

조 치 : 선풍기 설치 계획임.

## 의 안 5

: 공무 선반실 면수갑 착용 금지에 따른 난방대책 (예산관리실장 이갑수)

내 용 : 보안상 면수갑 착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절기 연탄난로를 설치하였으나 난방상태가 양호하지 않음.

조 치 : 금년에 연탄 또는 톱밥난로 1대를 추가 설치하겠음

※ 난로 1대 증설 및 이중벽 설치예산

연탄비 → 6장×4개월×30일×180원= 129,600원

합 관 → 60매×1,500원= 9,000원

계 : 219,600원

## 의 안 6

: 트로리카 슈트공 편승 할 수 있도록 보안규정 개정 (기술차장 최재섭)

내 용 : 1) 광산 보안법 시행규칙 123조에 의하면 기관차 운행 시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에 의하여 사람을 운반하지 못한다. 다만 운전 전에 관계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2) 광산보안규정 제 68조 3항 누구든지 전차에 편승하지 못 한다.

3) 보안규정 제 117조 7의 타 당해 부서 보안 관리자가 지정한 조차원 이외는 편승을 금한다.

4)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슈트공이 아니며 보안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편승할 수 없음

5) 조차공인 경우 안전한 방법에 의한 편승여부를 검토 후 처리되어야 하겠음.

조 치 : 보안시설을 갖추어 승차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의 안 7

: 트로리카공 감전방지를 위한 고무장갑 착용 (예산관리실장 이갑수)

조 치 : 지급하겠음.

### 의 안 8

: 설악료 냉장고 구입 및 복도를 시멘트로 개조 (사무차장 김현천)

내 용 : 냉장고 규격 : 350리터 593,800원

300리터 514,000원

조 치 : 사장님 광업소 방문 선물로 해 주었으면 좋겠음.

복도 시멘트로 개조하겠음.

### 의 안 9

: 우천시 버스 연장운행 (사무차장 김현천 )

내 용 : 보안 및 물품 부정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통근 버스를 경비실에서 승·하차 시키고 있으며 우천 시는 현장까지 연장운행 할 수 있음.

조 치 : 불편해도 양해 바람.

### 의 안 10

: 향내의 방진마스크 외제 지급요청 (예산관리실장 이갑수)

내 용 : 방진마스크

종류	구분	단가	81년도실적	상반기실적	비고
KS 제품 방독마스크		4,000원 2,500원	253개	96개	KS제품을 사용되어 왔으나 종업원 여론에 의하여 4월1일부터 방 독 마스크로 50개 임 차 되어 불출 중임
일 제		(77년도단가) 4,700원			
253 (12,727원-4,000원) = 2,207,931원 증					

## 의 안 11

: 경비실 철조망 야간통행에 불편을 준다.(사무차장 김현천)

내 용 : 야간에 정문출입 차량단속을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자전거 및 보행자는 차단기 옆을 지나 통행토록 되어있음. 비상시 불순분자 출현 저지 목적으로 비치한 철조망(바리케이트)이 통행에 불편하다는 것임.

◎ 야간 옆 통로에 철조망 비치이유

- 1) 오토바이, 자전거 속도제한
- 2) 물품 부정발출 방지

조 치 : 통행자의 이해를 바람.

## 의 안 12

: 보수규정의 문제점(사무차장 김현천)

내 용 : 보수규정 개정시 81년도 직종별 연간 총 특근 심야 공휴 작업시간의 월평균치를 산출하여 이를 기준하였으므로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도 미달한다는 주장임, 기준시간에 상회하는 작업과 보수외 보장을 요구하며, 해당 직종은 다음과 같음.

공무과 기계공 : 26명, 채광과 시설계 기계공 : 12명

채광과 각 갱 운전공 : 5명    계 43명

조 치 : 82년까지 시행 후 기준시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 83년 임금인상 시 조정을 고려할 수 있음.

## 의 안 13

: 특수 수당 확대 적용(예산관리실장 이갑수)

내 용 : 1) 차량 및 중기 운전직은 78년도에 운전수 확보 방안의 일환과 능률 향상을 위하여 3월부터 수당을 지급하였음

2) 특수 기능직(기계·전기)은 기능공에 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력 연수와 기능도에 따라 79년 3월서부터 수당을 지급하였음.



특 수 수 당 표

구분	직급	고 원			
		갑	을	병	정
특수기능직	7	24	21		
	23,000	15,300	7,600		
차량 및 중기운전직	2	5	5	18	
	45,900	38,300	30,600	23,000	

조 치 : 확대지급 불가

- 이 유
1. 기능 인력난이 해소되었음
  2. 통상임금 주장우려
  3. 기 지급자도 사고를 발생 시키면 지급 제외

의 안 14

: 일. 숙직수당 인상(예산관리실장 이갑수)

내 용 : 현재 : 1,500원(1980. 11. 1 인상)

일. 숙직 대비표(6월기준)

숙직	인 상 전	인 상 후
	6명 : 186,000원	6명 : 248,000원 (△62,000원)
일직	인 상 전	인 상 후
	7명 : 21,000원	7명 : 28,000원 (△7,000원)
계	13명 : 207,000원	13명 : 276,000원(△69,000원)
예산증가액 : 69,000원×12월 = 828,000원		

조 치 : 2,000원으로 인상 고려

의 안 15

: 종업원간의 돈 거래 지양(사무차장 김현천)

내 용 : 집단 생활속에 있는 종업원간에 고리채로 인화단결과 생활안정을 저해

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가피한 자금은 마을금고의 이용으로 대  
부를 받도록 하고자 함.

마을금고 총 출자금 : 65,000,000원

대부 1인당 한도액 : 300,000원

## 의 안 16

: 상호간 인사 주고받기(소장 정시종)

내 용 : 종업원 상호간 일체감 조성과 위계질서를 위하여 삼미인으로서 긍지를  
갖고자 함.



〈사진 4-12〉 노사 제1회 정기총회(1956년경)



〈사진 4-13〉 1945년도 노동절기념 대회

## V. 고정자산현황

1985년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조사한 양양광산 평가조서집에 나타난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기계장치 및 기구현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1. 건물현황

건물현황은 건물 건축 연대 순으로 작성 되었는데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작업업무를 주로 하는 선광장, 발전실, 차량정비고, 복지용으로 사용하는 사택건물과 병원이 있었다. 사택을 제외한 건물 동수가 총 40여동에 달했다. 건물현황은 <표 5-1>과 같다

〈표 5-1〉 건물현황

소재지	시설명	구조	평수	동수	건축년월일	비고
서면 장승리	제재실	목조합석	242.97	1	57.06.30	
"	강 당	"	231.82	1	"	
"	사무실	시멘벽돌	264.46	1	"	
"	합 숙	목조와가	389.26	1	"	
"	합 숙	"	279.68	1	"	
"	창 고	목조합석	145.45	1	"	
"	창 고	"	99.17	1	"	
"	사택1~11호	목조와가	103.33	11	"	
"	발전실	벽돌합석	308.12	1	58.01.15	
"	목욕탕	목조와가	63.30	1	58.02.28	

소재지	시설명	구조	평수	동수	건축년월일	비고
"	사택	"	29.15	1	"	
"	공작실	목조합석	165.29	1	58.06.30	
"	변소	"	14.54	1	59.12.31	
"	객실	목조와가	191.73	1	60.10.31	
"	선광장	목조합석	257.13	1	62.12.31	
"	병원	시멘스레트	363.64	1	66.12.30	
"	압기실	목조합석	262.21	1	72.07.31	
"	사택 및 창고	"	-	2동/12세대	74.09.28	
"	수갱사무실	시멘합석	197.92	1	74.12.31	
"	권양기실	목조합석	82.64	1	"	
"	사택 및 창고	"	33.05	5세대	76.07.30	
"	수재민주택	"	132.23	4세대	76.08.19	
"	수갱창고	시멘스레트	74.38	1	76.11.30	
"	차량정비고	"	220.16	1	76.12.14	
"	목욕탕	"	343.08	1	77.01.26	
"	사택	브릭스레트	-	5	78.07.31	
"	사택	"	-	1	78.10.31	
"	사택	"	-	1	78.11.20	
속초 교동	사택	"	-	1	80.05.31	
합계			4,494.71			

## 2. 차량 및 운반구 현황

차량 및 운반구 현황은 당시 화폐로 최고가인 9천3백만원의 도저와 7천8백만원인 페이로더 그리고 약 30여종 620여대의 운반구가 있다.<표 5-2>와 같다.

<표 5-2> 차량 및 운반구 현황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제조달원가 (천원)	제작·취득 년월일	제작소
로커쇼벨	LM36	대	1	19,500	미상	Atlasco
쇼벨로더	"	"	1	19,500	70.04.30	"
"	"	"	1	19,500	미상	미상
"	"	"	3	19,500	미상	Atlasco
"	"	"	1	19,500	77.10.04	"
"	"	"	2	19,500	78.09.28	"
"	"	"	6	19,500	79.03.31	일제
쇼벨로더시설	LM56	조	6	22,500	79.03.31	미상
축전차	4.5톤	대	2	13,050	60.08.28	"
"	5톤	"	1	14,650	79.11.17	"
"	6톤	"	1	17,850	74.11.30	"
트로리카	8톤	"	1	12,750	79.04.30	"
광차	1.7톤	"	250	650	68.08.19	강원산업
"	1.5톤	"	60	650	72.02.19	정신기업
"	1.3m <sup>3</sup>	"	30	750	77.12.31	자체
"	1.7톤	"	40	650	78.08.21	"
"	2m <sup>3</sup>	"	10	1,300	78.08.21	"
"	1.3m <sup>3</sup>	"	5	750	80.10.31	"
"	0.7m <sup>3</sup>	"	20	650	80.10.31	"
그랜비카	2m <sup>3</sup>	"	3	1,300	77.12.31	-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제조달원가 (천원)	제작·취득 년월일	제작소
"	2m <sup>3</sup>	"	30	1,300	79.03.31	-
"	2m <sup>3</sup>	"	30	1,300	79.03.05	-
디젤기관차	6톤	"	2	12,700	61.09.21	-
"	"	"	2	12,700	68.12.30	외제
"	"	"	1	12,700	67.04.01	미상
기관차	"	"	1	12,700	79.03.31	영진기공
화물자동차	"	"	2	18,084	74.05.14	GM코리아
"	6.5톤	"	1	9,200	73.12.31	"
"	덤프	"	2	18,084	75.05.31	"
"	8톤	"	3	18,084	74.05.14	"
"	8톤덤프	"	4	18,084	78	미상
"	"	"	2	18,084	80.04.30	새한
"	10.5덤프	"	1	31,000	80.12.30	시보레
도저	ATO7G	"	1	93,500	71.09.30	GM코리아
페이로더	V-41(m <sup>3</sup> )	"	1	48,500	70.04.30	미상
"	"	"	1	78,000	78.08.22	현대양행
페이로더	V-41(m <sup>3</sup> )	대	1	78,000	80.12.31	현대양행
휠로더	FL-140	"	1	35,500	73.10.19	후루가와
크레인	20톤	"	1	17,000	71.09.30	미상
그레이더	Tire식	"	1	27,000	71.09.30	"
스킵	3톤	"	3	1,800	미상	"
"	2톤	"	2	1,200	미상	"
스킵광차	3톤	"	4	1,100	72.10.20	-
"	3.5톤	"	1	1,100	76.01.31	-
"	3M/T	"	1	1,100	78.10.30	자체
"	3톤	"	1	1,100	79.12.31	-
"	3.5톤	"	2	1,100	80.12.17	자체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재조달원가 (천원)	제작·취득 년월일	제작소
케이지	3톤	''	2	5,596	미상	''
''	10인승	''	2	3,480	79.09.06	''
트로리카	8톤	''	1	12,750	81.12.30	일제
광차	1.3m <sup>3</sup>	''	5	750	81.12.30	자체
''	''	''	30	750	81.09.24	''
그랜비카	3톤	''	10	1,100	80.10.30	''
''	''	''	5	1,100	81.12.30	''
페이로더	645B	''	1	78,000	81.12.30	한국중공업
''	FL-170	''	1	62,500	76.03.10	일제
스킬광차	3톤	''	1	1,100	80.12.17	자체제작
화물자동차	10.5톤	''	1	31,000	82.07	새한
광차	1.7톤	''	20	650	82.12.10	자체제작
''	2M/T	''	5	950	82.12.10	''
그랜비광차	2m <sup>3</sup>	''	5	1,100	82.12.10	''
스킬광차	3.5M/T	''	3	1,100	82.12.10	''
''	3M/T	''	2	1,100	82.12.10	''
케이지	10인승	''	1	1,317	82.12.30	''
쇼벨로더	SR77	''	1	14,500	83.05.25	삼표제작소
''	''	''	1	14,500	83.12.30	''
버스	45인승	''	1	18,454	84.07.05	대우

### 3. 기계장치 및 기구 현황

기계장치 및 기구는 8천만원대의 독일산 권양기, 6천3백만원의 미국산 콘크리셔, 6천4백만원의 스웨덴산 공기압축기, 7천5백만원의 볼밀기계, 3천만원의 죠크리셔 등 120여개 종류의 기계장치 및 기구 내역은 <표 5-3>과 같이 조사 되었다.



〈표 5-3〉 기계장치 및 기구 현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제조달원가 (천원)	제작취득 년도	제작소	설치장소
공기압축기	450Hp	대	1	64,661	77	스웨덴	채광과
"	350Hp	"	1	46,140	62	영국	압축기실
"	150Hp	"	1	22,045	59	일본	"
권양기	400Hp 북	"	1	80,136	74	독일	갱외
"	150Hp 북	"	1	38,374	71	미상	갱외
"	150Hp 북	"	1	28,000	66	조선공사	선광과
스깊사갱권양기	100Hp	식	1	39,000	79	미국	채광과
변압기시설	600kVA	"	1	11,000	-	국산	공무과
조크러셔	125Hp	대	1	29,870	79	정신	선광과
"	48"×12"×75Hp	"	1	29,080	81	정신	"
"	32"×10"×80Hp	"	1	19,280	66	미국	"
콘크러셔	30"×75Hp	"	1	15,880	66	한국기계	"
"	900mm×75Hp	"	1	31,580	66	미상	"
"	4"×200Hp	"	1	63,000	75	캐네디	"
볼밀	8"×48"×200Hp	"	1	75,690	-	한국기계	"
웨이킹취다	18"×4"	"	1	27,000	67	미상	"
습식자선기	Drum형	"	1	11,000	65	미상	"
"	860R×1500e	"	1	21,000	76	일제	"
"	860R×1500e	"	1	37,000	76	외제	"
이동식자선기	1000R×920 3	"	1	10,000	62	외제	"
자공착암기	BBC-120F	"	1	20,561	88	스웨덴	조사과
"	BBC-120F	"	1	20,561	77	스웨덴	"
"	BBC-DOF	"	1	20,561	74	외제	"
시추기	Longyear38	"	1	63,000	81	미제	"
"	L 34	"	1	28,000	77	미제	"
선반	10" 벨트부	"	1	9,200	-	일제	선광과
"	8×5Hp 평벨트	"	1	8,000	-	일제	선광과
부전시설	SSB	식	1	38,000	67	미제	총무과
X선촬영기	200mA	대	1	5,500	78	외제	부속병원
이하생략							

〈출처 : 1985년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산평가조사〉

## VI. 철광산의 생활문화

### 1. 광부의 일과

#### 1) 광부의 분류

광부는 크게 막장에서 일하는 갱내부(坑內夫)와 난장에서 일하는 갱외부(坑外夫)로 나눈다. 갱내부는 다시 직접부와 간접부로 나뉘지는데 직접부에는 채광공과 굴진공 등이 있고 간접부에는 보갱공, 보선공, 운반공 등이 있다. 그리고 갱외부는 선광공, 기계공 기타 기능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근로자의 일과

##### (1) 출 근

철광에서 일하고 있는 광부는 모두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일한다. 광산촌에서 이것을 갑방, 을방, 병방 출근한다고 한다.

갑방(甲方)은 오전 8시에 막장에서 교대하는 작업조를 말한다. 이들은 대개 집에서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하여 통근버스를 타고 철광 현장에 도착한다. 입갱하기 전까지 옷을 갈아입고, 도구를 챙기고, 감독으로부터 작업배치를 받는다. 작업 배치를 받은 다음 막장까지 걸어들어 가거나 인차(人車)를 타고 가거나 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갱 속에서 가지고 간 도시락과 물을 먹고 오후 4시가 되면 을방과 교대한다.

을방(乙方)은 오후 4시에 갱내휴게소에서 교대하는 작업조를 말한다. 이들은 오후 2시 30분쯤에 집을 떠나며, 자정에 막장에서 병방과 교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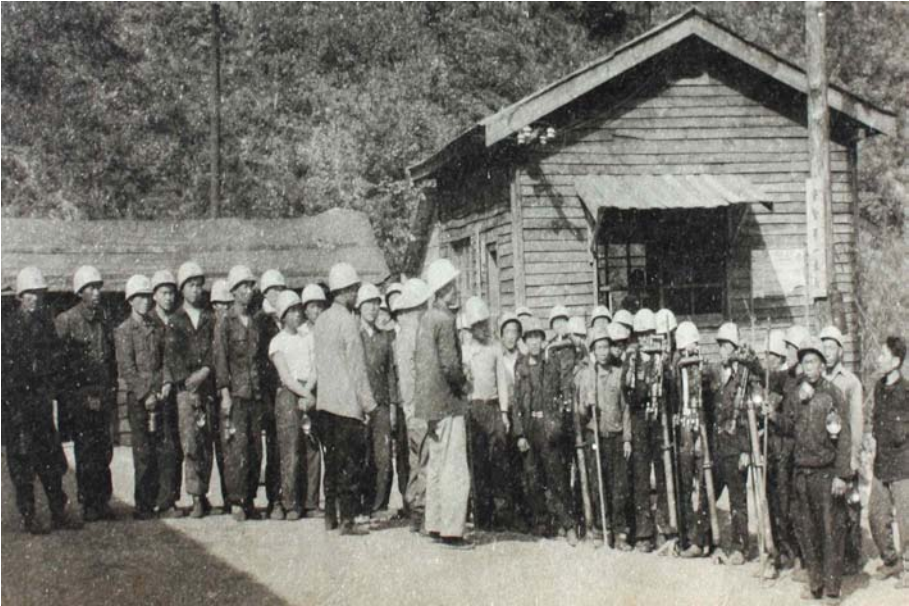
〈사진 6-1〉 갯내휴게소

병방(丙方)은 자정에 막장에서 을방과 교대한다. 그러기 위해 광부들은 밤 10시 30분에 집을 나서야 한다. 그리고 아침 8시에 갑방이 갯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일을 한다.

이렇게 하루 삼교대로 일을 하는 광부들은 보통 한 달에 2-3번씩 밖에 휴일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중노동에 지쳐 결근하는 일이 있는데, 철광회사는 이것을 막기 위해 만근수당제라 하여 라면 1박스과 밀가루 1포석을 지급하였다.

## (2) 입 갯

감독은 작업배치를 하면 광부들은 맡은 일에 따라 막장에 들어가거나 갯 밖에서 일하게 된다. 갯 속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입갱하기 전에 광차(鑛車)에다 그날 할 일 만큼의 동바리(갯내 지주목)와 판자조각 등을 싣는다.



〈사진 6-2〉 탐동 작업배치 현장(1956년경)

### (3) 광석작업

굴진공은 높이 2m 정도의 수평갱을 뚫고, 광석공은 산줄기를 따라 좁은 굴을 뚫게 된다. 이때 천공소리 때문에 막장은 다소 시끄럽다. 보통 2명이 한 조가 되어 막장에서 일하는데 1개조가 15~20톤의 철광석을 캐낸다.

### (4) 퇴 갱

근로기준법상의 8시간을 마치면 퇴갱 하였다.

### (5) 근로자의 임금제도

광부들의 임금은 다수가 월급제이며 도급제 근로자도 있었으나 극소수였다.

## 2. 광산촌의 생활상

60년대 70년대의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양양의 광산촌에 모여들었다. 농사일보다 힘들기는 하였지만 비교적 월급이 많아 공무원보다 광산에서 일하기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광산촌도 어렵기는 비슷하여 광부들은 힘든 일에 종사해야 했고 생활은 넉넉하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일반미도 타 먹기 힘들었고, 납작 보리쌀, 알락미 일반미 해서 3개를 한 달에 한번 배급을 타서 먹기도 했다.

### 1) 광산촌의 주거형태

수복 후 양양광산이 활성화되자 전국에서 갑자기 모여든 광부들이 많아 제대로 된 가옥이 많지 않았고 골짜기마다 흩어져 있던 집들을 회사에서 사택을 지어 혼자 와있는 광부들이 살도록 하였는데 사택이 150세대가 넘었고 한 줄이 8집이고 전체가 아마도 250세대는 넘었다. 사택은 8칸씩 따로 지어졌는데 집들이 비슷비슷하여 술을 마시면 자기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가 남의 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다.

사택은 건물이나 외관상으로 특이한 게 없었는데 사람들은 특이한 게 많았다. 전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각자 사는 방식이 천태만상이었다.

붕화료(노무자), 설악료(사원)라는 사택이 있었는데 독신자(홀애비)들이 사는 기숙사도 있었고 임시직 광부는 사택으로 입주하기가 힘들었다.

상시부(雇入)만 여기를 얻을 수 있는데 사택이 좁은 방 2개에 작은 다락이 있긴 하였지만 애 둘 셋 있는 사람들은 고생 심했다.

사택에는 한 줄에 8세대가 살았다.(4호 빼고 1호부터 9호까지) 사원들 사택이 고입들 사택보다 좋았는데 주임만 되면 관사가 따로 있었고 크기가 달랐고 주

임, 과장들 사모님들이 노무자들을 무시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사택도 따로 있어 부딪힐 일도 없었다.



〈사진 6-3〉 사택전경(1956년경)

방 한 칸은 3평정도 되었고 방음이 안되어서 애기들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동들은 4학년 이상은 상평초등학교에 1, 2, 3학년까지는 장승분교로 걸어서 다녔으며, 학년 당 2개 반씩 6학급이 편성돼 있었다.

광부로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2대에 걸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광부의 아내들은 남편이 광산에 일하러 간 사이에 텃밭도 가꾸고 산에서 땀감을 해다 집에서 불을 때고 이웃집에 팔기도 하며 가난한 생활을 하였다.

## 2) 광업소의 봉급날

월급을 현금으로 주는데 빈 월급봉투를 하나 더 얻어서 월급내역을 수정하여

아내 몰래 술값을 챙기는 일도 있었다. 공급소에서 생활비를 미리 뺀 거 쓰다 보니 봉급날은 빈 봉투인 경우도 있었다. 봉급날 술집 마담들이 술값을 받으려고 공급소에서 죽치고 대기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광산에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유상종으로 자주 만났다. 그래서 매달 가불하고 딸린 식구에 대한 걱정으로 잔업도 하여 돈을 만들어야 했다.

월급날 외상 술값을 갚으러 가면 주인마담이 그렇게 반가워할 수 없었다. 아가씨들은 양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면 신발을 벗기며 맥주 딱 한잔만 하고 가라고 한다. 거절을 못하고 마지못해 술집 문턱을 넘어서면 미리 준비해둔 과일안주에 맥주 두병을 들고 나오며 “어떻게 외상값을 받고 그냥 보내”라며 주인마담이 양탈을 부린다. 아가씨의 아양에 “한 병 더” 안주 하나 더 하다 일어설 때는 갚은 외상값만큼 달아놓고 술집을 나서게 된다. 매번 반복되는 생활이 술집 외상값이다.



〈사진 6-4〉 장승분교 가을운동회(1960년경)

### 3) 광산촌의 휴일

광산의 휴일은 따로 없고 월 2회 정도 쉰다. 쉬는 때는 같이 일하는 팀들과 냇가에 나가 뚜거리탕을 끓여 술을 마시며 보냈다.



〈사진 6-5〉 선광과 직원 용천 아우회

때로는 농촌에서 돼지를 사다가 잡아서 슬레이트 조각에 올려놓고 구워먹으며 친목을 도모하였고 남은 고기는 나누어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먹었다.

광업소에서 1년에 두 번 가족과 함께 관광을 가는데 비용은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였다가 경주 불국사 등 전국 유명지로 갔다. 당일치기로는 설악산, 하조대 그리고 오색령을 넘어 장수대로 일일 관광을 갔다.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남대천 강가의 용천 범부, 내현 등지로 가서 천렵을 하였다.

송년회도 회비를 내서 넓은 가정집을 빌려 가마솥을 걸어놓고 돼지를 잡아서 함께 잔치를 하였다.



광산 업무가 끝난 후에는 같이 일하던 사람들끼리 당일 여행도 갔다. 소장 이하 간부급들은 광산에 있는 술집에 가면 소문이 나기 때문에 속초 또는 설악산, 낙산 그리고 기사문리로 자주 나갔다.

#### 4) 멋쟁이 여자광부

선광장에서 100여명이 3교대로 30여명 정도씩 일했다. 선광장에서 일하는 동안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소음이 매우 심해서 바깥으로 새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선후배 차이는 없었지만 임시와 고입의 차이가 있었고. 대부분의 선광장 여자 노동자는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할 때 선광장을 그만둔다.

그 당시 광산 다닐 때 눈이 맞아 사내 결혼하는 커플도 있었다.

선광장에서 일하는 여자 노동자는 멋을 부려 작업복을 다려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여 멋쟁이 아가씨들이 많았다. 선광장 자체에서 근로의욕을 불어 넣기 위하여 당일 관광으로 하조대, 설악산 등으로 놀러 가기도 하였다.



〈사진 6-6〉 사무실 여성 근로자(1979년경)

광업소에서는 미인대회도 있었다. 미인대회에 입상한 처녀는 여러 총각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5) 광부들의 신용

광업소내 복지시설로는 광부사택, 영화관, 목욕탕, 병원, 이발소, 약방(개인 약방), 당구장이 있었으며, 공급소는 노무자들의 직번이 있었는데, 1번 2번 직 번은 공급소에서 돈이 없어도 물건을 외상으로 살 수 있었다. 쌀도 직 번만 있으면 계속 받을 수 있고 임금에서 일정부분 쌀을 신청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월급과 쌀을 함께 받았지만, 임시부들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없었다.

양양읍내에도 없는 목욕탕이 70년대 후반에 발전실 옆에 있었는데 그 발전실에서 나오는 온수를 이용하여 목욕탕을 운영했다. 종업원들한테 한 달에 몇 장씩 목욕표를 끊어 주었다. 종업원 아니더라도 표만 내면 목욕을 할 수 있어 종업원 가족들도 양양에서 많이 왔다.

### 6) 광산촌의 삶이었던 목욕탕

1950년대 말에 양양시내에도 없었던 목욕탕이 광업소에만 있었다. 그만큼 양양광업소가 한때, 번성했던 시절을 말해주고 있다. 당시에는 광업소에 공급하는 전기를 자체 발전기로 발전했다. 그래서 발전소 옆에 덧붙인 목조건물이 목욕탕이었다. 발전기 터빈에서 나오는 온수를 목욕탕내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때 광부들에게 목욕은 밥 먹은 것 만큼이나 필요했을 것이다. 회사에서는 광부들에게 무료 목욕 이용권을 내 주었다. 그러니 양양에 사는 광부 가족들도 광산까지 가서 이용했다. 그 뿐만 아니라 양양에 소재해 있는 학교에서도 목욕하는 날을 정하여 걸어서 광산으로 정기적으로 목욕을 다니기도 했다.

목욕탕에 대한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들이 전해지는데 한 번은 짓군은 어느 직원이 천정갓쇼(당시 목조건물은 남, 여탕을 판자로 칸막이만하고 천장마감은 하지 않았음) 너머로 여탕을 넘겨보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목욕하고 있는 여탕 바닥에 그냥 떨어지자 마침 간부 사모님들이 다수 있었는데 혼비백산한 적이 있었다. 여탕과 남탕 사이를 막은 판자 구멍으로 여탕을 들여다보다 여탕에서 미리알고 들여다 보는 눈을 찔렸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한전에서 정식으로 변전소를 세우고 전력을 공급하던 '70년도 말경에 양양의 시공업자인 주춘명씨가 하청을 맡아 사택부근인 장승 유아원 옆으로 2층 브릭 건물을 신축하였다. 1층은 목욕탕으로 사용했고 2층에는 이발소와 당구장이 개설됨으로써 광부들에 처우개선에 일익을 담당했다. 그후 폐광된 후 계속 흉물로 남아 있다가 2011년 대한광물이 다시 개광을 하면서 2012년 8월에 철거되었다. 지금은 양양광업소의 한편의 추억의 터로만 남아있다.

## 7) 광산촌의 문화시설인 극장

1963년경 속초 제일목재소에서 캔 제목으로 1, 2층에 관람석이 100석 규모의 극장을 완성하였는데 영동지역의 최고의 시설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이라 광산 근로자들에게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유일한 휴식처였으며, 또한 처녀총각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광산극장은 노무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문화공간이었고 영화의 스토리가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연일 성황리에 운영하던 중 1969년 12월경 화재로 전소되었다.

최고의 영사기로 필름을 돌리므로 화면이 깨끗하였을 뿐만아니라 중간에 필름이 끊기는 일이 없었다. 양양읍내는 물론 광산과 인접했던 거마리, 파일리 사람들은 햇불을 만들어 깜깜한 거마리 굴을 통과한 후 불을 끄고 부근에 보관하였다가 극장이 끝나면 다시 불을 붙여 굴을 빠져 다녔다. 인근 속초지역에서도

많은 관람객이 모여들어 광업소의 명물이 되었다. 당시에 “돌아오지 않는 해병 (황해 주연)”, “푸른하늘 은하수(김지미 주연)”, “팔도강산(김희갑, 황정순 주연)” 그리고 벤허 등이 최고의 인기리에 상영되었다. 이 무렵 서울가는 금강운수가 광업소에서 출발하여 양양정류장을 들렀고 양양군 선거 제1투표소가 광업소였던 만큼 유권자(약 3천명)가 제일 많았고 자철광 품질과 생산량에서 최고를 자랑하며 국내 전체 수출액의 10/1을 차지할 만큼 전성시대였다.

### 8) 직장 경조사

자녀 결혼이나 부모상 또는 동료의 사고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부조도 하고 직원들이 와서 도와주었으며, 동료 중 장사집이 생기면 부서에서 몇 사람을 보내서 2~3일 정도 도와주었다. 직장에 출근한 사람들은 빈자리를 채우느라 합심하여 조금씩이라도 더 많은 일을 하였다. 여의치 않으면 기계 한 대를 세워놓더라도 경조사는 챙겼다.



〈사진 6-7〉 직원 결혼식(1968년경)

같은 반원끼리는 장사(葬事)를 돕다가 출근을 하면 또 다른 반원이 퇴근하여 서로 도와주었다. 회사는 부모상이 생기면 3일간 휴가를 주었고 자녀의 결혼식에도 휴가를 주었다.

## 9) 월급봉투 와 공급소

임금에서 쌀을 신청하면 쌀값을 제외하고 받았다. 광업소에 쌀을 타는 곳은 따로 있었으며 식품상이라는 공급소도 있었다. 고입자 들은 직 번을 대고 사인만 하면 술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음료수도 주었다. 임시부들은 표가 없어서 고입된 사람이 표를 대신 사용한 후 봉급을 고입에게 갚아야 했다.

월급봉투를 한 개 가져다, 거짓으로 위조하여 부인에게 갖다 주고 차액은 용돈으로 쓰는 사람이 많았다.

어느 집은 신랑이 돈을 다 술집에 갖다 주고 빈 봉투만 가져오니 그 다음부터는 월급을 아내들이 가서 타오는 경우도 있었다.

## 10) 이웃사촌

부인들은 남편이 밤에 일하고 아침에 들어오면, 남편이 낮에 잠을 자라고 바깥에 나가서 있다가 오기도 하였고, 술 마시고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자는 일도 있었다. 그래도 그때는 인정이 있어서 그런지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렇게 넘어갔다.

비가 오는 날 광부의 아내들은 처마 밑에 죽 늘어앉자 빗물에 연탄재를 으깨서 그릇을 닦는 진풍경을 연출 하였다. 특히 비가 와서 강가에 물이 불어나면 광부들이 남대천에 나가서 뚜거리를 잡아 오곤 하였다. 아내들이 뚜거리 국을 끓여서 주변에 나눠주며 이웃 간에 친목을 도모하였다. 가난한 광부들의 삶이지만 인정이 매마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6-8〉 당시 유행한 월남치마(1970년경)

### 13) 임신부와 상시부

임시부들은 밥 먹을 장소조차 없어서 쪼그리고 앉아서 먹었는데, 밥도 상시부 먹는 시간이 따로 있고, 임신부는 다른 곳에서 대기하다 들어와서 먹던가, 아니면 구석에서 안전모를 깔고 앉아서 먹었다. 상시부들이 다 먹고 가면 그 빈자리에 가서 먹었으며 물도 임시부들의 먹는 물통에 물을 따로 받아다 놓고 마셔야 했다.

당시에는 차별이 심해서 상시부는 트럭이나 버스타고 출근을 했지만, 임시부들은 걸어 다녔다. 또한 임시부들에게는 쌀도 주지 않아 나중에 임시부들이 하도 항의하니까 그때부터 옷도 주었다. 상시부들은 작업복을 한 벌씩 주었는데, 임신부는 바지 하나만 줄 때 있고 윗도리 하나만 줄 때도 있었다.

광업소에는 영업하는 식당은 꽤 많았으며, 정육점에서 채광부만 한 달에 고기 두 근씩을 나누어주었다. 임시부들은 고기 전표도 안 나왔다.

## 12) 체육행사

체육행사는 1년에 한번 있고, 개광기념일(매년 7월 1일)에 장승분교 운동장에서 거행했다. 광부들을 위한 특별한 위로 행사는 없었고, 체육 행사 때 경기 상품만 주었으며 사은품은 없었다. 막걸리는 회사에서 많은 지원을 했다.

체육행사는 축구, 씨름, 배구, 육상, 마라톤 등을 했고, 채광, 선광, 총무가 팀을 이루며 공휴일로 정하여 즐겼다. 노동조합에 문화부가 있어서 연극을 초가을에 공연 했는데 광부들의 사기를 돋워 주었다.

배구는 67년도에 축구는 61년 이전서부터 1~2년간 했고 야구는 63~4년도에 사무직원들이 친선경기를 했다.

광산근처 거주 가족은 모두 참가하고, 과 별로 특별 음식을 준비하여, 장승분교에 모였다. 마라톤은 양양시내의 로터리를 왕복하는 코스를 돌아왔다.

4H 재건 촉진회 주관의 서울 직장대항이 배구시합이 있었는데, 대한철광 팀, 인천 중공업 팀 등 6~7개 회사가 모여 체육대회를 하였다. 양양광업소 2명을



〈사진 6-9〉 운송부 대 선광 출하부 축구시합(1972. 6)

포함해 대한철광 본사 직원들이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었다.

울산 광업소에서도 울산 시내 직장 대항 배구 시합이 있었는데 경찰 등 7개 회사 간 체육대회에서 양양광업소 2명을 포함한 울산광업소가 우승을 하기도 하였다.

### 15) 광부들의 여가 시간

근로자들은 휴일이(공휴) 한달에 두 번으로, 교대로 쉬었다. 일반 사원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쉬었다.

광업소가 잘 될 때는 양양의 술집으로는 성이 안차서 속초로 나가서도 먹었다. 갑, 을, 병 3교대로 일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면 집으로 안 들어가고 술 마시다가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광업소에서는 광부들에게 영양보충[당시 광부들은 속칭 : 목구멍에 먼지와 때를 벗긴다는 말로 표현했다]을 위하여 돼지고기 2근을 한 달에 두 번씩 주는데, 술을 좋아하는 광부들은 육고점 아래에 있는 막걸리 집에서 돈으로 바꾸어 술값으로 충당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한 야외에서 소주 1뒷병을 갖다 놓고 슬레이트 불판위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이 있었다. 그 당시는 경월소주는 1뒷병들이 하늘색 유리병에 들어 있었는데 도수가 25%였다.

### 14) 고단한 광부들의 아내들

그 시절에는 시계도 없어서 밤에 도시락을 싸기 위해 밖에 나가 새벽을 보고 밥을 지었다. 애기가 울면 남편이 잠을 설칠까 봐 저녁에 바깥에서 애기를 달래서 재웠다. 시계가 있는 집에도 시간을 물어보고 통근 버스시간(밤 12시)에 맞춰 남편을 깨워 출근을 시킨 후에야 부인들이 잠을 잘 수 있었다.



봉급날은 술값을 제하고 납작하게 쪼그라든 봉투를 가져다주니 살림살이가 어려웠다. 봉급날은 술집 마담들이 경비실 앞에 죽치고 기다리다 봉급을 가로채는 일도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인감증명원을 제출하게 인감도장을 찍고 월급을 내주었다.

가정 살림을 돕기 위해 남편이 광산에 일하러 간 사이에 남의 일을 해 주거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파는 부인들도 있었으며, 적은 월급이지만 알뜰하게 살림을 산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2대에 걸쳐 광부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 15) 광산 1세대들의 모임활동

당시 장승리에 사는 광산 1세대들이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 삼우회 라는 모임을 가졌는데 광업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오래된 모임으로 확인 되었다.



〈사진 6-10〉 삼우회 광산분회 결성식(1970.2.26.)

## 16) 토속신앙

### (1) 산신당(山神堂)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산신을 귀히 여겼는데 이는 산에서 모든 양식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년 가을이면 광업소의 안전과 각 갱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냈는데 도목갱 입구에서 통돼지를 잡아 성대하게 지냈다.

당시에는 도목갱 입구 좌측에 평산신씨의 열여각이 세워져 있었는데 현재 화약고로 들어가는 길옆으로 이전되었다.



〈사진 6-11〉 산신제 직전 모습

### (2) 서낭당[城隍堂]

장승1리 1,2반에는 약 60여 가구가 살았는데 마을입구에는 수백 년 묵은 서낭목인 노송 3그루가 있었다. 그중 두 그루는 1960년경에 고사하였고 한 그루마저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어렵게 버티다가 2004년 겨울 강풍에 고사하고 말았다. 현재는 서낭터와 서낭 목 잔재 서낭단만 쓸렁하게 남아있다.

시멘트로 축조된 서낭당 안에는 마을 서낭계원 약 30여명의 명단만 목판위에 새겨져 보관되어 있다.

해마다 음력 정월 초삼일 자정에 부정(不淨)이 없는 집을 도가(都家)로 선정하여 돌아가며 제주가 되어 제물을 차렸다.

정해진 도가는 마을 뒷산의 맑은 우물물을 제수로 쓰고 통돼지를 잡아 제물을 준비하여 제단에 진설하여 놓고 마을 남자들 약15~20여명이 참석하여 서낭제를 성대히 올렸다. 시간이 흐르며 점차 경제적 부담으로 나중에는 돼지머리만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제가 끝나면 제사에 썼던 돼지고기와 떡과 과일을 골고루 마을 주민들에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서낭제는 2004년 서낭목이 고사하자 중단되었다.

이 서낭당은 마을 아이들이 학교(당시 상평초등학교)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귀신 나오는 공포의 장소였다. 겁없고 짓궂은 아이들은 용돈도 얻고 서낭에 매달아 놓은 실로 연줄로도 요긴하게 쓰여졌다고 한다. 이곳을 지날 때에는 겁도 나고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돌을 세 번 던지고 침을 세 번 뱉고 왼 발꿈치로 땅을 세번 쿵쿵” 구루면서 도망치듯 지나가기도 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서낭이 1900년대에 들어와서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자 무속인들이 몰려들어 서낭 목에 칼을 꽂고 술을 붓는 등 살풀이 장으로 변했다고 한다. 무속 인들은 서낭 목에 금줄을 띄우고 울긋불긋한 천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돈도 바쳤다고 한다.



〈사진 6-12〉 당시 서낭목 모습



〈사진 6-13〉 현재 서낭단 모습

### (3) 열녀각[烈女閣]

이 비각은 정용관의 처 평산 신씨의 정열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신씨는 본래부터 행실이 착실하였다. 어느 날 남편이 서당에서 귀하던 중 범에 물려 갔으나 가족이나 이웃사람들은 무서워서 시신을 찾을 생각조차 못했다.

그러나 아내인 신씨는 단신으로 깊은 심산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시신을 찾았다. 그 후 남편의 시신을 잘 안치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받쳐서 남편의 뒤를 따랐다고 한다.



<사진 6-14> 열녀각 모습

## 3. 후생복지시설

### 1) 복지시설 현황

양양광산의 광부들의 복지후생시설현황은 <표 6-1>에 나타나 있다.

〈표 6-1〉 양양광산 공공 및 복지후생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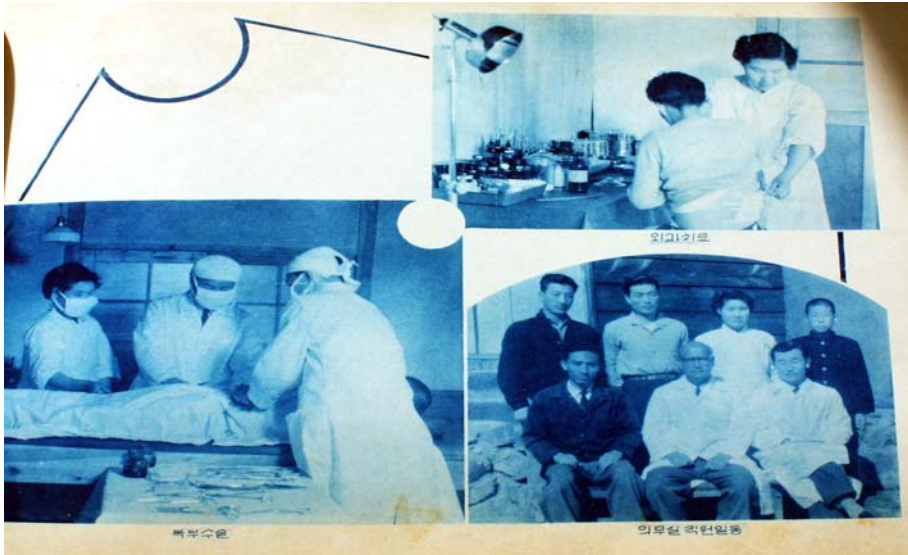
시설명	수량	용량
병 원	1동	입원실 4개
사 택	55동	230세대
합 숙	2동	42명
목욕탕	1동	
이발소	1동	
당구장	1개소	
정구장	1개소	
탁구장	1개소	
유치원	1동	
교 회	2동	

### (1) 병원시설

병실은 20평 정도로 원장 1명, 의사 2명, 간호사 2명, 남자 보조원 2명이 근무하였다. 병실 4개에 사채실이 1실 있었다. 허리 아픈 환자가 많았으며 광석을 다루기 때문에 손을 주로 다쳤다. 환자는 1일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발생하였다. 병실에 입원하면 물리치료를 많이 하였으며 약을 병원에서 직접 조제하여 주었다. 〈1976년 자료〉

### (2) 사택시설

사택은 55동에 230세대가 살았다. 사택은 방 2개, 부엌이 1개로 좁은 편이다. 과장 사택은 약 20여평, 주임사택은 17~18평정도 이었고, 사원 급은 약 15평 그 밖에 독신자 사택 4~5평정도 였다. 가족이 있는 광부가 사택을 신청하면 총무과에서 방을 배정받아 입주가 시작되는데 무료였다. 독신자는 합숙소를 이용하였는데 2개동에 42명이 있었다. 방세는 무료이나 식대는 급식 숫자를 체크 하였다가 월급날 갚았다.



〈사진 6-15〉 병원직원 및 수술광경(1957년경)

### (3) 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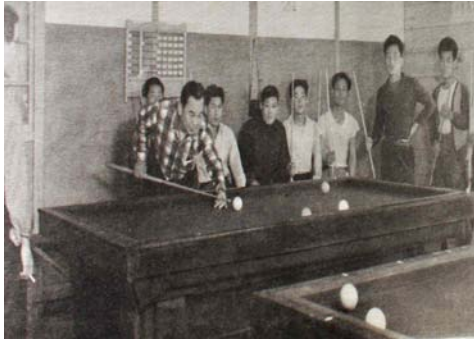
극장은 약 100석을 운영하였는데 저녁에 1회만 상영하고 낮에는 상영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에는 양양읍내는 물론 관외지역과 속초에서도 구경하러 왔고 속초보다 개봉 영화가 더 빨리 도착하여 많은 관람자가 있었다. 하지만 텔레비전이 보급된 후부터는 관람객이 없어 폐쇄되었다.

### (4) 목욕탕시설

목욕탕은 24시간 운영하였는데 무료이기 때문에 양양은 물론 그 외지역에서 광부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목욕하러 왔다. 광부들도 갯 속에서 먼지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였다.

### (5) 당구장 시설

당구장은 1개소에 당구대가 4개 있었다. 젊은 청년들이 별다른 오락시설이 없어 당구장을 많이 찾아서 늘 북적거렸다.



〈사진 6-16〉 당구치는 근로자들



〈사진 6-17〉 이발하는 근로자들

## (6) 이발소

개인이 운영하는 이발소로 자유롭게 이발을 하고 장부에 외상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월급날 계산하였다. 참고적으로 60년도에는 쌀 한1말에 150원~200원이었고, 노무자 월급은 3,900원에서 4,000원이었다.(쌀 2가마 정도)

## 2) 건강증진을 위한 새마을사업 추진

1961년 5.16일 군사혁명 직 후 박정희대통령 (당시 군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국영기업체인 양양광업소를 시찰할 당시 미 군사고문, 차○○, 이○○를 대동하고 선광장을 방문하였으며, 그 후 정부의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바람이 불자 산업체이며 국영기업체인 양양광업소도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광산일과 새마을사업을 병행 하였는데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선광과에서는 여자 종업원들이 선광수선작업을 시작하기 전 1~2시간정도 선광과 새마을 방에서 면장갑을 만들어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고 일부는 회사에 납품을 하였다. 면장갑을 만드는 실은 서울에서 구입하여 편물 장갑기계로 짜서 공급 하였는데 약 3~4년간 만들었다고 한다.



〈사진 6-18〉 선광과 사무실 앞 토끼장(1970년경)

종업원들에게 공급 할 미꾸라지 양식을 시도하였는데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환경조성 미숙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선광과 사무실 앞에 토끼장을 만들고 토끼를 키웠는데 번식률이 높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대 100~200여 마리까지 사육되어 효과를 보자 공작실을 비롯한 타 부서에서도 키우기 시작 하였다.

(2) 도목갱에서 염소를 키웠는데 그 염소가 선광과에서 토끼에게 먹이려고 준비하여 둔 먹이를 몽땅 먹어치우는 일도 있었다.

(3) 조사과에서는 수박을 재배하고 꿀을 채취하려고 벌을 키우기도 하였다.

(4) 그밖에 장승리 광산촌에는 미용실이 없었다. 상평국민학교에서 주부교실을 운영 양양군수 사모님과 함께 광업소 직원 부인들에게 미용기술과 함께 식생활 개선 교육을 받았다. 이런 교육으로 광산촌 부녀자들의 미용관리에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사진 6-19〉 식생활개선 전달교육(1976.7)



〈사진 6-20〉 주부교실 미용강좌 교육(1976. 3)

## 4. 폐광이후 삶의 모습

### 1) 퇴직자들의 모임

양양 철광에서 정년퇴직, 의원면직, 광업 기능 축소 또는 폐광으로 인한 퇴직자가 많이 있다. 퇴직자는 농사일이나 재취업을 한 분들이 많이 있으며 일부는 상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분도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건립되자 아파트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양양광업소 퇴직자들이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자 정기적인 관광행사, 건강을 위한 야유회 활동, 회원 간 경조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모임(회)을 결성하였는데 지역별로는 양양지역, 강릉지역, 서울지역 등에서 모임을 가진 회의 명칭을 조사하여 구분하였다.

#### (1) 양양지역 양광회

양양지역은 양광회 라는 명칭으로 1994년경에 30~40여명으로 시작을 하여 10여 년 동안 모임을 운영하다가 2006년(회장 최병호)에 회원이 12명으로 축소되자 해체되었다.

<구술자 최병호 전 회장>

#### (2) 강릉지역 양광회

강릉지역의 양광회도 양양 양광회와 비슷한 시기에 결성되었고 회원은 최대 25명까지 등록하여 존속하다가 2000년도에 해체 하였다.

<구술자 김영록 전 총무과장>

#### (3) 서울지역 대철회

서울 대철회는 1985년경에 사원급 이상 중역진을 주축으로 발족했으며 최대

15명까지 등록하여 모임을 운영하다가 생을 마감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해체되었으며, 서울의 다른 모임에 합류하려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구술자 김정수 전 선광감독>

#### (4) 서울지역 양광회

서울 양광회는 1990년 발기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현 회장 김재직 이하 20여명의 회원이 있다.

<구술자 김재직 전 속초사무소장>

#### (5) 서울지역 선공회

서울의 선공회 라는 명칭은 양양광업소 선광과 와 공무과에 재직하였던 퇴직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으로 다른 여러 모임 중 가장 먼저인 1984년에 최초로 발기하여 모임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회원은 통상 20명에서 최대 35명까지 등록된 적이 있었다. 현재는 회원 20명이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모임이 잘 이어져오고 있다. 퇴직당시 기술 부소장이었던 리수실(현 낙산사 법사)씨가 1985년 도에 작성된 회칙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회칙” 내용을 소개하며 현 회장 이호만(선광 분석실) 이하 회원은 다음과 같다

김덕성(선광감독) 김동훈(선광수리실) 김영진(선광기계) 김정수(선광감독)  
김창훈(선광주임) 남상택(공무과장) 리수실(기술부소장) 맹주태(선광분석실장)  
박순신(공무사원) 안홍근(선광기계) 양한구(공무사원) 이갑수(공무과, 소장)  
이유재(공무 전기계장) 이은호(선광주임) 최기집(선광기계) 함길준(공무사무)  
함동길(선광감독) 허남욱(선광기계) 홍원석(공무주임)

<구술자 리수실 전 기술부소장>

## 회 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선공 친목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 성) 본회는 대철 양양광업소 선광, 공무 출신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집회 및 장소) 본회 정례회는 격월제로 한다.

집회는 월 2주 토요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집회장소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 제 2 장 임원 및 임무

제 5 조 (임원) 본회 운영상 필요한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회장, 총무, 감사, 홍보, 각 1명 고문 약 간 명

제 6 조 (임원 선출)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임 무)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한다.

총 무 - 서무전반 및 회계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임무를 대행한다.

감 사 -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홍 보 - 회원의 근황 및 새 소식을 수시로 전파하고 총무와 협조 한다.

고 문 - 회장자문에 응하고 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 제 3 장 재원

제 8 조 (회 비) 회비는 일만원으로 한다. 단, 중도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입회금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종 류) 본회 운영상 필요한 재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월 회비, 입회금, 찬조금 기타

제 10 조 (금전 관리) 본회에 수납되는 금전은 총무가 관리하고 은행에 예치하며 필요한 금액은 회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 제 4 장 회의 및 의결

제 11 조 (회의 구분)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제 12 조 (회의 시기) 정기총회 - 매년 12월중 개최한다.

임시총회 -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임 원 회 - 수시로 개최한다.

월 예 회 - 월 2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장은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3 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총무, 감사, 홍보, 고문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지명하는 회원의 참여도 가능하다.

제 14 조 (의 결) 제반회의 시 의결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찬반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5 장 사 업

제 15 조 (사업 구분)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관광행사, 건강을 위한 야유회 회원 경조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의결된 사항

#### 제 6 장 지출 및 상조

제 16 조 (회비 사용) 본회 기금은 다음사항에 한하여 사용한다

각종 회의 시 소요되는 경비

회원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행사

제 17 조 (경조금 지급) 회원 및 직계존 비속의 경조사에는 전회원이 참여하고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 1) 회원(본인)의 결혼. 회갑. 사망 100,000원
- 2) 직계 존비속의 결혼. 사망 50,000원

단. 전회원은 각자 의사에 따라 개별적인 부조는 제한하지 않는다.

## 제 7 장 부칙

제 18 조(별 칙) 1) 회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제반회의에 계속 불참하는 자는 직·간접으로 참석을 권유하며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후 임원회 결의를 거쳐 처리한다.

2) 회원 중 회칙을 준수치 않고 규율을 몰란게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는 임원회 결의를 거쳐 제명 처리한다.

3) 상기 각항에 의거 제명된 자는 재차 가입할 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19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0 조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수정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끝 -

### 1. 선공회칙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임원 및 임무

제 3 장 재 원

제 4 장 회의 및 의결

제 5 장 사 업

제 6 장 지출 및 상조

제 7 장 부칙

## 5. 광산촌 철광 문화축제

### 1) 축제목적

- (1) 폐광으로 인한 낙후 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
- (2) 영화 알바트로스의 영화 촬영지로도 활용되었고, 일제시대부터 양양철광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이를 관광 자원화 하여 낙후된 마을의 이미지 제고 필요.
- (3) 차별화된 철가루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지역 특색을 알릴 수 있다.

### 2) 축제개요

- (1) 축 제 명 : 추억의 양양철문화 축제
- (2) 축제기간 : 6.30 ~ 7.1(2일간)
- (3) 축제주관 : 강원도 양양군(장승2리)
- (4) 축제시행 : 철산마을 축제추진위원회(양양군 서면 장승2리)  
\* 후원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 (5) 위 치 : 양양군 서면 장승리 270번지 일원

### 3) 축제연혁

- (1) 축제연역 및 역사
  - ① 장승리 철산마을은 일제 때 처음 광산이 생기면서 번성했던 마을이었으며 특히 60, 70, 80년대에는 각종 문화시설(목욕탕, 병원, 교회, 상가

등)이 즐비하여 양양의 생활 중심지로 그 명성을 알렸다고 함.

- ② 90년대 이후 폐광으로 인한 그 명성이 사라졌지만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열망으로 인하여 2011년에 제1회 철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큰 성과를 얻기도 하였음.

## (2) 지명유래

### ① 장승리의 유래

장승리(長承里)는 임천리와 수상리와의 경계에서 수상리 뒷산 능선으로 오색령으로 가는 큰 길이 있는데, 진등을 이어 마을이 되었다고 하여 장승리라 명명하였다. 우리나라 제일의 자철광 산지로 유명했던 장승리는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에는 장생리로 불렸던 기록이 있음.

### ② 양양광산 역사

장승리의 양양광산은 생산량이나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의 자철광산(磁鐵鑛山)으로, 평균품위 Fe 58% 정도의 철광석을 생산하였다. 지질은 편마암·섬장암·변성퇴적암과 후기 관입암류(貫入巖類)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접촉광상(接觸鑛床)으로 광맥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심하며, 경사는 북동(北東)으로 50~70°이다.

일제강점기인 1938년부터 일본인들에 의해 소규모로 개발되다가, 1941년부터 태평양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조달할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채광된 철광석은 속초항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갔으며, 8·15광복 후 폐광되었다가 1956년 국유화되면서 다시 가동되었다.

이후 일본 수출, 포항종합제철소로 반출되는 등 연간 35만 톤의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국내 철광석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광업의 침체와 인력 부족으로 생산량이 격감하여 1991년에는 13만 톤만이 생산되었다가 폐광되었다.



최근에는 액정표시장치(LED)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희소금속인 희토류(稀土類:rare earth metal)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2012년부터 다시 양양철광이 재가동 될 예정임.

#### 4) 주요행사내용

##### (1) 체험프로그램

##### ① 광산체험

- 행사내용 : 광부복장 착용, 갱차밀기 체험, 폐갱도 견학 등
- 기대효과 : 광부복장 착용과 갱차밀기 체험을 통하여 옛 추억과 과거 광부들의 노고를 경험할 수 있음.
- 철가루와 자석을 이용한 그림그리기 체험
- 행사내용 : 철가루를 이용한 그림그리기
- 추진방법 : 만들어진 작품은 코팅처리하여 개인이 소장할 수 있도록 함.



〈사진 6-21〉 철광문화축제장

② 추억의 놀이체험

- 행사내용 : 쇠구슬치기,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투호놀이 등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추억의 놀이를 통하여 어린시절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추진

③ 거꾸로 가는 모래시계 만들기 체험

- 추진내용 :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래시계를 자석과 철가루를 이용하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래시계를 만듦.
- 기대효과 : 특색 있는 과학 원리를 이용한 모래시계로 현재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임.

④ 자석달리기 대회

- 추진내용 : 자석을 이용한 달리기 대회 개최
- 기대효과 : 자석을 이용한 과학체험 및 침착성을 배울수 있음.

⑤ 철부지 철들기 체험

- 추진내용 : 화강암과 철광석의 무게를 비교 체험함.
- 기대효과 : 철이 없는 아이들이 철광석을 들면서 철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하여 철들기(철을 들게함)를 할 수 있음.

⑥ 카바이드와 간드레(과거의 랜턴) 사용 체험

- 추진내용 : 광부들이 갱도 또는 집에서 카바이드 와 간드레를 활용하여 했던 각종 삶의 방식을 재현하는 체험
- 기대효과 : 과거의 광부들이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음.

(2) 행사프로그램

① 추억의 영화상영 및 강연

- 행사내용 : 60, 70년대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

② 무성영화 상영 및 변사 경연대회

- 행사내용 : 전문변사를 통하여 무성영화 상영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변사경험을 하는 행사

③ 마술공연 및 경연대회

- 행사내용 : 마술사를 초청하여 진행하며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술대회도 개최

④ 자건거 타고 폐광지역 견학, 추억의 보물찾기 행사

- 행사내용 행사장을 출발하여 폐광지역을 돌아보면서 보물을 찾는 행  
사이며 보물을 찾는 체험객들에게 각종 기념품 제공

⑤ 기타행사

- 행사내용 : 사진전시회, 도둑놈 밥상 먹기 등

5) 축제지역 내 인구 및 가구현황

- 인구 및 가구 현황

구 분	인구수(명)			가구(수)	비고
	계	남	여		
계	301	147	154	198	
장승1리	131	62	69	92	
장승2리	50	25	25	34	
장승3리	120	60	60	72	

6) 예상 내방객 및 축제효과

- 내방객

구 분	계	도시민	현지농업인	비 고
계	3,500	2,500	1,000	

(1) 축제효과

① 계량적 효과

- 농산물 판매량 증대로 인한 직·간접적 농업소득 향상 : 12백만원
- 도농교류 활성화 기여 (1사 1촌 자매결연 증가) : 6개 업체·기관/17회  
\* 정선 하이원과 한전산업개발과 협의중
- 축제행사 개최로 인한 지역을 찾는 관광객증가 : 5천명/2011년도

② 비계량적 효과

-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지인들이 양양철광의 옛 명성을 느낄 수 있는 체험위주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축제로 인한 지역 홍보효과 : 귀농·귀촌지로 선호도 증가
-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농외소득원 개발
- 마을단위 축제로 마을 주민 간 화합도모

※ 강원도주관 새 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선정 (상사금 : 5억원)



〈사진 6-22〉 철문화축제마을 연말총회(2012.12.30)

## VII. 구룡광산

### 1. 개요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 28번지에 있으며 광구의 범위는 약 90정보로 구룡령 일대이다. 자철광으로 철 함유량은 52%이다.

구룡광산의 시작은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1940년대 초에 일제에 의해 채굴되어 오다가 해방과 더불어 중단되었다. 1963년 지질학 박사 김옥준씨의 확인으로 채광 활동을 하여 월간 300톤을 채굴하여 자동차 편으로 속초항에 운송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열악한 도로여건으로 철광석 운송이 어려웠고 석유과동을 겪으면서 채산성이 악화되어 1970년 이후 생산이 중단 되었다.

<출처:양양군지>

### 2. 경과

#### 1) 일제 강점기의 운영

일제가 광산을 시작할 당시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으로 끌려가던 시기로 보급을 면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인력을 충원하였다. 일제는 구룡령 입구에 대장간을 차려놓고 철을 캐는 각종 도구를 만들었다.

쇠를 이용한 각종 기구로 100m 정도의 굴을 뚫고 철을 생산하였는데 동발이를 바치면서 하였다. 철을 캐서 인발구라고 불리는 수레를 썰매 달린 소달구지처럼 만들어 산 중턱까지 인력으로 끌어내어 선광장까지 케이블카로 옮겼다.



〈사진 7-1〉 구룡광산 답사(2011.11)

철광석을 선별하면 목탄차에 옮겨 싣고 운반해 갔는데 40년대 초부터 해방 전까지 채굴이 진행되었다.

## 2) 수복후의 운영

해방 이후, 폐광이 되었다가 60년대 초 함태 광산에서 인수하여 운영 하였다. 속초로 철광석을 실어 판매하다보니 운반비가 비싸서 결국은 도중에 문을 닫아 버렸다.

철의 질은 양양광업소도 보다 우수하였다고 한다. 당시 노동자는 7~80명 정도 지역주민 뿐만아니라 외지인도 많았다.

철을 캐내서 1차 수레로 옮겨서 산 중턱에 있는 조구통에 부린 후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구룡령 입구의 선광장으로 옮기면 인부들이 선광을 해서 차로 실어 운반을 했다. 아직도 케이블카 와이어 줄이 그대로 남아있고, 원형이 보존된

굴 이외에도 갯도입구가 함몰된 굴이 2곳이 더 있다. 예전에 사용했던 화약고 건물 2동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철을 채굴하여 선광을 해서 야적을 해 놓던 곳도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정(丁)으로 뚫으며 썼지만 한국전쟁이 끝나고 수복 이후에는 착암기로 했다.

## VIII. 철광산의 재개발

### 1. 양양광산의 재개발 현황

#### ◆ 금산개발(주)과 대한광물주식회사 법인설립

2008년 7월 금산개발(주)이 갱도(坑道) 미개발구역에 철광석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구(舊)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양양사업소 작업권 내 210ha에 대해 강원도에 채광계획을 신청했다. 강원도는 광해방지(鑛害防止) 의무의 충족과 산림조성 지원비 납부를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금산개발(주)은 이 지역에 최소 500만톤 이상의 철광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매장량을 파악하기 위해 강원대학교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2007년 6월 한국귀금속분석감정원의 분석 결과 철광석의 함량이 49.08%로 질이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산개발(주)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12월 20일 대한광물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한전산업개발, 스포츠서울, 대한광물자원공사 등이 지분을 투자하여 협약서를 체결하고 운영하였다. 2011년 6월 9일 양양 광업소 기공식을 가진 후 채굴환경 조성 등 굴진 준비를 마치고 2012년 5월 11일 첫 채광으로 광업소를 운영하던 중 철광석 단가가 45% 하락하는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자 2015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인 회생을 신청하였다.

#### ◆ 맥산그룹의 대한광물주식회사 인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러 차례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대한광물주식회사를 인수할 회사가 없어 1년여 시간을 끌다가 2016년 5월 30일 양양의 향토 기



업인 맥산그룹의 단독입찰로 회생 종결처리 되었다. 이로써 대한광물주식회사는 맥산산업, 양양자원 등이 대주주가 되어 광업권을 인수 합병하였다.

2020년 2월 10일 선광장을 준공하여 분광을 생산하고 있으며 분광의 부산물로 골재도 생산된다.

양양광업소는 확인된 매장량만 700만톤으로 원석을 연간 40만톤씩 생산하여 6만톤의 정광(精鑛 : 철 함량 63% 이상)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매장량은 시추 여하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맥산그룹 인수 후 광산 종사 인력이 사무 전담 인력을 포함해도 30명이 넘지 않아 과거에 비하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갱도를 넓히고 바닥을 포장하고, 천정과 벽의 굴진 면을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갱도 내로 덤프트럭이 직접 진입하여 철광을 운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배수와 통풍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발파와 착암도 자동화된 기계 도입으로 인력을 최소화하여도 안전은 보장되고 생산성은 높였다고 한다.

철의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철광석의 채굴과 더불어 발생하는 폐석을 모래와 자갈로 활용하는 등으로 채산성을 맞출 수 있어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한다.

## 대한광물(주) 양양광업소 현황

### 1) 일반현황

(1) 광산연혁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장승1길 190-1

- ① 1933년 일본 석정광업소 개발
- ② 1961년 선광장 준공
- ③ 1973년 제1수갱 (320m) 준공
- ④ 1974년 제2수갱 (350m) 준공

⑤ 1995년 폐광(광산 채산성 저하)

(2) 사업경과

- ① 2010. 12. 20 대한광물주식회사 법인설립
- ② 주주구성 : 한전산업개발, 스포츠서울, 한국광물자원공사
- ③ 2010. 12. 21 주주간협약서 체결
- ④ 2011. 06. 09 양양광업소 기공식
- ⑤ 2011. 06. 22 Ramp Way굴진 첫 발파
- ⑥ 2012. 05. 11 양양광업소 첫 채광
- ⑦ 2012. 11 주램프 굴진, 광체 채광갱도 조성, 생산 및 판매
- ⑧ 2015. 05. 29 법인회생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⑨ 2016. 05. 30 회생종결 (맥산그룹 인수)
- ⑩ 2019. 12. 02 광업권(제75413호 외8) 인수합병
- ⑪ 2020. 02. 10 선광장 준공
- ⑫ 2023. 08월 현재 주램프굴진, 시추탐사, 생산 및 판매 진행 중



〈사진 8-1〉 대한광물 재개발현장(2012)

## 2) 개발계획

### (1) 시장변화 및 환경 친화적

- ① 세계적 광물자원확보 필요성 : 국내자원개발 필요  
국내 최대 자철광산으로 친환경 개발 (산성폐수 및 광미처리안전)
- ② 지표조사 및 탐사를 통한 철광석 잔존광량 확인
- ③ 현대화 장비를 이용한 채광기술 발전
- ④ 저 품위 철광석의 선광기술 발전

### (2) 광산개발

- ① 생산계획 : 30만 톤/년 규모(하부광체 개발로 추가광량 확보)
- ② 개발방법
  - ▶ 채광 : Ramp Way 굴진으로 기계화 채굴  
⇒ Ramp Way 굴진 : 첫 발파('11. 6. 22~)  
⇒ 진행사항 : 양양7구신광체 연접 구경도 첫 채광('12.5.11)  
⇒ Ramp Way 굴진 : 3.7km 굴진 ('23. 8. 현재)
  - ▶ 배수 : 2수갱 Roof 기준, 수직으로 380m 구간까지 배수완료
  - ▶ 선광 : 분광(습식자력선별)
  - ▶ 광미 : 고압 탈수로 갱내 공동구역 충전

### (3) 선광설비

- ① 자력선별(고 자력 습식) 철광석 정광생산 및 골재선별
- ② 친환경 수처리시스템 구축(습식 처리 수 재활용, 외부 하천으로 반출 없음)



〈사진 8-2〉 현 대한광물 선광장(2023년)

### 3) 공정 및 생산제품

#### (1) 채광현황

- ① 양양광업소 -170ML, -230ML 구갱도 관통 및 확장작업 등 채광준비
- ② 일부 고품위 원광석 채광 진행중

#### (2) 생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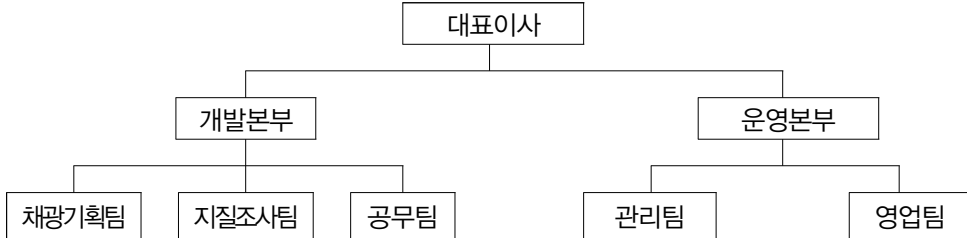
- ① 철광석 정광 : Fe 함량(63% Max.)
- ② 분광(Fine Ore') : size 2mm 이하
- ③ 골재 : 25mm 자갈, 부순 모래

#### (3) 제품판매

- ① 2012. 11. : 1차 선적 분 5천톤 중국 첫 수출
- ② 현재는 약6만 톤/년 정광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

#### 4) 조직도 및 인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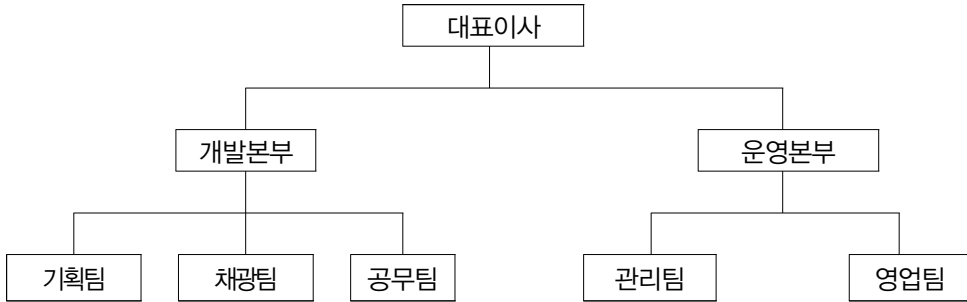
(1) 조직도(2012.11)



##### ○ 소속별 인원

구 분	인 원			비 고		
	관리자	근로자	계			
대표이사	1	-	1			
감 사	1	-	1			
기술고문	1	-	1			
운 영 본 부	본 부 장	1	-	1		
	관 리 팀	2	1(女)	3		
	영 업 팀	1	-	1		
	소 계	4	1	5		
개 발 본 부	본 부 장	1	-	1	소장	
	채광기획팀	3	2(女1)	5		
	지질조사팀	1	-	1		
	공 무 팀	3	수갱	7	16	
			선광	6		
소 계	8	14	22			
합 계	15	15(女2)	30	대한광물(주)		
협력업체	6	24	30	대철개발(주)		
전 체 인 원	21	39	60			

(2) 조직도(2023.8)



○ 소속별 인원

구 분	인 원			비 고	
	관리자	근로자	계		
대표이사	1	-	1		
감사	2	-	1		
감사	1	-	2		
운영본부	본 부 장	1	-	1	
	관 리 팀	1	1	2	
	영 업 팀	1	-	1	
	소 계	3	1	4	
개발본부	본 부 장	1	-	1	
	기 획 팀	1	-	1	
	채 광 팀	1	7	1	
	공 무 팀	1	5	8	
	소 계	4	12	6	
합 계	11	13	24	대한광물(주)	
협 력 업 체	1	2	3	양양자원개발(합)	
전 체 인 원	12	15	27		



〈사진 8-3〉 양양갱 입구(2012)



〈사진 8-4〉 현 양양갱 내부(2023)





# 제 2 부

# 광부들의 이야기

탐동 노천 채광 현장 모습 <1956년경>



# 광부들의 이야기

## 1. 채광부

(구술자 서선리 이순형 78세)

### 사례 1 ◆ 수복이후의 초창기 채광

일제가 양양에서 철광(탐동, 도목항, 논화항, 가재골)을 개발하여 채광을 하다가 해방되고 북한정권이 탐동에서 철광석을 캐서 탐동에 있는 고구찌[갱구:坑口]의 슈트[높이가 약 100여m, 수직으로 90°]로 떨어서 네루의 길이가 약 800m인 갱도로 철을 싣고 도목항으로 운반하면 다시 철도를 이용 북한 청진으로 철을 운반하였는데 그때 북한정권 시절에는 광업소 소장을 광장(鑛長)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내가 6~8살 쯤 되었으니까 아마 1940년경에 일제가 선광장 입구 오아뺑 부근인 자리에서 광산 개광기념일인지 뭐하는 행사인지 만국기를 쪽 내걸고 씨름과 유도경기 등을 하기도 했는데 유도경기에서 서선리 손희재씨가 일본 인과의 유도경기에서 상대방을 제압하여 통쾌하게 이기는 일도 있었다.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이 휴전되고 수복이 되자 1953년 상공부에서 채광을 시작하였다. 한국군 1101야전공단에서 콤퓨레샤를 탐동에 1대에 인부 6명, 도목항에 1대에 인부 6명 배치하여 고구찌(갱구)와 갱도(坑道)가 무너진 곳을 동발이[坑內支柱木]를 세워서 받치고 청소도 하면서 철광석을 캐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초창기에는 일제와 북한이 쓰던 착암기가 굴속에 방치하였던 것을 수리하여 사용하였고, 광부를 채용하였는데 운반부 6패(12명), 감독, 잡부 등 30여명이 철광석을 탐동에서 캐서 도목항으로 운반하였는데, 그 당시 노무자는 고무신을 신

고 일을 했으며 통다비[통일화], 그리고 장화는 아주 귀했다.

그후 상공부 운영체제의 광업소를 대한철광에서 인수하니 상공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내려왔는데 영월 상동광산에서 온 사람들이 더 높게 인정받았다.

초창기에는 장승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무실은 판자를 이용하여 탐동에 지었고, 도목항은 사무실도 없었고 원 사무실은 강태석씨 사랑방을 채광과로 사용하였고 탐동을 개발하면서 일정 때 사용하던 자리에 사무실을 지어 사용하였다.

탐동의 채광도 1~2년만에 채광이 끝나고 양양항으로 옮겨지게 된 1957~58년에 양양광산이 급속도로 커지게 되었다.

임금은 48,000원 받았는데 그때 막걸리 한잔에 20원이었다. 양양항, 논화항, 도목항의 근무 조건은 비슷하지만 항장의 결정에 따라 일하는 곳이 변하였다. 도목항은 한달에 1명꼴로 사망자가 생겼다.

## 사례 2 ◆ 10여명의 착암조수를 양성

70년대 수항은 100여m 내려가면서 채광하였는데 10년 동안 데리고 일을 하였던 조수 10여명을 숙련공으로 만들었으며, 항내 착암공으로 일하면서 기술은 인정받았다. 항장의 권한이 막강하여 항장의 눈 밖에 나면 일자리가 자주 바뀌었다.

어느 때인지 착암 조수가 기계로 일을 하고 있었고 운반부원이 흙을 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크게 나더니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일하던 사람이 흙더미에 매몰되어 사망하는 일도 생겼다.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항장이 책임을 지지 않지만 윗사람의 눈초리를 받게 된다.

착암 및 광산 개발에 관한 좋은 방법 등을 제안하면 상장과 상품을 시상하는데 속옷 등을 받았다. 또 원가를 줄이기 위해 짠 화약을 사용하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위험성이 높아진다.

### 사례 3 ◆ 천양회사와 덕대

광산에서는 천양회사가 다른 회사에 하청을 주기도 하였는데 책임과 감독은 양양 광산에서 하였다. 본사의 권한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인사권 및 하청업자 선정권은 본사에서 가지고 있었다. 천양회사가 하청을 나가면서 덕대에 비슷한 형태로 하청을 주었다. 덕대에서 나오는 철을 뺏아서 분석실로 가면 철의 혼합률이 나왔는데 분석실에서 기준치를 정함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컸다. 이때 소장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

### 사례 4 ◆ 해외건설 면접관 이명박 대통령

70년대에 현대건설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도로 건설을 하는데 기술자를 선발한다고 하였다. 착암 기술자는 많지 않아서 양양 관산 기술자들이 응시하였다. 그때 착암기술자인 나도 응시하여 선발되어 해외로 도로건설 현장에 터널을 뚫는 현장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때 현대건설 서울본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본 면접관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 사례 5 ◆ 탑동 마을의 사택

서선리 윗마을에 탑동 광산이 있다. 왜정 때에도 탑동에는 광산 사택이 약 50호 이상 있었는데 목욕탕과 이발소 가게 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해방 후 이 사택건물을 뜯어서 서면사무소, 서면지서 그리고 현재 상평에서 범부 다리로 가기전의 부근에 임시 학교건물 3~4실을 지을 때 사용했다고 한다. 6.25 한국전쟁 후 수복되어 탑동에 광산이 한창 번성 할 때 30~40채의 작은 노무자의 집들이 있었으며 큰 아이들은 상평학교에, 작은 아이들은 장승분교로 걸어서 다녔으며,

분교에는 1, 2, 3학년까지 다녔는데 학년 당 2개 반씩 6학급이 편성돼 있었다.

## 사례 6 ◆ 광부의 여가 시간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그맘때 광산이 최 호황기로 한참 잘 나갈 때 극장도 있었고 양양 시내에서 광산까지 시내버스가 하루에 10회 정도 왕복 운행 할 정도로 광산마을이 활기가 넘쳤으며 광산에 딸린 인구가 아마 2만을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광산 업무가 끝난 후에는 같이 일하던 사람들끼리 경주 불국사 등지로 장거리 여행도 가고 당일로는 신흥사 하조대로 여행도 가고 갯변에 나가 천렵도하고 상평에서 돼지를 잡아먹는 즐거움도 있었다.

소장 이하 간부급들은 광산에 있는 술집에 가면 소문이 나기 때문에 속초 또는 설악산, 낙산 그리고 기사문리로 많이 나갔다.



〈사진 1〉 초창기 광부 이순형씨 구술 모습(20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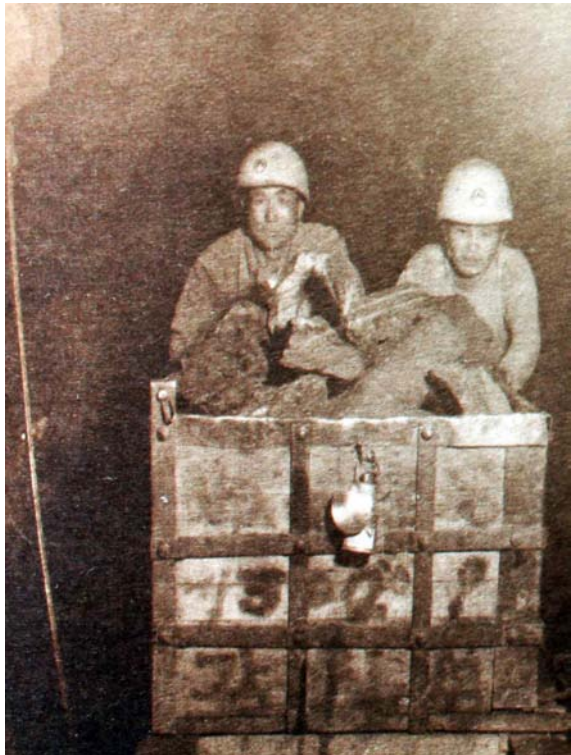
## (구술자 서선리 이일형 80세)

### 사례 1 ◆ 광산취직과 광산사고

50~60년대에는 양양에 취업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공무원 하던 사람들도 광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임금은 100만원 정도였다. 광산에 취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나는 탐동에 형님이 있어 군에 갔다 와서 형님에게 부탁을 하였다. 임시로 들어가서 힘들어도 광업소에 인맥을 통해서 운반부로 일하다가 고입이 되는 길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운반부에 들어갔다. 양양에서 탐동까지 버스가 다녔는데 그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다.

맨 먼저 들어가니까 기선장(항에서 구르마로 광석을 실어 부린 적치장)에서 일을 했는데 한 달 생산량이 배당되어 1번, 2번, 3번으로 정해져 있었다. 나는 광석을 광차에 담아서 운반하였다. 우리가 실어다 선광장 넓은 곳에 놓으면 아침에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폐석은 폐석대로 철광석은 철광석대로 골라서 두어 시간 지나면 광석이 다 없어졌다. 그만큼 여자 인부들이 많았다. 선광하는 여자가 많을 때는 몇 백 명까지 근무하였다.

남자들은 약 300명(1개조 100명), 여자는 200명이었다. 1번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2번은 오후 4,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한다.



〈사진 2〉 철광석 운반 1957년경

## 사례 2 ◆ 광부가 자꾸 죽어나와 광산 다닐 마음이 없어

조정록이 착암부로 근무했는데 항에 들어가서 운반부가 실어낼 광석을 만들어 내야하는데 광석이 무너져 빠져 나오지 못했다. 많은 돌을 위에서부터 걷어 내야 하는데 할 수 없이 밑에서 돌을 빼게 되니 사람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돌은 많고 애간장이 타들어 갔다. 결국 밑에서부터 돌을 빼내어 사람을 꺼냈다. 하지만 사람은 죽었다. 그 후 다시 광산에 다닐 마음이 없어졌다.

탐동에서 도목항으로 발령을 받아 유덕순이랑 갔다. 도목항 항장은 이종훈 이었다. 아침 8시에 작업배치를 했다. 도목항의 굴은 5개였는데 그 안에 여러 개의 줄기가 있었다. 1중단, 2중단.....6중단까지 있었는데 유덕순은 1번으로 들어가고 나는 2번이어서 집으로 왔다. 오후에 2번을 나오니 유덕순이 죽어서 나왔다. 나는 탐동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왔는데 또 다시 그런 일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일하는 동안 열에 아홉 번은 될 것이다. 그 바람에 속초경찰서도 몇 번 불러 다녔다.

## 사례 3 ◆ 노다지로 때리니 돈이 되네

도목항에 와서는 착암공 일을 하며 구멍을 뚫어서 화약을 재워가지고 발파를 하면 광석이 떨어져 나온다. 광산에서 착암공은 알아주는 직책이다. 그때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대학교(한양대학교나 인하공대)를 졸업하고 3개월, 6개월 실습하고 발령을 받고 감독 주임을 했다. 그래서 아주 끝 받이 좋았다. 착암기계 공은 먼저는 조수를 두고 했는데 원 맨 돌이라고 해서 혼자서 하게끔 하게하고 ‘밑에서 구멍을 뚫어 놓고 위에 올라와서는 노다지로 때려 가지고 위에서 많이 쾅다. 한방만 터드리면 온 산이 무너지니까 화약을 조금 쓰고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큰 이익이다. 그렇게 착암공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받고 그랬다.



#### 사례 4 ◆ 감독도 죽는 상황이니

3번을 나와서 작업장을 알려주어서 작업장에 가서 조수랑 앉아서 텐조 없이 칠 려고 하는데 감독이 오길 바라고 있는데 생전에 감독이 오지 않아, 얼마동안 기다리다보니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니 그만큼 위험한 작업장이었다. 그 당시 도목항은 수평으로 1.5km 정도는 들어가야 현장에서 칠이 나왔다.

현장에 가면 관물함이 다 있는데 슬리퍼를 신고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는 옷 갈아입고 신선놀음이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한 몇 시간 하다보면 나오게 되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촌에 가서 돼지를 돈을 주고 거기서 잡아 먹는 즐거운 일도 있었다.

#### (구술자 독초조양동 이종욱 78세)

#### 사례 1 ◆ 깃발은 착암공이 최고다

처음 임시직으로 들어가면 광차에 쇳돌 실어가지고 운반을 하는 일 밖에 안 시켰는데 고입이 되어야 채광을 하고 착암은 오야가 했다. 나는 착암부 조수로 일을 하다가 총무과에서 채광 시험을 보았는데 광업소 연수원에서 보았다. 보통 3년이 지나야 시험을 보는데 나는 6개월 만에 보았다. 착암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중단이 되면 누가 안 갈려고 하면 청부를 맡아서 착암을 했다.

도급은 일이 힘든 곳을 회사원이 잘못하는 데를 청부(도급)를 땀다. 기계 잘 하는 사람, 밭과 잘하는 사람에게 도급을 주었다. 도급은 삭꼬 내려 짓는거(지하로 내려 뚫는 것)하고 통천 올리는 것(하늘로 올려 뚫는 것)이 있는데 광석 물량은 중요하지 않고 뚫는 거리에 따라 깊이 m 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받았다. 대략 1m에 한 공수니까 거의 하루 일당을 받았다.

## 사례 2 ◆ 한 발작자국 차이가 생사를 가른다

올려 뚫는 거랑 내려 뚫는 거랑 둘 중에 내려 뚫는 게 더 힘들었다. 물이 생겨서 펌프로 물을 퍼내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내려 뚫을 때는 도화선으로 발파를 안 하고 전기발파를 해야 하는데 물이 있으니까, 그게 기술이다. 작업을 하다가 한발자국 더 나가면 떨어져 죽으니 한발자국 차이에 생사를 가르기도 했다.

큰 돌이 떨어지는 건 쇠 철장대를 가지고 툭 툭 툭 때려보면 떨어질 돌인지 아닌지를 알고 캐거나 부스거나 하여야 한다.

항내 사망자는 초보가 많았으며 배테랑 들의 사망사고는 거의 없었다.

근무시간이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술집에 모여 하루를 풀고 “나 오늘 죽을 기 살았어”하면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풀고 집으로 갔다.

착암공들은 운반부원들이 술도 시주고, 회식도 자주 해주었는데 착암공은 한 시간 일하면 되는데 시간이 남으면 운반부의 일도 거들어주고 하니까.

기계 착암공은 착암뿐 아니라 발파작업도 많이 한다. 막장이 두 개 있는데 둘이서 다니면 발파작업을 하는데 굵은 돌을 화약으로 재워서 깨는데 한 사람이 두 번밖에 못 달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광산 일이 안된다.

## 사례 3 ◆ 시신위에 쌓여있는 광석을 폭파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대원이 투입하여 사체를 처리하는데 경찰서장과 수사경찰 회사 사장도 함께 들어간다.

어둡기 때문에 간드레 가스 등을 달고 들어가는데 긴장되고 무섭고 땀이 질퍽하게 흐른다.

갱 속에서 낙반사고 등으로 사망자의 시신이 큰 광석 더미에 깔리면 광석덩

이는 금만 가게 폭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광석과 함께 시신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시신수습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시신을 누르고 있는 광석에 흙을 덮고 화약을 적당량을 넣어 폭파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밖으로 내 보낸다.

폭파 후 돌을 들어내면 움츠렸던 시신이 팔이 확 펴지게 되면 구조대를 놀라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평소 항내에서는 절대 금주지만 시신을 구조할 때는 술을 적당량을 먹어도 허용된다.

시체를 수습하여 병원에 오면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부하면 경찰이 확인하여 공상처리하거나 상처가 심하면 다른 병원으로 후송한다. 시체는 다 처리한 후에 가족에게 인계한다.

#### 사례 4 ◆ 도화선 하나 때문에 사고를

막장이 두 개 되는데 나는 10개를 재워놓고 다른 쪽에는 5개를 재워놓았어. 돌에다 화약을 넣고 진흙으로 덮어 0.5m짜리 쓰는데 심지 길이가 0.5m짜리는 금방 터지거든 나는 5개를 넣고 다른 한 사람은 11개를 넣었어. 나는 불을 붙이고 빨리 나왔는데 같이 들어간 사람은 11개를 재웠는데 미처 나오지 못해 빵빵하고 터져 들어가 보니 죽었잖아. 심지를 끊다 보면 안 끊는 수가 있어 안 끊으면 11개 재웠는데 10개는 끊어놓고 한 개는 안 끊어놨지. 그러니까 주머니에 칼을 꺼내 끊고 불을 붙여야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 것이다.

사고 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회사에서 걸리는 것도 ‘왜 규정대로 하지 않고 두 개만 붙여야 하는데 여러 개를 붙였느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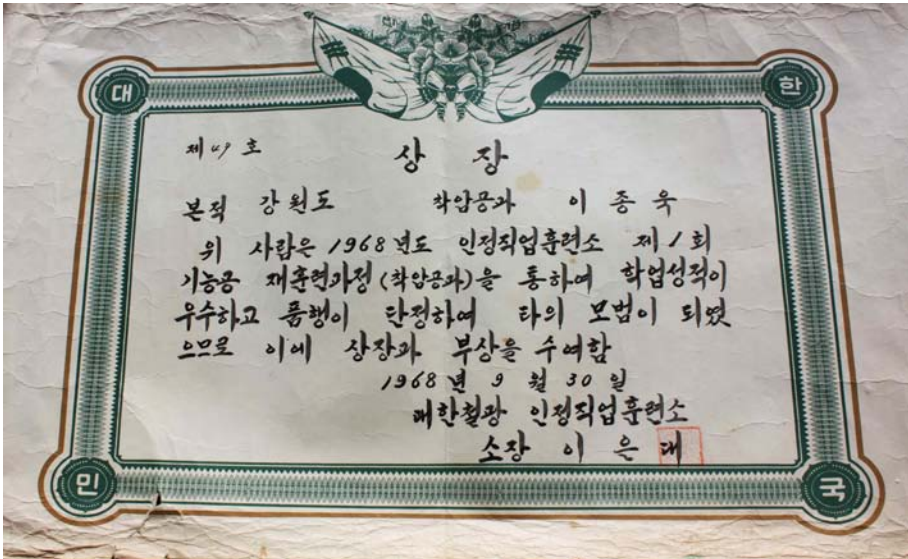
근데 회사에서는 경찰서에 갈 때 말을 맞추지. 두 개밖에 안 붙였다고 그러라고 했는데 사인이 안 맞아 심지가 덜 끊어졌거나 불을 붙이다 중간에 꺼졌거나 불이 꺼지면 라이터를 켜서 다시 붙여야 하니까 그게 꺼지면 다시 켜지 말고 뛰어나와야 하는데.....

내가 나오라고 소리 질렀는데 안 나왔다. 그 사람은 다 하고 나오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 것이겠지. 심지에 불을 못 붙이고 나오면 그게 망가지니까 다 하고 나오려고 한 거야. 시간 계산을 하면 되지만 상황이 닥치면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사례 5 ◆ 과장보다 많은 월급, 논 한 평에 400원

착암공의 월급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때 과장급 월급 수준으로 받았고, 마지막 퇴직할 때 엄청 많이 받았는데 시시한 과장급 월급 2배로 받았다. 그 돈으로 땅 사고 집사고, 가게를 차렸는데 그때 운반부들은 퇴직금이 6~70만원을 받았는데 나는 150만원을 받았어. 지금 돈 가치로 1억 5천만 원은 넘는 돈이다. 당시 논 1평에 400원이었다.

퇴직을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향내에 들어갔는데 정신이 해이해져서인지 한 막장을 해놓고 화약을 재워놓고 불을 붙여야하는데 한 막장 하고 뒤 툇 불거진



〈사진 3〉 이종욱 착암공과 상장(1968.9)

데 더 뚫고서 거기도 화약을 붙여 놔거든 그리고 불을 붙이고 나왔다. 12발이면 12발소리를 듣고 끝나는데 뒤에 화약이 더 재워놓은걸 잊고 들어갔는데 그때 터져서 돌이 튀어서 손이 매랜도 없이 다쳤다. 그래도 공상을 못 냈다. 공상을 내면 퇴직금 돈이 적어진다. 퇴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광산은 조금만 방심하면 죽거나 다치게 됨을 잊어선 안 된다. 굴속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했다.

### (구축자 연창리 임준모 70세)

#### 사례 1 ◆ 착암공의 대형사고

수항에서 발파하면서 굴진하면 운반부가 운반해 간다. 240m내려가고 광맥을 찾으면 수평으로 가면서 채광을 한다. 광맥을 따라 굴진하다보면 수직 상승 또는 하강하며 굴진한다. 수직으로 뚫은 지점은 계지(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

수평으로 뚫은 지점은 걸어서 들어가는데 수항의 레벨은 240m, 300m, 400m로 되어있었다.

운반은 광차에 실어서 10m정도 조구가 보이면 10m 밑에서 받아서 이송하고 다시 빈차로 올라온다. 기계착암공으로 보직이 바뀌면 특수 수당이 나오는데 초기(73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말기에는 7~80만원이었다.

어느 10월 12일 점심식사 후 운반부 추○○와 작업 중에 발파 지점을 확인 후 돌아 섰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옆에 돌이 떨어져 있고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추○○는 감독(김○○)에게 보고하여 착암부 모두 데리고 나왔다. 들것이 없어 운반부의 등에 업혀 사다리를 내려가는데 다리는 너덜너덜하여 질질 끌려 휴게실로 옮겨졌고 항장에게 보고가 되었다.

광차에 실려 300게이지를 타고 올라와서 용달차 비슷한 차에 실려 속초 영동 병원에 갔는데 다시 속초 의료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았다. 허리는 심하게

다친 것뿐 아니라 장이 파열되었다고 했다.

엠블런스를 타고 강릉 동인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갈비뼈가 부러진 후 폐가 찢렸단다. 중환자실에서 보름을 지나고 서울의 한양병원으로 옮겼다. 6개월을 지나고 뼈가 엉겨 척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다시 인천 중앙병원(산재병원)으로 옮긴 후 신경전문의에 의해 척추에 핀을 꽂고 수술을 했다. 사고 후 하반신 불구가 되어 광산사고 후 지금까지 국가 산재 연금을 받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60만원을 받았고 지금은 약 300만원과 아내의 간병비 100만원 받는다. 그때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이 서로 내왕(연락)을 잘 하지 않고 지내는데 그들도 막상 나를 대하면 안쓰럽고 애처로워서 그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 (구속자 오색리 김호섭 63세)

#### 사례 1 ◆ 최초 북한땅굴 발견한 을지무공 유공자가 광산땅굴 광부를

최초 북한 땅굴을 발견한 공로로 제대하면서 가고 싶은 직장을 말하라고 하여 그때 양양에는 좋은 직장이 없어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양양광산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입사하게 되었다. 김씨는 입사 처음 경비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임금이 적어서 선광과로 옮겼다가 다시 채광과로 옮겨 15년을 근무하였다.

사망사고 소식을 들으면 술도 많이 마시고 향에 들어갈라치면 머리가 쭈뼛쭈뼛 서기도 했다. 그러다 채광을 하다가 돌이 떨어져 허리를 다쳤고 로다로 광차에 광석을 싣는 일을 하였다.

발파를 하는데 동바리가 무너져 두 명이 죽고 김철호 감독이 와서 현장 검사를 하던 중에 지주가 물러앉아 감독을 포함하여 여럿이 다쳤는데 돌이 어깨를 스쳐서 피가 나고 걸어 다니기 힘들었다.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다.

1971년 입대하여 일등병으로 6사단 19연대 1대대 2중대 근무시절 밤 보초를 서는데 11시 20분 ‘공 공 공’ 하는 소리가 들려 분대장에게 지하에서 나는 소

리라고 분대장, 중대장, 대대장에게 보고하고 땅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굴 아니면 광산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실이 보고가 되어 소리가 나던 곳을 파 내려가니 북한 땅굴이었다. 연대장이 돈을 3만원을 주며 나가서 술도 한잔 하라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도 꽃다발을 주었다. 그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헬리콥터를 타고 휴가를 받아 양양에 들어서서 낙산을 지나 정암리 도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나를 환영하기 위해 양양 남자,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학생들이 물치 비행장까지 도착하려면 시간이 아직 남았다고 하면서 조종사가(중령) 우리 집을 안내하라고 하여 현남면 인구집 근처까지 가니 때마침 동생이 나와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는데 정말 감개무량한 순간이었다. 기수를 돌려 물치 공항에 내리니 양양군수 원낙희 군수가 환영을 나왔다. 양양 남녀 고등학교 학생들이 환영식을 해 주었다. 군수 썩차를 타고 양양초등학교 교무실까지 와서 환영을 받았다.

그때 병장 계급장을 달고 부대에 복귀하여 부대 생활은 아주 편하게 보냈다.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표창도 받고 뒤에 대통령훈장을 받기 위해 연대장 차를 타고 청와대로 갔다. 여의도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훈장을 받았다. 땅굴에 관한 상을 받은 사람은 77명이었고 나는 가장 높은 을지무공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광산을 퇴직하고 현재 오색 그린야드에 근무한다.

### (구술자 범부리 이형섭 74세)

#### 사례 1 ◆ 탐동에서의 채광

군대 갔다 와서 임시부로 들어갔는데 운반부에서 둘이 광차를 밀고 선광장에 가서 부어주면 선광부 여자들이 폐석과 광석을 골라냈다. 한번 발파를 하면 보통 15에서 18광차정도 나오는데 그걸 몽땅 치워주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발파

를 한다. 큰 덩어리는 해머로 깨고 더 큰 광석은 기계로 구멍을 뚫어 한 번 더 폭파를 한다. 그러니까 한 교대 지나서 운반부가 치우면 그 다음 교대가 기계로 하고 발파하고 치워내고 그러니까 한 교대 쉬어서 하는 것이다. 따로 실어주는 사람은 없고 내가 홉바에 담아 광차에다 실어 밀고 나온다.

탐동은 그렇게 길지 않았고 논화항은 약 300m 정도 되었다.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못 찾아 나온다. 굴속이 거미줄 같아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하면 길을 찾지 못했다. 탐동은 광차가 약 20대, 광차 1대에 2명씩 전체 40명이었고 착암공은 두 사람 한 조로 여기서 뚫고 저기서 뚫고 했다. 일하는 사람들은 서문리, 양양, 조산 그런데서 왔고 처녀들이 더 많아 서로 눈이 맞아 결혼도 했다.

외 사촌형이 서면 파출소 지서장으로 있어서 착암공을 배우라고 착암부 조수로 보내주라고 하여 거기서 뒷심부름 다 해주고 착암을 금방 빠르게 배웠다. 그래서 착암부 정식이 되었다.

## 사례 2 ◆ 철광엔 진폐증 환자가 없다

착암부에서 광석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너무 많이 넣으면 광석이 다 깨져 나오고 적게 넣으면 너무 적게 나오니까 평균 1m에서 1m20cm를 뚫을 수 있을 만큼 (약 16~20개)의 화약을 넣는다. 그리고 2~3시간이면 끝났다. 갱도에 떠 있는 광석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폐가 나빠져 진폐증 환자가 생긴다고 마스크를 쓰고 한다. 하지만 철광 착암부들은 석탄광업소처럼 진폐증 환자가 거의 없다.

착암부가 발파로 위험하긴 해도 착암 작업을 끝내면 먼저 나와서 씻고 기다리고 있다. 그때 물이 적어서 물은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 때 빨리 할라고 마른 가루를 막 털어내고 가래를 뱉으면 가래가 새까맣게 나온다.



### 사례 3 ◆ 군 미필자로 쫓겨나다

5.15혁명이 나고 군 미필자는 강제 징집하였다. 양양광업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모든 직장에서 군 미필자들은 죄인 취급을 당하여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억울하여 춘천에 제소를 해도 어쩔 수 없었다.

### 사례 4 ◆ 선광장 여자 노무자에게 팔씨름을 지다니

양양 선광장에 서문리 사는 처녀가 팔씨름을 잘한다고 해서 출근해서 팔씨름 한번 하자고 했어. 나도 팔씨름 어디 가서 한번 도 지지 않았거든 근데 그 여자한테 졌다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여자한테 회사에서 월급을 더 많이 주었다고 하더라고.

### 사례 5 ◆ 작업복도 다려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한 여자들

그 당시 내가 광산 다닐 때 사내 결혼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서넛 정도 되었다. 선광장에서 일하는 여자 노동자는 멋을 부리기 위해 작업복을 다려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일하러 가는 아가씨들이 많았다.

광업소에서는 미인대회도 있었는데 미인대회에 입상한 처녀는 많은 총각들이 사귀려고 시도하였고 그중 범부리 이형섭씨는 서문리에 사는 미인대회 입상자에게 결혼하자고 하였는데 이 아가씨 집에서는 반대를 하였지만 인연이 되어 결혼에 성공하여 여러 총각들의 부러움을 샀다. 여자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다.

선광장 자체에서 노동자의 의욕을 불어 넣기 위해서 당일동안 하조대, 설악산

등으로 놀러 가기도 하였다.

## 사례 6 ◆ 갈천 구룡광산으로 돈 벌러 갔다

구룡광산에 특별착암부로 해서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갈천에 집을 얻어 살았다. 구룡령 옛 길에 있는 광산인데 철을 캐서 삭도(케이블카)로 옮겼다. 월급을 간조라고 다발로 주었는데 그렇게 많이 벌어서 땅도 사고 그랬지.

구룡광산 작업환경은 양양항에 비해 턱없이 좋지 않았다. 거기에는 통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굴속에 광맥이 이상하게 7~8도 가량 기울어져 있었다.

광산에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고 자주 만났다. 그래서 매달 가 불하고 딸린 식구가 있으니깐 전업도 하여 돈을 만들어야 했다. 고참 들이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서 20살도 안된 사람들은 아가씨들이 동생, 동생하며 가까이 했는데 젊은 청년들은 부끄러워 술잔도 겨우 받았다. 고참 들이 젊은 사람들을 술집에 데리고 다니며 술 마시는 법을 가르쳤다.

월급을 타면 술집에 많이 다녔는데 일을 같이 하던 동료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는 20살도 안됐는데 술집 여자들이 나보고 동생 동생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나도 남자인데. 그 형뻘 되는 사람들과 다니면서 술 마시는 법도 배웠지.

## (구술자 장승리 미나미골 김종국 65세)

### 사례 1 ◆ 채광감독의 일과

광산에 자격증이 모두 7개인데 (항내, 항외, 기계, 발파, 착암, 쇠석기. 외1개) 자격증이 없으면 감독을 할 수 없었다. 또 안전에 대한 자격증은 필수였다. 당시에는 통풍이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발파를 하고 난 다음에 앞이 안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2인 1조가 되어 광차를 밀고 수 십대가 광석을 운반 하는데 광차가 보이지 않으니까 욱성으로 광차! 광차!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거리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광차가 뒤에 와서 치면 광차 연결 밤바라고 해서 그게 꼭 장판지 아래를 치게 되어있어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많고 나도 한번 부러 졌지. 그게 잘못 치면 생명도 위태롭게 된다. 하지만 각자 작업량에 대한 욱심 때문에 흙먼지가 눈앞을 가려도 들어가게 된다. 광차 사고는 매월 10건 정도 났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었고 당시 먹고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막장 인생이라고 한탄을 하면서 작업을 계속했다. 하루 세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였다.

임금은 본인 노력에 달려 있었다. 자기 책임량을 하고 그 후에 도급을 많이 하면 공무원 봉급보다 많았고 책임정도하면 비슷한 보수를 받았다.

## 사례 2 ◆ 먹고 살려면 인내를...

추운 겨울 눈이 많이 내려 병반 출근이 밤 11시에 출발하는데 현장으로 안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적이 있다. 눈 때문에 길이 전부 없으니까 엉뚱한 제방둑으로 가서 굴러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사는 방식이 너무 처량했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한심한 생각을 꼭 참고 인내하면서 출근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나고 그랬다.

## 사례 3 ◆ 여탕 구멍에서 눈을 찔렸다

70년대 후반 목욕탕이 발전실 옆에 있었는데 그 발전실에서 나오는 온수를 이용하여 목욕탕을 운영했다. 그때 여탕과 남탕 사이에 널판 짝으로 막았는데

널판에 웅이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P모씨가 여자 쪽을 넘겨보다가 눈을 찔렀다. 남탕 쪽에서 들여다보고 막아놓고 했는데 그 소문이 여자들에게 알려져 여자들이 비르고 있다가 구멍을 열면 꼬챙이로 찔렀던 것이다. 목욕탕에는 양양에서도 목욕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영화관도 속초나 강릉보다 프로가 빨리 내려와 이 지역 영북권 에서는 거의 다 장승리 광산촌으로 먼저 영화구경을 왔다.

사택은 건물이나 외관상으로 특이한 게 없었는데 사람들은 특이한 게 많았다. 8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각자 사는 방식이 천태만상이었다.

### (구술자 생평리 윤용호 82세)

#### 사례 1 ◆ 험난한 광업소 취업의 길 고입 월급에 절반인 임시부 월급

60년 4월에 입사했는데 종업원이 약 1,300명 정도 인데 지인의 소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다. 처음 임시로 들어가서 일을 잘 못하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 하면 그만이야. 일을 잘한다 싶으면 입사시켜 주었다. 그러니 능력이 부진하고 뺨이 약하면 다음엔 안 받았다.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입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9개월 만에 입사가 허락되었다. 그건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연수해서 보직 받은 젊은 사람한테 잘 보이면 고입이 빨리 되었다.

고입 월급은 45,000원인데 임시부는 그 절반이었다. 그때 돈 45,000이면 큰 돈 이었다. 고입은 위험수당, 야간에 일하면 심야수당, 또 일요일에 일하면 노는 날 일한다하여 자기 기본수당에 60% 그래서 월급이 많았다.

착암공도 바로는 안 되고 숙련공 밑에서 조수를 하고 그 숙련공이 작업 중에 공대출신들이 와보고 그 광업소 내에서 채광과장이 제일 생산과장이고 그분이 제일 높은 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향내를 현장답사를 하고 그러면 대학 나온 분들이 실습을 끝내고 보직을 받아가지고 광부들의 점수를 매기게 되었다.

처음 굴을 뚫을 때는 가까워서 좋은데 레일 길이가 6m 이니까 점점 들어갈

수록 힘들어진다. 운반하는 사람들은 같은 발파를 해 놓았는데 7~8광차 나오는 곳도 있고 14~15광차 나오는 곳도 있어서 발파의 기술의 표시가 나는 것이다. 감독한테 잘 보여야 하기때문에 그때 담배가 진달래인데 담배를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일요일이면 이색적인 먹을 것을 샀다가 주고 그랬다.

지질이 안 좋고 암반이 안 좋으면 동발을 하는데 7~8발짜리 동발을 해야 하는데 가지러 가기 싫으니깐 11~12발 짜리를 잘라서 쓰는 거야. 그럼 4~5발밖에 안 남으니 그걸 어디다 쓸데가 없어 감독이 와서 보고 4~5발짜리 저렇게 쓰면 짧게 남은건 어떻게 할 거야고 했다.

## 사례 2 ◆ 위조된 작업일지

작업일지를 보면 탄 사람들은 이렇게 굴을 뚫고 들어가다 쇧돌 광맥이 끝나면 더 이상 가야 쇧돌이 없으니깐 옆 천정 꺼를 털어 먹느라고 경사지게 들어가서 제일 밑에서도 수평으로 캐 놓고 없으면 다시 5m를 수직으로 올라가서 또 다시 수평으로 파 들어가서 광석을 캔다. 이렇게 다 해먹다보니까 이제 천반 놓은걸 털어 먹어야 하겠으니깐 이제 고참 된 사람들은 그 위험한데 가서 구멍을 다 뚫어놓는데 나중에 대 발파로 내려 깨서 파먹고 그렇게 했다.

그 안에서 뚫는 피트라는 것이 제일 짧은게 1m짜리가 있고, 1m20cm가 있고 그 다음에는 1m50cm가 있고 그 다음에 4m가 있다. 하다 보면, 4m를 끝까지 다 뚫다 보면 작업을 하면 바람이 약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해도, 15~16개 밖에 못 뚫었는데, 다른 교대 근무자들은 20~21개씩 뚫었다고 기록했다. 그러니 하루에 5구멍씩 적게 뚫었으면 한 달이면 150구멍을 덜 뚫은 것이다. 그래서 주인은 체면이 안 섰었거든. 그러기에 ‘천공 작업일지를 다시 확인하고, 장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더니 이 양반이 내려와서 다른 두 교대에서 한 걸 찢러 봤는데 제 길이를 다 뚫지 않아서 이게 들어가다 말고 하니깐,

결과적으로는 작업일지가 항장뿐 아니라 채광과장한테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렇게 속였으니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 책임을 물어 우리 항 주임이 해고가 되었다.

논화항 안쪽에 사람이 안 나가는 곳인데 일주일에 두 번 경비가 돈다. 주임 아들이 개인 광업소에 취직을 했는데 그래서 착암기를 가져간 건지 그랬는데 그때 경비를 상이용사들이 쫓다. 우리 주임이 채광과장한테 ‘물체가 이동됐습니다.’라고 보고 했다. 그런데 잠복근무를 하던 3명이 주임이 가져가는 걸 잡았어요. 주임이 자기가 가져가 놓고는 나한테 덤탕이를 씌우려 했던 것이다.

### 사례 3 ◆ 먹는 것이 급급해서 광산을...

그때는 저마다 먹고사는 게 급급해서 내가 광산에 가야 우리 식구가 산다. 힘든 걸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힘들다 누구 흉도 보고 잘 한다 못한다 말하지만 그때는 누구 말할 게 없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오직 내가 이거 안하면 우리 식구 죽는다는 그런 결심으로 땀흘리고 이 지역 노무자들에게 고입반 시켜준다고 막 쥐어 땀흘렸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3개월씩 연수하던 분들이 보직을 받고 나니 일꾼들 출근역 사람들 중간에서들 고참 들이 다 붙잡네. 이제 3개월 기한부로 그래서것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담하면 안 되겠어서 대학교 졸업하고 보직 받은 분들에게 ‘제가 여기 몇 사람 이렇게 가르쳐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저기 가담하면 안 되지 안느냐고’ ‘아, 가담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붙잡으면 별도로 가져오지 말고 빈 몸으로 걸어오라’ 말해주었지. 그 후 그 사람들은 3개월 만에 고입이 되었다. 그 후부터 나를 생산요원들을 보호해 주고 굴 안에서 쓸 자재 쓰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고 그랬지.

#### 사례 4 ◆ 수색을 논하면 → 수색은 무색이다

처음 들어가니까 조건 나쁜 데는 들이 8광차만 책임량이야. 그래 8광차만 하면 시간 될 때까지 놀수 있다. 그리고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굴 안에서 6시간 노동인데 1시간 반 동안에 다 하고서 산에 다니면서 버섯도 따고 송이도 따고 그때가 재미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즐겁고 좋은 것은 화약 치우고 바로 일을 해야 하는데 바로 화약을 함부로 못 맡기니까 화약주임이 약시기를 기본만 가르쳐줘 그 작업장내에서는 화약취급자격증을 주고 그럴 때 이제 난 고참 쪽에 속하니까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과장이라는 분이 그래 ‘윤용호씨 퇴근할 때까지는 작업장 이탈하지 마세요.’라고 산에 다닌다고 말할 때에는 내 자신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어느 날 일주일 강의를 하더니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료와 셋이서 산에 댕기다 내려오니 과장이 호통을 치는 거야. ‘왜 시험 볼 때 안보느냐고. 거기 몇 사람들이 하는지 그 사람들 벌써다 지정을 되어가지고 우린 들러리로 하는거 뭐 하러 시험을 보느냐. 나는 거기 해당이 안 되어서 포기했다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했다. 시험장에 가니 칠판에 ‘수색(水色)을 논(論)하라.’ 문제는 저거니까 답을 하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구두로 수색은 무색이라 했지.

#### 사례 5 ◆ 밀가루냐 쌀 닷 말이나

철광석을 운반하는 사람은 조건 좋은 데가 3번이 안돼요. 그래서 기본 닷 수를 얼마 정해놓고 그 외에는 얼마든지 해도 그걸 도급 단가로 그 사람들을 주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밀가루라도 사 단가올 것 아니냐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어를 보완하고자 한 달에 한번 씩 여러 사람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더라고요. 도급으로 쥐도 괜찮다고 한 달 만근을 하면 쌀 닷 말을 더 주든

가 그렇지 않으면 도급단가로 더 주든가 우린 가족들하고 그 것이 제일 급하니 돈하고 쌀이 좋다고 했다. 말에게 보수를 많이 주면 아무말을일을 해도 힘들지 않다고 했지요. 그 말이 광업소 소장님서부터 그게 굉장한 파급력을 가졌으니까 누가 본다고 일하고 안본다고 일면 쌀그 그런 사람이 없었다.

## 사례 6 ◆ 논화리 가재골 광산 굴속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6.25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논화리 마을 주민들이 가재골 굴속에 피신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국군이 오더니 ‘그 안에 사람들이 없느냐’고 물어서 ‘예 있습니다.’, ‘몇사람 있느냐?’ ‘12명 있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냐.’ 그래서 ‘○○살입니다.’ 했더니 모두 세워놓고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하고서는 몸을 다 털고 조사를 하는데 어느 아주머니 뒤에 있는 네분 중 중간에 있는 남자가 벌벌 떨고 있기에 그 여자가 ‘왜서 그리 떠슈?’하니 내가 여기 당증이 있어서 죽었다고 하면서 말도 못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당증을 손에 받아 쥐고 구겨가면서 앞으로 나가니 군인이 왜 먼저 나오느냐고 물기에 내가 오줌을 못 참아서 오줌을 누려고 굴 안으로 더 들어가면 도망간다고 할까봐 먼저 나왔다고 하니 거기 앉아 누라고 해서 거기에 앉아서 오줌을 누운 다음 구겨진 당증을 ○○안에다 넣어 감추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살고 모든 분들이 무사 했는데 논화리 박씨네 가문의 그 며느리 때문에 살았다고 전해진다.

## (구술자 남문리 최병호 78세)

### 사례 1 ◆ 배구선수 항장

1961년 10월 23일부터 1992년 1월 15일까지 근무하였고 1993년에 폐광이 되었다.



처음에는 2개월간 항내에서 굴진 청부를 맡게 되었는데 수직 100m 수평 50m에서 개척하는 업무를 하면서 성실한 업무로 임시부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임시부에서 2~3년간 일을 하다가 정식 근무자가 되었다.

1964~5년도 양양광업소 연수원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교육 및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이 가능했다. 노조 지부장은 출장비만 받아도 가족이 먹고 살만큼의 비용이 나왔다.

광산 노조는 임금문제, 복지 후생 문제 등을 회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양양광업소 노조는 예전의 모든 노조들이 다 그러하듯이 회사에서 혜택 가능한 부분을 모두 받고, 본사와 결탁을 하고 행동을 했다.

회사 계장급 이상은 맹원에서 빠지고 그 외의 노무자를 포함한 직원은 맹원으로 쫓겨 맹비를 내고 맹원들은 좋은 정보를 노조에 알리기도 했다. (맹원 = 조합원)

현장근무 하고, 본사에서 월 1회 정도 내려와서 결과를 보고 해주고, 노조위원장님이 본사로 올라가서 임금 상승폭을 조절하고 와서 보고해 주었다.

### 사례 3 ◆ 양양항장때 3명이 사망

낮에 술을 마시고 저녁에 출근하는 사람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높았음. 돌에 맞거나, 흙더미에 묻히는 경우, 간혀있는 사람을 구조해 내는 와중에 다치는 사람 등 업무 및 인명 구조 중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 하였고, 따라서 사고 미연 방지와 사고 확장 방지 교육을 하였다.

인명사고가 나면 사체를 꺼낸 이후 사나흘 정도의 시간동안 절단 사망 및 신체파열 부분 등을 우리가 전부 수습하였다.

양양항장으로 있을 때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양양항 에서는 감독 1명을 포함해서 약 7~8명 정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진 4〉 당시 배구선수로 활약한 최병호 항장(1970년경)

### 사례 3 ◆ 양양광업소 운동부의 활동

양양광업소에는 배구는 67년도에 축구는 61년 이전서부터 1~2년간 했고 야구는 63~4년도에 사무직원들이 친선경기를 했다.

양양광업소의 체육대회는 매년 7월1일 개광 일에 시행하고 채광, 선광, 총무가 팀을 이루며 전체 공휴일로 정한다.

근처 거주 가족은 모두 참가하고, 과 별로 특별 음식물 준비하여, 장승분교에 모여서 했으며, 종목은 배구, 축구, 마라톤(양양시내 로터리 왕복 코스)하였고, 마라톤은 최용규(현재 강릉거주)감독이 우승을 한 적이 있다.

#### 사례 4 ◆ 서울과 울산으로 직장대항 배구대회 출전

4H 재건 촉진회의 서울 직장대항이 있었는데, 대한항공 빌딩의 대한철광 팀, 인천 중공업 팀 등 6~7개 회사가 모여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양양광업소 2명을 포함해 대한철광 본사 직원들이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었음.

울산 광업소에서도 울산 시내 직장 대항이 있었는데 경찰 등 7개 회사 간 체육대회에서 울산광업소 팀(양양광업소 2명을 포함)이 1등을 하였다.

#### 사례 5 ◆ 걸어서 퇴근 시에 호랑이를 접하다

표창장은 노조위원장, 군수, 도지사, 전국광산노동조합장 등을 상을 받았다. 밤에 통근버스를 놓치면 캄캄해서 막대기를 들고 길을 찾으며 퇴근을 했고, 겨울철에 술을 마시고 퇴근하는 길에 동굴 등에 들어가 빙판에서 미끄러지면 방향을 잃게 된다. 예전에는 철길 왼쪽에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사람 왼편에 키 하나 정도의 높이의 틈새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이 광산에서 내려오다가 죽었는데 상평에서 호랑이를 만나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평소에는 땀이 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섬뚱하면서 진땀이 많이 났었고, 눈썹에 진서리가 낀 것으로 보아, 호랑이를 본 듯하다고 하였다.

#### 사례 3 ◆ 위조 월급봉투와 봉급 가로채기

광부들은 단합대회를 한답시고 자주 모여 술을 마신다. 봉급날은 납작한 봉투를 가져다주거나 아주 적은 금액을 주어 살림살이가 어려웠다. 어떤 광부는 다른 봉투를 만들어 비자금을 만들기도 하였다. 봉급날은 술집 마담들이 경비실

앞에 죽치고 기다리다. 봉급을 가로채는 일도 있다. 그래서 인감증명원을 제출하고 인감도장을 찍고 월급을 내주었다.

가정 살림을 돕기 위해 남편이 광산에 일하러 간 사이에 남의 일을 해 주거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파는 부인들도 있었다. 돈을 알뜰하게 살림을 산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2대에 걸쳐 일하는 사람도 있다.

(구술자 최병호 부인 조방원여사 77세)

사례 1 ◆ 정성을 다하는 광부들의 아내들

결혼 초기 시절에는 시계가 없어서 밤에는 도시락을 싸주기 위해 밖에 나가 하늘의 색별을 보고 밥을 지었으며, 애기가 울면 남편이 잠을 설칠까 봐 저녁에 바깥에서 애기를 달래며 재우고, 시계가 있는 집에서 시간을 물어보고 통근 버스시간(밤 12시)을 맞춰 집에 들어와 남편의 잠을 깨워 출근 준비를 해 드렸다.



〈사진 5〉 최병호 향장 표창장(1978.3)

## 2. 선광부

### (구축자 구교리 김준기 76세)

#### 사례 1 ◆ 객관성이 요구되는 선광 감독의 임무

대한철광 울산광업소에 61년 입사하여 일하다 양양 광업소에 왔다.(석봉섭) 그 당시 양양광업소에 입사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울산에 지인을 통해 입사하게 되었다. (안병덕 과장. 평안도 출신. 서울대 졸업)

울산광업소는 노천에서 캐으며, 단가가 저렴하지만, 질이 좋지 않았다. 울산광업소에서는 사문암[蛇紋岩:포항제철소 용광로에 들어가는]이라는 희귀광석도 캐다.

현재도 울산에 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내와 근접하여 공해문제와 진동문제 등의 제약사항이 많다. 당시 울산에서는 한국 비료와 현대 중공업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제일제당, 알미늄, 정유공장 등을 만들고 공단이 개발 중 이었다.

60년대 후반에 양양광업소 선광과로 이직을 하였는데 당시 간부급은 이북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상동 광업소 출신인 남한 출신과 갈등이 있었다. 갈등이 표면화 될 때는 이북 사람들 중 사표를 내거나, 경영진의 권고 퇴직한 사람도 있었다.

안병덕 과장으로 인해 조금 줄어들기는 했다. 그 당시 광업소의 광맥은 거의 고갈사태라고 말했으며, 그로인해 경영권한으로 50% 정도 감원하였다. 하지만, 고갈된 광맥의 아래에 광맥이 하나 더 있었으며, 광맥시추를 하기 위해 수항을 400레벨로 내렸다.

## 사례 2 ◆ 수선부의 여자 광부

광업소의 수선부여직원은 초반에는 수선을 했고 (손으로 선별작업) 다음단계에서 그물 같은 그리 지주에 떨어지면, 벨트를 타고 나가는 도중에 수선을 하였다.

컨베이어 벨트는 폭이 좁은 60cm와 폭이 넓은 1m 20cm가 있었는데 폭이 좁은 60cm 벨트로 지나가는 철은 여직원들이 수선을 하지 않고 그냥 통과를 시키지만 폭이 넓은 1m 20cm 벨트에서 철이 지나가면 여직원들이 마주보고 서서 수선을 했으며, 사람 과 사람과 의 간격은 약 70cm에서 90cm정도가 이었다.

수선 당시 여직원은 약 3~400명 정도 되었고, 감독은 근로자 3~40명에 1명 정도 배치되었으며, 점차 기계화가 되면서 여직원의 수도 감소되었다. 탑동에도 여자가 많이 있었다.

광업소에서 여직원과 남자직원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여자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늦게 까지 하는 여직원이 더러 있었다.

## 사례 3 ◆ 1일 선광량이 900~1000톤

70년대에 1일 채굴량은 1500~1700톤 이었고 선광은 900~1000톤 이었고, 초창기에는 일본과의 계약하면서 1인치 이하 정광에 대해서만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선광장에도 분야가 따로 있었는데, 여자가 수선하는 작업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고, 맨 위에 한매에서 가지고 오는 광석을 쏟아부으면서 8인치로 파쇄 하는 작업의 감독이 있었으며, 제일 밑에 기계 선광하는 작업에 감독이 있었는데, 불 밀 기계에 광석을 집어넣어 마광 작업을 하는 곳도 감독이 있었다.

볼밀 기계의 무게는 약 16톤(Ton) 정도 되었는데, 레미콘 운반차량처럼 생긴 통에 물과 함께 볼을 넣어, 광석을 가루로 분쇄시키는 기계이다.

항내에서 철을 광차로 실어온 후 오야벙에 도착한 후에 사람이 8인치 정도로 깨고, 작은 것은 그냥 흘러 벨트를 타고 내려 간 후 여 직원이 수선을 한다.

폐석과 광석은 나누어져 나가고, 광석은 밑에 6인치 빙(저장고)이 하나 더 있다.

작은 것은 스크린으로 치면, 가루와 분광 상태로 떨어지고, 이를 밑에서 자선이라고 물과 스크린을 흔들면서 자력선풍기가 돌아가면 광석이 붙음. 폐석은 폐기 또는 미나미골에 넘겨서 폐기하였고, 처리하기 힘들어 이곳저곳에 갖다가 버렸는데, 그 후 폐석은 일양에 팔았는데, 그 값이 1년 동안의 광구 가치와 비슷했다.

#### 사례 4 ◆ 감독의 작업 배치

감독은 회사 규율에 따라 사적인 행동 금지하였고 일하는 종업원과의 갈등은 없었다. 종업원은 대략 3~40명 정도 되는데, 같은 일을 해도 힘이 덜 드는 분야가 있어서 업무 분할은 노동자의 능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나 친분에 의한 업무 배치가 간혹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다. 친분 있는 노동자를 쉬운 분야로 배치하기 위해,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를 가르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당시 광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배경도 없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온순한 사람들은 밤낮 힘든 업무에만 배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노동자의 업무 간에도 순환 업무가 시행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경우가 정해지지 않았다.

감독도 순환 업무가 있었으며,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일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A라는 사람의 능력이 3~4가지라고 하면, 1가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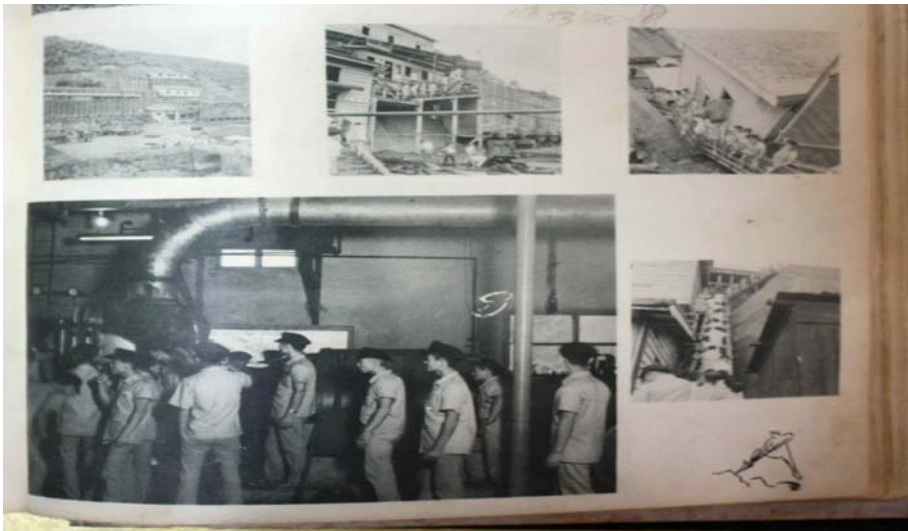
러 곳에서 일을 시킬 수 가 있었다. 그것은 오로지 감독자의 권한이기도 했고, 기능이 부족한 사람은 관심과 가르침을 감독이 가짐으로써, 능력의 향상을 이끌어 내 주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운이고, 관심이 부족하다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선광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대략 5~6명 정도, 상해사고는 노동자의 대략 6~7% 정도 발생하였다.

선광장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국영 기업의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타 지역 출신의 건달, 해병대 등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 (구술자 탁대감독 이낙준 부인 김기전 69세)

#### 사례 3 ◆ 선광장의 아가씨들

선광장 선별작업은 고조(폐석을 고르는 작업)와, 중광조(쪼그리고 앉아서 컨베이어벨트에서 떨어진 광석을 엮드려서 쌓는 작업)가 있었는데, 중광조는 많이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근하는 사람은 없었다.



〈사진 6〉 선광장 학생견학(1962년경)



폐석을 미처 고르지 못하는 경우 샘플실에서 정광이 많이 나오면, 혼나는 경우가 있었고, 샘플실 샘플시료공의 성격에 따라 미처 골라내지 못하는 폐석을 골라낼 수도 있었는데 그때에 샘플실 시료채취공은 손흥재였다.

간혹 선광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선별 수선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려고 견학을 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우리 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면 폐석을 버리는 과정에서 그 학생들에게 슬쩍 던지기도 하였던 일이 생각납니다.

자선단[磁選段] 벨트가 움직이지 않는데, 한 사람이 위에 매달려 발로 벨트를 밀었는데, 매달린 것이 전선이었기 때문에, 감전 된 적이 있었으나 근무 당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 사례 2 ◆ 목재소에서 땀감을 흠쳐오다

선광장의 겨울은 매우 추웠기 때문에 난로를 피웠지만, 나무가 없어서 오야뽕 광석저장고에서 동바리를 했던 나무를 갖다가 떼는 경우가 많았다.

하루는 주임이 난로를 피우기 위해 나무를 내려 보내라고 했지만, 본인이 중간에서 나무를 떨궈서 선광장에서 떼기도 하였다.

선광장에서 발이 시렵기 때문에 돌을 달궈서 발밑에 두고 일하기도 하였다.

도시락을 먹는 휴게실 난로에 땀 나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목재소에서 나무를 흠쳐 와서 땀감으로 쓰기도 했다.

나무를 흠치는 과정에서 목재소 차가 올 때는 나무를 내려 놔다가, 차가 지나가면 가져 오기도 했다.

회사 차원에서 난방에 신경을 써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 (구술자 북평 이운자 기세)

### 사례 1 ◆ 장마철에도 깊은 물을 건너서 출근

장마철에 북평 다리가 없을 시절에 강물이 많아서 친척 오빠가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의 임천보 댐 밑에서 부터 건너기 시작하면 저 멀리 아래쪽에 있는 서문리 제방 둑 근처까지 물살에 밀려 출근하기도 했는데, 발이 강물 바닥에 잘 닿지 않는 곳도 많이 있어서 거의 동등 떠내려가다시피 건너편에 도착했다. 북평에 사는 사람은 거의 그렇게 건너서 출근하였다.

여자는 거의 대부분 선광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2열로 서 있기 때문에, 앞에서 고르고 뒤에서 나머지를 고르는 방식이었다.

선광장에서 일하는 여자 노동자는 100여명 정도 됐으며, 3교대로 30여명 정도씩 일했다. 선광장에서는 한자리에서 7~80명에서 100명정도 자리에 서서 일을 했고 사람사이의 간격은 양팔을 벌린 정도였다.

선광장에서 일하는 동안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소음이 매우 심해서 바깥으로 새는 경우는 드물었다.

신입을 골탕 먹이려고, 신입은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했더니, 당시 신입은 진짜인 줄 알고, 노래를 불렀다.

선광장에서는 선후배 차이는 없었지만 임시와 고임의 차이가 있었고. 대부분의 선광장 여자 노동자는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할 때 선광장을 그만 둔다.

### 사례 2 ◆ 호랑이 불과 도깨비에 홀리다

60년 전에는 용천(현재 북평) 탄봉 부근에 호랑이가 잘 나타났잖아요. 임천 그 석성당에 해만 지면 퍼렇게 불을 켜고 호랑이가 앉아있었다. 구경 갔다가 오다보면 제방 둑에 서서 파란불이 보이면 못가고 오빠들이 좀 늦게 올 때에는

임천서 버스 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오빠들이랑 같이 건너왔다.

그것이 뭐 해코지 할라든 그 마을까지 쫓아왔겠지만, 그래도 안 따라 오더라고 독에 올라서다가 해당화 나무가 많았는데, 불만 보면 무서워서 뛰어 내려오고.

북평 다리가 가을에 물에 떠내려가면 새로 놓는다. 그러면 그 전에 도깨비가 그렇게 많다고 전해져 왔다.

도깨비가 많아서 이웃 아줌마들도 밤에 불려서 가시 덩굴에 막 나가고 그랬잖아. 그래서 가다보면 막 다리 위에서 다리 놓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 다리를 못 건너고 이쪽 아래 서문리 거기서 돌아서 저 아래 궁 밑으로 해서 물을 건너 간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를 깨워서 ‘아버지 저 다리를 임천 아덜이 나와서, 다리를 지금 끊고 있다고’ ‘아 무슨 다리를’ ‘아 지금 다리를 끊거라 소리를 지르고 난리라고’ 아버지가 나오니까 겁이 나서 따라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리 놓던 소리가 나는데, 그게 도깨비거든요.

누가 자꾸 불려서 따라 나가니까 안 들어와서 가보면 도깨비에 흘려서 그 앞에 가시나무 많은데 가시나무 덩굴에 가서 찾아오고 그랬어요.

저 수리 사람들이 소 장사 왔다가 늦게 가면은 저기 북평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아버지 오시냐고 그러면 술이 취해도 정신은 멀쩡해서 덜렁 소위에다가 올려놓고 퐁퐁 묶어서 마구(외양간)에 들여 놓으면 아침에 요 싸래 빗자루 하나를 놓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 사례 3 ◆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

그 전에 굴로 차 다니다가 차사고 나가지고 북평 그 ‘옥순이’ 도 죽고 그랬을 때 그때도 그 굴에서 귀신이 얼마나 잘 나타났어요. 차가 갔는데 그 굴 밖에서 차끼리 부딪혔는데, 차가 가면 굴 입구에서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고, 굴 안에서 차를 세우고 그래 다잖아. 그럼 귀신인지 뭔지 그래서 우리는 굴에서 잘

안다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가나고 그래서 안다냈어요.

남편이 오야뽕에서 일하다가 노조 위원장으로 오래 지냈다.

### (초창기 여성 근로자 공행리 김걸미 72세)

#### 사례 3 ◆ 중학교에 다닐 나이인 열다섯 살부터 광산 일을 했다.

광산에는 1956년경인 열다섯 살부터 다녔고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인 열네 살 때 폭우가 쏟아져 지금 거마리 마을회관 앞 뚝이 무너지는 수해가 나 논이 밍기는 바람에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갈 나이에 밍긴 논에서 산태미로 돌을 담아내는 일을하였고 그때 소(牛)도 함석판을 끈에 매달고 돌을 싣고 끌어서 저내기도 했다.

그렇게 매일같이 논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중학교를 다니지 못해 억울하니 입이 이만큼 나왔다. 우리 집이 그때는 거마리에서 몇째 아가는 부자인데 마을 전체가 수해가 나다보니 우리 또래 애들은 전부 중학교를 못 갔는데 그때만 해도 촌에서는 여자 아이들은 어지간해서 중 고등학교를 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차에 그 때 탐동 광산에서 사람을 받는다고 해서 동갑내기인 우리 동네 아랫말 김금옥이하고 여섯 명이서 갔는데 다 붙어 열다섯 나이에 광산에 다니기 시작 했다.

일하는 작업장은 탐동 광산으로 굴속에서 광부들이 쇳돌을 구루마로 실어다 선광장에 쏟아 놓으면 버럭(폐석)은 버리고 꺼면 쇳돌들은 산태미에 담아서 따로 모아 놓았다.

일 하는 여자들은 한조가 일곱 명씩 한 20여명이 쇳돌을 깨서 골랐는데 선공 부 남자 2~3명이서 오함마로 큰 돌을 대충 깨 놓으면 우리가 다시 망치로 쪼개서 버럭은 버리고 쇳돌만 놓았는데 그때 들떡골에 사는 나이가 두 살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쌍둥이 총각 형제들이 잘 깨주었다.

광차 운반부가 쇳돌이 많이 섞인 돌을 실은 구루마들이 들어오면 한 30분이

면 한 광차씩 했고 쇧돌을 적게 실은 구루마가 오면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그리고 가끔 감독들이 와서 해서 폐석에 돌이 많이 나오느냐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 웬만큼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돌의 결을 보고 개면 잘 깨진다. 그러다가도 망치로 돌을 깨다 보면 돌 조각이 얼굴에 자꾸 튀어 곰보가 될 뻔도 했다.

탐동 사무실에는 직원이 3~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았으며, 선광장에는 광차가 5~6대 정도 다닌 것으로 기억되며 그때만 해도 어린 나이로 굴 안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몇 명인지 잘 몰랐으며 우리는 그저 죽어라하고 일만 했다.

도목항 쪽은 무슨 행사 때 가 보았는데 본 광산에는 여자 선광부도 많았으며 엄청 높은 똑방 위의 난장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는 장난을 잘 못하다가 보면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이 큰 일이 날 것 같았으며 탐동은 버럭(폐석)이 하얗고 도목항 쪽은 버럭이 씨꺼매서 쇧돌하고 구분이 잘 안될 것 같았다.

#### 사례 2 ◆ 단오 때 몸살이 나 그네를 못 뛰어 금반지를 놓쳤다

한 삼 년 다니다보니 광산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광산에서 단오 행사 때 여자 종업원들이 그네를 뛰는 경기 행사가 있었는데 탐동에서 처녀들이 그네를 뛰고 새 각시들은 못 갔는데 내가 그네를 제일 잘 뛰었다. 그 때 본 광산으로 그네를 뛰러 가서 일등을 하면 금 세 돈 반지를 타게 된다. 그래서 다음날 본선에 나가야 하는데 그 날 밤 제가 몸살이 나서 본선에 못 가고 반지 3돈을 못 탔다. 그 때 금 삼돈이면 컷지요.

#### 사례 3 ◆ 할머니들은 차를 안 태워줘도 처녀들은 태웠지요

출근은 거마리 단지골로 해서 산등을 넘으면 서선리가 나오는데 가면서 장난도 하고 들고 뛰기도 하면서 가면 탐동까지 한 시간이면 갔다.

거마리 굴로는 잘 안다니고 일을 하고 퇴근하는 남자들이랑 여러명이서 굴로

빠질 때에는 신문지에 양초를 말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다녔다. 출근할 때 재수가 좋으면 철 신는 차를 만나서 손을 들고 오라이 오라이 하든 자가 서서 태워주었는데 그때는 오라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무조건 오라이라고 했으며 운전수들이 할머니들은 잘 안 태워주고 우리 처녀들은 운전수 옆 조수석에 태웠다.

도시락은 보자기에 싸가지고 갔으며 겨울에는 젊은 광부 오빠들이 도시락을 낙로 위에 올려놓았다가 먹었으며 사무실에서 들어와서 점심을 먹으라고 했지만 할머니들이 사무실에 잘 안 들어갔고 산밑이나 난로도 없는 선광장 안에서 둘러앉아서 먹기도 하였으며, 일을 하다가 감독이 없으면 굴속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굴속으로 들고 가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쉬는 시간에는 새마을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언제인지 굴 입구에서 조금 들어갔다 나았는데 굴이 여러 갈래여서 들어갔다 못 찾아 나올까봐 굴 아구에서 조금만 디다 보고 쫓겨나왔다.

#### 사례 4 ◆ 월급을 더 달라고 따졌더니 더 주더라.

가끔 감독들이 와서 왜 폐석으로 쇧돌이 많이 나간다고 잔소리를 했고 감독들이 오면 땀다 땀다 하고 소리를 치기도 했으나 작업현장에서 우리 젊은 처자들이 일을 잘하니 할머니들도 피를 못 쓰고 일을 잘했으며 내가 원래 덩치가 커서 역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젊은 애들 역시 피를 안 쓰고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내가 할머니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은 다 똑같다고 막 따졌더니 몇 개월 동안은 200원인지 2,000원인지 더 받기도 했다. 명절때는 떡값으로 하루 일당을 주었다.

사례 5 ◆ 양양장에 귀한 사지바지를 꼭 사 입어야 속이 시원했다.

월급은 그 때 삼만 오천인지 받았고 당시에 쌀 한말이 이천 원이니 한 달에 쌀 하가마니 반을 받았다고 치면 촌에서는 괜찮다고 했다. 월급을 타면 돈을 다 맡기지 않고 아버지한테 드리고 얼마쯤씩 타서 썼으며 아버지가 비료를 산다고 내 돈을 꾸어가지고 가서 갚지도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으며 그 때 양양 시장에 사지바지 같은 귀한 옷이 지금처럼 많이 나오지 않았다 두 세 개 정도 나오면 제일 먼저 사 입어야 속이 시원했으며, 며칠만 다니면 월급이 또 나온다고 하니 재미있었고 기분도 좋았지요.

사례 6 ◆ 처녀 총각이 광산 가설극장 구경하러 굴을 빠져 다녔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이를 하러 못 갔으며 철모르는 열다섯 살부터 스물 살까지 우리 동네 금옥이와 월녀하고 다녔으며 아버지가 처녀가 다 되었으니 머리가 찻다고 더 이상 안 보냈다. 그 맘 때는 17살에 시집을 기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만두고 탑동에서 철이 잘 만나오고 중단을 하여 1960년경에 탑동이 끝난 것 같고 얼마 후 광산에 선광장이 크게 생기면서 선광일을 기계화가 되었다.

그 시절에는 광산에 극장 건물이 없을 때 가설극장으로 구경을 갔는데 동네 사람들과 처녀 총각들하고 밤중에 거마리 큰 굴을 까져 나갈 때는 양초에 신무지를 말아서 불을 붙이고 들고 다녔다.

### 3. 운반부

#### (구술자 서선리 이족형 74세)

##### 사례 1 ◆ 끈기가 요구되는 광석의 운반(운반부도 위험한건 마찬가지)

광석의 운반은 광차에 덧방[산테미-함석으로 만든]으로 퍼 담아서 슈트에 부으면 슈트를 다시 뽑아 올려 전차로 옮긴다. 힘든 건 말할 수 없고 위험하기도 했다. 만천관은 동발이 없는 굴을 말하며 그 안쪽에 들어가서 동발을 해서 쉬고 그랬는데 항내에 나무를 지탱하는 일을 했으며 때로는 돌이 내려 떨어질 수도 있었다.

운반은 로다로 해서 실어주면 운반부들이 광차만 밀고 다녔다. 이때 광차에 쪼거나 하는 건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지만 광차에 의해서 운반하는 데는 동발을 세우고 안전하게 해 놓았다.

운반부들이 슈트에 옮기기 전에 작은 구멍으로 떨어지고 큰 광석은 망치로 깨트려 구멍으로 떨어뜨렸다.

펌프공은 굴 안에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아 놓은 뒤에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였다. 광석을 파다보면 아래로 파 내려가서 도목항, 양양항, 논화항의 물이 서로 이어져 수향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므로 물이 수향으로 내려가면 30마력, 70마력, 100마력짜리가 펌프가 물을 퍼 올렸다.

##### 사례 2 ◆ 노름과 춤바람

광산 굴에서 작업을 마치고 장승리로 나오면서부터 술을 마시고 화투놀이(도리짓고뽕)을 많이 했다. 그때 월급을 봉투에 넣어 주었는데 월급일에 술값으로 탕진하기 전에 아내들이 가서 월급봉투를 받아왔는데 아내들이 여럿이 껴가 되



어 속초에 장을 보러가서 춤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어 이혼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부 남편들이 월급날 술도 마시고 담배 내기 화투와 놀음에 빠져들게 되면 광산의 부인들은 가난하게 살았다.

광업소에서 1년에 두 번 가족과 함께 관광을 가는데 비용은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경주 불국사 등 전국 유명지로 갔다. 송년회도 회비를 내서 넓은 가정집(이국형 집)에서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돼지를 잡아서 노동자들이 함께 하였다.

### (구축자 복명 이상익 78세)

#### 사례 1 ◆ 선광장 폐석운반

광석 상차반에서 대시미라고 어레이[철사로 만든 들것] 같은데다 광석을 담아서 차에다가 싣는데 한 학구[통]가 가득 차면 감독한테 검사 받는다. 그리고 광석을 광차에 싣고 나와서 쏟아 놓으면 이제 폐석장 여자들이 나와서 그걸 골라 철은 철대로 선별하고, 폐석은 폐석대로 골라 따로 모아놓고, 선별 해 놓은 철광석은 일산도요 타 차에 실어서 속초로 나가면 막 바로 일본으로 싣고 갔다.

철을 고르면 차에다 학구를 놓고 차에 철을 상차하고 4톤이 되면 차가 출발했다. 그때에는 태평실이 없었고 그냥 학구로 상차해서 나갔고 12톤 추레라도 있었는데, 그건 순전히 대시미 하던 사람들이 일을 했었다.

선광에는 자성이 있는 기계가 있었는데 여기도 여자들이 한 4~50명씩 있었고 나는 그 밑에서 구르마 끄는 운반하는 일을 할 적에 3,000원씩 받고 일을 했는데 고입이 되고 나니 선광에서 기계를 보라고 했다.

선광장은 습식이라고 해서 철가루는 철가루대로 빼고 폐석은 폐석대로 빼는데 그 폐석은 농로길 포장용으로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철은 포항으로 나갈 때가 제일 힘이 들었고 일본 갈 때가 더 쉬웠다.

그것도 계약조건이 선광에서 철을 포항 나갈 때는 배가 와서 철을 일주일 안

에 다 채워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내면 하루 보너스를 깎이고, 일주일에 갈 거를 4일 만에 채워주면 보너스를 받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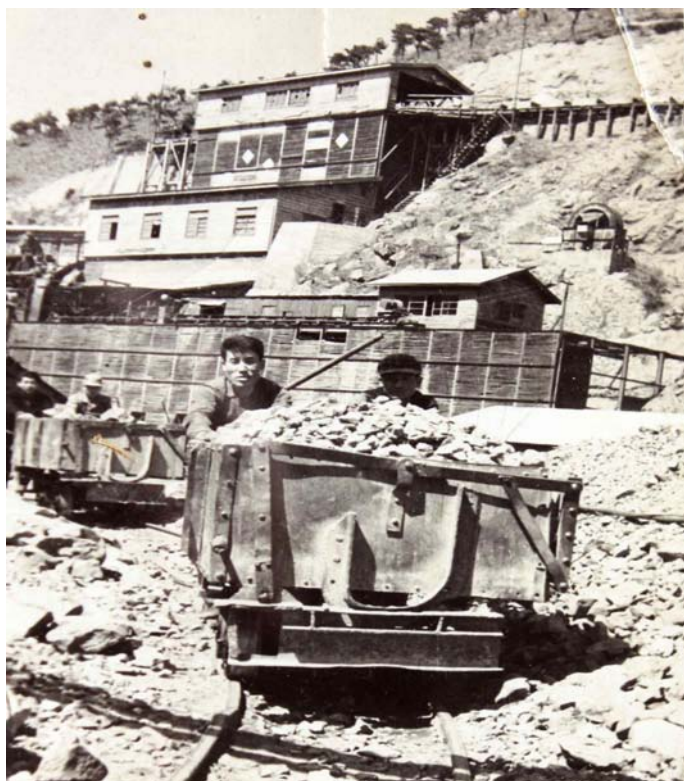
## 사례 2 ◆ 광석운반도 도급을

운반부는 구르마를 끌고 항내로 들어가 하루에 4개만 하면 된다. 그런데 굴에서 밭과 해 났다가 무너지면 막장이야 거기를 들어갈 적에는 만천판이라는 데가 있는데 하도 넓게 뚫어 놓아서 혼자 가면 찾아오지도 못 한다 지도무튼 들어와서 4구르마를 하고 그랬는데 굴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알아야 무섭지 모르겐험하고가 나보아야 내가 죽는 줄 알지 될 알아, 그래서 거기에 밭과하고 쏟아놓은 거 폭폭 실어가지고 4광차를 실어 내놓으니까 항내 사람들은 자기 책임량이 있잖아, 그거 하고 나서 돈을 더 받으려면 더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에는 특근을 해서 도급으로 계산하고 돈을 별도로 더 받았다.

어떤 경우에는 광차가 잘 나가는데, 선광장에 나가서 띄워 놓으면 빨리 내려가니까 편했었고, 광차에 브레이크가 있어. 그런데 비가 오면 말을 잘 안 들어서 광차를 들어서 힘을 맞춰서 딱 뛰자 할 적에 얼른 뛰어야 달랑 거리던 고리가 착 내려앉으면서 그래야 폐석이 쪽 밀리니까 쏟아지는데, 이게 맞지 않고 웃고리가 안 맞으면 중량이 실리니까 내리 박한다. 거기서 오야가 브레이크를 잡고 내려가면서 장난삼아 막 내 몰다가 담당자가 또 그렇게 했다고 막 질책하였다.

폐석을 나르는 횟수가 한 20~25번. 선광장에서 이아래 식품상이라고 마지막(양젓말)까지 1km 이상 거리였다.

광차로 폐석을 버릴 때 선광장에서 다리까지 가면 개울이 있고 거길 지나가면 두 갈래로 길이 갈라지는데 거기를 지나 내리 달리면서 젓히면 저쪽으로 턱 갖다 붙여 가다가 키를 젓혀줘야 하는데, 안 그러면 한군데다 갖다 붓게 된단 말이야. 그럼 주임이 그다음에 ‘디질라고 이자식이 키를 안 바꿔놓고 갔니’ 하면 ‘죄송합니다’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진 7〉 광차운반 오른쪽 구슬자 이상억(1970년경)

레일을 잡는 그 사람이 고리를 개운 다는 것이 잘 못 개워서 그게 탁 주저앉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때는 동작이 빨라야 살지 안 그러면 끝에 가서 부을 때 조수는 뛰 내리고 나 혼자 내려가지. 레일을 내려가면서 반동을 잡아서 출렁 출렁하다가 딱 고리를 짓혀야지. 그러지 않으면 차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만다.

### 사례 3 ◆ 탐동 출근길

탐동에서 일을 할 때에 출근은 경비실까지만 태워다 주고 탐동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기계장화(뚱뚱한)를 신고 걸을 때 힘이 들었고 안경다리에서 초소로 건너가면 한 3-40분 정도 걸렸다.

신은 통일화가 제일 나운데 물 묻으면 발이 시리다. 그러면 이제 워커를 신는데 얼어버리면 발을 잘 벗지 못하니까 힘들었지. 어떤 때 보면 눈 때문에 앞이 안 보일때도 있다. 근데 그런 게 좋았어.

언제 한번 밤에 눈이 많이 왔는데, 상평 어딘가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어디서 빠져서 자다가 새벽녘에 온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마루에다가 눕혀놓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더니 팔이 얼어서 옷 이 잘 안 벗겨지는 일도 있었다.

#### 사례 4 ◆ 출근여직원 히야까시

선광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올라오면 광차를 돌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며 올라오면 퇴근하는 남자들이 히야까시(회룡)를 하는 그 재미로 밤에 일했던 피로가 확 풀리는데 그때 그 여자들은 대부분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리고 출근을 했다.

#### 사례 3 ◆ 빈봉투만 만지는 광부 아내들

임금에서 내가 쌀을 신청하면 쌀값을 제외하고 받았고, 광업소에 쌀을 주는 데가 따로 있었으며, 내가 광업소에서 사택까지 갖고 오면 집사람이 쌀을 머리에 이고 북평 까지 내려왔데. 그 때에 광업소 버스는 일반인과 임시직은 못 탔어요.

돈을 3,000원씩 타가지고 임시부는 쌀도 제대로 안주고, 고입된 사람들은 쌀주고 그랬는데. 식품상이라는 공급소가 있는데, 고입자 들은 사인만 하면 술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그랬다. 근데 임시부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고입된 사람이 술을 끊어서 우리한테 주면 봉급타면 고입한테 돈을 줘야했다. 그런데 고입되니 그런 것이 없어서 편 했고. 고기는 한 달에 두 근씩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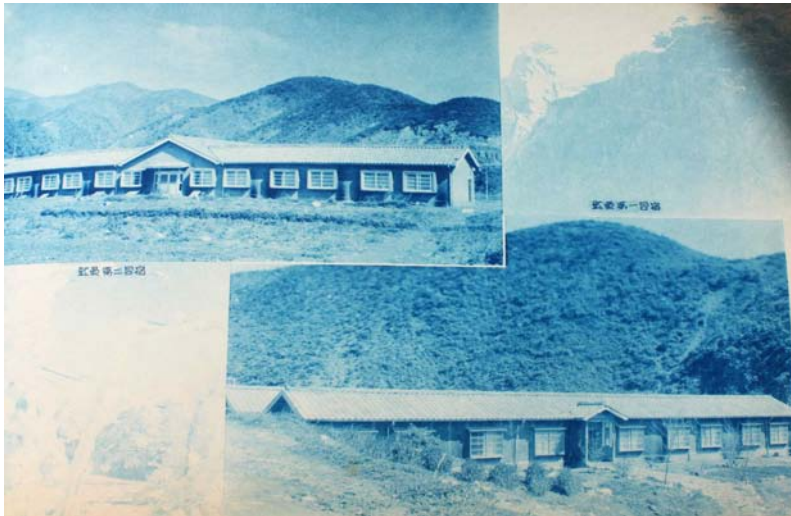
월급봉투를 두 개 가져가서, 거짓으로 봉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야. 다른 돈 내가 갖고 용돈으로 쓰고 그랬지.

항내 사람들 중에 어떤 집은 신랑 월급봉투만 만진다는 거야. 돈은 다 술집에 갖다 붓고 빈 봉투만 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월급을 아내들이 가서 타왔다.

### 사례 6 ◆ 잠을 자고나니 옆집 여자가 있었다

부인들은 남편이 밤에 일하고 아침에 들어오면, 부인들은 남편이 낮에 잠 좀 자라고 조용히 바깥에 나가서 있다가 오기도 하였고, 낮에 술 마시고 다른 사람 집 들어가서 자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한번은 술을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다가 내가 뭘 안 갖고 나와서 가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내 마누라가 아니고 옆 집 여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 우리 집은 아래인데, 내가 윗집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처음부터 내가 잔 곳이 내 집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때는 인정이 있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안보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랬다



〈사진 8〉 당시 광부사택(1957년경)

### 사례 7 ◆ 뽕또 대신 라면으로

병반 할 때마다 뽕또(도시락)를 계속 싸가지고 다니다가 라면이 나오고부터는 야채를 잔뜩 가져가서 같이 끓여먹었는데 그때는 라면이 별미였다.

사택에는 한 줄에 4호 빼고 1호부터 9호까지 8세대가 살았으며, 사원들 사택이 고입들 사택보다 좋았는데 주임만 되면 관사가 따로 있었고 크기가 달랐고 주임, 과장들 사모님들이 노무자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사택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부딪힐 일도 없었다.

방은 한 3평정도 되고 말소리는 정확히 안 들리지만, 애기 우는 소리가나면 그런 건 들렸지.

비 오는 날에는 남자들이 나가서 뚜거리 잡아오면 여자들이 끓여서 주변에 나눠주었다.

### 사례 3 ◆ 이웃사촌

내가 정월에 결혼을 하고 입대 날이 단오날 인지도 모르고 군대를 나갔는데 그날 아침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나서 군대를 갔다. 내가 군인에 갔어도 이웃에서 잘 도와주어서 집 사람이 잘 지낼 수 있었고 군무를 마치고 제대하고 와서 다시 양양광산에 들어갔었다.

그때는 우리 집에서는 1년에 제사를 9번 10번씩 지냈으며, 제사 지낼 때 마다 애들은 옆집에 맡겨놓고 제사 준비하고, 지내고 애들 데리고 오고 그랬다. 이웃에서 모든걸 서로 도와주고 정답게 지냈다.

내가 광업소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도 이웃에서 도와주었고 광업소에서 쉬는 날 이웃이 모여 남자들끼리 가서 미꾸라지 뚜거리 잡고 부인들은 끓여먹는 것이 재미있게 그때는 큰집 작은 집처럼 놀았지만 지금은 정이 없게 사는 것 같다.



### (구술자 복명 이충덕 74세)

#### 사례 1 ◆ 광차의 사고

디젤카 운전수가 우리 꺾 안 끌어가잖아. 그 원 거기 본광 꺼만 그러고 우리는 하청을 받은 사람들 끼는 뭐 우습게 생각했다.

우리 동네 엄용길이라고 그 사람과 들어서 그저 그저만 끌어놓으면 하루 한 공수 씩 먹는 건데, 그 디젤카 운전수가 우리가 다섯 광차인지 실어놨는데 안 가져가잖아. 그래서 광석을 실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 열 받아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생각 끝에 우리 힘. 밀고 나가자고 마음먹고 그가 오야뽕에 나간 사이에 광차를 밀고 레일(궤도)위에다가 놔지. 그런데 나도 착각을 했어. 광차가 있으면 끌고 나갈 그 생각만 하고 쪽 늘어 내놔지. 그런데 얼마 후 그 광차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돈 꾀당탕 하더라고. 그 디젤카 기사가 김찬래인데 아아...하고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여. 그러니까 디젤카도 광차 실어놨던 게 막 들이 달리고 넘어지고 그랬다.

잘못하여 그 아래로 내 달리면 큰 사고 난다. 난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끌어다 놓은게 사고를 불렀다. 디젤카 운전수가 욕을 막 하더니 내가 간다니까 그러지 말고 좀 일으켜 달라고 그래서 일으켜 주고 그랬다.

### 사례 3 ◆ 통일화가 뭉청 끊어져서 큰일 날 뻔...

폐석 실어 보낼 때 미나미골로 보낸다. 그거 끌어 올리는데 한번은 중간 더 올라 가지고 권양실에서 이렇게 보면 일하는 것이 보인다. 그 수리실에서 작업하려고 산소통 등을 실어 보냈다. 그런데 밑에서 폐석을 빼가지고 신호한다고 그거 들고 끌어 올리는데, 이쪽 대고 빼 낸 것하고 소개 빼낸 것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내리라는 신호가 있고 올리라는 신호가 있는데 한번은 수리실 사람들이 산소통 이런 것을 올려 보내는데 중간에 우리는 그제 사람들이 보여요. 그때 권양기 그거 하는 사람이 서문리 계시는 분(최선권)이야. 장난하는 줄 알았어. 와이어가 까딱까딱하더라고 근데 내가 앞에 허공이야. 이종민이라는 사람이랑통 이런일하는데, 그 사람은 뒤에서 들고 난 앞에서 거진 들었는데 느닷없이런광차가 올라오는 거야. 근데 산소통이랑통 이런넘어 진거야. 한 1초만 늦었으면 여기가 끊어지는 거였다. 그래가지고 한쪽은 발만 넘었어. 그때 통일화 새겨 신었는데 그제 뭉청 끊어졌더라고 큰일 날 뻔 했지요. 그리고 선광장에서는 선광벨트 손이 빨려 들어가지고 죽은 외지사람 도 있고 겨울에 슈트 빼다가 그제 얼었으니까 그 안에서 곡괭이질 하다가 확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연창에 김광균이라는 사람이 그때 슈트에서 죽었어요.

### 사례 3 ◆ 광산 폐광과 퇴직금

그때 임금인상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이제 임금을 좀 올려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못 올려준다고 하고 광업소가 문 닫기 직전에 선광은 몇 년 더 하게끔



해놓았다. 그러나 나중에 선광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까지 썩 다 안 한다고 그래서 폐광이 되었다. 그때 몇 년 안 한 사람도 500만원 받았고. 나이가 같아도 생일이 빠른 사람은 받았는데, 나는 생일이 늦어서 180만원인가 그거밖에 못 받았다. 나는 몇 년 더 벌어먹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해서 180만원 받았는데, 한 달도 안되어서 문을 닫아버렸어. 나보다 일을 더 조금 한 사람은 500만원 받았는데, 나도 320만원 더 달라고 하니 못준데, 이 퇴직금을 다른 사람들도 다 500만원 받았는데, 나만 제대로 못 받았다.

#### 사례 4 ◆ 캄캄한 굴로 출근

3교대 하다가 2교대도 했는데 임천에서 통근버스가 다녔다. 그게 아니면 광석을 옮기는 트럭 얻어 타고 다녔다. 그리고 밤에는 걸어도 많이 다녔다. 밤에 자다가 늦잠자서 통근차를 놓치면 그럼 거마리 굴로 혼자서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은 그 안에 들어가면 절벽절벽하였고, 굴 벽 밑의 물고랑으로 안 빠지려고 작대기 들고 굴 벽에다가 자의 그으면서 갔다.

그때는 동네 여자들도 저 골짜기로 올라가서 나무해오고 멀리 가서 목 나무도 해 오고 그랬지요. 농사짓는 사람이 광산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했다. 광부들도 부모재산 받아서 땡땡거리며 사는 농부들을 부러워했다. 우리는 잠을 못자고 일하고 그러는데, 농촌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니고 일하니까.

#### 사례 5 ◆ 술에 취해 제방 독에서 새벽 4시까지 잠을...

광산 다니면서 색시집에 외상이 얼마 있어서, 월급 받아서 갚으면 색시를 들이밀면서 술이랑 안주랑 막 갖고 온다. 그럼 그만큼 또 외상을 지고 오고 그랬다.

술 마시고 집 가는데, 그땐 임천에서 북평으로 건너가는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 나무다리 위에서 두번 떨어지기도 하고, 제방 독에 올라서가지고 내려가다가

철조망에 걸려가지고 계단에까지 내려 굴렀는데 사방이 굽혀서 한 이틀 일 못 나갔다.

그리고 어느 봄인가 밤 12시쯤 술을 마시고 가다가 제방 독에서 굴러서 사방이 굽혀서 피가 나는데, 새벽 한 4시쯤까지 자다가 술이 깨어 집에 갔다가 아침에 보니까 지갑이 없어. 그래서 애들 둘이 보내서 찾긴 찾았다.

### (구술자 서문리 김명걸 68세)

#### 사례 1 ◆ 도급 채광

채광과는 광석을 캐는 임무인데 개인별 책임량이 부여된다. 책임분량은 2인 1조가 되어 14대가 책임량이었는데 다하고 더 하는 것을 도급제라 한다.

도목항에서 처음에 시작하였고 수항하고 빵창(맞고임)이 난 도수간(도목항에서 수항으로 내려가는 길 중간에)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도수간에서 다 파먹고 물량이 없어 수항으로 이동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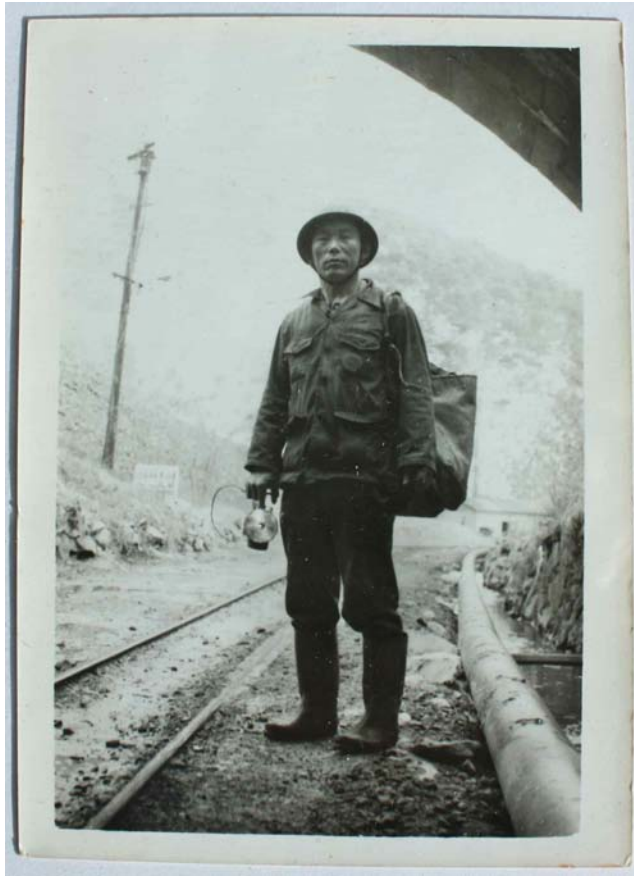
도급은 대당 40원(현 2~3000원 정도)했는데 광차(리어커 두대정도) 한 대 채우는데 동떨이(셋들)로는 5분정도, 분가루로 된 철은 15~20분 정도 걸렸다.

로다(지금 페루다 식)는 뒤에 광차를 달고 앞에서 뒤로 넘기면서 광석을 광차에 실었는데 임금이 착암공보다 많았다.

로다가 막장에서 광차에 가득 싣고 내려놓으면 착암부들이 쌓여있는 철광석을 다이내마이트로 폭파를 해 큰 돌을 떨구는 경우도 있었다.

책임량을 다 채우고 도급량을 늘리기 위해 일을 하는데 그 당시 땀이 줄줄 흘러 싣고 있는 장화 속을 채울 만큼 땀이 흘러며 열심히 하였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동료들과 나오면 저 꼭대기 식품상서부터 집까지 술집이 13곳 있는데 내려오는 길에 이집 저집 들러서 한잔씩하고 오니 엄청나게 술을 먹게 되어 거나하게 취하여 집에 돌아오곤 한다.



갱도 앞 철길 위에서의 조덕용씨

#### 4. 분석실

(구축자 서문리 황백주 76세)

##### 사례 1 ◆ 분석실의 하루일과

부석실은 광석이 몇 %가 포함되었는지를 시험하는 부서인데, 분석실이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분석재료를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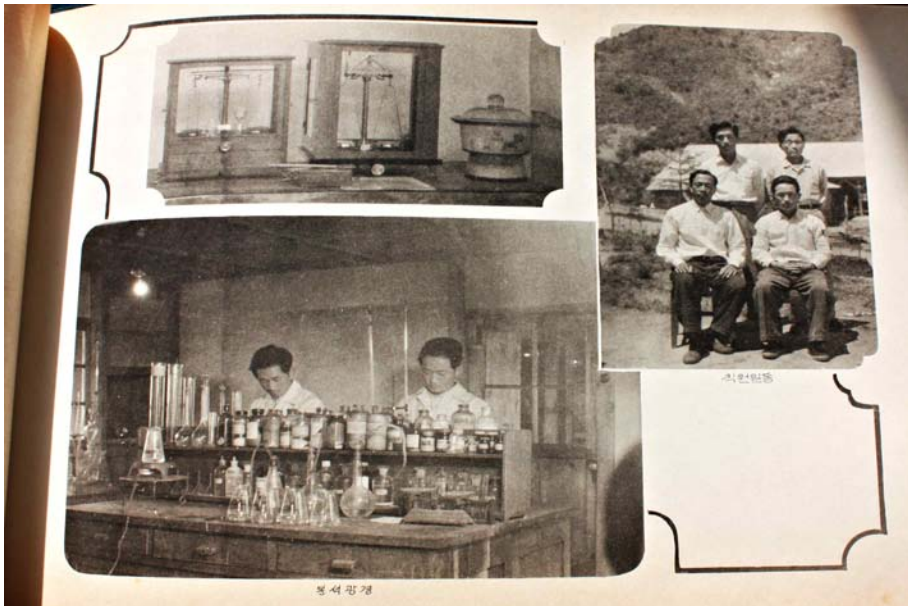
들어 분석실에 갖다 주면 분석실에서 약품을 넣어 몇 % 철광석이 나온다. 또 광석에 유황이 몇 % 들었는지를 확인한다.

유황이 많이 들어간 광석은 잘 안 알아주었다. 선광과에 분석실에서 10~15년 있었는데 나중에 광업소가 작아지니까, 통폐합시키고, 인원 감축을 시켰다.과는 관리과지만 근무는 선광부에 가서 일했다.

광석이 나오게 되면 조금 쪼개 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요. 밀가루처럼 가늘게 싹 빵아 그걸 분석실에서 시약을 넣어 광석이 지금 몇 %인지를 환산한다. 분석은 3교대 하다가 2교대 하다가 1교대로 변경되었다.

광석은 분광도 나오고 굵은 광석도 나오고, 버리는 것도 나오는데 그것도 다 했다.

채광에서 광차로 나오면, 한 광차마다 뜨는 것이 아니라 한 다리 또는 두 다리 건너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한다.



〈사진 10〉 당시 분석실(1958년경)

샘플은 광차가 굴에서 나올 때마다 채취해서 하였다. 각 항마다 광차가 나올 때마다 매번 채취하였다. 한 광차 당 무조건 한번씩 캐고 양도 한 광차에 몇 kg 기준이 있는데, 각자의 감각으로 도구에다가 흙빠같은 걸로 긁어서 채취했다.

사람 많을 때는 4명이 있었다. 1개조가 광차가 나오는 동안만 채취하는 시료 공이라고 하는데, 광차가 들어오는 만큼 채취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광차가 들락거리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

광차가 선광장으로 들어오는 횟수는 대략 200대 내지 300대 정도 되었고, 광차는 몇 대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작업에 따라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채광해서 광이 없으면 며칠 동안 안 나오고 그럴 때도 있다.

도목항이나 양양항 같이 사람 많은 항은 많이 나오고, 사람이 적은 항은 또 몇 대 안 나오고 광차의 소속은 따로 있다. 사람의 수에 따라 달랐고, 디젤카 운전수는 각 항별로 따로 있었다.

분석실은 원래 관리과 분석계인데 계장과 주임이 있었으며, 현장에 나가서 시료공이라고 24명(8명 × 3교대)이 있었다.

분석계가 해체 되고 난 후에 오야뽕 둘 선광 하나 자선단에 하나 넷인가 있었다.

선광과 에서는 한 기계를 오래 못 보게 한다. 한 6개월인가에서 한번 씩 작업장을 바꿔주는데 볼밀도 봤다가 자이라 기계도 봤다가 쪼크레사라 듣다 그런 것도 봤고, 그 사람 능력을 봐가지고 그 자이라 라는 기계는 서독제 서독제그 기계는 정되제그좀 특이하고 꼼꼼한 사람이 해야지 막말로 희미한 사람은 거기에 가지도 못하는데, 자이라는 큰 돌을 잘게 부스는 거고, 볼밀은 부순 돌은 더 잘게 부스는 기계다.

선광장에서는 다리도 다치고 기계에 팔이 딸려 들어가 팔을 다치기도 하고 사람이 죽는 사망사고가 한 6~7명 되는 것 같았다.

광산에서 눈 맞아서 결혼한 사람이 한 5명? 양양사람들도 많았고 객지 사람들도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거의 다 객지로 나갔다.

물로 하는 습식 자선이라고 쇠를 물로 씻겨 내서 가루를 만들어내는데. 그 겨울이면 추워서 얼잖아요 막 교대 들어갔는데 엄청 추웠지요. 사항골 이라는 데에서 내려치는 바람이 얼마나 쎸지, 그 기계가 열게 되면 기계가 안돌아가잖아요 거기다가 불로 화덕을 만들어서 녹여가지고 기계를 돌리고 그랬는데, 그게 힘들었던 거 같다. 봄, 가을은 일하기 참 좋았는데, 특히 겨울엔 힘들었다.

물이 딱딱하게 열게 되니 물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녹이는 거다.

처음 임시부 때에는 버스가 한 대 밖에 없어서 고입인 사람도 승차권으로 출퇴근 버스를 탔다. 임시부이기 때문에 걸어 다녔다.

한겨울에 눈이 허리만큼 왔을 때 한 2번 정도 출근을 해서 갔다가 온 것 같다.

밤 12시에 출근하는 날에 버스가 11시 30분에 오는데, 시간에 늦어서 광산까지 3~40분 정도 걸어간 적도 3~4번 정도 있었다.

## 5. 공작실 및 선광수리실

### (구축자 상평리 강춘명 72세)

#### 사례 1 ◆ 공작실의 하루일과

67~88년까지 재직했고 처음부터 공작실에서 임시부로 일했다. 광산 내에서 필요한 모든 기계 제작. (광차, 권양기) 수리부에서 수리하지 못하는 기계를 연말에 수리를 하였다.

당시 임금은 6000원(지금 100만 원 이상) 정도 받았다. 기술력과 성실성을 보고 고입 여부를 결정하였다.

공작실은 교대 근무가 없고,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했다. (오후 5시 이후 12/1시 정도) 농가에서 필요한 기구는 공작실에서 쓰고 남은 자재를 이용해서 만들어 반출하기도 하였다. (연탄집게, 불삽, 곰배, 불집게, 절구 등) 자

제는 많이 부족했으나, 필요한 자재가 나오는 경우 감추어 두고 차후에 사용해서 만들었다.

공작실에서 선광장 지원(기계 고장 수리) 등을 해주었으며, 그 당시에 많은 부탁을 받았다.

자재 조각을 모아두었다가 노무자들의 가정에 필요한 기구 등을 만들어 주었는데 입소문이 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 사례 2 ◆ 영국기술자에게 욕을 했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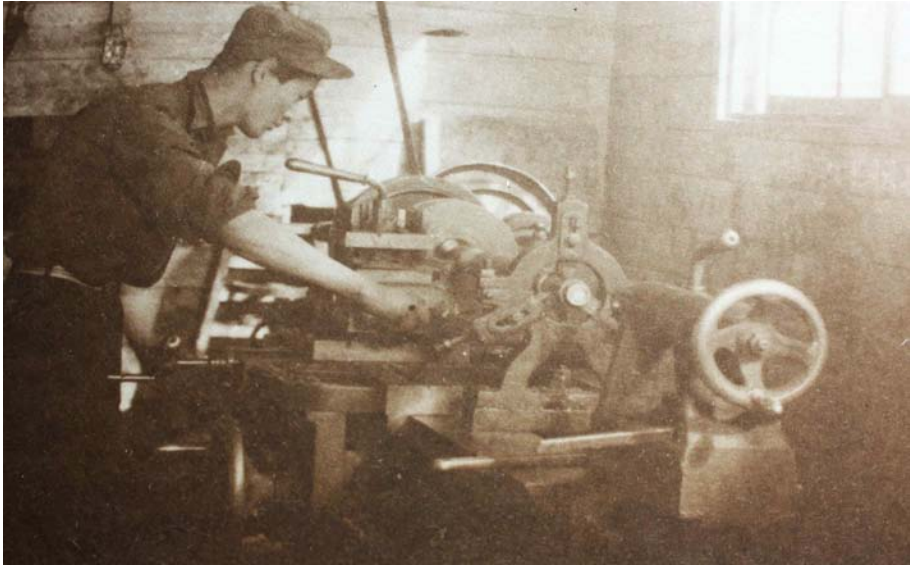
항내 150마력짜리 권양기는 메다를 빼 낸 후에 재조립하였다.(혼자빼지는 못함) 그 안을 바베트라는 것을 부어서 선반에서 따로 빼낸 후 맞지 않지만 샤프트라를 이용해서 맞춤. 컨베이어 벨트, 로우러, 200마력짜리 메다를 수리하려면 힘들었다.

쪼크라샤, 콩그라샤, 불밀기계는 독일제로써 매우 비싸다. 라이너 같은 건 교환하지 않았다. 양양광업소 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외국인 전문가가 와서 고치는 경우도 있었다.

제2선광장 위에 2수항 권양기 설치할 때와 00마력짜리 콤프레샤를 설치할 때 영국 또는 독일 사람들이 와서 설치해 주었다.

수항으로 기억되는데 얼굴 모양이 좁고 길죽하게 생긴 영국 기술자가 와서 기계를 설치하는데 얼굴이 xxx못 생겼다고 우리말로 했는데 나중에 그 기술자가 어깨를 툭 툭 치면서 “그러문 쓰나 ?” 우리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 무안해서 혼이 났는데 나중에 그 영국 기술자와 친하게 지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외국 기술자들이 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항내에서 주로 탐사하는 조사과에도 간혹 외국인(독일)이 일 하였다. 기술자라고 특혜는 없었으나 끈조는 있었다.



〈 사진 11〉 당시 공작실 선반 모습(1956년경)

### (구축자 강승리 이귀삼 62세)

사례 1 ◆ 한평생 광산에 몸담고 지금도 다니고 있다.

양양광산은 1971년 5월 24일에 이사하였고 1994년 5월 30일 폐광한 후 이갑수 소장님과 임철혁 과장과 함께 미지막까지 정리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일양레미콘을 거쳐 2011년 대한광물이 다시 재개발되면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니 거의 한 평생을 양양광업소에 몸담고 있는 셈입니다.

사례 2 ◆ 학업보다 먹고 사는 것이 급해 고등학교를 중퇴 했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다 가정형편이 워낙 어려워 월사금을 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업보다 우선 먹고 사는 것이 급했지요. 그러나 미성년이라고 광업소에는 정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천양회사에 임시부로 들어갔지요. 그 후 나이



가 먹으면서 선광장 오와뎀에서 2년, 조사과에서 1년, 선광 수리실에서 용접공으로 있다가 1991년부터 선광수리실 관리책임자인 감독으로 근무했습니다.

### 사례 3 ◆ 주로 막걸리 힘으로 일을 했다.

1973년부터 조사과에서 일했는데 조사과는 주로 철 광맥을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산에는 전기가 없으니 자동차 엔진을 끌고 산에 올라가서 시동을 걸고 시추기를 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술이 없으니 엔진을 끌어 올리는 잡부인 셈이죠. 그땐 주로 막걸리 힘으로 올리는데 막걸리를 채기는 직원이 별도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지금도 어깨에 뼈가 튀어나온 자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어린나이에 너무 힘들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선광수리실로 옮겼습니다.

### 사례 3 ◆ 입사 후 3년 만에 국가 공인 용접기술 자격증을 취득

선광수리실에서 용접공 조수를 하다가 1974년에 춘천기술고등학교에서 국가 공인 용접기술자 자격증을 땀습니다. 크라사와 조크레샤를 수리했는데 현장에 가서 하기도 하고 수리실로 가지고와서 수리를 했는데 조크레샤 수리를 하다가 끼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고, 잘못하면 컨베이어에 감겨 죽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일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2대에 걸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광부의 아내가 남편이 광산에 일하러 간 사이에 나무 뿔감을 구해서, 집에서 불을 때기도 하고 이웃집에 팔면서 가난한 생활을 하였다.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인고의 세월이 한 순간 지나간 듯합니다. 이 모두 지난 날의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그 덕택에 지금도 대한광물 재개발회사에서 용접 일을 한답니다.



〈사진 12〉 당시 사진을 설명하는 이규삼( 2011.9)

## 6. 전기수리실 및 압기실

(구술자 남문리 최정근 64세)

### 사례 1 ◆ 전기계의 광범위한 전기시설 수리 영역

전기부서에서 하는 일은 광산에 있는 모든 전기 장비를 점검 및 수리를 하는데 양양변전소에서부터 6,600 볼트로 송전하는 전기가 광산까지 도착되면 우선 전력을 3,300 볼트로 변압기에서 변조를 시켜서 중점적으로 각 항이라든가 압기실 그리고 각 부서 등으로 보내는 일을 도맡아 하고 광산 사택이라던가, 양양변전소에서 광산으로 송전하는 전기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광산(장승리)사택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기 문제도 전기 수리실에서 관리하였다.

항내에 전기 플러그가 들어간 휴게실이나, 안전지대에 물이 생기니까 물을 펴내는 150마력짜리 펌프(3,300볼트)를 사용하기 위한 전선을 확장. 수항 300레벨에는 전동차(트로리카) 1Ton 급 이상 되는 걸 20대씩 달고 다니는 전동차의 위에 라인은 플러스선이다. 레일에는 마이너스 선이 가는 전기시설도 되어있었다.

전기계 직원은 매우 광범위 했는데 전기계의 직원은 수리실 인원(8~12), 발전소 기록요원(3교대 1명씩 3명), 배전실(선광장 직원 3명. 2교대) 전기주임1명, 발전실에 주임1명, 배전실에도 주임 1명 등 대략 20여명 정도였다.

압기실은 각 항에 공기를 넣어주는 시설(400마력 모터1대, 150마력 모터5대)인데 하루 종일 돌아가는데, 착암기라든가 로더는 압기실에서 보내는 공기를 이용해서 사용하였다.

전기를 사용하는 큰 기계는 2수항 400마력짜리 권양기(5ton을 끌어 올릴 수 있는)와 200마력 짜리 불밀(광석이 들어오면 가루로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고, 주먹 만 한 불이 투입되는 기계.)이 있었으며, 조크레샤가 3~4대 정도 있었으며, 모로스 체인이라든가, 조크레샤로 들어가기 위한 굵은 체인 돌아가는 기계 컨베이어, 철과 폐석을 분리하는 DMS라고 전자석선별기, 더불어 제어시설까지 광범위하게 공급했다.

항내에 전기를 이용하는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기수리실(전수실)은 퇴근 후에도 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다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기시설이 최고 말단지역까지 뻗어 있었다. (경험상 수직 최대는 450m, 수평은 1.5Km)

전기 수리실은 일이 많이 밀려 있는데 모터를 수리 할 때는 코일을 재생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72년에 12명 / 88년에 8명 퇴직하기 전까지는 2명씩 야간 대기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펴 낼 때는, 깊이가 깊으면 두 대 이상을 이용해서 중간 부분에 한번 거친 후 다시 펴내는 과정을 거쳐 물을 펴낸다.

무거운 모터를 옮길 때 굴 안에서는 레바형식의 체인부력으로 들어서 모터를 옮기고, 바깥에서는 페이로드를 이용하고 삼바리를 세워서 광차처럼 만든 바가지를 이용해서 옮겼다.

변압기가 고장이 난다던가, 뚝뚝지가 갈라져서 비만 오면 전기가 누전되고, 슬개미(독수리)가 앉았다가 날아가면서 부딪히면 습도가 높을 때 마다 누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광산 사택의 전기 점검기까지 일일이 확인하였다.

광업소에서부터 한전까지 세워져 연결되어있는 전봇대 애자를 쌍안경으로 이상이 없는가를 점검해야 하고 3년에 한 번 씩 애자를 닦아줘야 하는데 한전에서 관리한 것이 아니라, 광업소 자체에서 점검을 이행하였다.

한전이 발전하기 전에는 광업소 자체의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하였는데 자체로 발전할 때 냉각수에 사용된 물이 뜨거워서 식힌 후에 다시 냉각수로 쓰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뜨거운 물로 목욕탕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때 당시 한전이 단전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가 발전기를 사용하여 전기를 사용했는데, 1개 작업장에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다른 작업장에도 전기를 보내는 관리도 했다.

## 사례 2 ◆ 수항만은 꼭 살려내야만 했다

고달프고 힘들었던 일은 집에도 못 가고, 3일 동안 광산 굴에서 라면 끓여 먹어 가며 지낸 적이 있다. 장마가 심했던 그 시기에 항에 물이 많이 떠 지고, 도목항에서 펌프가 망가지고 물을 미처 퍼내지 못하면 물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2수항 쪽에 문으로 막고 그랬다. 더 이상 수항만은 꼭 살려내야 했다.

물이 못 내려오게 틀어막기도 하고 도목항에서 수항쪽으로는 통로로 물하고 같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밖에서 들어가면 소요시간이 많이 되니까 그거를 돌발대기라고 해서 전 직원이 3일씩 항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

전기 수리실은 위험수당이 좀 있어서 채광과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임금은 높았다.

항에서 돌발대기로 대기하고 있을 때, 라면을 3봉지 밖에 끓일 수 없는 냄비에다가 7~8명이 먹으려고 하니, 라면 3봉지를 끓이고 다른 냄비에 부어두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이행하는데 라면은 막내가 끓였고,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마지막에 끓인 라면 3봉지는 막내 혼자 먹게 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물은 굴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했고, 라면은 휴게실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었다.

공무과는 공무계(공작실, 선광수리실)와 전기계 밖에 없었는데 공무계장 공작실장 설계실장 주임 / 전기계장 전기실장 주임이 있었다.

공무계의 사람이 제일 많고, 전기계의 사람이 다음으로, 공작실이 제일 적었다.

명절 등의 공휴일에 전기수리실은 쉬지 못했다. 전기 점검 및 미비 된 부분을 완료시키는 등의 잔업을 하였다.



〈사진 13〉 최정근 표창패(1985.3.10)

전기계 직원들의 모임은 많았으며, 경주라든지 자연농원이라든지 여행 및 야유회를 많이 가기도 했다.

간혹 비번으로 쉬는 조가 미꾸라지, 웅고지, 붕어 등을 잡아 직원 집에서 추어탕을 끓여놓고 저녁퇴근시간이 되면 과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모여서 직원들 간 우애를 다지고 화목하고 화기에애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 사례 3 ◆ 최고 경영자의 한 마디에 감명을 받았다

양양광산이 폐광이 되기 몇 해 전 다른 일(사업)을 구상하고 퇴직을 신청 의료보험증을 반납 차 사무실에 들렀더니 당시 최재섭 소장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사회에 나가셨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저를 찾아오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아... 역시 이래서 최고 경영자를 하시는구나” 하고 소장님의 인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전공이었던 나를 소장께서 직접 알아본 것은 아마도 수항에서 트로리카가 한 2~3일 동안 고장이 나서 광석운반에 차질이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운 좋았는지 그 트로리카를 고친 것을 전기주임이 상부(소장)에 보고를 하였는데 그 일을 계기로 나를 알아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 (공술자 강승리 미나미골 석봉섬 76세)

#### 사례 1 ◆ 울산광업소 출신 입기실 운전공

울산광업소에 3년 있다가 양양으로 왔다.

울산광산은 굴진이 아니고 노천굴 그냥 파 재껴가지고 광석을 캐다.

울산광업소를 폐광할 때 집으로 갈 것인지 양양광산으로 갈 것인지를 여부를 물어서 배경이 있는 사람만 보내주었는데, 맨 먼저 7명, 다음에 20명이 왔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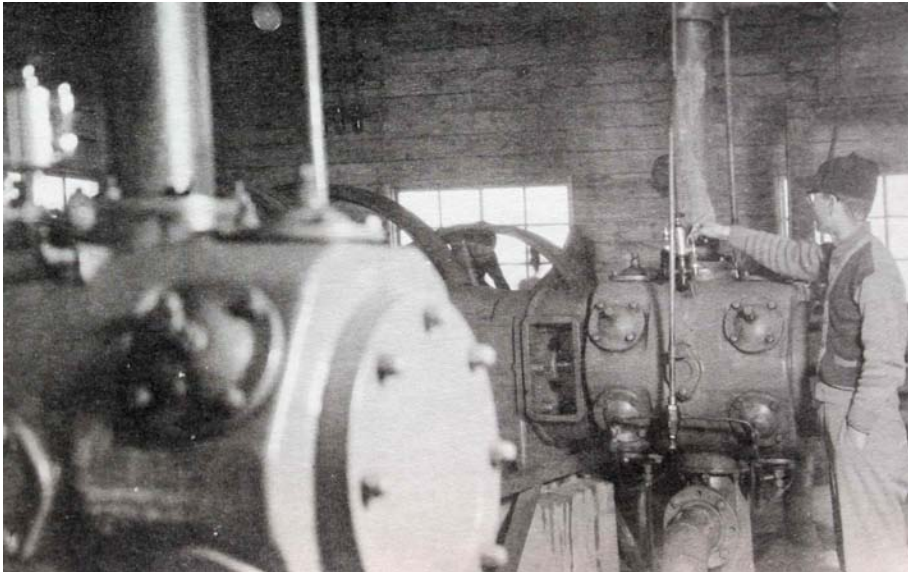
특수 분야는 대부분 오고 일이 가능한 사람들도 왔다.

## 사례 2 ◆ 도목항을 위하여 댐을 막고 물길을 돌리다

양양항에도 압기실이 있었고 탑동에도 압기실이 있었다. 그러나 탑동 일대가 붕괴가 되어 광산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자 압기실을 철거를 해야 되었으며, 탑동 앞이 무너지게 되자 탑동 꼭대기에서 흐르는 물이 항로로 들어가니까 물을 막아 댐 공사를 했다.

그 댐 공사를 할 적에 물이 항로로 못 들어가게 댐을 막고 물을 산 쪽으로 굴절을 해가지고 산을 뚫어서 수로를 변경을 했다.

기존 물줄기로 흘러가면 전부 도목항 굴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목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을 산으로 돌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사진 14〉 당시 압축기 모습(1957년경)

### 사례 3 ◆ 소장 순시 중에 잠자다 걸려서 압기실에서 쫓겨났다

압기실에서 일하는데 소장이 순시를 돌았다. 압기실에서는 처음부터 기계를 안 돌려요. 항내 채광과 노무자들이 작업복 갈아입고 준비해가지고 막장 가서 단도리 (작업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하려면 한 한 시간 후에 되어야만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는 기계를 안 돌리고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근데 그날은 준비를 안 하고 잤단 말이야.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소장이 오더니 “당신 왜 기계를 안 돌리느냐 ?” 고 해서 “아직 기계를 돌릴 시간이 안 되어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기계를 안 돌리면 기계를 닦던가 해야지 왜 자느냐” 호통을 쳤다.

소장한테 자는 걸 걸리고 나서 밧테리카 조수로 가서 한 1년 정도 일했고, 트로리카로 가라고 해서 거기서 일을 했는데 전기는 220짜리였고, 광차 하나에 한 2Ton정도 되었는데, 그걸 한 11개 까지 달고 다녔어요.

### 사례 4 ◆ 만천판에서의 사고

만천판이라는 데가 뭐냐 하면 광석이 천장에 막 붙어있어 막 때려 먹는 텐데, 거기를 굴진해가지고, 높이 2m50 이 정도로 해서 굴을 뚫고 들어가지만, 거긴 자체가 광석이기 때문에 무조건 발파를 하고 그랬는데 그 때 조수로 갔는데, 뭘 알아야지, 착암 피트가 1m50은 되는 것 같아. 그 기계 무게에다가 1m50 되는 걸 혼자서 못하잖아. 내가 조수니까 앞에서 잡아서 받쳐주면 오야 착암공이 일을 하는데 오야가 기계 가지고 막 쳐 대잖아 그러니까 자리 날 때까지 미련하게 악을 쓰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근처가 금이 간지도 모르고 있다가 보면 왕창 내려 앉아 버려요.

항내에는 압력이 약하고 쇧돌이 무거워서 그냥 주먹만 한 것도, 10m에서 떨어지면 맞으면 경상도 없이 중상이 아니면 사망이잖아. 그래도 그렇게 하다가



그 밑에서는 발파를 다 한 뒤에 쇠를 뜯어 놓으면 그 밑에 구멍을 뚫어서 쇠를 빼 먹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밑에서 소리가 낮는데 큰 진동소리가 나서 오야가 기계 탁 끄더니 “저 밑에서 사고 났다”고 그러더라고, 가서 보니 그쪽 현장에서 사람이 쇠 돌 바위가 공중에서 떨어져서 쩡겼는데, 그게 바로 맞으면 바로 압사가 되는데, 기계가 비스듬한 사이에 쩡졌어. 그래가지고 감독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감독도 정신이 없이 줄사다리로 사람을 들어 올리는데 흔들거려서 조심스럽게 구조를 했는데, 다친 람은 다리 부러지고 허리 다쳐서 불구가 됐어. 그래서 보상금 받고 나갔다.

### 사례 3 ◆ 다친 사람 때문에 피 뽑으러 맨 날 불려 다녀

수항에 400m 짜리 승강기가 있어. 거기서 사람을 태우고 짐 싣고 하는 조차 공이라고 하는 그걸 봤는데, 근무 시간에는 나가질 못해, 위에서 감독이 왜 나왔냐고 막 물어보고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무실에 가는 것 빼고는 아무도 못 올라간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떨어지는 것은 버려두고 기계로 착암을 하면서 대꼬(쇠고쟁이)를 가지고 위에서 광석이 떨어뜨리려고 대꼬로 쳤는데, 하필 사람이 있는 데로 가서 쳐가지고, 그 사람은 바로 죽지 않았는데, 나와서 죽었어.

전차가 나오면서 사람을 싣고 나와서 광산병원에서 급하면 거기서 수혈을 하고 그랬는데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피를 뽑는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피 뽑으면 안 되고 바깥에서 빈둥빈둥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피를 뽑았는데 나는 맨 날 불려 다니며 피를 뽑았었지요.

사람들이 다치고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데, 똑똑하고 뺨 있는 사람은 보상 많이 받고, 좀 어리하고 뺨 없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도 개 값이에요. 산재대로 준다고 하여도 제대로 해 준적 별로 없었지요.

### 사례 6 ◆ 우산을 들고 굴 앞으로 마중 나온 아들 녀석

햇빛이 났는데, 굴속에서 8시간 작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비가 왔는지, 눈이 왔는지 모르잖아 썩어 빠지게 일만 하다 보면 항내에서는 밖에 소나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을 마치고 항을 나왔는데 초등학교 댕기는 쫓그마한 아들이 아버지 퇴근한다고 뼈딱하니 찢어진 우산을 갖고 아버지 마중을 나오고 그럴 때에는 되게 반가웠지요.

항내에서 종업원들이랑 동료들이랑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일하다가 자기 새끼 보면 반갑잖아 그래도 비 맞지 말라고 우산을 들고 왔으니까.

### 사례 7 ◆ 뇌관 빼들려 황어 잡아 들통 나서 해고, 견책, 훈방

그전에는 채광과에서 굴에서 터지지 않은 뇌관을 감독들이 다 걷어서 와야 하는데, 그걸 미처 안 걷었던 거야. 그래서 내 친동생이 그걸로 고기를 잡아먹다 걸렸어요. 근데 보안과에서 “누가 어디서 언제 가져 왔느냐, 어떻게 되었느냐”를 다 캐묻는 것이어요. 그래서 항내에서 그냥 가지고 나와서 황어를 잡아먹었다고 그랬는데.

고기 잡아먹은 지 한 달이 지났어, 근데 동생이랑 같이 고기 먹었던 자가 은연중에 얘기 했는데, 회사 경비원한테 들어가 버려서 말썬이 되었는데, 결국은 6명인가 나까지 포함해서 동생은 해고, 화약 취급지는 견책, 감독도 견책, 항장도 견책 받았고, 나는 훈방을 받았어요.

### 사례 3 ◆ 정착금 달라고 굴속에서 농성

양양광업소가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문을 닫지 말라고 종업원들이 데모를 하었는데 그때 나는 뭘 했냐 하면 항내 사람들이 우 ~ 하면서 데모를 하면서 밖

으로 나오지도 않고, 조건을 제시했는데, 광산이 문을 닫으면 이주를 해야 하니 까 정착금을 달라고 하면서, 정착금을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고 하자 액수는 말 하지 않고 그냥 정착금 달라고 굴속에서 나가지도 않고 데모를 했는데 굴속에서 쌀이랑 라면이랑 갖다 놓고, 먹어가며. 한 9일정도 있었는데 술도 갖다 주고 고기 갖다 대고 백원 짜리 화투를 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안에서 자는 사람, 화투치는 사람, 고기 먹어가면서 술 마시니 시간 잘 가잖아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일도 안하면서 한 사람당 50만원의 정착금을 받았다.

### 사례 9 ◆ 슬레이트 불판에 돼지고기 안주

광업소에서 광부들에게 돼지고기를 한 달에 두 근씩 주었다. 정식 뿐 만 아니라 향내작업자 향외에서도 면지를 많이 마시는 사람, 선광장에서 오야뽕 등에게도 주었고, 설 명절 때는 소고기를 한 근씩 주었다.

노무자들이 한 달에 한번으로는 고기가 부족하니까 그때 내가 육고점을 하면서 고기를 팔아서 돈을 좀 모았지.

지붕 개량할 때 슬레이트 지붕을 했는데 그 슬레이트 쪼가리 천지잖아. 지금은 슬레이트에 석면이 인체에 엄청 해롭다고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안 받아 준다는데. 근데 돼지고기 구워 먹을 라니까 불판이 제대로 있나, 그래서 슬레이트를 펴 놓고 밑에다 장작불 켜 놓으면 참 좋네. 그래 슬레이트를 삐딱하게 해 놓으면 골이 경사가 졌으니까 기름은 밑으로 내려가고 고기는 노랗게 구워지고, 그때 소주를 땃병을 갖다놓고, 일회용 컵 그걸로 두잔 만 마시면 이 흠 들이 한 병이야. 그래서 보통 석 잔은 마셔, 잘 먹는 사람은 두병도 먹고 취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진 15〉 구슬종인 석봉섭(2011.7)

사택이 150세대가 넘었을 거예요. 한 줄에 8집이 있었고, 저쪽 너머에도 있었으니 아마도 250세대는 넘은 것 같았다.

그때는 내가 처음 왔을 때도 일반미도 타 먹기 힘들었고, 납작 보리쌀, 알란미, 일반미 해서 3개를 한 달에 한 번 배급을 타서 먹었다. 그러나 내가 더 먹고 싶다고 하면 임금을 줄여주고 그리고 배급을 더 주었다.

최근에 양양광업소가 재개발하면서 서쪽으로 굴진을 해요, 왜냐하면 해발 240m 밑에 있는 광석을 캐먹을라고 하니 여기서 240m 위에서 바로 하면 경사가 바로 지고 우회전하게 되면 그 작업을 하는 지점이 바로 미나미골 동네 집 밑으로 지나가게 되어있어 쿵 쿵 거리면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동네사람들 전체가 대모를 했지요.

## 7. 디젤카 운행

(구술자 청곡2리 김상환 79세)

### 사례 1 ◆ 광석 운반의 일등공신 디젤카



〈사진 16〉 당시 디젤카 앞에서(1970년경)

62년~88년 까지 재직하였다. 천양회사 하청 받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채광과 임시직으로 간 것이다. 디젤카는 지금은 철길로 가는 거지만 앞뒤로 가는 거라서 자격증이 없어도 했지만 자리가 좋아서 인기는 많고, 작업시간도 길고 임금이 높았다. 항에서 권양기로 뽑아 올려서 슈트에서 받아가지고 광차를 한 22대까지 달고 다녔다. 철광석을 한 대씩 슈트공이 뽑아주면 디젤카로 운반하여 선광장에 부러놓으면 오야땡에서 부셔가지고 선광장으로 들어간다.

디젤카는 임시직 3년 후에 정식으로 된 후에 디젤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디젤카는 2교대(12시간)이라 근무 시간이 길어서 수당이 많았다.

광차는 대략 20~22대 정도 달고 다녔는데 광차는 논화항에 1대, 양양항에 2대, 도목항에 1대, 논화항은 덕대. 도목항하고 양양항은 덕대가 아니었다.

양양항은 디젤카가 항으로 들어가지 않고 갯도 입구 2~30m정도 들어갔다 돌아와서 나왔으나, 도목항은 항으로 많이 들어갔다. 양양항에서부터 선광장 오야땡까지 20mile속도로 약 7분정도 걸렸다. 왕복 횟수는 고정적이지 않았다. 생산량에 따라 변하였다.

도목항은 오야땡 선광장까지 1,000m이며 약 15 분 정도 걸렸는데 항내에서는 빠르게, 외부에 나오면 천천히 갔다. 오전에 한 4번, 오후에 한 3~4번 정도 다녀오면 끝이다. 통상 6~7번 정도 왕복을 하였다. 광차 22개는 대략 40톤(1개에 약 2Ton)정도 된다.

## 사례 2 ◆ 디젤 카의 사고

디젤카에 사고 난 일이 있었는데 커브 길에서는 쫘무니가 보이지 않았다. 갯도에서 디젤카가 갈 적에는 양쪽에 비키는 데가 있지만, 꼭대기 쪽에 올라가면 지주 동발을 해 났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갈 공간이 좁다. 그 틈에 사람이 꺾서 다친 적이 있는데 그런 구간이 몇 군데 있었다.

커브길 돌아가거나 굴다리를 지나갈 때 경적을 울리는데, 압체 같은 사람들은 걸어가기 싫어서 광차에 매달려 나오다가 내린다고 내렸는데, 다치는 경우가 많아 죽은 사람도 있었다.

디젤카가 빠르지 않으니까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다가 항내에서 옷이 걸려서 다치는 경우가 있었다. 허리를 다쳐서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적도 있었다.

갯도에는 동발을 했는데, 사람을 만나면 디젤카가 서야 하는데 디젤카는 급정거를 할수 없다. 그게 만약에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하면 뒤에 22대가 한 번에 탈선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작업을 못해요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광차가 옛 가락 처럼 넘어지면 지나가

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두 다칠 수 밖에 없다.

### 사례 3 ◆ 디젤카가 서로 경쟁하고 눈치보고 운행

광차를 끌고 항 밖을 나가면 양양항이랑 논화항에서 나오는 디젤카를 서로 보는데, 서로 먼저 가려고 눈치 보는 경우가 있다.

오야뺑에 먼저 도착해서 광차를 내려놓아야 한번을 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것이다.

슈트가 가득 차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광차를 내려놓고 가야 했다. 밥 먹을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다. 디젤카를 오야뺑에 대 놓고 시간에 맞춰서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았다.

오야뺑 근처에서 3개 항에서 비슷하게 도착한 디젤카끼리의 충돌 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서로의 속도를 보고 눈치껏 속도를 내거나 줄여 운전했다.

### 사례 4 ◆ 살얼음판 철로에는 모래를 뿌린다

디젤카는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다. 디젤카는 눈이 오면, 가다 서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마른 모래를 뿌리면서 가게 된다. 그래서 모래주머니가 디젤카 안에 비치돼 있다. 오래 되어서 모래를 뿌리는 기계가 망가지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힘이 부족해서 겨울에는 16~18대 정도밖에 끌지 못했다. 철로에 모래를 뿌리면 마찰로 인해서 힘을 받게 된다.

날이 추우면 항내에 흐르는 물이 얼어서 선로에 살얼음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다.

광차 바퀴가 흔들리거나 베어링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광차라 탈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탈선을 하는 경우에는 디젤카를 멈춰서 그 밑에 보조레일을 바퀴를 맞춰서 정상 선로로 올리

고 난 후 정상적인 작업을 하였다.

디젤카 운전자가 예전에는 조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서 개인적으로 모든 일을 하였다.

### 사례 5 ◆ 소속은 채광과, 근무는 선광과

항외보다는 항내가 비교적 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시원하였다. 디젤카는 소속은 채광과 소속이지만 선광과에 광석을 실어 줘야 그들이 일감이 있어야 일을 하게 되므로 동시에 2교대로 출퇴근 같이 하였다. 선광과에 광차를 오래 놔두면, 광석이 굳어서 쏟아지지 않는다. 얼거나 굳은 광석은 오야뽕에서 잘게 부수어야 한다.

디젤카에는 운전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태우지 않는다. 예전에 광차를 타고 나오는 사람은 운전자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간다.

아버지들이 얼마나 어렵게 일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들을 광업소에 견학하게 한 적도 있는데 굴속에는 항장의 인솔에 따라 들어간다. 디젤카 운전사는 양양항에 2명, 도목항에 2명 있었음. 양양항은 처음에는 2대였지만, 나중에는 1대로 줄었다. 디젤카 운전사는 채광과 소속이지만, 선광과 일정과 맞추어서 일을 시작했고, 채광과 쉬는 날에 쉬지 못하고 디젤카를 정비실 사람들과 같이 정비를 하여야 함으로 쉬는 날이 없이 추가 근무(심야)가 많아 임금은 시시한 감독보다 많이 받은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 슈트 뽑는 곳을 들어가게 되면 슈트 뽑는 사람하고 운전하는 사람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다.

디젤카를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마주한 적이 없었고, 내 오로지 근무만 하는 일이었다. 채광과 소속이지만 선광과 사람들과 접하는 경우가 더 잦았다.



## 사례 6 ◆ 탐동에서 흘러내려온 개구리가 도목항에 모인다

도목항 맨 끄트머리가 탐동에서 들어오는 골짜기이다. 탐동에서 작업하느라고 굴을 뚫은게 도목항 상단 디젤카 들어가는 곳에 구멍이 뚫렸다

비가 와서 빗물이 쏟아지면 물이 갠도를 통해서 흘러 나가는데 이때 물과 함께 내려온 개구리를 많이 잡아먹기도 했었다.

## 8. 권양기 운전

### (구축자 연창리 김제동 76세)

## 사례 1 ◆ 광산재직 30년 동안 만근(滿勤)한 베테랑 권양기 운전공

1961년 7월 28일 ~ 1990년 3월 5일

광업소에서 임시직으로 들어 간 후에 고용노동자인 정식으로 되었다. 처음에는 굴진을 하고 발파를 한 후에 발생하는 폐석을 옮기는 운반을 하는 일을 했다.

한쪽만 뚫려있는 굴진에 발파를하면 발파 연기와 냄새가 진동하고, 상상하지 못한 만큼 발생하였다.

책임량이 광차로 12대 정도 나왔다. 약 20~30m 정도 되는 거리에 밀어 놓으면 디젤카가 와서 끌고 가는데 보통 10~12개 정도 끌고 선광장으로 간다.

1, 2, 3중단은 높고 낮은 층수처럼 1, 2, 3층 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1중단에 10여명 정도, 2중단에 20여명, 3중단에 2~30여명이 일을 했다.

착암공이 발파를 해 놓으면 쇳들을 광차에다가 싣고 나와서 슈트에다가 부으면 1층까지 내려가는데, 이렇게 곳이 쌓이는 곳이 있다.

1중단은 디젤카에 바로 연결 가능하고, 2, 3, 4중단은 어느 정도 끌고 나와서 부러가지고 슈트에다가 부어야 한다.

슈트의 폭은 가로×세로(3×3)로 자기 책임량이 12대니까 슈트에다가 부어주어야 하는데 부어주면 슈트가 1, 2, 3중단까지 1, 2중단 사이가 5m정도 되고, 2, 3중단 사이가 5m 정도 되는데 슈트를 빼서 연결해 놓으면 이를 디젤카가 끌고 간다.

슈트는 1중단에 거리가 쉽게 말해서 중단에 하나 생기면, 우선 광차를 갖다가 붓는 데가 있다. 거기에서 수평을 만들어야 쇧돌을 계속 파내요 수평이 만약에 10m가 되면 나중에는 4~50m에 100m까지 가는 데가 있다.

슈트는 하나 양쪽에서 굴진을 해가지고 몇 패가 되든(5패든 6패든) 채운다.

밑에 슈트를 빼는 사람이 만표를 하는데 만약에 1중단 2중단에서 100대를 부으면 부은 사람은 몇 개인지 모르지만 밑에서 슈트를 빼는 사람이 1대 뽑으면 만표라고 하는데 10개씩 찍는게 있고, 여러 중단에서 하는데, 1중단에 여러 사람의 밑에서 슈트하는 사람이 체크하고 2사람이 만표를 한다.

1중단 2중단 100명이 50대를 부었는데 남은 경우가 있다. 꼭 채워서 뽑을 때도 있고, 덜 뽑을 때도 있다.

그럼 남는 경우가 있고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남는 경우에는 별문제 없이 내보내는데(추가로 보내는 경우가 있음), 다음날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날에는 50대가 아니더라도 만표를 채워야 하는데 아마시[눈속임]해서라도 처리해야 하며 앞서 남는 경우는 뒤에 모자라는 경우를 대신 채워주는 형식으로 일을 하였다.

## 사례 2 ◆ 신중하고 세밀한 권양기 운전

핀사시(핀꽃이)는 고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향도가 권양기에서 끌어 올리는 것이 있는데, 그 밑에서 슈트 뺀 광차를 내오고, 3대씩 연결해 놓고 권양기가 빈 광차 3대를 내려주면 그 빈광차를 다시 가지고 들어간다.

3대를 권양기에 달아서 핀을 꼽고 신호를 보내주고, 항외에서 광차를 연결하

면 디젤카가 끌고 선광장으로 간다.

위에서 권양기가 올려주면 편을 빼서, 전차있는데 까지 광차를 내보내는 편사시는 통상(밑 1명 위 3명) 권양기의 속도는 약 5Knot 이다.

움직이는 광차에 편을 빼야 하는데, 빼지 못하면 광차 3대가 동시에 움직인다. 권양기와 편사시 중 어느 한부분이라도 잘못되면 사고가 발생한다.



〈사진 17〉 기계를 점검하는 장면(1970년경)

밑에서 신호를 하면 위에 벨이 3번 신호를 울리고 이를 올려서 바깥에 올려주면 선광장에서 디젤카가 오게 되고 100마력이면 3대를 동시에 가능하고,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에다가 짐을 짓고 바가지형 권양기를 쓰는데 올라오는 시간은 약 1분 3초인데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

수평으로 쪽 올라와서 광차를 들어줘야 쇧들이 쏟아지는데, 30cm 간격에 쏘을 여부를 결정한다.

권양기의 둘레가 5m라고 하면 회전에 따라 침이 움직이고, 침의 움직임에 따라 권양기를 움직인다.

권양기 운전자는 기술적인 면을 높게 인정해 주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은 거의 없었으며, 권양기 기계결함은 발생 즉시 조치하였고, 와이어가 닳아 바뀌야 하는 경우도 운전자가 결정한다.

권양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5~6시간 또는 10시간, 하루 정도 생산 불가능하다. 사무실에 출근 도장을 찍고, 퇴근은 일보 작성으로 후에 했다.

30년간 광업소를 다니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근을 했는데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과 협의를 해서 서로 맞바꾸어서 일을 대신 해주었기에 가능했다.

### (구술자 남문리 이인섭 68세)

#### 사례 1 ◆ 운동장 같은 만천장

수항에서 운반부 일과 착암부일, 그리고 바테리카를 조금 하다가 수항 400m 레벨에서 300m레벨로 들어 올리는 400마력짜리 권양기 운전을 한 3~4년 했다.

보직도 마음대로 돌려지는 것도 아니고 줄이 있어야 하고 운반을 하다 보면 체력이 따라주어야 하고 직접 뚫는 사람은 기술이 있는 배운 사람들인데 맨 처음 자격증은 없었고 조수로 따라 들어가 착암기술을 배운다.

#### 사례 2 ◆ 착암의 종류는 5가지

착암이란 것이 굴진을 하는 것인데

- ① 굴을 직접 뚫는 것
- ② 노머리 라고 해서 30도 45도 90도 등의 비스듬하게 각도로 뚫는 것,
- ③ 삭고 라고 해서 내려 뚫는 것,
- ④ 통천이라고 수직으로 뚫고 올라가는 것,
- ⑤ 만천에서 크게 뚫는 것이 있는데 그건 장공기라는 기계가 뚫는다(장공 대발파).

통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아시바(발판 구조물)를 메고 철사다리를 예를 들어 보통 10m~15m 정도 올라가서 양카를 박고 철사다리를 수평 매달리는 기계의 길이가 한 2m 정도 되고 그리고 노트 길이가 7~80정도 되는데 바닥에 다 양카 물고 철판 칸 다음 착암을 한다.

광석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하루 책임량이 둘이서 20개 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운반을 하며는 착암공보다 더 많을 수도 있었겠지만, 착암공은 위험수당이 붙고 화약관리도 하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더 많다.

### 사례 3 ◆ 만천판의 장공발파

만천판이라고 굴속에 어마어마한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공발파 할 때는 돌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떨어진다. 그럼 거기서 바위를 깨면서 일을 하는데 반대방향인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운동장 같은 광장으로 되어있다.

현재 양양광업소 올라가다 보면 새로 개발하는데 그 쪽 위에 가서 논화향 쪽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있는데 그 안이 모두 비어있기 때문에 무너져서 내려왔고 말았는데 그거 앞으로 더 물러앉아야 그 지역이 안전하다.

굴진을 1~2m 뚫으면 광석 다 못 캐 먹잖아 그러면 돌이 있고 광석이 있는 부분을 시추를 하고 조사를 다 하고나서 몇 백m가 광석이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뚫는데 1m, 2m 로 가볍게 뚫는 것이 아니고 크게 뚫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장공발파라고 해서 장공기로 한번에 30m, 40m씩 몇 십 개를 뚫고 대발파 한번 할 때는 작업을 다 중지 시킨다 했다하면 다들 궁금해 하나까 그럼 엄청나게 크게 터지는데 수황이 최고 크고 많았다.

#### 사례 4 ◆ 천정에 겨우 붙어있는 돌에서 낙반사고

돌이라는 것이 항상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겨우 붙어있는 것도 있다. 그럼 돌 사이에 흠도 끼일 수 있어 그게 저절로 내려앉는다.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발파를 해가지고 떨어지게 하는 것 보다 자연스레 떨어지는 것도 많았다. 거기 만천판 넓은 광장 같은 곳이 있는데 그 바깥에 안전한 곳에서 철을 캐면 철이 자꾸 주루룩 내려오고 거기를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아 낙반 사고가 많이 나는데 만천판에 옆면의 광석을 걷는 도중에 암반이 떨어져서 사고가 많이 났고. 그러다보니 운동장 같이 넓어진다.

#### 사례 5 ◆ 수항 권양기의 올라올 때 초고속은 400m에 1분 4초

수항 300m를 내려간 다음 수평으로 들어가면 계단식으로 항이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니 광차가 슈트에 갖다 붓고 밑에서 전차가 있는데 거기서 그 차가 싣고 슈트에다 부으면, 바깥에서 권양기로 잡아 당겨서 선광으로 내뺏는다.

권양기가 400m를 올라오는 시간이 1분 4초인가 초고속으로 올라오고 350m, 400m 깊이에 권양기를 끌어올리면서 펌프도 했지. 권양기로 끌어 올리려면 물을 빼야 하고 펌프는 스위치만 켜면 해결이 되었다.

## 9. 조사 시추

(구술자 구교리 박형석 58세)

### 사례 1 ◆ 광맥, 이상대를 찾아(자력탐사, 전기탐사)

조사과는 지하자원 확보를 위해 조사과가 존재하는데 측량계와 시추작업을 하는 조사계가 있는데, 기존에 광석을 채취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광석을 캐기 위해서 물리탐사(자력탐사, 전기탐사)를 하여 이상대(자철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이상대)를 찾아낸다.

자력탐사는 자성성분이 있으니까 수치가 높아지고, 전기탐사는 전류의 흐름이 빨라진다. 전체적으로 산 전체를 50m 간격으로 측정을 하다보면, 이상대를 발견할 수 있다. 이상대를 발견하면 시추를 하며 광업소 밑의 굴을 뚫는 경우는 없다.



〈사진 18〉 당시 조사과 측량

### 사례 2 ◆ 야외에서 600m, 항내에서 400m

야외에서 시추하는 경우와 굴 안에서 시추하는 경우 측량과 시추를 할 때 시추봉은 600m 까지 시추한다.

갱내에서는 최고 400m정도 까지 내려가는데 이는 해저 300m정도가 된다, 따라서 장승광업소는 해발 110m가 되는 셈이다.

갱내에서 수평으로 뚫는 장공 착암기로 시추하면 수평으로 6~70m정도 가능하다.

양양항, 도목항, 수항등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광석을 채취하였으며, 분석시료는 2~30%의 철의 함유가 대부분이었다.

### 사례 3 ◆ 시추기 무게는 500kg, 분리하면 장정 12명이 운반

현장에 있을 때 시추기 운반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들었으며 시추기가 철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품별로 분리 후 옮겨 재결합해서 작업을 했는데 대략 500Kg 정도로 장정 12명이 들고 옮겼다.

철탑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양작업 중 인양물이 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갱내에서 장공착암기를 이용해서 작업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골재 작업하는 도중에 돌이 떨어지는 낙반 사고가 발생하였다.

### 사례 4 ◆ 강현면 둔전리의 40% 고품질 광맥탐사

조사과에서 기존에 있는 광산뿐 아니라 가라피, 화일리, 둔전리 지구 등으로 시추하러 가기도 한다. 갈천이나 북암리 근처에 지질조사를 했다.

둔전리 탐사에는 3층석탑 못 미쳐 큰 평지 안쪽의 산 부근 송암산이라고 댐 가기 전의 장소에서 40%의 고품위 철 성분을 함유한 철이 매장된 광맥이 한 2~3m 정도 됐는데, 시추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때 대한철광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조사과가 사라져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조사과는 1년 365일 3교대로 지질조사 및 이상대 탐사를 한다. 조사과는 직원이 40여명 정도 이고, 다른 과 보다 젊은 사람이 많아서, 친목관계가 좋았다.



조사과는 이상대를 찾을 명목이 사라져, 폐광하기 한참 전부터 없어졌다.

그 후 갯도 지질 조사를 하고, 도면을 만들고 나서, 이상대가 있으면, 광업진흥공사에서 하청을 주어 시추를 했다.

## 10. 토건실 중장비 운행

### (구술자 강승리 최덕실 67세)

#### 사례 1 ◆ 전국구 주먹들의 일자리 와 주먹들의 의리

내가 65년도 5월 10일에 들어갔는데 그때 종업원이 2,000명 이상이 됐었다. 그런데 회사에 깡패들이 우글우글 한 거야. 그 깡패들이 내가 담당하는 토건실에 있었는데. 그 깡패들은 서울사람들과 전국구에서 사고 낸 사람들을 여기다가 내려 보낸 거야.

어지간한 사람은 한 5개월에서 1년 이렇게 있다가 갔지. 근데 나하고 토건실에 근무한 깡패 출신이 하나 왔다가 설악산 절에 총무로 가기도 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다 온 것 같았다. 제주도서부터 뺄 있는 사람, 주먹질 하던 사람들도 다 온 거야. 그때 대한철광이라면 직장이 공무원보다 훨씬 좋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근무하다가 내가 한 7~8명 정도 데리고서 일시키고 했는데, 근데 일은 잘하더라. 주먹질하는 사람들이 의리는 있어요. 1년이 지나면 갑니다. 그리고 소주 한잔하고 가고 그랬지. 깡패들이 오면 총무과에서 대부분 경비로 많이 시켰다.

## 사례 2 ◆ 광산 사택과 장승리의 생활상

붕화료(노무자), 설악료(사원)라는 사택이 있었는데 독신자(홀애비)들이 사는 기숙사도 있었다. 임시부 부부는 사택 들어올 때 진짜 힘들다. 상시부(고입)만 여기에 얻을 수 있어. 사택 한 칸 다락방에서 자고 애 둘 셋 있는 사람들은 진짜 고생 많았어요.

매달 15일 봉급이잖아 그때 당시 돈으로 양양에 약3억이 풀린 거야.(현 30억 정도) 여기 장승리에 색시집이 5집이나 있었고 색시들은 7~8명씩 데려다 놓고 그랬지. 상평도 봉지/상내지 등 한 서넛 군데 색시집이 있었다.

광업소가 잘 될 때에는 양양에 술집으로 성이 안차서 속초 나가서도 먹고 들어왔다. 갑을병 3교대 할 적에 갑이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5시에 퇴근하면. 집으로 안 들어가고 술 마시다가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경우도 많다.

바로 위에 육고점 밑에 막걸리 집 있었고. 육고점에서 회사에서 두 번, 한 달에 돼지고기 두 근씩 끊어 주는데 목구멍에 먼지하고 때를 베껴내라고 주는 그걸 술 좋아하는 사람은 돼지고기 바꿔주고 돈 받아서 그걸로 술을 먹는 거야. 이 상평 초등학교 앞에 슬레이트 딱딱 짤라 불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고기를 구어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지 지금은 플라스틱 댕 병이지만 그때는 유리로 만든 댕 병을 갖다놓고 먹고 그랬지. 그 돼지고기 표(한 달에 2개)는 임시직이고 고입이고 다 줬지.

광산에 극장이 있으니까 젊은 남자 여자 많이 모이고. 그 당시에 양양에 목욕탕이 없었잖아. 근데 광업소에는 있었잖아. 그래서 종업원들한테 한 달에 몇 장씩 목욕표를 끊어 주는거야 그러면 양양에 사는 종업원들 가족들이 목욕을 하러 많이 오고 그랬지, 종업원 아니더라도 표만 주면 넣어주니까.

### 사례 3 ◆ 광부의 해고

80년대 전에도 그랬지만 그 후부터 종업원들을 한 번에 한 200명 잘랐잖아. 포항에서 광석이 비싸고 하니까 그것이 빌미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때는 그것이 해고 조건이 안 되었다고. 그리고 당시에는 투전질을 많이 하게 되면 결근 하잖아. 그럼 그런 사람도 200명이 안되잖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감독이나 주 임들한테 밍게 보인자를 살짝살짝 얘기해 주는 거야. 그때 200명 추렸을 적에 한 일주일 동안에 데모하고 살인사건 날까봐 사복 경찰들이 들어오고 그랬다. 근데 그 후부터는 차츰 차츰 줄어드니까 ‘다음에 내 차례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들하고, 과장한테 잘 보여서 더 있고 그런 사람도 다 있었다.

### 사례 4 ◆ 광업소의 재개발 히토류가 ?

그때 당시 광업소(대한철광) 땅이 19만평이야. 그 도면을 내가 토건실에서 측 량이랑 설계한 도면이 다 있었잖아. 폐광되고도 내가 좀 갖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요새 좀 아쉬운 것이 여기를 새로 개발하잖아. 그게 있으면 좀 유용하게 써 먹을 텐데 다 버려서 없어지고 말았지 하긴 폐광이 된 마당에 그걸 놔두면 뭐 하나.

기념으로 전화기하고 간드레 하고 노미하고 갖다놔지. 기념으로 갖다놓고 MBC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해가고 돌도 한 4~500m 지하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돌을 수십 개를 구해 놔는데, 지금 보면 새롭지 뭐.

그때 광업소에서 히토류가 나왔는데 발견을 못 한 거지. 근데 지금 광업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지원을 받아 히토류와 철광석을 슬슬 개발을 하긴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광산이 잘 되어서 이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요.

### 사례 5 ◆ 논화항에서 불을 때면 탑동에서 연기가 난다...

논화항은 덕대가 하다가 폐광을 했고, 탑동은 도목항 쪽에서 들어가서 캐냈지. 거기에는 압기실이 있어서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 명칭은 없고 탑동이라고 했다.

지금도 보면 도목항에서 거기에 맞춰 놔가지고 쉽게 말해서 여기서 불을 때면 연기가 그쪽 항의 구멍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논화항과 탑동하고는 갯도가 연결은 안 되었지만 서로 구멍이 나 있어 논화항에서 뭘 하면 탑동에서 공기나 연기 같은 것이 풀풀 난다는 것이다.

### 사례 3 ◆ 불도저, 그레이더, 페이로다, 포크레인, 지게차 면허취득

1965년도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사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시멘트 통 벽들로 지어준 집이잖아. 광업소 초창기 새 농촌 건설사업 할 때 면에서 부락 동네에 마을 회관을 지은거지. 솔직히 군청에서 지어준거나 다름없지.

토건실은 장비 운전을 해야 되니 춘천 소양강 다리에 가서 불도저 면허를 땀어. 그런데 선광에 있는 도저하고 똑같더라고 근데 거기는 50m를 왕복해야 합격인데, 시험관이 도청에서 하나, 인천군부대서 장교 하나, 원주 국토 관리청에서 하나 해서 3명이 나왔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도저를 몰고 가다가 내려오라고 하면 끝이거든.

기사가 옆에 타. 나라샤 하면서 50m 돌아서 올 때 파도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타면 질문을 해. ‘당신 어디서 좀 하다가 왔냐?’ ‘광업소에서 한 1년 하다가 왔습니다.’했어. 1년뿐이 안한 사람이 뭐 이렇게 잘하냐고 그러더라고.

합격한건 맞는 것 같은데 시험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한명 뿐이니까 하루정도 여기서 조교로 더 일 해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시험을 3일 동안 보는데 회사에 시험을 본다고 하루밖에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디에 얘기해야 하냐고 그래서 총무과에 얘기해야 한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사진 19〉 대한광물 증장비를 운전중인 최덕실씨(2012.9)

그래서 총무과에 얘기해주고, 다음날 한나절 하고 나니까 3,000원 주더라고. 가다가 차비하고 무엇을 사 먹으라고. 그 때 당시에 면허증을 찾으러 와야 하는데, 당신은 찾으러 오지 말고, 보내 줄 테니까 하더니 20일 정도 있다가 붙여 왔다.

면허 시험을 보고 왔지만 난 조수니까 봉급이 얼마 안 되잖아. 그런데 70년도에 그 기사가 다른 데로 가면서 뒷사람에게 내가 일 잘하고 그러니까. 내 봉급을 주듯이 애에게 주라고 해서 말만 들어도 고마웠지.

그 후 원주로 가서 페이로다도 많이 배우고 면허도 또 금방 따게 되었고. 76년도에는 포크레인, 지게차 그 면허증도 다 따 버렸다.

광업소는 도저, 페이로다, 그레이다 세 개만 써 먹었지. 그때 당시는 그레이다와 도저 면허를 내면 같이 통합이 되다가 얼마 안 있다가 분리가 되었다.

근로자들은 휴일이(공휴) 한 달에 두 번, 교대 자체로 쉬었다고 보고, 일반 사원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쉬고 그랬다.

광업소에서 그때는 체육대회를 많이 했지. 축구, 배구는 도 대회 가서도 우승 많이 했고. 삼미광업소 때에는 야구 도 했다.

## 사례 7 ◆ 광업소의 대민지원 사업

광업소에서 불도저 할 때 그때는 포크레인도 없었다. 그래서 기름 값이랑 잘 챙겨주면 가서 일을 해 주었는데 거의 무상으로 해 주었다.

한번은 현북면을 나갔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나무다리가 없어졌거든. 그때 가서 작업을 해주는데 12ton 차에 앵메리를 통째로 싣고 올라가는 길에 천천히 와서 하는데, 처음서부터 기어를 2단 1단으로 가서 하는데, 건너가다가 기어 변속을 한다는 것이 차가 울컥하면서 그 문짝이 헐레레 하고 열리는 바람에 앵미리가 한 반 이상 흘러 내렸다. 그때 사람들이 개울을 보더니 개울이 하얗타 반 이서 그때 현북 사람들이 앵메리를 잘 주워 먹었고, 나도 좀 갖고 오긴 했지.

그때는 그레이다가 가지고 많이 지원 나가면 대부분 비포장이어서 수산 가는 데서 일을 했는데, 서문리 김창호씨가 군청 지역계획계장 할 때 그 분이 술을 진짜 좋아 했지요. 그리고 손양면 동호리와 상운버덩에서 새마을사업 일을 제일 많이 했는데 일이 끝나면 닭 잡아 주고 촌에서 누룩으로 만들 막걸리 대접도 잘 받아먹었으며, 6개 면에서 광업소 도움을 안 받은 곳이 없었고, 동우대학교 운동장 거기도 내가 그레이다로 닦아 주었다.

## 11. 궤도설치

### (구속자 논화리 항동근 74세)

#### 사례 1 ◆ 철길을 놓는 궤도부(레일의 종류와 공구)

궤도(철로)를 놓는 레일은 24파운드, 18파운드, 12파운드짜리가 있는데 철을 깨먹는 통로가 생길 때 마다 놓는데, 레일을 놓는 일은 레일을 휘(굴곡)는 작업이 제일 어렵(주기술)다. 궤도를 설치하는 자재는 레일, 침목, 징구루, 스파킹,

벤시, 볼트가 있고 공구는 빠루, 홉빠(괘이), 게이지, 망치 등이 있다.

24파운드는 삭꼬 경사용 광차 선로이므로 견고하여야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쓰는데 2인 3개조 6명과 운반 부 인원이 모두 모여서 1구미(조)를 놓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

### 사례 2 ◆ 막장의 레일운반 너무 힘들어

18파운드는 막장으로 들어가는 수평용으로 1개조 2명이 레일을 까는 시간이 약 2시간 반정 걸리고 12파운드는 만천관 2중단에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45도 경사로 레일을 올려가지고 놓는데 일의 단도리(준비)가 다 됐으면 1시간이면 놓고 네루를 휘어서 일할 때에는 약 2시간 걸리는데 오전 1구미를 놓고 오후에 1구미를 더해서 2번 놓는데 굴속의 레일(철로)길이는 철을 캐먹는 막장 굴속까지는 약 100m에서 150m 이다. 그리고 레일을 중단 막장으로 올리는데 천관이 낮은데는 고개를 옆으로 찌구려야되고 또 간드레 까지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굴 안이 꾸불꾸불하니 레일 이 이쪽으로 부치고 저 쪽으로 부치고 머리다가 쓴 화이파가 벽에 막 부딪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 사례 3 ◆ 갱 심지지 너무 짧아

입사 한지 열흘도 안됐는데 운반부 때 나보다 한 30살이 더 먹은 분이 나보고 따라오라구 그리는데 가서 굴천장 꼭대기 위를 치다보니 어르신이 대구리를 가지고 망치로 뚫어서 갱 심지를 다 쑤세 박았는데 구멍에 열 다섯개 박아 놓았더라고 그리고 사다리로 올라가서 내려다보고는 내가 불을 다 붙이거든 나하고 사다리를 치우고 나가자고 그러는데 심지에 불을 붙여 낸 것을 보니 너무 짧게 해가지구 불을 붙여서 가슴이 두근두근 그리는데 그때 어린 맘에 근방 터질 것 같아 눈 깜짝 할 사이에 사다리고 뛰이고 심지를 확 잡아 땡기고 어른이

야 죽건 말건 고구찌(坑口) 쪽으로 쫓겨 갔다. 예전에 황어를 깡으로 잡을 때 심지를 짧게 붙이는걸 봐왔는지라 저기 터지면 돌이 무너져 내려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고구찌에서 한참 있어도 안 터졌는데 얼마 있다가 몇 방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양반이 깡이 터져 죽은 게 아니라 사다리가 치워져서 떨어져 죽은 것만 같더라구. 나중에 죽기 살기로 들어가니 그 어른이 호인인데 에이 이 사람아 하고 말아요. 그 어른도 미쓰를 했지. 심지는 1m50cm 이고 구멍속으로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피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설명을 했어야지.

운반부 때 2중단에서 굴이 짹 우루루 무너져서 내렸는데 이슬이 내리는 것을 사전에 발견해서 빨리 피해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짹 죽을 뻔 했지, 그때 표창도 받았었지. 그리고 처음 들어가서 운반부 때 어레이를 가지고 오라고 그리는데 어레이를 오리로 들었으니 생전에 오리가 어디 있어야 말이지 그런 일이 다 있었지.

#### 사례 4 ◆ 일제 때 굴속 괴인 물에 오리를 키웠다

일제 때 광업소 댕기던 분들이 우리사랑방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굴속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 굴속에 물이 괴어 있는 데가 많았는데 거기다가 오리를 키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 사례 5 ◆ 천양회사와 덕대

출퇴근은 대부분 걸어서 했는데 간혹 퇴근 시에는 논화항 에서부터 논화리 가계 골까지 관통(1965년경에 약 600~700여m)을 시킨 맞창이 난 굴이 있는데 추운 겨울에는 굴속이 따뜻하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여 퇴근할 때에는 간드레를 들고 퇴근을 했는데 약 30여분 정도 걸렸다.





〈사진 20〉 광산 논화갱과 연결되어 있는 논화리 가재골갱

### 사례 3 ◆ 한국전쟁 시 가재골의 실화

논화리 입구에서부터 마을을 지나 약 3km지점의 가재골에는 일제 때 개발을 하려고 뚫은 굴이 3군데나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에 굴은 쌍 굴이고 길이는 대부분 10여m 미만의 굴들이 있는데, 한국전쟁 당시 논화리 마을에 저의 가족을 포함한 3~5가구의 15여명이 이 굴들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굴에 피난을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국군들이 와서 총으로 공포를 쏘는지라 사람들이 굴 밖으로 나오자 국군들이 몸수색을 하는데 저의 부친(황봉염)이 공민증(북한에서만 17세 이상의 성인에게 주어지는 신분증명서)을 미처 버리지 못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군에게 총의 개머리판으로 맞았지만 다행스럽게 위험한 고비를 넘긴 후 오랫동안 몸이 아파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 12. 태평실 및 선광검양

(구술자 언창리 백태권 82세)

### 사례 1 ◆ 반공포로 출신이 근무한 태평실

평안남도 덕촌 출신으로 반공포로로 나와서 57년도부터 군사 혁명 때 까지 재직.

55년도 양양광업소 초대 사장 백홍석(평안남도 덕촌 출신)이 전역과 동시에 상공부에서 초대 사장으로 왔다.

55, 56년에 철을 캐기 시작했고, 일본에 유태화가 우리나라 대사인데, 그때는 철을 일본사람들이 사가지 않아 산더미처럼 쌓아놓기만 하지 수출은 하지 못했다.

일본 미쓰비시에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 문을 닫을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었으나 수출 활로가 없어서 사람을 줄였다.



〈사진 21〉 당시 철광석을 하역하는 모습(1957년경)

영주에서 노무자 100명을 받았지만, 임금을 돈이 아닌 쌀로 내주었다.

58~9년도에 다시 수출활로를 찾았으며,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일하게 되었다. 한때에는 선광장에서 철을 실은 차가 태평실로 오면 무게를 달아보고 톤수가 미달되거나 초과되면 태평실 앞에 있는 철을 어레이[철사로 만든 삼태기]로 퍼 담아서 차에다 발판을 놓고 타고 내리면서 규정 톤수를 채워서 보냈는데 나중에는 그냥 무게만 달아서 차를 보냈다. 철은 통상 한 학구에 2Ton 정도 나갔다.

차 드나드는 만표를 했고 20톤 짜리 태평으로 차량 무게 측정을 하였다. 태평실에서 부조리에 대한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다.

## 사례 2 ◆ 대포 외항에 화물선이 좌초되다

태평실은 2교대. 12시까지 8시간 근무한다. 늦게 들어와도 저녁 6시면 끝이 났고 태평실과 연관이 있는 속초 사무소도 광석 취급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당시, 속초 출장소에 하역을 하고, 배에 실어서 목호까지 가는 루트와, 속초 부두에서 대포항까지 작은 배에 철을 싣고, 본선(일본가는 배)에 적재를 했다. 대포 앞 바다에 철을 싣는 배(5000Ton)가 암초에 걸려서 물에 빠진 적이 있었다.

### (구술자 서문리 한중성 83세)

## 사례 1 ◆ 이북서 피난 나온 노무자들

회사에서 국가 유공자라고 해서 입사하게 되었다. 내 몸이 좀 불편하니까 업무에 있어서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자리로 옮겨주니까, 일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상이군인 경비들과 노무자들을 포함해서 2~30명이 같이 근무했다.

광업소 일하면서 노동자들이 월급일 이전에 가불을 해가서 술집에서 술 받아 먹고, 그러다가 돈 없으면 가서 외상으로 먹고, 다음 월급날 되면 외상값 갚 거라 다시 가불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다.

## 사례 2 ◆ 남녀가 눈이 맞아 소문이

수선부들이 선별하는 걸 그땐 손으로 다 골라냈다. 폐석을 여자들 양쪽에 마주서서 폐석을 골라내지만 남자들도 그 모퉁이에서 벨트를 조정하는 일을 하면서 서로 어울려 일을 했다. 그 속에서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 누구누구와 연애한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난다. 이북사람들도 더러 있었고, 당시 피난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 아군들이 압록강 까지 갔다가 후퇴할 적에 대부분 휩쓸려 나온 사람들인데 월남한 사람들도 여기 광산 사람들과 똑같이 일했다.

### 13. 속초 출하부두 광석운송

#### (구속자 서문리 최선권 77세)

## 사례 1 ◆ 일정 때와 인공 때 버린 폐석더미에서 일을 시작

그때 우리 동네에 사는 이재수 아버지가 향장이여서 서문리 사람들이 광산에 많이 들어갔다.

그 당시 18, 19살 되는 사람들이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군대 갔다가 와서 다시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

인공 때도 광업소에 다니던 사람이 수복 후에도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일을 하였고, 인공 때 생산한 철을 6.25전까지 솔개미차에 광석을 실어 담아서 광산에서부터 내곡리 모루골을 지나 청곡리 쪽으로 세워놓은 철탑 쇠줄 로프에 솔개미차가 매달려가서 옛날 기차 정거장 옆에 설치한 조구통에 쏟아 놓으면 그걸 열차가 가져가고, 바쁠 때는 열차가 광산에 와서 실어갔다.

일정 때와 인공 때 철 함량이 부족한 쇳들은 다 갖다 버렸잖아. 거기를 폐석장이라고 인부들이 썩이를 가지고 긁어가지고 구르마로 실어내서 다시 해 먹는 거야. 그거를 대한철광이 생기면서 광석이 나오니까 여자들도 조를 짜고 가서 도급 일을 했다. 그때는, 몇 톤 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무게를 키로(kg)수로 달아서 계산을 하는거야. 그리고 쇳들을 질통에 넣어서 지고서는 몇 개씩 했다. 그렇게 도급 일을 했지만 한 달에 3~4,000원 밖에 안됐다.

폐석을 물로 선광을 하는데, 폐석이 나오는 걸 곡괭이로 댕방에 퍼 담아 내고 그랬다. 탑동골과 장승리 골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서 쇳 가루가 토사처럼 흘러 내리면 그게 점점 쌓이면서 침전지 생겨가 생겨 난다. 거기에 기계 시설물이 들어서고 광석가루를 모으는 일을 했다.

## 사례 2 ◆ 임시부로 운전 시작

그다음에 선광장에서 정식 임시부도 아니고 그냥 임시부로 일당 주고 일을 시켰는데 그때 마침 버스는 있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날 운전을 시켰지. 근데 뺑 이 없어서 정식이 되지는 않았지만 밤에 몇 번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 날은 추운데 히타가 있나 뭐가 있나 운전석 안에다가 숯불 피워 가지고 작업장 실어내고 실어 주다보니 보수가 조금 나아졌지. 일 싫컷 부러먹고 돈은 적게 주려고 임시를 많이 썼는데 그때는 내가 회사에서 운전만 한 4~5년 했지. 일반 면허증이 없으니까 밖에서는 못하고 광업소 내에서만 운전을 했다.

그때 차는 GMC 8톤 15대가 들어오고, 69년도에 납작한 포드차 2대가 구내 작업용으로 들어 왔고, 10월에 양양에서 속초까지 운반하는 8톤짜리 3대가 들어 왔다.

일반 차들이 광석실어 속초로 운반하고 다시 배로 실어 났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자꾸 타산이 안 맞으니까 회사에서 직접 차를 들여오고 임시부로 몇 년 있다가 회사에서 날 정식으로 시켜주었다.

광석을 속초로 실어 내는 일을 시작했는데 1일 기본 6회 운행하고 더하게 되면 추가 수당이 있었다. 운행 중 애들이 튀어나오면서 사고가 나서 속초 경찰서 유치장에 42일 동안 있었던 적도 있었다.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못 태우게 했지만, 길거리에 나가면 아는 사람도 태우고 그랬던 적도 많았다. 도로가 포장 안돼서 속도가 빠르지 못했고 대포 고개를 넘을 때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알고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올라타면 알면서도 그냥 가서 속초 학교 앞에 내려주곤 했다. 그때는 학생들이 몇 십리는 걸어서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차량에 대한 보험은 회사에서 보장했지만, 사고에 대한 운전자 보험은 개인이 졌다.

사고에 대한 보험료는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그때에 자동차 보험이 좋은 것을 알았다.



〈사진 22〉 당시 철광석을 상차하는 모습(1957년경)

### 사례 3 ◆ 운전 면허시험 합격

차량운전을 하기 전에 권양기에서 슈트로 달아 올려서 신호만 받아서 운전하는 거를 했는데. 거긴 초창기니까 권양기 기계공들이 셋이서 교대하고 감독도 없어. 근데 그렇게 교대를 하다가 난 어차피 운전수로 나가야하겠다 해서 수요 일 저녁에 자동차 면허시험을 여기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보러가니 춘천고등학교에 가서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길 가니 코스장도 없는 거야, 학교 운동장에 깃발 꽂아 놓고 거기서 시험을 봤는데 옛날에 군대식 쓰리쿼터 차인데 그걸로 면허시험 봤는데 떨어져서 내려온 거야.

그 다음에 원주에서 시험 봤는데 떨어져서 안정제 사먹고 들어갔는데, 그게 또 왜 그렇게 잘 되던지. 척척 하니까 한 번에 다 돌아가니까 딱 붙었지.

면허증을 따서 광업소에 와서 원래 운전하던 기사가 면허증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몰래 나 면허증 따왔다고 소문을 냈거든. 그 때 벌써 기본급이 높은 고임이 되고난 후부터 광업소에서 속초까지 철을 실어다 주는 일만 했다.

## 14. 창고 자재관리

### (구술자 서선리 이달형 78세)

#### 사례 1 ◆ 부속품 자재가 1000여 가지

양양항은 1,2,3,4, 5번 항까지 있었다.

양양에서 나오는 모든 광석을 운반하는 150마력짜리 권양기가 있었다.

양양 광업소에서 최초로 레일을 타고 에어로 광석을 퍼 실는 페이로드를 사용했다.

페이로다로 레일을 타고 정통을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권양기로 끌어 올렸다. 예산 관리실은 양양 광업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재 입출 관리를 한다. 콤프레샤는 100마력, 200마력, 600마력(일제, 독일제) 발전기도 100마력부터 600마력 까지 있었다.

부속은 7700가지 정도 되었는데, 자동차 페이로다 등의 부속품의 가짓수와 전기 부속품만 1,000여 가지나 되었다.

항내를 드나드는 차량은 배터리를 이용해서 다녔으며, 항외를 운행하는 차량은 궤도 위를 다니는 디젤카, 그리고 일반차량은 승용차, 5톤, 6톤, 9톤 차는 몇 대 없었으나, 15톤 차는 30여대가 있었다.

자재담당은 채광부서도 있고 공부부서도 있고 선광부서 각 부서에서도 각 각 자재 담당자들이 다 있었고, 전표를 통해서 자재를 받아갔다.

전표에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데, 도장이 닳아서 없어질 만큼 바뻐다.

자재창고가 1, 2, 3, 4, 5창고까지 있었고, 유류 창고가 하나 있었으며. 크기는 약 50평 정도 있었다.

창고 안에 종류별로 정리를 해 놓고, 이름표를 따로 다 붙여 놓았고 이름표를 붙이기 위해 야근도 하였다.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필요에 의한 자재요청을 하면 꼬리표를 붙여서 바로 정리해 놓아 찾아가기 쉽게 만들었다.

## 사례 2 ◆ 국회의원들 회계법인이 감사를 나왔다

그 당시 감사는 국회의원들이 회계 법인들을 대동하고 나와서 감사를 하였다. 회계 감사를 나왔는데, 회계 차액이 2원 발생해서 기합을 주기도 했다.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2원의 차이를 찾기 위해 이틀 밤을 새웠다.

자재관리에는 3명이 있었고, 1명은 과장이었고, 2명에서 일을 했다. 자재 관리실 근무자는 자재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두통에 많



이 시달렸다.

막바지에 광업소에서는 자재창고에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새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

광업소에서는 한국 전력에서 내어주는 전기 뿐 아니라 광업소 자체에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사용하게끔 장려하였다.

사무차장 밑에 총무과, 노무과, 경리가 있었으며, 예산관리실은 사장 소장 직속 사무실이었다.



〈사진 23〉 당시 자재창고 모습(2010.5.12)

### 사례 3 ◆ 강릉상고 출신의 경리계 직원들이 구인광고 붙이러 다녔다

사무실 사람들은 강릉상고 출신 경리계통이 많았고, 예산관리실에서 구인 광고를 고성에서부터 강릉까지 일일이 다니면서 광고지를 부착했다.

신입 사무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교육을 시켰으며, 현장 실무자는 사고 예방 교육 및 현장 실습을 하였다.

구인 광고 부착 후 홍천하고 고성사람들이 많이 왔다.

퇴직할 즈음에 광업소에서 울산으로 여행 겸 산업시찰 등을 시켜줌. 또 3일간 경주 시찰을 함. 광업소가 사람이 한창 많을 때는 노동자만 1600명 까지 됐다.

#### 사례 4 ◆ 50인층의 유래

50인층이 탐동에 들어가게 되면 대밭 골로 가는 길이 있고 진골로 가는 길 양 갈래로 나뉘져 있다. 좌측 길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양주 개발에서 한 500m 가면, 고심철 이라고 하는데 가 있는데, 옛날 할아버지들이 쇳돌을 캐가지고 흑간리(거문간)에 올라가서 안산 절터에 좋은 물이 흐르는데 그 물가에서 쇳돌 녹여가지고 나온 곳이다. 다시 말하면 풀무간으로 사용하는 광산을 개발하기 전부터 제일 먼저 뚫은 굴이라고 한다.

왜 50인층이냐고 하나면, 시대는 알 수 없는데 광부들이 쇳돌(광석)을 캐러 패랭이를 50개 벗어 놓고 굴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굴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굴을 50인층이라고 불렀다.

## 15. 경비실 업무

### (구속자 연창리 김정환 73세)

#### 사례 1 ◆ 양양철광 경비의 임무

68년부터 94년까지 재직 했다. 경비 업무는 광업소 재산보호와 외부인, 차량 출입 여부를 관여하고 자재창고 2동(값비싼 물건이 많았음)와 광산의 재산보호 및 화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경비는 초창기에 30여명이 근무하였으며, 초소는 3개(1초소, 2초소, 5초소)초소로 장승리가 1초소(3교대 1명), 작은 굴 쪽 2초소(3교대 1명), 사향골 산등에 5초소(3교대 1명)가 있었으며, 광업소 총무과 앞에 경비실(고정 3명, 3교대 7명)과 야간에 화약취급소에 순찰조가 1명이 있었으며, 주간에는 8시간, 야간에는 매 시각 광업소 창고의 보안단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순환근무 수행 하였고, 향내를 제외한 모든 지역 순찰 하였다.

각 초소별 초소일지를 작성하였고, 경비실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상급에 보고를 하였다.

### 사례 3 ◆ 무장공비 침투 후 총과 실탄 휴대 근무

예비군 창설되고 1968년 1월 21일 북한에서 무장공비(김신조)가 침투 당시 주 업무가 무기고 경비 업무였는데 M52리는 경비용 총(카빈총)과 실탄을 휴대하고 경비를 섰으며, 기간은 대략 2~3년 정도이었고 경비 교대 시간은 아침 8시, 오후 5시, 밤 12시였다.

도난사고에 대하여서는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소소한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는 있었으나, 자재 등의 물건을 매매 용도로 훔쳐 가는 경우는 없었다.

양양광업소 극장에서 불이 난적 있었으나, 광업소 내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었음.

작은 굴 초소 옆에 있는 태평실 에서는 차량으로 광석을 측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광석차는 측정 후에 전표를 끊어 갔다.

임금은 광업소 내 노동자에 비해 임금은 적었다. 경비실 근무자도 임시로 지내다가 고입으로 변경되는 자도 있었다.

명절 등을 포함해서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었다.

임금은 적어도 출근하면 노동을 하는 근로보다 일이 수월하기 때문에 광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던 자리였다.

## (구술자 서문리 이정현 75세)

### 사례 1 ◆ 오종(午鐘)이라고 불렀던 양양광산의 사이렌

한때 광산에서 1975~1979년도로 기억되는데 그때 경비실 소관일로 사이렌[그때 양양사람들은 주로 오종이라고 불렀음]을 울렸는데 비상계획부에서 실시하는 민방공훈련과 현충일행사 중 묵념을 할 때 울렸고 매일 정확하게 정오 12시가 되면 울렸는데 그 사이렌 소리가 양양은 물론 강현면 양은 들러 산과 들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오종은 점심시간을 알리기도 하는 애환이 서린 소리이기도 하였는데 그 사이렌은 1초소 뒤에 있었으며 광업소에서 폐석을 제재소 뒤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내려오면서 버리게 되자 사이렌 설치대가 폐석 산 더미에 묻히고 말았다.

## 16. 서문리 광부들의 이야기

(서문리: 강교연 74세, 김강래 78세, 오용병 85세, 이용석 76세, 이의삼 76세, 이정현 75세, 정연덕 76세, 최선권 77세)

### 사례 1 ◆ 착암공의 하는 일

56년에 도목항에 바로 들어갔는데, 임시부 없이 바로 고입으로 들어갔다. 막 장 들어가니 그맘때는 도목항이 쌍철로 되어 있고 목 구르마로 광석을 옮겼는데, 바퀴는 쇠바퀴이고, 나무로 만든 목 구르마로 운반을 했는데 갱도(抗道)가 넓어 쌍철 길로 되어 있어 구르마들이 서로 교행을 했다. 항 입구에서부터는 수평인데, 고개만 넘으면 내리막 이였고, 움푹이다 보면 네루가 흔들려서 어긋나면 탈선도 해서 넘어지면 구르마를 다시 세우고 광석을 퍼 담아야 했다.

구르마 운반은 둘이서 하고 학구 뒤집어 썬위 놓고 빼 낼 때는 왜서 빼 내나 하면 발파하다 보면 큰 덩어리도 나오고 부스러기도 나오잖아 그럼 학구를 얹어놓고 빼놓고 이런 나무관 대고 굴려서 목 구르마에 싣고 큰 거는 썬위놓고 댕방으로 작은거는 실어 담았다. 상황에 따라 착암공들이 발파를 해놓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광석 싣는 일을 거들어주기도 하였다.



〈사진 24〉 당시 근로자들과 대담중인 양동창 문화원장(2011.9)

## 사례 2 ◆ TY착암기와 TA착암기

수평에 들어갔을 적에는 왜정 때, 인공 때 그들이 해놓고, 수복 후 양양광업소 적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1층, 2층식이래요. 위로 구멍을 뚫고 사다리로 올라가지고 막장을 뚫을 때는 자그마한 딸땀이 같은 걸로 싣고 그걸 받아가지고 나오고 그랬으며, 그 맘 때는 TY하고 TA라고 하는 착암기로 굴진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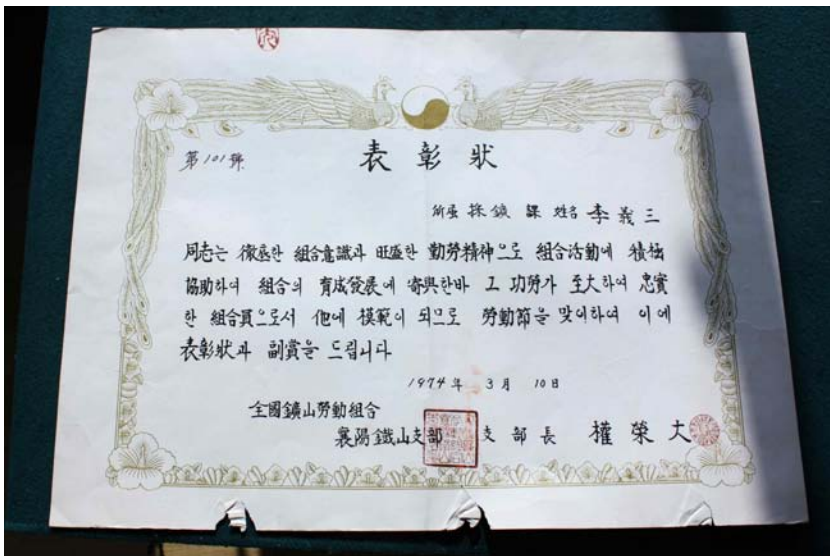
동발 받치는 걸 지지부라고 하는데 그 나무를 갖다 세울 적에는 밑 등지를 올라가게 하고 꼭대기를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위를 넓적하게 해가지고 받치고 들어가면서 설치했다.

이론적으로 막장 뚫을 때는 TY가 가벼워요. 그러면 그 선배들이 할 때에는 꼭대기는 휘어서 집어넣으면 몽땅 터져서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 그런데 학술적으로는 맞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 이게 가벼우니까 힘으로 누르자니 힘이 든다고, 그래서 힘 있게 가운데 뚫는 것 보다 막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 쉽더라고, 그래서 쉽게 하고 한 막장만 잘 뽑아내고 그랬다.

그때 착암기계 할 때 한 달에 5~6만원 받았고, 공무원들은 그때 2~3만 원 정도 받았으니 웬만한 공무원 웃 웃받았다. 그때 집에서는 5,000원이면 한 달 생활비가 되어 살았다. 그때 돈 모았으면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 사례 3 ◆ 학력은 필요 없고 구르마를 잘 밀어야 뽑는다

이하형씨가 도목항 항장 할 때는 운반하는 사람 고를 때는 경력, 학벌 이걸 안 보았다. 선광과에 목구르마 앞에 쪽 세워놓고, 구르마 밀어보라고 하고 그러고 사람을 뽑았어요.



〈사진 25〉 당시 이의삼씨 표창장(1974.3.10)

굴 안에서 쓰면 안 되는 화약을 가지고 발파를 하다가 사람 2명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화약을 터뜨리고 냈는데, 사람이 안 나와서 우리가 뒤따라서 올라가다보니 올라가던 사람이 획 쓰러지고 정감독도 획 쓰러져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를 확 뿌리고 올라가서 둘을 실어 냈는데 결국 두분은 돌아가셨지요.

굴 안에 휴게실 시설에 식탁도 해놓고 의자도 놓고, 거기 보면 전기 콘노[일본어: 히터]로 달궈서 위에도 라면도 끓여 먹고 밥 싸온 사람은 밥도 데워서 먹고 그랬는데 그 안에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다.

착암기를 조립하다가 에어펌프가 터지면서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작업을 못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착암기에서 일 못한다고 하고 목수 조수로 선광과로 들어갔어요.

선광장 건물이 3층까지 있고 거기에는 철광석을 갖다 붓는 슈트가 있어요, 거기에 광석을 슈트에 실어서 보내는 과정인데, 손이 벨트에 잘못 걸려서 끌려 들어가서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사고 난 사람은 기본급에 의해 일정부분을 주었고 호프만방식, 게르만방식. 두 개의 계산 방식이 있는데,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내용을 알지 못 했다.



〈사진 26〉 당시 이용석씨 표창패(1982.7.1)

임시부로 3개월 동안 일하다가 상시부로 안 시켜주면 한 일주일간 집에서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일주일 뒤에 입사하는 식으로 해서 임시부 6개월을 일하고 그러다가 3년 동안 임시부로 일하다보면 상시부가 되고 그랬다.

#### 사례 4 ◆ 낙반사고

대한철광시절에는 논화항 도목항 양양항 수항 탐동항 5개 항이 있었다. 가장 어려웠던 일은 죽은 사람 끌어 묻는 일이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낙반 사고, 광차 추돌 사고였다.

수항의 수직 굴 지름은 약 4~5m정도 되고, 수직으로 약 450m 정도 내려간다. 우리나라 기술진이 뚫지 못해서 독일 기술진이 와서 뚫었다. 논화항, 탐동항, 도목항, 양양항은 사항(45도 기울어 뚫은 굴)이었다.

한 50m 이상 돌이 엉켜서 안 내려와요. 그럼 화약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화약을 장전해놓고 발파를 하는데, 중간이 무너져서 피신할 곳이 없어요. 재라짱(다이내마이트)이라고 그걸 돌돌 말아서 붙여놓고 내려오는데, 뒤에는 무너져서 피신할 곳은 없지, 다이내마이트는 ‘칙 칩칙’ 타 들어가고, 돌은 죽일 듯이 차서 나오고 그러면 참 당황하고 불안했다.

수항에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산산조각이 났죠. 차장이라는 사람이 유족한테 보일 수 없다고 그래서 보여주지도 못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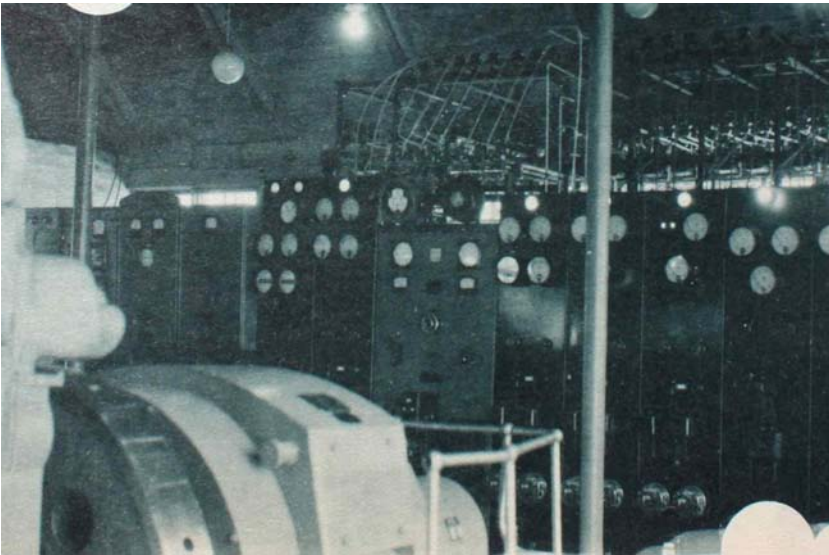
천정에서 이슬이 떨어지는데, 거기 아래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큰소리로 “피해” 라고해서 사람들이 다 피하자마자 돌이 떨어지기도 했지.

#### 사례 5 ◆ 반복되는 정전사고

처음에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광업소 자체 발전기에서 400마력짜리 2개, 900마력짜리 1개를 돌리면서 광업소 자체에 전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이



후에 한전이 전기가 들어왔는데, 1971년도에 한전에서 전기료를 올리겠다고 하루 저녁에 정전을 7번을 시키더라고, 그러니 그때는 무법천지죠. 처음 정전이 되었을 때는, 광산 전체가 정전이 되었어요. 그때 문 열고 나가면 발전소에는 밧테리 로다가 비상등이 딱 들어 오길래, 한전 전기 메다를 보니 메다가 안 떠요. 근데 그때 당시 선광 수선부들이 한 40여명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했던 큰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거기에서 광석이랑 폐석이랑 골라내요. 근데 정전이 되어서 올 스톱이니까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키스타임이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조금 있다가 보면 다시 불 들어와요. 그럼 송전을 해요 제일 급 한테가 선광 여자들 일하고 있는 곳에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줘야 해요 여자들 건드릴까봐 그리고 각 항 압기실이나 펌프실에서는 차단기 전원을 안 내리면 과부하 걸리면서 다시 전기가 떨어지니까 전기를 송전한다고 전화연락을 취하고 보낸다.



〈사진 27〉 당시 발전실 배전판 모습(1957년경)

사례 6 ◆ 야간에 전기 송전은 여자들이 일하는 선광장이 최우선이다

3번을 딱 정전되고 나니까 나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임한

데 연락하면 해서 연락받은 주임은 전기계장한테 연락하고 과장한테까지 전화가 들어가니까 과장이 한 번만 더 그러면 발전기 돌려버려라 그러더라고. 하여 송전되고 나서 5분정도 되니까 또 정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발전기 3개 다 돌리는데 제일 잘 터지는 발전기는 1호예요. 그래서 1호만 돌려놓고는 한전에서 자꾸 저러니까 밧데리는 아껴야 되니까 치워버리고 우리 수전으로 집어넣어요. 한전 스위치 다 차단 시켜놓고 그래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놓으니까 과장이랑 계장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다른 데로 송전하지 말고 여자들이 한 50명이 작업하는 선광장에만 먼저 송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발전실의 작업장은 정전이 30분만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싹 올라오게 되어있어요 비상이니까. 그런데 30분 전에 다 올라 왔더라고요.

그때 과장이 발전기를 분리시켜 주더라고요. 과장도 부애가 났지 계장도 부애가 났지 한전에 전화했더니 광업소 기계가 오작동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장이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전전기 쓰지 말자 그러고 발전기 3대를 완전 풀 가동 했는데, 1,500kw면 되니까 그냥 쓰자고 해서 일주일동안 했어요. 조수와 같이 작업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했죠.

하도 이런 곤욕을 반복적으로 치르게 되니 광업소에서는 한전전기 안 쓴다고 하고 다 떼어 가라고 하고 하기도 했다.

자격증은 계장만 갖고 있었지, 그 외에 사람은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 사례 7 ◆ 광석 선별공정 과정

선광과에는 상, 중, 하단이 있는데, 상에서는 채광에서 철을 받고, 크게 선별을 하고 난 뒤에, 중단과 하단에서 씻고, 재차 선별하는 작업과 오야뿡에서 오함마로 8인치 규격의 크기로 잘게 부스는 작업을 하였다.

오함마로 부스 광석이 아래로 빠지고 나면 다음부터는 수작업이 종료되고 기계로 작업을 하는 공정인 쪼크레샤로 조금 작게 돌을 뺏고, 그 다음 자이라 라

는 큰 멧돌에서 더 잘게 뺀 다음 그 밑에 있는 불밀기계에 들어가서 분쇄하면 가루는 밑으로 빠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선별작업을 하게 된다.

그때 당시에 월급은 공무원들보다 조금 더 낮게 받은 것 같다.

교대시간은 갑반이 08:016:00 / 을반이 16:00~24:00 / 병반이 24:00~08:00까지 이고 3교대이고 오후 22시부터 06시까지 심야수당은 기본수당의 1.2배 로테이션 들어가니까 월급의 차이는 없었다.

### 사례 8 ◆ 사고자의 시신을 가족에게 어떻게 보여줘요

항내는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7~8% 더 주었지만, 콤프레샤는 항외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다 위험수당을 더 주었다.

압기실의 콤프레샤는 500마력, 350마력, 125마력짜리가 돌아가는데 그 깜깜한 곳에서 G모씨와 K모씨는 기계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워도 깨지 않고 잘 잤다. 굴 안이 자연 통풍이 되는데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은 그 안에 또 환풍기가 또 있어요. 넓은데도 있고, 2m 되는데도 있는데 사항은 수항보다 직경이 더 적은 4m가 되는 것이 있고 6m가 되는 것이 있어요. 수항은 처음부터 수직으로 들어가고 사항은 안에서 수직으로 뚫어 있다.

수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광석이 오르내리는 광석전용이 있고, 사람이 오르내리는 임차전용 이 있는데, 광석전용 수항에서 떨어진 사람은 광석 오르내리는 수항에 발을 헛디뎠다 떨어져서 사망하였다.

광업소가 늘 적에 일요일 같은 날에 가서 일하는데, 권양공이 권양기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다가 올렸지. 그래서 산소통 맨 둘은 옆으로 떨어져서 쓰러지고 하나는 냅다 올라가니까 튼다는 게 400m 직선인 데에서 빠졌지. 살점이 다 떨어져서 창고에다가 쌓아놨는데, 유족은 그걸 보여 달라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보여줘. 전부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

양양광업소가 뭐든지 사고가 나게 되면, 높은 사람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이며 배경이 있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보고, 좀 높은 사람이면 보상을 좀 더 주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그냥 적당히 보상해주고 말았으며, 회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있어서 상대방과 말싸움 하다가 안 되면 조금 더 주더라도 그렇게 했어요.

### 사례 9 ◆ 결혼날짜 받아놓고 일 나 왔던 사람이 ....

공작명이라는 운반부가 집에서 결혼날짜가 나왔는데, 하루라도 더 벌겠다고 나왔는데 잔치 할 사람이 뭐 하러 나와 가지고 막장에서 딸딸이라고 있는데 한 쪽에서 하면 이쪽으로 떨어지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뭘 생각을 하는지 슈트 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가서 돌이 넘겨야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없잖아.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다가 대고 그 사람이 또 쏘아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래서 잔치 지내기로 한 사람이 사람 죽어서 장사를 지냈으니 얼마나 기가 맥히는 일인지...

압기실에서 내다보면 하룻밤에 둘씩 죽어나가요, 그럼 경찰서장, 소장, 경비원 들 오면 “아 오늘 또 사람이 죽었구나” 어느 날은 둘이 죽어나가고 또 어느 날에도 하나가 죽어나가고. 감독도 사다리를 타다가 죽고 그랬다.

어떤 사람이 출근 중에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여자들이 눈이 보였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원들이 살던 사택에서도 아침에 여자들이 나오질 않았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항장 할 때 유난히 사고가 많았어. 그래서 선광장에서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으면 좋게 보이기도 했다.

### 사례 10 ◆ 눈칫밥 먹는 임시부들

그때 밥도 못 먹을 때인데 광산을 다니니 밥을 먹으니 별천지지. 임시부들은

밥 먹을 때가 없어서 쪼그리고 앉아서 먹었는데, 임시부 대표와 싸움도 많이 했어요. 밥도 상시부 먹는 시간 따로 있고, 임시부는 저 땅 끝에서 빌빌 놀다가 하나 들어와서 먹던가, 아니면 저 구석에서 하이바 깔고 앉아서 먹다가 상시부들이 다 먹으면 거기서 먹고 그랬지요. 물도 임시부들이 물통에 물 받아서 갖다 놓고 그랬다.

그 당시에는 차별이 엄청 심했는데, 상시부는 트럭이나 버스타고 출근을 했지만, 임시부들은 걸어 다녔으며, 또한 임시부들에게는 쌀도 주지 않아 나중에 임시부들이 하도 항의하니까 그때부터 옷 도주고 그랬으며, 상시부들은 작업복을 한 벌씩 내 주었는데, 임시부는 바지하나 줄때 있고 윗도리 하나 줄 때 있었다.

광업소에는 영업하는 식당은 꽤 많았으며, 정육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는 것이 좀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채광부만 한 달에 고기 두 근 나누어주고, 임시부들은 고기 전표도 안 나왔다.

경비를 하다가 돈 차이가 나니까 직종을 바꾸고 채광과 향내인 도목항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그 북한 땅굴 발견한 사람은 수더분하게 일은 잘했다.

광부사택, 영화관, 목욕탕, 병원, 이발소, 약방(개인 약방), 당구장이 있었으며, 공급소는 노무자들의 직번이 있었는데, 1번 2번. 직 번만 대면 공급소에서 돈이 없어도 물건을 외상으로 살 수 있었고, 쌀도 직 번만 있으면 계속 받을 수 있고 임금이 일정부분 쌀을 신청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월급과 쌀을 함께 받았지만, 임시부들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없었다.

체육행사는 1년에 한 번 있고, 개광기념일(매년 7월 1일)에 장승분교 학교 운동장에서 했으며. 광부들을 위한 특별한 위로 행사는 없었고, 체육행사 때 사은품 없이 경기 상품을 주었으며, 막걸리는 회사에서 많은 지원을 했다.

체육 행사는 축구, 씨름, 배구, 육상 마라톤 등을 했고, 가족 단위로 했다.

노동조합에 문화부라고 있어서 연극을 초가을에 많이 했다.

광부들이라든지 관리부서에 의한 행사로 광부들의 사기를 돋우어 주었다.

## (구술자 서문리 회안식 70세)

### 사례 1 ◆ 직장예비군 훈련

1968년 1월 21일 청와대에 무장공비가 침투하자 국가에서는 국민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1968년 4월 1일 예비역 장병들로 하여금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였는데 평시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유사시에는 향토방위를 전담할 비정규군 조직인 예비군을 편성하였고 국가에서 산업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장민방위대를 조직하였는데 양양광업소의 예비군중대장은 경비주임이 담당하였으며 동원예비군은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별도로 받지 않았으며 광업소 일반예비군과 마찬가지로 광업소야외사격훈련장에서 년 2회 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사진 9-28〉 당시 사격훈련중인 황만식

## 17. 덕대 및 천양회사

### (구축자 강승리 분기용 기세)

사례 1 ◆ 광차 운반거리가 가까우면 50m 먼 곳은 5~600m

70년부터 논화항에서 목 광차(나무로 만든 광차)로 운반을 했다. 광산 굴 안에서 철광석을 붓는 슈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밑에서 광차를 대고 철광석을 빼가지고 광차로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 운반 거리 가까우면 50m 먼 거리는 5~600m나 되었다.

밖에서 전차가 끄는 광차는 4~50대 정도(2인 1광차)이고 중단별로 작업을 해도 모든 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논화항의 레벨은 그 당시 5중단은 하부중단 2개 정도 / 상부중단 3개 정도 이었고, 양양항의 레벨도 논화항과 비슷하였다.

급여는 짧은 거리가 긴 거리보다 많았다. 짧은 거리에 10차, 먼 거리에 3차를 하는 등의 기준량을 정해 놓았다.

스킵프 광차(45' 정도 기울어진 선로에 광차를 끌어 올리는 기구)에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은 자가 실려 나오는 사람을 양양항에서 본적은 있다.

기준 50m로 1개의 중단을 만드는데, 지반의 영향이나, 광석의 량에 따라 길이가 달라진다.

각 항 마다 광석 매장량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매장량의 8~90%정도 캐낸 후에는 폐석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음에 덕대로 넘겼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논화항이 덕대로 넘어 갔다.

## 사례 2 ◆ 사고가 난 자리는 절대로 안 간다

다마시[발파공]들은 대괴[현장에서 큰 덩어리 큰 암석으로 표현함]를 혼자서 어떻게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폭파를 시키는데, 밑에서 부터 시작하면 위에서 대괴들이 엉켜서 안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발파하는 사람과 폭파 뒤처리를 하는 방법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대괴들이 엉켜있을 때에 채광부는 돌이 올려 진 상태나 가만히 옆에서 상태를 보면 먼지가 떨어지거나, 돌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데 이로 위험여부를 판단한다.

양양항에서 발파공이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돌 사이에 끼우는 순간 돌이 무너지며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음조가 불안함이 존재하였으므로 채광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그 사고지점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

원 도목항에는 3번항, 4번항, 5번항, 6번항이 있고, 그 밑에 티광채가 3번항이 3개중단, 4번항이 4개중단, 5번항이 4개중단, 6번항이 3개중단, 티광채는 5개중단. 동향 쪽 방향이 제일 규모가 컸다.

### (구술자 장승리 이낙준 73세)

## 사례 1 ◆ 덕대광산의 애로사항(품위를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

처음에는 양양항 덕대에서 일하다가 논화항으로 옮기면서 감독으로 바뀌었다. 그 당시 임시부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다. 하물며 밥을 먹을 때도 고입들은 의자에서 먹는데 고입들이 밥 먹으러 와서 ‘임시부가 의자에서 밥을 먹어!?’ 하면서 쫓아내면 임시부들은 구석에서 하이바를(안전모) 깔고 앉아 밥을 먹었다.

임시부는 고입들의 기분을 맞추어주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 오야뽕에서 품위를 떠서 몇 %가 나오는데 부락을 거절하면 품위가 줄어들고 그러한 상황이 발



생하였다. 디젤 광차를 끌고 나가면 운전수보고 술을 가져오라고 한다. 술을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품위를 떨구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좋지 못한 광석이 나갔을 때 품위가 깎이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좋은 것이 나갔을 때는 술을 안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품위가 깎이는 경우가 있다.

## 사례 2 ◆ 외로운 덕대감독

제일 어려운 일은 항장, 과장 등이 있으면 도와주지만 덕대에게 완전히 맡기고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관리하는 것이 어려웠다.

덕대는 좋은 광석을 다 캐낸 후 타산이 맞지 않은 항에 대해서 하청을 주는 것인데 그 항에서 좋은 광석을 캐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사고가 발생하여 그 논화항에 들어가서 스키프로 내려가서 권양기로 광차를 끌어올리는데 권양공이 덕대사장과 같이 있다가 술을 한잔 마시고 광차를 내밀었는데 와이어를 너무 빨리 움직여서 차제에서 덜컥 걸리면서 올라오는데 로리가 두 동강이 나서 스키프가 경사를 내리 굴러서 광차를 운반하고 빈 광차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광차에 치어서 즉사하였다. 항장이 덕대감독관에게 사고 발생 현장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고 다그치고 추궁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 (구축자 청곡리 이진욱 70세)

### 사례 1 ◆ 농땡이를 피우면 힘든 작업장으로 보내

하천에서 흘러 내려온 모래와 흙을 채로 쳐서 철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었는데 채금한 것을 모아 놓으면 질통으로 쳐서 채우는 학구 띠기가 있는데, 제방 쌓는 것처럼 모으고 만표를 통해서 임금을 받았다.

자성 있는 선별기를 통해서 광석은 선별되고 나머지는 흘러 내려지게 되었고 침전지에 광석 가루가 한 가득 차게 되면, 다른 통에 넣고 다 찬 통은 차에다

신고 속초로 반출을 하였다.

1차 현장은 들들 거리에서 광산 입구까지 있었고, 2차 현장은 탑동 전체이다.

천양회사는 어기연씨가 현장 감독을 했고, 한조가 16명이 잘 해야만 수익이 발생하고 8~9부 정도 해야 하는데 5부 정도 밖에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있어 농땡이를 피우는 사람은 일을 몰아주어 힘들게 만들어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었다.

2차 현장인 탑동에는 그 골짜기가 꼭 찰 정도로 약 4~500명 정도가 일을 했고 들덕골에도 인부가 많았는데 양양사람들은 거의 다 일을 할 정도였으며 교대 없이 주간에만 일을 했다.

## 사례 2 ◆ 일공일과 도급일 그리고 학구끼기

일공과 도급일이 있었는데 탑동의 선광과 앞에서 회사에 습직으로 일했고, 여기는 일공 저기는 도급. 여기는 하루 일당제니까 놀아도 일당은 월급형식으로 일했고, 하루 120원 받다가 200원 받는 데로 옮겨갔음.

탑동에서 1일 생산량은 대략 50Ton 정도였으며 1개조 당 15학구 이상을 생산 하는데 2개조가 가동 되었으며, 질이 좋은 철을 생산했다.

쌓아놓은 철을 기계에 넣으면 흙과 일반 모래가 없이 철가루만 나오는데 철이 잘 배어있는 가루는 단단하지 않았다.

## 사례 3 ◆ 여자만 태워주는 운전수에게 골탕을

광부들이 광석을 잘 실어주지 않으면 운전수가 다 신고 갔는데 트럭 기사들이 광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빵 등을 갖다 주며 잘 보이려고 했으며, 비가 오는 등 곳은 날씨에는 트럭 기사들이 남자는 태우지 않고 여자 노동자들만 태

우고 퇴근 시켜주어서 트럭 기사를 골탕 먹일 속셈으로 한정된 이상의 광석가루를 꼭꼭 눌러서 실어 보내기도 했는데 그 기사는 속초까지 가면서 타이어 펑크가 나서 애를 먹었다고 했으며, 그 다음부터는 광석을 실어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태평실에서는 나가는 무게를 측정만 했지, 중량 과다는 적용하지 않았다.

임시직은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신체 이상이 생기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버스도 잘 태워주지도 않아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 퇴근 하는 사람이 많았다.

### 사례 3 ◆ 사향골 덕대에서 댐공사를 하다



〈사진 29〉 현재 사향골 댐 전경(2012.11)

천양회사를 그만두고 사향골 쪽에서 댐을 막으려고 골재 끌어내는 잡부 일을 했으며 진흙으로 다져서 쳐가지고 흙댐을 만들었다.

사향하고 도목향하고 논화향하고 앞으로 있는데, 향내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흘러서 물길을 바꾸기 위해서 댐을 만들게 된 것 인데 약 600m 정도의 물길을 돌리고 발파를 하고 나면 틈새로 물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물웅덩이에서 물이 차면, 몇 십m 성토를 하기도 했고 도우저가 웅덩이를 파면 물이 샘처럼 차게 되어 말기(독)를 막아 놔는데 펌프공이 물을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수렁이 된 물에 후두가 딸려 들어가서 되었고 물이 딸리면 펌프를 들어야 하는데, 펌프공이 일 처리를 하지 않아 수십 차를 파내도 물이 넘었기 때문에, 후두를 자동차로 당기니 끊어져서 물이 꿀꺽 넘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 하였는데 펌프공이 날벼락을 맞을 것 같아 그날로 도망가고 말았다.

논화향도 고구씨가 무너졌고 댐에서 숙직을 한 1년 정도 할 때, 밤에 무너져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다. 밑에는 기둥을 세우고 광석을 캐냈고 기둥을 세운 부분까지 광석을 캐내고 오래 놔두니,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져 내려 광산에서 폐석을 갖다 넣었지만 복구는 되지 않았는데 이곳이 바로 사향이다.

논화향이 고구씨도 위험해서 이곳에서 한 2달간 약 300m를 뚫기도 하였고 지반이 단단해서 뚫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정상적으로 1회에 1m 정도 해야 하지만 5~80cm 정도밖에 못했다.

착암 발파하는 과정에서 헛김이 세면 맞닿을 정도로 붙는다. 그러면 가운데를 빼내고 22발의 불 다는 순서가 따로 있고 심지가 2m 정도 되었는데 한마디 차이로 뚫는데 발파 이후에 발생하는 먼지는 후앙(훤)과 호수를 이용해서 모두 붙어 냈다.

구멍은 21~22개 정도 뚫으면, 굴진하느라 다른 데를 캐기 위해 길을 트는 작업을 한 것이었다.

다른 길이 막혔으니까 광석을 빼낼 길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 둘이서 광차에 달아놓고, 4광차 정도 퍼내다 보니, 쿵 하더니 양쪽 굴이 다 꺼지는 일도 있었고, 발파 작업은 2교대로 진행 하였으며, 교대 시간이 다 되어서는 발파 준비를 다 해놓고 퇴근을 하고 그랬다.

## 18. 노동조합

(구술자 현복면 장리 이선권 67세)

사례 1 ◆ 초창기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체제였다.

1980년 이전에는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체제로 양양광업소의 노조명칭은 “전국광산노동조합 양양철산지부”로 대표자를 지부장이라고 하였습니다. 1960년도 이전은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송기봉씨 라고 들었지요. 60년대 이후부터는 이경중→이방호→권영대순의 지부장이었고 울산광업소는 “전국광산노동조합 울산철산지부”로 결개의 지부였지요. 1980년 5.17조치로 권영대 지부장이 장기연임 중 1980년 상반기에 불명예로 퇴진 하였으며, 다음에는 총무부장 박준기씨가 호자서 양양지부 사무실에서 몇 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사례 2 ◆1980년대에는 서울 본사에서 투표를 했다.

1979년 12.12 사태이후 1980년 5.17조치로 노동법이 대폭 변경되면서 노동조합이 전국단위 산별체제에서 기업단위 노조로 전환되어 “삼미광업노동조합”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대표자를 위원장이라고 불렀답니다. 이에 “삼미광업노동조합”이 1981년 1월 27일경에 출범하게되었습니다. 이때는 서울본사에서 선거(투표)를 하였고 위원장에 문병천, 부위원장은 최선명, 이기호 두분과 총무부장에 이선권, 양양지부장은 김규섭, 울산지부장은 황규상으로 해서 노조전임자가 축소되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그 후 3년 뒤에 문병천 위원장은 회사 정년으로 연임 할 수 없어 퇴임하고 1984년 1월 28일경 김규섭 양양지부장이 이기호 부위원장과 경합해서 노조위원장에 당선되었고, 총무부장에 이동인, 양양지부장은 이선권, 울산지부장은 박경

동으로 해서 새롭게 dfladnjs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무렵 회사 명칭이 “산미광업”에서 다시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로 변경되어 노동조합도 “대한철광노동조합”으로 변경 되었지요.

그리고 3년 뒤인 1987년 1월 28일경 김규섭 노조위원장은 재임에 성공하였으나 1987, 1988년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노동자대투쟁의 소용돌이에 이용노조라는 조합원의 여론에 재임 1년여 만인 1988년 4, 5월경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하였습니다.

### 사례 3 ◆ 양양광산 노동조합의 산 증인인 최후의 노동조합위원장

1988년도 예는 이인수, 김진학, 정연홍, 박용철, 권오복 등 대의원을 구축으로 한 “대한철광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고 60년대 이 후 사라진 직선제로 규약을 개정하고 조합원의 직접선거를 1988년 6월 18일경에 양양과 울산에서 동시 실시하여 이선권, 최용규, 김승희의 3과전에서 제가 위원장에 당선 되었어요. 1990년 1월, 1993년 1월에 연이어 재선되었고, 양양광업소가 마지막 문을 닫을 때까지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광업소가 폐광에 이르자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과 협상을 2개월여 동안 주도하여 전체노동자들에게 부족할지언정 실익이 돌아가도록 최종 정리하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 19. 삭도(솔개미차) 및 기차

(구술자 성내리 노돈씨와 내곡리 김기정씨)

## 사례 1 ◆ 삭도 [속칭 : 솔개미차]

솔개미차는 기차가 다니기 한참 전에 다녔으며, 광산에서 내곡리 모로골을 가로 질러 양양 정거장까지 운반(현재 송암리)하여 조구통 같은데다 쏟아 부어 놓으면 그 이후에는 기차가 싣고 갔다.

솔개미차의 간격은 대략 30~50m 당 1대씩 있었고, 철을 옮기던 중 철광석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해방 이후 인공 때 기차는 다니지 않고 솔개미차가 몇 년 정도 다녔는데 움직이는 시간은 주로 낮에 많이 다녔다.



〈사진 30〉 당시 송암리 역전에 남아있는 조구통(2012.11)

철은 양양에서 청진 제철소로 바로 갔다. 연창에서 서울 가는 기차는 1일 2회 정도 원산을 거쳐 서울로 갔다.

청진으로 가는 기차에 화물량은 대략 5~6개 정도 화차를 연결하였다.

당시 미군 B29가 기차 및 선로를 공격할 요량으로 하늘에 떠 다녔는데 현재 내곡리 하이펠릭스 아파트 부근 모퉁이에 포탄을 떨 군 웅덩이가 생겨나기도 했다.

어느때인지 내곡리 앞에 객차가 1량 넘어져 있었으며 기차가 넘어진 후 금방 복구하지는 못했다.

당초에는 철광석을 슬개미차로 광산에서 연창 역까지 날랐으나, 이후에는 기차길을 닦은 후에 기차를 이용하여 함경북도 성진 고주파에 있는 제철회사로 갔으며, 청진에 일철(日鐵)제철소 그리고 진남포 제련소로 갔다.

북한정권 당시에는 철을 캐지 않다가 6.25전쟁 후에는 기차가 다니지 않아 자동차 트럭을 이용해서 속초청초호 부두에 부리면 삽과 리어카를 이용해서 배에 옮겨 실었다.

### (구속자 송암리 함병철씨 89세)

#### 사례 1 ◆ 광석 기차운반 증언

겨울이니까 추위도 기관차에 타며 조수가 석탄을 화차에 집어넣고 가는 증기 기관차라 굉장히 뜨거웠고, 기차가 후진방향으로 가다가 탈선하여 우측으로 밀리면서 넘어졌고, 그 때 5명이 승무원이 승차를 했는데 젊은 기관사가 많이 다치고 나머지 승무원들은 화상만 입었지 사망자는 없었다. 원산 큰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젊은 기관사는 얼마 후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때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기관사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차가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내곡리 사람들이 폭발한 주리 알고 놀랐다. 일본 순사가 당시 그물 등을 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고는 지면에 눈이 온 후라 고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기울어진 것이며, 철길을 복구하는 시간은 대략 10일정도 걸렸다.

하루에 철광석을 싣고 옮기는 횟수는 1~2회 정도이며, 매일하는 하지는 않았다.

광업소에서 철을 삭도(화물 케이블카)로 기차 적재량에 미리 실어놓으면 기차에 달아서 끌고 오기만 하면 되었다. 사고 발생 일에도 광석을 싣고 오는 길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녔다.



광업소를 왕복하는 일을 했으며 우리기차가 직접 청진으로 간 적은 없고, 철은 다른 기차에 신고 청진으로 갔으며 간혹 송암리 역에서 금강산으로 기차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이 있었다.

[송암리 함병철, 서선리 이순형, 북평리 어기연 78세 증언]

## 사례 1 ◆ 일제 때 운행한 삭도와 기차 이야기

### 1. 삭도

#### ① 운행시기

솔개미차는 현재 대한광물(주) 양양광업소에서 재개발한 양양갱 입구에서 약 150여 미터 지점 앞에서부터 당시 양양 송암리 기차역까지 1940년~1941년 경서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1945년 해방 전까지 기차와 동일한 시기에 운행하였다.

#### ② 삭도재원

솔개미차의 탑은 검은 기름을 칠한 한 아름정도의 나무로 만들었으며, 높이는 높고 낮은 지역에 따라 약 10~20m정도이고, 나무 탑과의 거리는 지형에 따라 약 50~80여m의 간격으로 탑이 세워졌으며, 로프에 매달려서가는 솔개미차와 의 거리는 약 50여m 이상의 간격으로 운행되었고 소음이 심하였다.

#### ③ 운반중량

솔개미차는 호박돌(지름20~30cm)정도 크기의 미반인 철광석을 약 1톤 정도를 운반하였다.

#### ④ 운행방식

솔개미차는 나무 탑 좌우 복선으로 시계방향 반대쪽으로 돌아가면서 운행되었고 삭도 탑에 설치된 부수기재 등의 수리를 위하여 수리공들이 솔개미차를 탑승하기도 했는데 청곡리에 사는 000 수리공이 20여m삭도 높이에서

서선리 대나무 밭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한다.

⑤ 운행시간

운행 시간은 24시간 운행을 했으며 노선의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⑥ 안전관리

솔개미차의 노선 밑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공간이나 건물 등의 시설물이 있는 지역은 안전을 도모하고자 철망을 설치 위험요소를 방지하였다.

⑦ 시설공사

솔개미차 설치공사에는 당시 서면 북평리에 살았던 어명순씨가 관여했다고 성내리 노돈씨와 북평리 어기연씨가 증언하였다.

## 2. 기차

① 개통시기

기차는 동해북부선이 1929년 9월 11일 북한 지역의 안변에서 흙곡 사이가 개통되고 1937년 12월 1일 양양까지 개통 되며 송암리 역에서 기차가 다니기 시작 했으며, 송암리에서 광업소까지의 기차노선은 1942~1943년경서부터 철광석을 운반하다가 일제가 패전을 한 후 해방과동시에 중단되었다.

② 광석운반

운반은 통상 1일 1~2회 정도 철광석을 기차의 적재차량(積載車輛)에 5~8대씩 달고 다녔고 기차가 1회 운반을 한 철광석 량(量)은 솔개미차가 24시간 동안 운반을 한 량(量)의 약 2배정도의 철광석을 운반했다고 한다.

이 솔개미차와 기차의 내용에 관한 기술은 당시 기차를 직접 운행한 승무원과 기차와 솔개미차가 동시에 운행한 내용을 목격한 분들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 하였음.

## (제보자 뉴질랜드 거주 정만철 82세)

### 사례 1 ◆ 임천리 철다리를 끈으려고 폭약을 구해달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정만철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 다녀와서 나의 고향인 양양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제때 개광했던 서면의 양양철광을 다시 개광할 예정이란 소식을 듣고 과거 내 나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이루어진 사건이 불현듯 떠올라 이를 소상히 밝혀 애국의 고장인 양양군 역사에 길이 보존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 편지를 드립니다.

내가 1944년 양양읍 내곡리에 살면서 양양공립국민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나의 집은 내곡리 철길 앞마루 첫 번째 집인데, 우리 집에 한 젊은 청년 내외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삿짐도 없이 우리집 빈방을 얻어 아무 하는 일 없이 몇 달을 살다 갔습니다. 나는 가끔 이 청년이 나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일본이 싱가포르를 함락한 후 남양군도까지 승승장구쳐 내려가고 있으니 만약 일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 조선이 독립하기가 무척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지 못하게 하려면 양양철광에서 나오는 철광석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 무기를 생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곡리에서 임천리 쪽으로 가는 철다리를 끊어버려야 한다며 나의 아버지께 양양철광에 혹시 친한 사람이 있거든 폭약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 한글도 간간히 가르쳐주었고, 콤파스를 이용하여 태극마크와 태극기 그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며 우리 조선이 독립을 해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우리 집에 세 들어 살던 젊은 청년 내외는 어디론가 떠나갔는데 아버지 말씀이 그 사람은 우리 조선의 애국 청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 청년 내외는 우리 지역에 전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 사례 2 ◆ 철길 레일의 볼트 너트를 풀어놓아 기차를 넘겨 뜨렸다.

얼마 후 여름 방학이 되었는데 우리 집 앞 철도에는 낮에만 기차가 다닐 뿐 저녁에는 다니질 않아 마을 사람들이 철길 위에 올라가 놀곤 하였습니다. 철길 위에는 모기도 없고 항상 바람이 불어 마을에 살던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철길 위에는 모기도 없고 항상 바람이 불어 마을에 살던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나 역시 철길 위해서 친구들과 놀다 이 전에 우리 집에 와 있던 애국청년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철길 레일 위에 돌을 얹어놓으면 기차가 넘어질 것이란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레일 위에 돌을 여러 개 올려놓고 왔는데 다음 날 가보면 기차가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일과 레일을 연결하는 곳에 기차역 방향으로 경사 길을 올라가면 볼트에 끼워져 있는 너트를 돌려보았더니 이상하게도 빠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트 3개를 뽑아 누가 볼까 두려워 철길 옆에 손으로 흙을 판 다음 볼트에 너트를 끼워서 묻어 놓고 레일 위에는 이전에 아무리 돌을 얹어 놓아도 되지 않기에 이번에는 레일 안쪽에 굵은 돌을 나란해 부쳐놓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오후 수업을 하는데 친구들이 나보고 너의 집 앞에서 기차가 넘어졌는데 빨리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성공을 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너무 커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사 일본사람은 더운물에 빠져 죽었고 조수였던 조선 사람은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후 경찰서에서 많은 사람이 나와 조사를 하는데 마을에 사는 젊고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모두 경찰서에 잡혀가 매를 많이 맞고 나왔습니다. 나는 어린 몸이라 의심을 받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양양철광에서 생산된 철광석은 기차로 수송되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하는 수 없이 우차를 동원해서 운반하였는데 제대로 운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크레인이 우리나라에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부산에 있고 다른 한 대는 청진에 있는데 크레인이 이곳까지 오려면 여러 달이 경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해 즉, 1945년 7월에야 겨우 크레인이 와서 기차를 끌어 올리고 8월 초에 복구가 되었으니 1944년 9월에 사고가 난 다음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철광석을 제대로 운반해 가지 못했습니다. 양양에서의 이 사건은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양양 철도 사건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으로는 나와 같이 같은 마을에 살던 김동필(속초시청 앞에서 인장포 경영 중)이란 사람이 있고, 양양국민(초등)학교 동창들이 아직도 양양에 생존하고 있는데 그때의 상황을 아련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철길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굴통로에서 당시 양양역 방향으로 30미터 정도의 선로 지점을 금속탐지기로 확인해 보면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철볼트와 너트가 끼워져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다시 그 때를 회상해보면 비록 12살의 어린 소년의 기지로 양양철광석을 지킨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양양군민의 강인한 애국정신의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되기에 양양군 역사에 영원히 남도록 기록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주소 : 2/66 Bentley Ave Glenfield Auckland Newzealand

T 001-64-9-444-8009 정 만 철

이 글은 정만철씨가 일제 때 내곡리에 살면서 어린 나이에 훌륭한 일을 하였던 당시 상황을 적어 보낸 내용으로 양양군 역사에 영원히 보존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양군수 앞으로 보낸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 20. 갈천 구룡광업소

### (구축자 갈천 엄익환 77세)

#### 사례 1 ◆ 해방 전까지 인발구로 철을 끌어냈다

1940년대 초에 갈천 구룡광업소가 있다는 내용이 양주지에 실려 있다.

그 당시 일본사람들이 들어와서 광산을 시작을 할 때 사람들이 보급대로 일본 갈 사람은 일본으로 갔지만 여기에서 대장제(일본말 가제아)를 구룡령 입구에다가 차려놓고 인부를 데려다가 굴을 노미(쇠꼬쟁이)로 100m정도를 뚫었고 노꼬가(일본말)로 나무를 잘라 동발을 해 들어갔다.

캐낸 철을 인발구로 끌어[나무로다가 소달구지처럼 만들어가지고 소 멍에 지듯이, 사람이 지고 썰매처럼 끌고 나감] 낸 후 산 중턱으로 쏟아 부은 다음에 케이블카로 아래 선광장으로 옮긴 후 선광을 해서 목탄차가 싣고 나갔는데 40년대 이전부터 해방 전까지 철을 캐냈다고 한다.

본인이 4살이 되던 이전부터 시작했고 8살 때 해방이 되었는데 구룡령 도로를 확장하는데 양양에서 보급대가 와서 일을 했다고 한다.

승량간(대장간)에 고성청 이라는 할아버지가 기구를 만들었음.

일제 강점기에는 노미로 뚫고 철을 캐지만 6.25이후에는 착암기로 했음.

일제강점기에 구룡광산에서 철을 캐낸 일은 그 당시 일을 했던 저의 부친이나 동네 어른들에게 들이 이야기 해 주었다.

#### 사례 2 ◆ 함태 광업소에서 타산이 안 맞아 중단

해방 이후, 광산이 비어 있다가 6.25이후 60년대 초 양양 광산 함태 광업소에서 인수 김세영 씨라는 분(광주 출신)이 운영을 하면서 속초 항구에다가 실어

내다가 수송 문제에 운반비가 비싸다 보니 중간에 중단하였다.

현재에도 철을 캐서 당시 선광을 해서 야적을 해 놓은 것이 있다.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외지인도 많았고 당시 노동자는 7~80명 정도 되었다. 조구통을 놓고 내려가지고 중간에서 1차 구르마로 옮기고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구룡령 입구로 옮기면 인부들이 와서 선광을 해서 차로 실어 운반을 했으며 아직도 케이블카 와이어 줄이 그대로 남아있다.

철의 질은 양양광업소도 보다 좋으나, 운반비용이 과다 소요 되어. 수지가 맞지 않아 문을 닫았음.

### 사례 3 ◆ 그 당시 사용한 화약 저장고가 아직도 남아있다

구룡령이 명산이기 때문에 굴속에서 발파하는 경우 함몰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았는데. 일본사람들은 그것을(산) 믿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음. 원형이 보존된 굴 이외에 갭도입구가 함몰된 굴 2곳이 더 있으며, 예전에 사용했던 화약고 건물 2동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제153권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4권  
『양양군지』 양양문화원 2010  
『통계년보』 양양군청 1962~1995  
『양양연감』 양양군청 1990  
『강원총람』 강원도기획관리실편 1975  
『강원문물』 강원문물편찬실 대경출판사 1973  
『한국지리 지방편』 법문사 1995  
『양양광업소 현황』 대한철광주식회사 1979  
『양양철산 종합개발계획서』 삼미광업개발주식회사 1982  
『양양철산 개발계획서』 삼미광업개발주식회사 1982  
『양양철광 평가조서』 대한광업진흥공사 1985  
『양양철산의 현황』 이경상 한국광산학회지 학술논문 1982  
『선광방법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산업대학원 학위논문 1967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자체문서 1956~1981  
삼미광업개발주식회사 자체문서 1982~1986

## 【편 찬】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 【집 필】

김재환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원 연구원  
이철수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원 연구원



## 【편 집】

이종우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장  
이규환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  
김광영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 【사 진】

김양식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

## 【교 정】

이기용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

## 【감수 및 자문】

리수실 전 양양광업소 기술부소장

## 【자료협조】

### ■ 책자, 문서, 도면 등

리수실, 이규삼, 이의삼, 이정인, 이종욱  
양양군청, 양양농업기술센터, 대한광물(주) 양양광업소

### ■ 사진제공

강교연, 김봉기, 김영록, 김주호, 리수실, 박봉균, 박정란, 백광현, 이규삼, 이상  
억, 이선권, 이용석, 이의삼, 이정인, 이종욱, 장정룡, 조덕용, 최병호, 최정근, 황  
만식 양양군청, 상평초교, 양양농업기술센터, 대한광물(주)

## 【증언자】

### ■ 광업소관련 증언

강교연, 강춘명, 김강래, 김남식, 김명열, 김상환, 김성룡, 김영록, 김재직, 김정수, 김정환, 김제동, 김종구, 김준기, 김기윤, 김진복, 김호섭, 리수실, 문기용, 박형석, 백태균, 석봉섭, 엄익환, 오상근, 오용병, 윤용호, 이강형, 이건욱, 이국형, 이규삼, 이낙준, 이달형, 이상억, 이순형, 이용석, 이의삼, 이인섭, 이일형, 이정인, 이정현, 이종욱, 이충덕, 이형섭, 임준모, 정연덕, 조덕용, 최덕실, 최병호, 최선권, 최정근, 한종성, 황만식, 황백주, 황종근 (이상 남 55명)

김기전, 김길미, 박정란, 이운자, 조방원(이상 여 5명)

### ■ 술개미차 및 기차관련 증언

김기정, 노돈, 이순형, 정만철, 함병철(이상 남 5명)

**【증보판 발행】**

양양문화원장 박상민

**【증보판 편집】**

윤여경 양양학연구소 소장

이종우 양양학연구소 고문

김재환 양양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준호 양양학연구소 연구원

김영미 양양학연구소 연구원

한상호 양양학연구소 연구원

**【자료협조】**

대한광물(주) 맥산그룹

## 양양철광산의 문화사

---

2012년 12월 20일 인쇄

2012년 12월 24일 초판 발행

2023년 10월 31일 증보판 발행

발행처 : 양양문화원

편집인 : 양양학연구소

인쇄처 : 대양프리카

(T.033-257-3400\_F.033-257-7730)

---

비매품

